

발 간 등 록 번 호

정책보고서 2018-

#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이현주·강희정·류정희·손병돈·이재원·박형준·김성아

**【책임연구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형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7. 11. 30.)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 목 차

요약 .....	1
제1장 서론: 연구개요 .....	9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3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3
제2장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과 한계 .....	7 3
제1절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	9 3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	4 4
제3장 자료의 구성과 분석틀 .....	7 4
제1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의 배경 .....	9 4
제2절 자료의 범위와 분석틀 .....	2 5
제3절 자료의 추출과 대표성 검증 .....	7 5
제4장 분석결과1: 기초분석과 제도형태별 분석 .....	1 6
제1절 소득·재산연령 등 표본의 특성 분석 .....	3 6
제2절 사회보험 가입 .....	17
제3절 공공부조: 생계급여 중심 .....	1 8
제5장 분석결과2: 소득 보장 .....	7 8
제1절 소득 보장 종합 분석 .....	9 8
제2절 노인 소득보장 .....	11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13
제4절 아동 소득보장 .....	14
제5절 장애인 소득보장 .....	16
제6절 주거와 교육보장 .....	2

제6장 분석결과3: 서비스 보장 .....	8
제1절 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 .....	8
제2절 돌봄서비스 보장 .....	8
제3절 의료서비스 보장 .....	10
제7장 종합 분석과 정책과제 .....	12
제1절 소득·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과 시사점 .....	362
제2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 후속 연구의 과제 .....	662
참고문헌 .....	273

## 표 목차

<표 2-1> 연구기관의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정리 .....	2	4
<표 3-1> 행정자료의 종류와 관리기관의 예 .....	0	5
<표 3-2> 분석 대상 사회보장제도 .....	3	5
<표 3-3> 활용된 자료 중 소득 관련 변수 .....	6	5
<표 3-4> 가구주 성별 가구 분포 비교 .....	8	5
<표 3-5>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비교 .....	9	5
<표 3-6> 가구 규모별 가구분포 비교 .....	9	5
<표 3-7> 광역시·도별 가구분포 비교 .....	0	6
<표 4-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기초분석 결과 .....	4	6
<표 4-2> 소득 분위별 가구 1차 소득과 균등화 가구 1차 소득 .....	5	6
<표 4-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	6	6
<표 4-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	7	6
<표 4-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	7	6
<표 4-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	8	6
<표 4-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 비율 .....	8	6
<표 4-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	9	6
<표 4-9>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	0	7
<표 4-1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 규모 .....	0	7
<표 4-1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 연령 .....	1	7
<표 4-12> 사회보험 가입 규모(2016년 기준) .....	2	7
<표 4-13> 직역연금 가입 규모 .....	2	7
<표 4-14>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	3	7
<표 4-1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	3	7
<표 4-16>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	4	7
<표 4-1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	4	7
<표 4-18>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 .....	5	7
<표 4-19>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분포 .....	5	7
<표 4-20>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포 .....	6	7
<표 4-21>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 .....	6	7
<표 4-2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 .....	7	7
<표 4-23>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	7	7
<표 4-24>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	8	7
<표 4-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	8	7
<표 4-26>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 .....	9	7
<표 4-27>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 .....	9	7
<표 4-2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 .....	0	8
<표 4-2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	1	8

<표 4-3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	2	8
<표 4-3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	2	8
<표 4-32>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분포 .....	3	8
<표 4-33>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 분포 .....	3	8
<표 4-3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	3	8
<표 4-3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 평균 .....	4	8
<표 4-36>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 평균 .....	4	8
<표 4-3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 평균 .....	5	8
<표 4-3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5 .....	5	8
<표 4-39>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6 .....	6	8
<표 4-40>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 .....	6	8
<표 5-1>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자료 내 소득보장제도 .....	9	8
<표 5-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 .....	0	9
<표 5-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	1	9
<표 5-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 .....	1	9
<표 5-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	2	9
<표 5-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 .....	2	9
<표 5-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	3	9
<표 5-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	4	9
<표 5-9>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	5	9
<표 5-1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	5	9
<표 5-1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	6	9
<표 5-1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	7	9
<표 5-1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 개수 .....	7	9
<표 5-1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	8	9
<표 5-1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	8	9
<표 5-16>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	9	9
<표 5-17>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 개수 .....	9	9
<표 5-1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	9	9
<표 5-1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액 .....	0	1
<표 5-20>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	0	1
<표 5-2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액 .....	1	1
<표 5-2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액 .....	1	1
<표 5-2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수급액 .....	2	1
<표 5-2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	2	1
<표 5-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액 .....	3	1
<표 5-2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액 .....	3	1
<표 5-27> 2018년 기초보장제도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	4	1
<표 5-28> 2017년 현재 공적 연금 수급자 현황 .....	5	1



<표 5-29> 노인가구주 가구의 1차 소득 10분위별 분포 .....	6·0·1
<표 5-30> 노인가구주의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 수급율 .....	7·0·1
<표 5-31> 노인 연령 및 1차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 평균액 .....	9·0·1
<표 5-32>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분포 .....	0·1·1
<표 5-33>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수급율 .....	1·1·1
<표 5-3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소득보장 급여 수급 수 .....	2·1·1
<표 5-35> 1차 소득 10분위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가구주 가구 대상 기초연금 급여 평균, 중위값 .....	3·1·1
<표 5-36> 연령 및 소득 10분위별 노인 분포 .....	5·1·1
<표 5-37> 노인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 .....	6·1·1
<표 5-38> 노인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의 평균액, 중위액 .....	7·1·1
<표 5-39> 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포 .....	9·1·1
<표 5-40> 1차 소득 10분위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율 .....	0·2·1
<표 5-41> 1차 소득 10분위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 수 .....	1·2·1
<표 5-42>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평균, 중위값 .....	2·2·1
<표 5-43> 노인의 성별, 지역별 분포 .....	4·2·1
<표 5-44> 노인의 성별, 지역별 사회보장 수급율 .....	5·2·1
<표 5-45> 노인의 성별, 지역별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 .....	6·2·1
<표 5-46> 빈곤여부별 노인 분포 .....	6·2·1
<표 5-47> 빈곤여부별 사회보장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 .....	7·2·1
<표 5-48> 빈곤여부별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 .....	7·2·1
<표 5-49> 노인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8·2·1
<표 5-50> 노인의 연령 및 성별 사회보장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 .....	9·2·1
<표 5-51> 노인의 연령 및 성별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 .....	9·2·1
<표 5-52> 1차 소득 중위 40% 기준 빈곤율 완화 효과 .....	0·3·1
<표 5-53> 1차 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 .....	1·3·1
<표 5-54> 1차 소득 중위 40% 기준 빈곤율 완화 효과 .....	2·3·1
<표 5-55> 1차 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 완화 효과 .....	3·3·1
<표 5-5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 분포 .....	4·3·1
<표 5-5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 분포 .....	5·3·1
<표 5-5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자 비율 .....	5·3·1
<표 5-5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	6·3·1
<표 5-6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자 비율 .....	6·3·1
<표 5-6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	7·3·1
<표 5-6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가구비율 ...	8·3·1
<표 5-6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수급(가입)가구수 평균 ...	8·3·1
<표 5-6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평균 급여액 .....	3·3·1
<표 5-6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가구비율 ...	9·3·1
<표 5-66>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수급(가입)가구수 평균 ...	9·3·1
<표 5-67>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평균 급여액 .....	4·3·1

<표 5-6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가구비율 ... 1	1
<표 5-6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수급(가입) 계수 평균 ... 1	1
<표 5-7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평균 급여액 1.....4..... 1	1
<표 5-71>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급여부 .....2.....4..... 1	1
<표 5-72>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 .....2.....4..... 1	1
<표 5-7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가처분소득 .....3.....4..... 1	1
<표 5-7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가처분소득 .....3.....4..... 1	1
<표 5-7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가처분소득 .....3.....4..... 1	1
<표 5-76>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541	1
<표 5-77> 연령별 양육수당 .....641	1
<표 5-78>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7.....4..... 1	1
<표 5-7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41	1
<표 5-80> 아동인구의 연령별 분포 .....051	1
<표 5-81> 아동의 성별 분포 .....051	1
<표 5-82> 아동의 지역규모별 분포 .....051	1
<표 5-83> 아동의 시도별 분포 .....151	1
<표 5-84> 만 18세 미만 아동의 장애등급별 분포 .....1.....5..... 1	1
<표 5-85> 아동가구의 아동연령별 분포 .....2.....5..... 1	1
<표 5-86> 아동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 .....2.....5..... 1	1
<표 5-87> 아동가구의 지역별 분포 .....351	1
<표 5-88> 아동가구의 시도별 분포 .....351	1
<표 5-89> 18세 미만 아동가구 분위별 소득 .....4.....5..... 1	1
<표 5-90> 18세 미만 아동가구의 균등화소득 분포 .....4.....5..... 1	1
<표 5-91> 18세 미만 아동가구의 재산 분위별 분포 .....5.....5..... 1	1
<표 5-92> 아동가구 소득과 재산 분포 .....5.....5..... 1	1
<표 5-93> 전체가구 소득과 재산 분포 .....6.....5..... 1	1
<표 5-94> 아동가구의 가정양육수당수급 .....7.....5..... 1	1
<표 5-9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여부 .....8.....5..... 1	1
<표 5-9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여부 .....8.....5..... 1	1
<표 5-9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9.....5..... 1	1
<표 5-9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9.....5..... 1	1
<표 5-99>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여부 .....0.....6..... 1	1
<표 5-10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여부 .....0.....6..... 1	1
<표 5-10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1.....6..... 1	1
<표 5-10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1.....6..... 1	1
<표 5-10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양육수당 수급여부 .....2.....6..... 1	1
<표 5-10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여부 .....3.....6..... 1	1
<표 5-10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3.....6..... 1	1
<표 5-10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4.....6..... 1	1

<표 5-107>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수급 .....	5·6·1
<표 5-108> 아동가구의 생계급여수급 .....	5·6·1
<표 5-109> 아동가구의 의료급여수급 .....	5·6·1
<표 5-110> 아동가구의 주거급여수급 .....	6·6·1
<표 5-111> 아동가구의 교육급여수급 .....	6·6·1
<표 5-112> 아동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기초보장수급가구 .....	6·6·1
<표 5-113> 아동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총수 .....	7·6·1
<표 5-11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인 가구의 분포 .....	8·6·1
<표 5-11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인 가구의 분포 .....	8·6·1
<표 5-11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분포 .....	8·6·1
<표 5-11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 관련 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의 분포 .....	9·6·1
<표 5-11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 관련 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의 분포 .....	9·6·1
<표 5-11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애 관련 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의 분포 .....	0·7·1
<표 5-120>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 .....	0·7·1
<표 5-12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 .....	1·7·1
<표 5-122>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 .....	1·7·1
<표 5-12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	2·7·1
<표 5-12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	2·7·1
<표 5-12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월세 가구 분포: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	3·7·1
<표 5-12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월세 가구 분포: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	3·7·1
<표 5-12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 .....	4·7·1
<표 5-12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 .....	5·7·1
<표 5-12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 .....	5·7·1
<표 5-13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 .....	6·7·1
<표 5-13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 .....	6·7·1
<표 5-13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초·중·고 재학생 가구 .....	7·7·1
<표 5-133>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초·중·고 재학생 가구 .....	7·7·1
<표 5-13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초·중·고 재학생 가구 .....	7·7·1
<표 5-13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 수급가구 비율 .....	8·7·1
<표 5-13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수급가구 비율 .....	8·7·1
<표 5-13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수급가구 비율 .....	9·7·1
<표 5-13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	9·7·1
<표 5-139>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	9·7·1
<표 5-14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	0·8·1
<표 6-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서비스 수급 개수 평균 .....	4·8·1
<표 6-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서비스 수급 개수 평균 .....	4·8·1
<표 6-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서비스 수급 개수 평균 .....	5·8·1
<표 6-4> 노인요양서비스를 1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소득·연령별 분포 .....	6·8·1
<표 6-5> 8가지 요양서비스를 1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재산·연령별 분포 .....	7·8·1

<표 6-6> 8가지 요양서비스를 1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소득·재산별 분포 .....	7·8·1
<표 6-7> 8가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수급액 분포: 소득·연령별 .....	8·8·1
<표 6-8> 8가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수급액 분포 : 재산·연령별 .....	9·8·1
<표 6-9> 8가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수급액 분포: 소득·재산분위별 .....	0·9·1
<표 6-10> 노인요양서비스의 신청자 현황 .....	2·9·1
<표 6-11> 노인요양서비스의 신청자의 소득·재산별 분포 .....	3·9·1
<표 6-12> 노인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	4·9·1
<표 6-13> 시설요양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	5·9·1
<표 6-14> 요양등급별 시설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	6·9·1
<표 6-15> 방문요양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	6·9·1
<표 6-16> 요양등급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	7·9·1
<표 6-17> 기타재가급여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	8·9·1
<표 6-18> 요양등급별 기타재가급여서비스 이용 현황 .....	8·9·1
<표 6-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	9·9·1
<표 6-20> 요양등급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황 .....	9·9·1
<표 6-21> 장애인서비스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표본 분포 .....	1·0·2
<표 6-22> 장애인서비스의 수급조건 및 내용 .....	1·0·2
<표 6-23> 장애인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	2·0·2
<표 6-24> 성별·시군별 장애인서비스의 이용 현황 .....	2·0·2
<표 6-25> 장애등급·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의 이용 현황 .....	3·0·2
<표 6-26> 연령·소득·재산 등급별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현황 .....	4·0·2
<표 6-27> 장애등급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	5·0·2
<표 6-28>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	6·0·2
<표 6-29> 소득·재산 분위별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 현황 .....	8·0·2
<표 6-30> 장애등급·장애유형별 발달재활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	9·0·2
<표 6-31> 장애등급·장애유형별 발달재활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	9·0·2
<표 6-32> 의료서비스 이용 변수 .....	112
<표 6-33> 건강보험 고액진료비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사인코드와 질환명 .....	2·1·2
<표 6-34> 대상자 특성별 전체 의료기관 의료 이용 분포와 비율 .....	3·1·2
<표 6-35> 대상자 특성별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 빈도 .....	5·1·2
<표 6-36> 이용자 특성별 의료비 현황 .....	9·1·2
<표 6-37> 소득 분위별 건강검진 수급자 현황 .....	3·2·2
<표 6-38> 소득 분위별 연령별 지난 2년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분포 .....	3·2·2
<표 6-39> 소득 분위별 연령별 지난 2년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비율 .....	4·2·2
<표 6-4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분포 .....	4·2·2
<표 6-41>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비율 .....	5·2·2
<표 6-42>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분포(전체 의료기관) .....	6·2·2
<표 6-43>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	6·2·2
<표 6-44>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분포(전체 의료기관) .....	7·2·2

<표 6-4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8	2
<표 6-46>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분포(상급종합요양기관)	9	2
<표 6-47>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9	2
<표 6-48>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분포(상급종합요양기관)	0	3
<표 6-49>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0	3
<표 6-50>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분포(공공의료기관)	1	3
<표 6-51>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2	3
<표 6-52>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분포(공공의료기관)	3	3
<표 6-53>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3	3
<표 6-54> 소득 분위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4	3
<표 6-5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4	3
<표 6-56>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외래 방문횟수	5	3
<표 6-57>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입원건당 재원일수	6	3
<표 6-58>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외래 진료비(이용자기준)	6	3
<표 6-59>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입원 진료비(이용자기준)	7	3
<표 6-60>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외래 방문횟수(이용자기준)	7	3
<표 6-61>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입원건당 재원일수(이용자기준)	8	3
<표 6-62>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외래 진료비(이용자기준)	8	3
<표 6-63>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입원 진료비(이용자기준)	8	3
<표 6-64>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9	3
<표 6-6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비 분율	0	4
<표 6-66> 소득 분위별 연령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1	4
<표 6-67>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	2	4
<표 6-68> 소득 분위별 연령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2	4
<표 6-69>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비율	3	4
<표 6-70>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중증질환자, CCI $\geq$ 2)	3	4
<표 6-71>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중증질환자, CCI $\geq$ 2)	4	4
<표 6-72> 소득 분위별 연령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중증질환자, CCI $\geq$ 2)	5	4
<표 6-73>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중증질환자, CCI $\geq$ 2)	4	2
<표 6-74> 소득 분위별 연령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중증질환자, CCI $\geq$ 2)	6	4
<표 6-7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중증질환자, CCI $\geq$ 2)	4	2
<표 6-76> 가구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당 연간 의료기관 총 진료비	5	5
<표 6-77> 역치 수준에 따른 소득 분위별 연령별 과부담의료비 가구 비율	7	5
<표 7-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	4	6
<표 7-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	5	6
<표 7-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	6	6

## 그림 목차

[그림 5-1] 한부모가족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분포 .....	8·4·1
[그림 5-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2001-2016) .....	9·4·1
[그림 5-3]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재산과 소득분포 .....	2·6·1
[그림 6-1] 소득 및 재산 수준별 1인당 평균 수급액 비중 분포 .....	1·9·1
[그림 6-2] 의료이용 변수별 연령 구간별 합계 비중(%) .....	4·1·2
[그림 6-3] 의료이용 변수별 소득 10분위 구간별 합계 비중(%) .....	4·1·2
[그림 6-4]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령구간별 의료이용 변수 합계의 비중(%) .....	6·1·2
[그림 6-5] 상급종합병원에서 소득 10분위 구간별 의료이용변수 합계의 비중(%) .....	6·1·2
[그림 6-6] 전체의료기관에서 동반상병지수(CCI)에 따른 의료이용변수 합계 비중(%) .....	7·1·2
[그림 6-7]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반상병지수(CCI)에 따른 의료이용변수 합계 비중(%) .....	7·1·2
[그림 6-8]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연간 일인당 외래방문일수와 입원재원일수 비교 .....	8·1·2
[그림 6-9] 연령구간별 분야별 의료비 지출의 구성비(단위: %) .....	0·2·2
[그림 6-10] 소득 분위별 분야별 의료비 지출 구성비(단위: %) .....	0·2·2
[그림 6-11]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연간 진료비 구성(%) .....	1·2·2
[그림 6-12]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연간 일인당진료비 비교 .....	1·2·2
[그림 6-1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비율(단위:%) .....	5·2·2
[그림 6-14]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	7·2·2
[그림 6-1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	8·2·2
[그림 6-16]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	9·2·2
[그림 6-17] 소득*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	1·3·2
[그림 6-18]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	2·3·2
[그림 6-19]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	3·3·2
[그림 6-20] 소득 분위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비율(%) .....	5·3·2
[그림 6-21] 소득과 연령 구간별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 대비 진료비 점유율(%) .....	8·4·2
[그림 6-22] 소득과 연령 구간별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 대비 진료비 점유율(%, CCI≥2) .....	2·5·2
[그림 6-2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당 연간 의료기관 총진료비 .....	6·5·2

## 제1장 서론: 연구개요

### □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포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보장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사회정책의 환경변화가 매우 빠르고 커서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적 설계가 요구됨.
-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여야 함.
  -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제도의 혼합 등 이후의 거시적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
- 본 연구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분석
  - 여러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여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긴요

###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 현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을 분석
    - 제도의 대상포괄성을 분석의 초점으로 하고 제도적 배제의 위험을 파악
  -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과제를 정리
  -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의의와 이후 행정자료 활용에서 고려할 점을 정리
-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임.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각종 사회보장 급여 수급 정보를 연결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
  - 문헌연구도 병행.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의 기반과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하여 검토
  - 분석대상 제도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여러 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

## 제2장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과 한계

- 평가주체, 평가대상제도, 평가틀,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을 분석
  - 평가주체와 연구의 내용을 보면, 개인 연구자의 연구 중에는 정책 평가의 연구방법론과 정책기획에 대한 분석이, 연구기관의 연구 중에서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다수
  - 평가대상제도를 중심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로 개별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노인 혹은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 제도, 고용안정 제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제도군 대상 평가도 다수 진행되어 왔음.
    - － 최근 서비스지원에 대한 평가가 증가 추세임.
  - 분석틀을 보면 개별제도 평가인 경우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된 반면, 제도군 평가에서는 대상포괄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분석에서 활용된 자료는 정부의 집계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하되, 2000년대 중반 이후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연구가 증가하면서 연구업적을 축적해왔으나, 활용자료와 관련해 다음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기존 정책평가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소득보장이나 서비스보장, 그리고 소득보장에서도 수당·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분석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초래함.
  - 셋째, 분석틀, 분석의 원리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에 대한 강조가 최근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음.
  - 넷째, 기존의 평가연구 중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했는데,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포괄성과 정확성에서 한계를 지님.
- 이 연구는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님.
  - 첫째,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며 분석에서 활용하는 행정 빅데이터가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여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에 대한 포괄 범위가 넓음.
  - 둘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전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 포괄성 취약지점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임.
  - 셋째, 본 연구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



### 제3장 자료의 구성과 분석틀

#### □ 행정 빅데이터 활용의 배경

- 기존 정책 평가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설문조사 자료는 정보의 포괄성과 정확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
  - 자료 생산의 비용이 크고 최근에는 응답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자료 생산의 어려움은 자료의 정확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와 함께 정보의 불충분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음.
  - 특히 통계청 등의 분야별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회정책 평가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님.
- 최근 일부 연구에 한정하여 행정자료의 활용이 추진 중에 있음.
  - 아직 초보적 단계의 활용에 한정되지만 행정자료의 활용은 기존의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을 지니게 됨.
-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이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음.
  - 개별 제도 및 제도군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
  - 정확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행정자료는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표본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분석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개별 설문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정보를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
  - 행정자료는 대체로 전 국민, 전 가구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규모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 강점을 지님.

#### □ 자료의 구성

- 사회보장제도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분석 제도 및 필요 정보의 범위 검토
- 가능한 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제도 전반,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 서비스를 망라하여 분석대상으로 주요 제도를 포괄하는 것을 지향
- 현금과 서비스 지원을 포괄하며, 욕구 영역을 중심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돌봄 영역의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포함
  - 첫 번째 종합적 분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도, 성격 상 의미가 큰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수를 한정

- 정보의 수집은 욕구영역이나 제도군 별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3-4개 정도 선별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
- 후속 연구에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기대
- 중앙정부 지원으로 한정하고, 대출 지원은 제외
- 정보의 내용은 제도별로 수급여부와 수급수준(수급기간이나 급여액)을 중심으로 구성
- 정보의 기준 시점은 2016년 10월 말로 설정
  - 수급기간이 필요한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수급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함.
  - 급여액은 2016년의 총 수급 급여액을 기준

#### □ 분석틀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종의 지형분석으로, 분석의 초점은 개별 제도의 효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포괄성에 둬.
  - 현금과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분석
    - 대상포괄성은 해당 전 가구 또는 전 인구 중 수급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 해당 비율이 높으면 대상포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대상 포괄성은 수급여부와 함께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가 클수록 생활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
    - 급여여부, 수급하는 제도 수와 더불어 평균 급여액도 분석.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보조적 정보로 활용
  - 급여 충분성은 욕구의 수준을 가정할 수 있는 일부 제도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
- 기본 분석틀은 연령, 소득, 재산 기준으로 구성, 특히 연령과 소득을 중심으로 구성
  - 연령은 5세 이하 아동, 중학교까지의 아동, 19세 이하, 39세 이하, 55세 이하,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구분, 단 개별 분석에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연령구분을 달리함.
  - 소득과 재산은 10분위로 구분
    - 소득은 1차 소득을 기준 소득으로 활용
  - 소득과 (가구주)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위별 수급포괄성 등 분석
    - 소득과(가구주)연령으로 구분된 집단별 수급여부, 수급하는 제도의 수, 수급수준(급여액) 분석
    - 재산과(가구주)연령으로 구분된 집단별 수급여부, 수급하는 제도의 수, 수급수준(급여액) 분석
    -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된 집단별 수급여부, 수급하는 제도의 수, 수급수준(급여액) 분석

#### □ 자료의 추출과 대표성 검증

-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DB 추출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자료를 결합한 자료임.
  - 소득 10분위와 연령기준 집단 구분을 고려하여 총 80개 분석 셀을 분석의 기본 구조로 전제하고 각 셀별 유효표본수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표본의 크기를 설계
  - 이러한 배경에서 표본의 규모는 전체 행정자료 상 가구의 약 5%로 표본 추출률을 설정
- 표본의 추출은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 규모,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각 층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DB의 가구 중 5%의 가구를 단순무작위 추출
  - 표본추출 시점은 2016년 10월 말기준이며 표본추출 단위는 가구임.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기준이 되는 행정전산망의 세대 단위를 준용
  - 추출된 5%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모두 추출하여 개인 단위 자료를 구축한 후 가구 아이디를 기준으로 가구 단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결합하여 구성
- 표본추출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표본 수는 1,129,696 가구, 2,922,235명
  - 표본의 대표성 확인을 위해 추출 단위인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2016년 인구센서스 통계 결과와 비교
  - 가구주의 성별 가구 분포,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지역별 가구 분포를 비교한 결과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 제4장 분석결과1: 기초분석과 제도 형태별 분석

#### □ 소득·재산·연령 등 표본의 특성

- 본 연구에서 활용된 행정 빅데이터의 소득은 소득하위 분위, 1분위와 2분위를 구분하지 못함.
  - 분석에 활용된 행정 자료는 사적이전소득의 부재와 재산소득 일부 미완이라는 한계를 지님. 결과적으로 사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구성에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함.
  - 본 연구에서 대상포괄성을 분석하는 소득기준은 1차 소득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
- 재산은 재산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를 구분하지 못함.
  - 분석에 활용된 행정 자료에서 재산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의 과세표준액으로 구성됨.

- 금융재산은 누락되어 있음. 금융재산 중 전·월세보증금도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에게만 존재하여 반영하지 못함.
- 이러한 이유로 낮은 재산분위의 가구 중 금융재산이 높은 가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음.

○ 기타 표본의 특성

- 가구 규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임. 평균 가구규모는 약 2.6명, 소득 하위 1분위는 1.8명이었음.
- 낮은 소득의 평균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재산 1-3분위에서는 젊은 연령의 가구주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분포를 근로연령층 중 가입자를 중심으로 분석

- 소득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 인구집단 중 가입자 비율로 분석
- 통상 사회보험가입률 분석과 모수처리가 상이할 수 있음.
- 개인단위로 사회보험 1개 이상 가입자를 분석하면, 낮은 소득 분위, 34세 이하 청년집단에서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낮음.
- 가구 단위로 사회보험 1개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소득 3분위 이하까지는 낮음.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가구주 가구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를 보면 소득 3분위 이하의 가입자 비율은 낮았고 2분위 이하의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았음.

- 반면 5분위 이상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높았음.
- 연령층으로 보자면 30~50대까지의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연령계층의 가입자 비율이 낮았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분포를 보면 소득 3,4분위에서 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비율이 높음. 35세 이상,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고용보험은 낮은 소득 분위, 특히 소득 3분위 이하, 23세 이하에서 가입자 비율이 낮았음.

- 24-34세 연령은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높았으나 하위 소득 분위와 상위 소득 분위의 가입률 차이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더욱 컸음.

○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여타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중 가장 낮았음.

-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는 여타 사회보험과 유사하지만 다른 연령대 대비 20대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 하위 분위에서 산재보험가입자 비율이 낮았고 특히 소득 3분위 이하에서는 가입률이 크게 낮았음.
- 국민연금직장 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를 비교한 결과, 51-64세 연령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보다 낮았음
  - 35-50세 연령에서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이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과 비교하여 크게 높았음.

#### □ 공공부조: 생계급여 중심

- 생계급여 수급자 있는 가구는 전체 표본가구의 5.45%, 생계급여 수급자는 표본의 3.23%였음.
- 소득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분포를 보면 1-2분위에서 비율이 높음.
  - 생계급여는 낮은 소득 분위, 아동가구주,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포괄성이 높았음.
- 개인 단위 분석에서는 소득 1-2분위, 75세 이상, 노인, 10대에서 수급률이 높았음.
  - 소득 분위별·재산 분위별 수급자 분포를 보면 소득 분위보다 재산 분위가 상대적으로 수급자 분포에 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재산기준이 소득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관대하였던 것이 이유로 추정됨.
- 집단별 평균 생계급여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 1-2분위의 급여액이 높고 10대 이하 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수급액이 높은 반면 29-30대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은 매우 낮음.
- 공공부조 수급의 종합 분석으로 생계, 주거, 교육,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의료급여 제외<sup>1)</sup>) 공공부조 수급가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조 제도 중 하나라도 수급 받는 가구는 소득 1-2분위에서 수급 비율이 높음.
  - 20-30대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율이 낮았음. 반면 노인 가구주 가구는 높은 수급율을 보임.
  - 재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분석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위 재산 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공공부조제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산기준에 대한 관대성이 커지는 때문으로 추정.

1) 빈곤 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구분이 어려워 공공부조 분석에서 제외

## 제5장 분석결과2: 소득보장

### 1. 소득보장 종합 분석

#### □ 분석대상 제도와 분석결과의 해석

- 분석이 가능한 소득보장제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분석을 시도
- 분석에 포함된 소득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음.
  - 공공부조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기초), 자활장려금(차상위)
  -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초중고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훈급여금
  - 사회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
- 제도의 포괄성은 각 집단 별 급여의 수급을 기준으로 판단.
  -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각 집단별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으면 해당 집단에서 제도 포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는 제도의 포괄성을 범위 뿐 아니라 제도의 수급을 심도까지 고려하는 포괄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소득보장제도 대상포괄성 종합 분석결과

-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를 기준으로 소득보장의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분위에서 소득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공공부조제도와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수당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20대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매우 낮음.
- 재산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재산 6,7,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가구의 비율이 낮음.
  - 재산 10분위는 1개 이상 수급하는 가구가 15.54%로 수급비율이 높는데 이는 사회보험과 수당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
  - 재산 분위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소득보장제도 1개 이상 수급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24-50세의 재산 6,7 분위 이상의 가구에서 수급비율이 낮음.
  - 21-34세의 경우에는 낮은 재산분위에서도 수급가구의 비율이 낮음.
  - 수급하는 제도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35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 재산 5분위 이하의 가구에서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가 평균을 넘고 있음.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을 1개 이상 제도의 수급여부를 중심

으로 보면, 높은 재산분위에서도 포괄성이 높았음.

- 반면 높은 소득분위에서는 재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더 낮아짐.

○ 사회보험가입과 현금급여수급으로 대상포괄성을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20-50대 가구주 가구는 주로 사회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포괄성이 높고 노인은 주로 사회보장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포괄성이 높은 대조적 특징을 보임.

-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로 20-50대 가구주의 저소득가구는 사회보험가입과 사회보장현금급여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도 포괄성을 보임.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소득 및 재산 하위구간에서는 사회보장현금급여 포괄성이 높고, 소득 및 재산 상위분위에서는 사회보험가입 포괄성이 높음.

○ 각 소득보장제도가 제도 포괄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선별적 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적 수당수급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수급제도의 수를 기준으로 대상 포괄성을 분석

- 공공부조수급은 연령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하위소득분위 가구에서 대상 포괄성이 높았음.

- 선별적 수당 수급을 추가하여 수급제도의 수를 보면 20대 가구주 가구는 포괄성이 낮으나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다소 높은 소득분위의 가구까지 대상 포괄성이 높아짐. 기초연금의 효과로 추정

- 사회보험급여를 추가하여 분석하면, 20대 가구주 가구의 대상 포괄성은 여전히 낮으나 노인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매우 높아짐, 연금수급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

- 공공부조, 선별적 수당,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을 포괄하여 보아도 여전히 20대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매우 낮음.

- 재산분위별·가구주 연령별 분석결과와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분석결과와 대부분 유사. 낮은 재산 구간의 20대 가구주 가구와 30대 가구주 가구에서 대상 포괄성이 낮음.

○ 수급액을 기준으로 수급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공부조 수급액 기준으로는 수급현황을 보면 소득하위분위에서 가구주 전 연령에서 높은 급여수준을 보이지만, 소득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석하면, 20-50대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 수준이 낮아지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분석에서는 공공부조와 선별적 수당까지는 낮은 소득구간, 재산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대상 포괄성이 높지만 사회보험급여를 추가하면서 재산 상위분위에서 대상 포괄성이 매우 높아짐.

- 수급액을 기준으로 보자면 소득 3분위 이상, 재산 7분위 이하에서 대상 포괄성이 낮음.

## 2. 노인 소득보장

### 가. 노인 가구주 가구 대상 사회보장 수급 현황 분석

-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층에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음.
  - 1차 소득 기준 10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2분위에 44.9%, 5분위 이하에 무려 78.8%가 분포되어 있음.
  - 저연령 가구주(65-74세) 가구보다 고연령 가구주(75세 이상)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더 높음(고연령 가구주 가구의 2분위 이하 비율은 62.0%임).
-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재산 분포는 재산이 많은 노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임.
  - 재산이 가장 적은 재산 하위 1-3분위에 31%가 속해 있고, 재산이 가장 많은 상위 10분위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도 17%나 됨.
- 저연령 가구주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수급율이 높고,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수급율이 높음.
  - 저연령 가구주 가구들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32%, 기초연금 수급율은 53.9%,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 관련 급여 수급율은 5.9%, 공적 연금 수급율은 62.3%
  -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22.4%, 기초연금 수급율은 74.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율은 10.0%, 공적 연금 수급율은 28.0%임.
  - 저연령 가구주 가구들의 기초보장 수급액은 연평균 57만원, 장애 관련 급여 수급액은 연평균 9만원, 기초연금은 139만원, 공적 연금은 531만원인데
  -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의 기초보장 수급액은 연평균 99만원, 장애 관련 급여는 14만원, 기초연금은 206만원, 공적 연금 수급액은 연평균 226만원임.
  - 사회보장 급여를 1개 이상 받는 비율은 저연령 가구주 가구들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90% 이상인데 반해,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은 7분위 이상 분위에서 70%가 안 됨.
- 소득과 재산분위별 노인의 소득보장 수급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율을 보면 기초보장은 소득 3분위 이하이면서 재산 5



분위 이하 가구들에서만 수급율이 15%를 넘고, 기초연금은 소득 4분위 이하면서 재산 7분위 이하인 가구들에서만 수급율이 70% 이상

- 공적 연금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수급율이 높아짐. 소득 6분위 이상, 재산 7분위 이상인 가구들은 공적 연금 수급율이 70% 이상
-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재산 8분위 이하까지는 90% 이상의 높은 수급율을 보이고, 재산 9분위는 85%, 10분위는 76% 수준.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 급여를 하나 이상 받는 비율을 보면, 3분위까지는 90% 수준, 4-9분위는 80% 수준, 10분위는 79% 수준임.

□ 급여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소득 2분위 이하, 재산 3분위 이하에 속하는 노인가구주 가구는 기초보장 급여를 연간 평균 230만원을 수급하여 가장 수급액이 높았음.
- 기초연금은 소득 3분위 이하, 재산 8분위 이하 가구들과 소득 4·6분위, 재산 6분위 이하 노인 가구주 가구들이 연 평균 244만원을 수급, 나머지 분위에 속한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기초연금 급여 평균값은 연간 200만원미만.
- 공적 연금은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급여액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임.
- 전체 공적 이전 평균값도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 재산 5분위 이하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공적 이전 연평균은 500만 원대, 6분위는 669만원, 7분위는 788만원, 9분위는 928만원, 10분위는 942만원.

#### 나. 노인 개인 대상 사회보장 수급 현황 분석

- 전체 노인의 36%는 1차 소득 10분위 중 2분위 이하에 속하며, 75세 이상 노인 중 45.6%가 2분위 이하에 속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밀집되어 있음.
- 노인은 낮은 재산 분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음. 재산이 가장 많은 재산 10분위 노인 비율이 18%로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편.
- 소득분위·가구주연령별 사회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의 9.3%가 기초보장 급여를 수급, 장애 관련 급여는 4.3%, 기초연금은 62.3%, 공적 연금은 35.6%가 수급.
- 기초연금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급율이 높고, 공적 연금은 65-74세 노인의 수급율이 높음.
- 65-74세 노인 중 1차 소득 1분위 노인은 기초연금의 수급율이 70%를 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율은 낮아져, 수급율이 50%를 넘는 소득분위는 4분위 이하.

- 7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급율은 1-9분위 까지 거의 70%에 달하며, 특히 1분위의 지급율은 85.4%에 달함.
- 공적 연금의 지급율은 65-74세 노인의 경우, 2분위 이하 노인을 제외한 노인은 50-60% 수준인데 반해, 7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지급율은 10-20% 수준.
-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노인의 비율은 65-74세 노인과 75세 이상 노인 이 유사.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급율이 낮아짐. .
-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사회보장 급여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급여들의 평균값은 75세 이상 노인 집단이 높고, 공적 연금은 65-74세에서 높음.
  - 65-74세 노인의 기초보장 급여 연 평균값은 32만원, 기초연금 급여 평균값은 109만원, 공적 연금의 평균값은 350만원, 총 공적 이전의 평균은 495만원임.
  - 75세 이상 노인의 기초보장 급여 연 평균값은 52만원, 기초연금 급여 평균값은 172만원, 공적 연금의 평균값은 129만원이고 총 공적 이전 평균은 359만원임.
- 소득분위·재산분위별 사회보장 지급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음.
  - 기초보장 지급율은 소득 2분위 이하, 재산 5분위 이하 노인과 소득 3분위 이하, 재산 2분위 이하 노인집단에서 10% 이상 지급.
  - 기초연금의 지급율은 소득 및 재산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짐. 공적 연금의 지급율은 소득 및 재산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짐.
    - 기초연금의 지급율은 소득 8분위, 재산 7분위까지는 70% 이상. 이상의 분위에서는 급격하게 지급율 저하.
  - 공적 연금의 지급율은 재산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재산 3분위 이하 20.2%, 재산 4분위는 22.3%, 재산 5분위는 30.2%, 재산 6분위는 37.2%, 재산 7분위는 40.5%, 8분위는 43.0%, 9분위는 46.3%, 10분위는 49.5%임.
  - 공적 이전 총합의 지급율은 소득 및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연간 기초보장 평균 급여액이 100만원을 넘는 노인 집단은 소득 2분위 이하, 재산 4분위 이하 분위에 속한 노인뿐
  - 기초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재산 9, 10분위에 속한 노인을 제외한 노인은 연 평균 100만 원 이상
  - 공적 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재산 분위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다. 성별, 지역별, 빈곤여부별 사회보장 수급 현황 분석

- 노인의 성별 사회보장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이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율이 높음. 남성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56.4%인데 반해 여성 노인은 18.8%에 불과
  - － 급여액을 보아도, 공적 연금의 남성 평균 급여액은 연간 480만원인데 반해, 여성은 80만 원에 불과
- 노인의 거주지역별 사회보장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은 농어촌 지역 노인의 수급율이 높고, 공적 연금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노인 순으로 수급율이 높음.
- 1차 소득 중위 50%기준 빈곤여부를 판별할 때, 빈곤 노인은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급여들의 수급율은 높고, 공적 연금의 수급율은 비빈곤 노인의 수급율이 더 높음.
  - － 사회보장 급여의 평균값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기초연금의 수급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저연령 남성 노인이고, 기초보장 및 장애 관련 급여의 수급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저연령 여성 노인이며, 공적 연금은 고연령 여성의 수급율이 가장 낮음.
  - － 사회보장 급여 평균값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라. 사회보장 현금급여의 노인 빈곤 완화 효과

- 중위 소득 40%를 빈곤선으로 할 때, 공적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 1차 소득 중위 40%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은 54.38%인데, 공적 연금은 6.92%p, 기초연금은 3.65%p, 기초보장은 3.16%p, 장애 관련 급여는 0.19%p 빈곤율을 완화.
  - － 공공부조성 급여(기초연금,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합)들은 빈곤율을 11.55%p 완화.
- 모든 사회보장 현금급여를 합한 공적 이전은 빈곤율을 18.82%p 완화.
  - － 공적 이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75세 이상 노인보다 65-74세 노인에서 더 큼. 이 두 집단 간 빈곤의 심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 공적 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가 65-74세 노인 집단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7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그다지 크지 않음. 75세 노인 집단에서는 공적 연금 수급율은 매우 낮다는 점에 기인.
  - － 빈곤선을 중위 소득 50%로 설정할 경우에도 빈곤 완화 효과는 유사. 단지 사회보장 급여

의 빈곤 완화 정도가 중위 소득 40%의 경우보다 적음.

### 3.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18-64세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 근로연령 가구원과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보장 수급 현황을 분석

○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연령을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로 연령을 재구분

□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현황

○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보면, 소득 1-2분위의 비율은 70%로 낮은 반면 소득 10분위에서는 98%에 이름.

○ 재산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재산 6,7,8,9분위에서 높은 비율이고 재산 10분위에서는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율이 더 낮았음.

○ 18-64세 가구주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약 64%.

- 24-50세 가구주 가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이 70%이상.

- 18-23세의 초기 청년 가구주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31%에 불과, 51-64세 장년 가구주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63% 수준

○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1,2분위에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이 0%였고 소득 3분위에서도 해당 가구 비율이 54% 정도

□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보장수급 현황

○ 저소득가구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율이 높아짐.

- 24-34세 청년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율이 약 2%, 35-50세 중년 가구주 가구에서 4%로 수급율이 낮고, 50-64세의 장년 가구주 가구의 수급율은 22%로 높음.

○ 재산분위별·가구주 연령별로는 재산 4분위의 수급 가구 비율이 16%로 가장 높아 소득분위의 분포와 다소 상이

○ 소득 1-2 하위 분위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의 효과 등으로 수급액이 많음.

- 소득 하위 3분위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낮아지다가 소득 9분위와 10분위에서는 51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수급액이 큰 차이로 높음. 연금 수급의 영향으로 추정.

- 재산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재산 6,7,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가구의 비율이 낮음.
  - 낮은 재산분위의 51세 이상의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음.
  - 반면 24-50세의 재산 6,7 분위 이상의 가구에서 수급비율이 낮음.
- 수급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액을 비교하면 51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 급여액이 크게 높음.
  - 50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는 오히려 9분위, 10분위 가구에서 평균액이 더 높음.
- 소득분위가 높고 재산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소득보장제도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이 낮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한 근로장려금 분포를 보면, 소득 하위 1분위보다 3분위에서 수급율이 높음.
  - 소득 2,3분위의 56-65세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수급율이 높고, 수급액은 소득 2,3분위의 40-55세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음.
- 공적이전 후 소득을 보기 위하여 가처분소득을 집단별로 비교.
  -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8-23세 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낮음.
  - 35-50세 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이 가구들의 소득분위별 평균 가처분소득의 차이도 가장 컸음.
  - 소득상위분위로 갈수록 가처분소득의 평균이 높아지는데 10분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아래 소득분위와 비교하여 크게 높아짐.
  - 재산을 기준으로 분위가 높을수록 불완전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됨.
  - 가구주 연령과 재산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보면 35-50세 가구주 가구의 재산분위별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매우 컸음.

#### 4. 아동 소득보장

##### □ 아동가구의 소득보장제도 개요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는 빈곤상태의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와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제도로 구분됨.
  - 빈곤아동가구를 위해 자산조사에 근거한 지원제도는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부조, 근로연계 급여(EITC) 등의 소득지원제도를 포함
  - 자산조사 없이 보편적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가구지원제도는 아동보육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등이 있음.

- 그밖에,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같이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없지만 특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 대상의 소득지원제도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등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가지고 있는 특정 아동가족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가 있음.

#### □ 분석대상제도

- 아동가구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근로장려세제, 보육료지원제도 등 핵심적인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양육수당, 농어촌아동양육수당 등 가정아동양육수당제도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부가적으로 분석하였음.

#### □ 분석대상아동

- 아동소득보장제도는 지원대상아동 연령구분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개별 소득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구분에 기초하여 아동의 연령은 만0-18세 미만으로 규정되며,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만 84개월(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하였음.

#### □ 아동 및 아동가구의 특성

- 표본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51만 5,341명으로 17.7%, 5세 미만의 영유아는 전체 아동의 5.5%, 15만 9,268명을 차지함.
- 표본 가구 1,129,696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29%로 327,212가구가 이에 해당함.
  - 주요 연령대별 아동가구의 분포는 영유아기(0-만 5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11.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는 만 84개월(만 7세) 미만아동이 12.6%,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초중고 학령기 아동이 242,120명으로 21.4%를 차지했음.
  - 아동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32만 7,212가구 중 42.2%가 4인 가구, 32%가 3인 가구로 나타났음.
- 아동가구의 경제적 상태
  - 분위별 소득(1차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중위값은 3,961만 158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아동가구의 38%가 7,8,9분위에 분포
  - 아동가구의 재산분포는 비아동가구와 비교할 때, 재산 1분위, 10분위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6,7,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아동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분석하면, 전체 가구 대비 아동가구는 재산과 소득이

높음.

- 아동가구 중 소득 1분위와 재산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9.4%, 전체가구에서 소득 및 재산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31.1%를 차지
- 즉,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가구의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나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가구일반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

#### □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과 특성

- 2016년 10월말 기준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한 아동가구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142,419가구 중 35.9%(51,144가구)임.
  - 이 중 양육수당 수급은 50,682가구를 차지했고, 장애아동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은 각각 0.08%, 0.14%로 매우 낮았음.
-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여부 및 수급액
  - 전체 가구 중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4.9%로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30-39세 사이의 가구주 16.8%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 소득 및 연령별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30-39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 중 소득 6분위에 속한 가구가 22.2% 소득 7분위가 21%로 가장 높음.
  - 소득 및 연령별 수급액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30-39세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수급액이 30만 6,466원이었으며, 소득 6분위, 7분위에 해당하는 30-39세 가구주의 수급액이 각각 41만 6,117원, 38만 6,165원으로 가장 높음.
-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여부 및 수급액
  - 재산·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수급율 및 수급액의 분포는 소득 및 연령별 분포와 유사
  - 30-39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 중 재산 7분위, 6, 8, 10분위에서 20% 이상의 가장 높은 수급율을 보임.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여부 및 수급액
  - 재산 7분위와 소득 7분위에 속한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율이 9.7%, 재산 6분위와 소득 6분위에 속한 가구의 수급율이 9.2%로 가장 높았음.
  - 반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율은 대체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재산 4분위, 10분위, 5분위, 1분위의 순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이 모두 3%미만으로 낮았음. 즉,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재산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소득과 재산이 모두 중상위층에 있는 가구가 양육수당을 보다 많이 수급하고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에서 재산보다는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소득이 낮은 가구의 대부분은 가정양육수당의 대체제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한 보육료지원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5. 장애인 소득보장

- 본 연구의 표본에서 등록 장애인은 약 6.2%,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약 7%임.
- 장애인의 소득보장현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과 수당 수급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대상으로 분석함.
-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소득하위1-2분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구의 비율도 증가.
- 장애인가구 중 장애관련 소득지원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하위소득분위에서 급여포괄성이 높음.
- 소득 1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55%.
- 재산분위별로는 4분위까지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음.
- 선별적 장애인급여의 성격에 의해 하위소득분위, 하위재산분위에서 제도 포괄성이 높았으며 고연령층에서 제도 포괄성이 높음.
- 장애인대상 현금지원의 평균 수급액을 수급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별 수급액 차이가 거의 없음. 수급액이 대부분 정액이기 때문으로 해석
-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수급액이 낮았는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수당보다 급여액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

## 6. 주거와 교육보장

- 주거와 교육보장은 보장 내용에 따라 서비스 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수집한 관련 정보의 내용이 소득보장에 더 근접하고 있으므로 소득보장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함.
- 주거보장의 경우 임대료 지원과 같이 소득보장방식과 주거수리 등 서비스보장방식이 모두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개량서비스를 비롯하여 임대주택 관련 수급정보가 누락된 상태에서 주거보장 중 주거급여제도 수급정보만 분석에 포함
- 교육보장도 교육비 지원과 각종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되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즉 현금지원 성격의 지원만 분석에 포함



- 주거보장에서 임대료지원은 임차인을 위한 주거보장으로 임차인여부에 대한 파악은 욕구를 전제로 분석하는데 중요. 그러나 본 분석 자료에는 임차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참고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제시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서 월세가구의 분포가 소득 및 재산 4분위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하여, 해당 구간에 주거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분포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소득1-2분위 60-64세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
  - 20-30대 가구주 가구의 수급율이 낮는데 20-30대 가구주 가구의 자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욕구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
    - 월세가구의 분포가 소득 4분위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야 제도적 배제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재산분위별 수급가구 분포를 보면 오히려 재산 4분위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고 재산 5분위까지 주거급여 수급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급여의 특성 상 재산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방식의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 주거급여수급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3분위, 30대, 45대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이 높음.
    -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이므로 이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 3분위, 30-40대 가구주 가구의 가구 규모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학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의미를 지님. 분석 자료에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초중고 학생의 분포를 참고
  -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2016년 40대 가구주 가구에서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 가구주 가구였음. 재산분위별 초중고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분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재산1분위에서는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수급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1-2분위,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높음.
  -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 중 일부가 교육비 지원 대상이므로 전 가구 중 교육비 지원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재산기준으로 보면 재산하위분위일수록 수급하는 가구 비율이 높음. 재산 5분위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수급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육급여의 경우 재산기준보다 소득기준의 엄격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제6장 분석결과 3: 서비스 보장

### 1. 서비스보장 종합 분석

□ 서비스 보장의 수급현황을 대상 포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가 분석에 포함되었음.
-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수급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의 평균 개수를 분석한 결과, 20대 가구주 가구는 대상 포괄성이 낮음.
  - 아동가구주 가구,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가구주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상 포괄성이 높음.
  - 그러나 대체로 낮은 소득분위, 소득 1-2분위에 한정하여 대상 포괄성이 높음.
  - 30대 가구주 가구는 전 소득구간에서 서비스 보장 포괄성이 높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각종 서비스가 소득기준이 관대하거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에 한정하여 서비스의 대상 포괄성이 높음.
-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서비스 보장의 대상포괄성을 보면 4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재산분위에서도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가 컸음.
  -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재산5분위에서도 수급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많았고 재산 6분위까지도 수급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평균보다 높음.
-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수급하는 평균 서비스 개수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낮은 가구에서 수급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많았고 중간 소득분위이면서 중간 재산분위인 가구에서도 수급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많아 대상포괄성이 높았음.

- 준보편, 보편적 아동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보장이 소득과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

## 2. 돌봄서비스 보장

### □ 노인요양서비스

#### ○ 서비스 이용 현황 종합

- 노인요양(돌봄)서비스를 한 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는 표본 중 0.8%. 노인돌봄서비스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 대부분은 노인임.
- 노인돌봄서비스수급자 1인당 평균 1.8개의 요양서비스를 이용. 소득과 재산분위별로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는 유사
- 소득 10등급과 재산 10등급에 속하는 이용자 수는 중산층 이상 일반 이용자 수 보다 많음.
- 1인당 평균수급액은 낮은 소득과 재산분위의 평균수급액은 매우 낮음.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

#### ○ 노인요양서비스 신청자 분포

- 요양서비스 신청자의 절반 정도인 49.6%는 소득 1-2분위에 속함. 소득3분위까지 누적 비율은 68.3%임.
- 64세에서 74세 연령구간의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신청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산분위별 분포는 소득분위별 분포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 신청자의 35.0%가 재산 1분위에 속하며 5분위의 비중이 16.4%로 높은 편임. 재산분위별 신청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이며 재산 10분위 신청자의 비율이 11.9%임.

#### ○ 노인요양서비스별 이용자 분포 종합

- 요양급여액은 기타재가, 방문요양, 시설요양 상위 세 가지 서비스가 90.6%로 절대적으로 높은 편임.
  - 시설요양서비스의 평균급여액은 1인당 1,524만원이며 방문요양서비스는 680만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임.
- 시군구 중 군지역에서는 방문목욕과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한 방문간호와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자 비율은 8% 수준으로 상당히 낮음.
  - 방문간호의 경우 군지역의 이용자 비율은 8.4%이지만 급여액의 비중은 29.8%로서 1인당 평균급여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방문목욕과 돌봄종합서비스에서 남성 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기보호 서비스의 경우는 여성이용자 비율이 높음.

#### □ 노인요양서비스별 이용 현황

##### ○ 시설요양서비스

- 소득 1-2분위 이용자가 44.5%로 절대적으로 높음.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비율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설요양 이용자가 많음.
  - 소득수준별 급여액의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함.
- 소득분위별 이용자 분포와 재산분위별 이용자 분포는 다소 상이.
  - 재산 4분위의 이용자 비율이 낮고, 재산 1-2분위와 함께 재산 5분위에서도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산분위별 급여액의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함.

##### ○ 방문요양서비스

- 소득1-2분위에 속하는 이용자가 49.1%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재산 3분위 이하 이용자 비율은 34.3%이며 소득수준별 이용자 분포와 상이.
  - 재산 5분위와 재산10분위 이용자의 비율이 각각 13.0%와 10.1%로 높은 편.

##### ○ 기타재가급여서비스

- 기타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소득 3분위 이하가 58.0%로 높은 비중을 차지. 시설 및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임.
- 재산분위별 분포는 소득분위별 분포와 상이. 3분위 이하 이용자의 비중은 32.6%에 불과하며, 5분위와 10분위가 각각 12.8%와 10.6% 수준
- 급여액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남.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이용자의 52.8%는 소득 1-2분위와 재산 1-3분위의 저소득층에 속함. 이용자의 83.0%가 소득1-2분위에 속하며 4분위 이상의 비중은 미미함.
- 수급조건에 재산기준은 포함되지 않음. 재산 5분위 이상의 이용자가 전체 36.2%를 차지. 재산1-3분위 이용자의 비중은 57.8%임.

## □ 장애인서비스

### ○ 장애인서비스 이용 종합

- 전자바우처로 공급되는 네 가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은 4.4% 수준으로 낮음. 장애인서비스는 복지시설 중심의 공급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크지 않음.
- 장애인서비스의 이용에서 성별 및 시군구별 상이한 특성이 확인됨.
  - 성별로는 남성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장애인 표본 중 남성의 비율은 53.6%인데, 4대 서비스 이용자에서 남성의 비중은 64.1%로서 여성보다 9.5% 높음.
  -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군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장애인 표본 중 군 거주자는 13.2%인데 이용자 비중은 8.4%임.
  - 군지역의 부모 상담과 언어발달 서비스의 비용 비중이 상당히 낮음. 군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해석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연령별 비중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형성되었음. 20대에서 이용자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고 30대 이용자 비율이 가장 낮아 10.8% 수준
- 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소득 1-2분위의 이용자 비중이 35.8%(3분위 이하 46.4%)로 높음.
  - 소득1분위에 속하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1.1%, 22.8%를 차지하며 이외 연령층은 절반 수준임.
  - 소득 10분위에서는 20대 이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78.9%를 차지함.
- 재산분위별 이용자 분포에서, 재산 3분위 이하 이용자의 비중이 42.8%로 소득분위의 분포와 유사
- 재산 1-3분위에 속하는 이용자의 수는 1,061명으로 전체 24.9%를 차지. 다만,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학생은 만20세까지)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음
- 6-13세의 이용자가 가장 많아 42.8%를 차지

- 7분위에서 9분위까지 고소득층에서는 0-5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2분위에서는 14-19세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소득분위별 이용자 분포는 유사
  - 소득 1-2분위 이용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18.4%, 소득 3분위에서 8분위까지 모든 분위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 소득 10분위 이용자의 비중은 1.2%임.
- 재산분위별 이용자 분포는 다소 상이
- 재산1-3분위 이용자가 40.5%로 높은 수준이며 5분위~7분위 재산등급의 이용자들의 비중이 10%를 상회
- 다른 장애인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용자의 저소득층 집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3. 의료서비스 보장

#### □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수급 현황 분석

- 5세 미만 아동기에 외래 방문건수가 높았다가 청소년기에는 감소하며, 이후 50대까지 점증하여 50대 중반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60대 전반까지 감소하다가 60대 후반부터 외래 이용은 감소하지만 입원서비스 이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의료비 변화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변화를 보였음.
- 소득 분위가 증가할수록 건강검진 수급률이 증가
  - 40에서 75세 미만의 연령구간에서 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성도 뚜렷해짐.
  - 40세 이상 연령군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의 주요 표적 연령이기 때문으로 해석
-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을 비교하면, 가장 높은 연령군은 0~5세 구간이며, 가장 낮은 연령군은 20대임.
  - 소득 10분위는 모든 연령 구간에서 90%전후의 수급률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소득 1분위는 모든 연령군에서 수급률이 더 낮고 20~50대에서 그 차이가 더 커졌음.
- 외래서비스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았으나 입원서비스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 고소득층은 더 많은 외래서비스와 더 적은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저소득층은 더 적은 외래서비스와 더 많은 입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고소득층이 적절한 외래관리를 통해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갑작스런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더 우위에 있음을 시사

- 응급실 이용자 현황에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줌.

○ 고가의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소득 격차가 우려됨.

-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전체 질환자에서 보다 중증 질환자 대상( $CCI \geq 2$ )에서 그 차이가 뚜렷해졌음.
- 반면, 공공의료기관의 이용과 진료비 점유율은 노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음.

○ 소득계층 간 차이는 5세미만 아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어져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제도 등 필수적 보장의 기능이 확인되는 결과라고 해석됨.

○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 집단에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노령인구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고소득층의 노인은 상급종합병원을 더 이용하는 소득 격차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가구 단위로 과부담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의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위험 보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은 확인됨.

○ 모든 연령군에서 소득 3분위까지 과부담 의료비 가구의 발생이 확인되며, 75세 이상에서는 소득 4분위까지 발생이 확인되었음.

- 분석 자료의 한계로 과대와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확인하는 정보로만 해석

## 제7장 종합분석과 정책과제

### 1. 소득·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과 시사점

□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정리

○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종합하여 보면 20대 가구주 가구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은 가장 낮은 수준

- 50대 가구주 가구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 40대 가구주 가구도 유사
-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 특히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의 대상 포괄성이 전 소득분위에서 높았음.

- 반면 서비스 보장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낮은 소득분위에 한정하여 대상 포괄성이 높았음.
- 전체적으로 서비스보장의 소득기준 엄격성이 낮은 수준의 대상 포괄성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
- 30대 가구주 가구의 서비스 보장을 제외하고는 20-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보장 포괄성과 서비스 보장의 포괄성은 전체적으로 낮아서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의 한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재산 분위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분석한 결과도 소득 분위별 분석결과와 유사
- 다만 소득 분위별 서비스 보장의 대상 포괄성과 비교하여 재산 6분위 정도까지 서비스보장 대상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40-5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재산의 영향으로 소득보장, 서비스 보장의 포괄성이 더 낮아졌음.
-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을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산보다 소득에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대상 포괄성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현금급여수급은 재산 분위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듯 하고 서비스보장은 재산 분위, 8분위 이하까지 비교적 높은 대상 포괄성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소득 분위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분위까지만 소득보장,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이 높게 유지됨.

## 2. 행정 빅데이터 활용 후속 연구의 과제

### □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 방향

- 행정 빅데이터가 정책분석에서 갖는 가장 주요한 강점은 행정자료의 결합으로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임.
-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일정 주기로 수행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기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갖추는 것은 이후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
-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게 된다면 보다 합리적 설계를 기대할 수 있음.



## □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

-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
  - 현재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과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하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
  - 관련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아직 법적 해석이 모호
- 행정자료를 활용한 종합분석에서는 정보 간 연결이 중요한 이슈
  -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확매칭(exact matching)이므로 이러한 연결 방식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병행하여 지향하는 방안 개발 필요
  - 행정 빅데이터는 보유한 정보에 한하여 소득과 재산 정보도 정확성이 높음. 다만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사적이전소득과 금융재산 등 누락된 소득, 재산 정보의 영향을 고려, 정보 보완이 필요
    - 재산분위별 분석과 해석에서 더 큰 한계를 지님
  - 관련 정보의 보완적 연결과 그 영향, 그리고 누락된 소득과 재산의 추정방식 등 면밀한 분석, 검토 필요
-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기타 이슈로는 자료 활용의 공식화, 분석환경 개선이 있음.
  - 행정 자료에 대한 신청과 승인과정을 공식화하고 연구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행정 빅데이터의 분석 환경 중 분석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분석결과와 반출 시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 제 1 장

## 서론: 연구개요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포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보장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보장현황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의 강화 필요성, 그리고 합리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보장현황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성장국면에 들어선 경제와 고용불안정 등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완만한 개선국면을 보이던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2016년 이후 악화되었다. 이 시기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도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시장소득의 악화, 인구고령화 등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합리화 또는 체계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의 신설이나 조정도 필요하다.

과거 10여 년간 우리사회는 시간제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십여 년 간 근로형태 변화를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 중이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는 2003년 929천명, 임금근로자 중 6.6%에서 2016년 2,483천명, 12.6%로 절대적 규모와 임금근로자 중 비중이 모두 증가(한국노동연구원, 2016, p.5)하였다.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진보가 본격화되면 일방식의 변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 소규모 자영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일방식이 과거와 달리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기획하고 변화에 대응하여 갈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 급여 충분성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의 확충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법 제2조에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는 사회보장이 소득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사회보장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취약한 인구집단을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장 뿐 아니라, 제도의 혼합 등 거시적 정

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 사회보장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사회보장법 제3조(정의):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개별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또한 설문조사 자료 등 정확성에서 한계를 지니는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현금급여와 서비스지원은 과거 몇 십년간 그 수에서 매우 크게 증가하여왔다. 많은 수의 제도로 분화, 전문화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배제 위험이나 급여의 중첩 등에 대한 포괄적 분석의 경험은 매우 희소하다.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행정에서 전산화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구축된 기존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매우 소수의 연구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러 제도를 포괄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의 이용이 부진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공공부조·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가 대상 포괄성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으로 충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나가야 하는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을 개괄하여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현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경향과 한계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에 앞서 분석틀을 구성하였으며 각 제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제도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셋째는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의의와 이후 행정자료 활용에서 고려할 점을 정리하여 행정자료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준비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내용은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이 가능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범위와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을 분석하는 도입부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현황을 개요 수준에서 분석하여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포괄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 참고자료를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제도 분석에서 소득보장제도,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욕구범주별 그리고 취약인구집단별 대상포괄성과 정보가 가용한 수준에서 급여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각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아우르는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범위 밖의 제도적 배제의 위험이 있는 취약 집단에 대한 파악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더불어 각종 사회보장제도 수행에서 대상으로서 중첩이 강한 집단이나 영역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욕구충족 수준에 대해서는 실험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자료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급여의 충분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활용한 행정자료의 특성 상 욕구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급여의 충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가능한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후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사회보장의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관련 각종 공공 행정자료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동 자료들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현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편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각 자료의 표본이나 정보의 규모와 구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분석 자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기존 행정자료의 검토에서는 행정자료의 연결과 종합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자료의 결합이나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제고 조치와 관련 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빅데이터 활용은 과학적 정책 집행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밝히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행정자료 등 필요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기 전에 각 자료의 크기와 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재 구성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원천의 행정자료를 입수 결합하여야 하는데 연결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구성과 각 자료의 연결 가능성, 연결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이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대한 함의를 정리,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제도의 가입규모나 기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성과 대상자 규모, 급여수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규모는 당장 본 연구의 표본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었다. 한편 행정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자료 활용의 기반 변화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여 종합적이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파악하여야 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향은 분석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정보가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 평가 및 설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은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영역과 활용 자료 등을 파악하고 한계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주체와 분석 대상, 활용된 자료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향과 한계,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개별 제도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을 지형화하는 연구이므로 분석틀의 구성도 기존의 연구와 같이 개별 제도의 목적이나 목표, 특성을 고려한 것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지형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구성, 차별화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을 중심으로 전체 소득보장, 서비스 보장으로 조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야 하였고 급여충분성은 일부 가능한 수준에서 분석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전 제도의 보장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위한 기초육구 영역의 지출 경감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뿐 아니라 한편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며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 뿐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7)하였으며 향후 지출보전제도는 계속 적지 않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서비스를 공히 분석의 범위로 포함하면서 대상 포괄성을 분석하였다. 여러 제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분석요소인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대상 포괄성이나 급여 충분성에서 취약한 욕구영역이나 인구 집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 밖에서 취약한 상태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을 규명하고 제도의 확충이나 보강이 필요한 영역과 관련 기준 등을 중심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개별과제의 개선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제도적 보완, 발전 방향을 중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함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거시적 지형 분석으로 제도적 배제위험과 지원의 집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찾고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기반, 해당 자료기반의 구축 방향, 그리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분석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제안을 정리하여 두었다. 제도의 개선은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향후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제를 갖추는 것은 건강한 제도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분석방안을 제안하였다. 행정자료를 초점으로 이러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구성에 대해서, 자료의 보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자료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서 고려할 점, 그리고 검토하여야 하는 법적 기반과 기타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행정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다. 본 연구는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의 포괄 범위를 확대, 행정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사회보장제도 분석을 위한 행정 빅데이터의 재구성이 분석의 시작이었다. 자료에 기반을 둔 과학적 정책결정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이며, 향후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DB 추출 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각종 사회보장 급여 수급 정보를 연결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행정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문헌연구도 병행하였다.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요를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의 활용, 빅데이터 분석, 근거기반 정책의 의의 등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포괄하는 종합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 전문영역을 아우르는 분석으로 전문가들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소득과 서비스 보장 영역별로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전문 지식에 대하여 영역별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각 영역의 정책 및 서로 다른 자료원의 행정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이슈에 대

하여 논의하고 좀 더 주목할 분석 지점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의 초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관련 법 전문가로부터 자료의 활용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연구의 후반에서는 행정자료를 관리하는 전문가로부터 행정자료의 보완적 활용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사회보장기획에서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각종 제도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제도 간 역할분담, 제도 혼합의 검토 등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분석틀 구성을 시도하여 향후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의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 연구에 적지 않은 경험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구성과 분석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책기획에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기획의 과정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책대상 중 제도 밖에서 배제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 2 장

#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과 한계

제1절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 제1절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본 장에서는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충되어 왔다. 정책평가를 위한 연구도 이와 더불어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평가연구는 아직 평가의 방법이나 평가하는 제도의 범위 등에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정책평가 연구를 평가 대상 제도, 분석틀, 그리고 활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평가연구의 주체도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평가연구의 주체는 연구기관, 개인연구자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연구기관이 개인연구자와 평가 대상이나 평가 자료에서 상이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평가를 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동향도 행정자료의 활용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정책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경향도 주로 국책연구기관, 그 중에서도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한 연구기관의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평가대상 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 서비스와 그리고 제도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틀은 해당 연구가 초점으로 하는 평가 기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분석틀은 대개 분석대상이 무엇인가와 관련되었으며 평가에서 활용한 자료와도 일정 수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문조사자료인지 아니면 행정자료인지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평가주체, 평가대상제도, 평가틀, 평가에 활용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틀과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대상과 평가주체를 함께 고려하여 기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사회보장제도, 사회정책에 대한 개인 연구자의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을 보면 연구기관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책평가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다. 정책평가 연구로 한정하여 연구경향을 보면 정책기획을 기초로 한 평가가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평가의 경우 활용하는 자료에서 집계자료, 2차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의 비중이 크고 내용분석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다(정익중, 2007, 김진욱 2010, 신영전 등 2011, 양난주, 2015 등). 특히 정책군에 대한 분석은 집계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고 원자료 분석은 주로 통계청이나 연구기관이 생산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사례가 대부분이다(이동영, 2018 등).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원자료 분석이 많으나 서비스 정책 분석은 집계 자료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활용되는 자료의 특징을 더 부연한다면 사례분석이나 자체

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도 소수이지만 발견할 수 있다(김진수·허준수, 2002 등).

분석들은 보자면 수급자 규모와 급여수준 등을 중심으로 수급률을 분석하거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이상은, 2007 등). 기타 개별 정책의 고유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분석이 상당수이다. 예를 들어 바우처 사업의 경우 서비스 시장의 성장 여부,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의 사회화 수준 등이 분석기준으로 선택되기도 한다(양난주, 2014, 석재은, 2018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연구자의 연구는 연구기관의 연구와 비교하여 정책기획에 대한 평가가 많고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로 집계된 2차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원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한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다수이다. 분석의 초점도 대부분 수급자의 규모변화나 급여 수준 등 정책의 산출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 분석이 많고 효과분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정책의 효과 분석으로 그 분석들은 제도마다 상이하다. 다만 소득지원의 경우 대체로 빈곤율과 소득분배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들이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 가가와 국민 중 제도군이나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대상 포괄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은데 이는 분석 자료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활용이 가능한 분석 자료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대상 포괄성을 분석할 수 없고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개별 제도에 한정된 대상자 규모 변화만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일 수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대상이 된 제도범위와 분석틀 그리고 분석에 활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 연구는 주로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초기에는 여타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리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조 중심의 제도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초기,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이현주 외(2002)와 김안나 외(2005)의 연구,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대상 선정 관련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는 연구(여유진 외, 2004), 동 제도의 급여체계(생계급여)에 주목한 평가(김태완 외, 2010), 전달체계 평가에 주목한 연구(강혜규 외, 2004), 재정 부문에 대한 평가(김태완 외, 2011) 등이 존재한다. 이후 각종 소득보장제도들이 확충되면서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로는 기초노령연금(정경희 외, 2009), 기초연금(원종욱 외, 2014), 주거복지정책(이태진 외, 2010)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제도에 제한된 상태이지만 제도의 목적을 중심으로 한 제도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고용안정 분야 24개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방하남 외(2007)의 연구,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문형표 외(2007)의 연구, 근로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과 관련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본 남재량 외(2009)의 연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군에 대한 주무현 외(2013)의 연구, 그리고 주요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중심으로 각 제도를 소득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군으로 묶어 평가한 강신욱 외(2015)의 연구가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각 세부사업 모두를 매년 평가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연구(이삼식 외, 2009; 2010; 2011; 2013;

선우덕 외, 2012; 강은나 외, 2015; 이소영 외 2016)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에 규정된 제도군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이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지원에 대한 평가가 증가 중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제도군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책평가연구의 분석대상과 관련된 변화 경향 중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평가제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포괄하는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책평가 연구의 분석틀은 개별제도 평가인지, 정책군 평가인지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평가연구에서 초점이 된 분석기준은 주로 정책 효과성이었다. 효과성은 여러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되는데 대상포괄성과 더불어 급여 충분성,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주된 분석의 내용이 되어왔다. 포괄성은 주로 개별 정책의 수급자 규모변화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공부조의 경우 빈곤층 중 수급자 규모의 비율,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 등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제도군 평가에서도 각 제도별 평가의 틀이 상이한 연구도 다수였다(강신욱 외, 2015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정책과 달리 정책군 평가에서는 공히 적용이 가능한 분석틀이 주로 사용되는데 소득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상포괄성과 함께 빈곤이나 소득분배의 변화를 주로 분석하였고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주로 서비스의 대상 포괄성과 함께 시장의 확대, 서비스의 선택가능성이나 접근성 등이 분석틀에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정책평가 연구의 활용 자료를 크게 구분하여 보면 정부의 집계자료, 설문조사자료, 그리고 행정 빅데이터 자료이다. 설문조사자료가 가장 빈번하게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설문조사자료는 통계청의 조사 자료와 연구를 위하여 각 기관이 생산한 설문조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개별 제도의 평가에 행정 빅데이터가 활용되었으나 이후 제도군 분석에서 행정자료 활용이 더 많아지고 있다.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제도군 분석이 증가한 것인지, 제도군 분석이 행정 빅데이터의 수요를 높인 것인지 선후 관계는 모호하지만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설문조사 자료 중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정보를 포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개별 제도 또는 제도군으로 한정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의 경우,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도 해당 제도나 제도군으로 한정하여 수집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평가연구의 경우 평가대상 제도의 수급자 집단이 전체 인구 중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분위에 위치하는지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를 하는 한계를 지녀왔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설문조사자료의 활용을 병행한 연구가 다수이다.

&lt;표 2-1&gt; 연구기관의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정리

제목(연도)	대상제도	분석틀 (주된 분석내용으로 포괄성, 충분성 등)	분석자료
기초노령 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정경희 외, 2009)	기초노령연금	소득변화 소득활동 등 태도 변화 삶의 만족도 변화 등 정책의 효과와 영향 분석	<행정 DB 자료> -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정자료  <설문조사자료> - 한국복지패널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원종욱 외, 2014)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 소호소득보장효과	<공식통계자료> -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집계 자료  <설문조사자료> -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2년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이태진 외, 2003)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급여 충분성, 운영의 적절성 등	<설문조사자료> - 대상자 및 공급자 설문조사 - 일반국민 의식조사  <정부 집계자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I (노대명, 2007)	공공부조	빈곤감소효과, 욕구의 충족성, 지출의 효율성 근로유인효과로 탈수급(빈곤)효과, 취업효과, 근로소득 증대효과	<행정 DB 자료> - 기초생활보장수급 관련 행정 빅 데이터  <설문조사자료> - 전국가계조사 - 한국복지패널 - 자활사업 실태조사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 연구 (김태완 외, 2011)	공공부조	빈곤감소효과, 제도 효율성,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등	<설문조사자료> - 2003년, 2006년 차상위실태조사 -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견조사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 책 과제(김은정 외, 2016)	보육지원	가계 양육비, 여성 경제활동, 출산의 변화 등 효과와 영향분석	<설문조사자료> - 2009년,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지원 정책의 적 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우석진, 2009)	보육지원	노동공급효과, 출산율 제고 효과	<설문조사자료> - 노동패널 10차년도 원자료 - 노동패널 1-10차년도 직업력 원 자료
바우처 제도의 현황 과 효과성 분석(강창 현 외, 2012)	제도군, 사회 서비스	공급자 경쟁, 수혜자 선택가능성, 접근성 등 효과 예산과 이용자 규모, 만족도 등 분석	<집계자료>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 효과 분 석 연구(강혜규 외, 2012)	정책군, 사회 서비스	이용자 규모, 고용인력 등 효과분석 서비스 품질향상기반, 기관 운영 등 서비스 사업 운영 분석,	<설문조사자료> - 2008~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정부 집계자료>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방하남 외, 2007)	제도군	① 적절성, ② 효율성, ③ 효용성, ④ 효과성, ⑤지속가능성	<집계자료> - 각 사업별 실적 자료  <설문조사자료> - 각 사업의 사업제, 근로자 실태조사



제목(연도)	대상제도	분석틀 (주된 분석내용으로 포괄성, 충분성 등)	분석자료
근로빈곤 대책 연구 (남재량 외, 2009)	제도군 최저임금제도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효과, 탈빈곤 효과, 노동공급효과, 빈곤 감소 등 효과성	<설문조사자료> - 한국노동패널 - 전국가계조사 <집계자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성 성과 평가(주무현 외, 2013)	제도군	재정효율성 평가, 고용효과성평가, 전달체계 평가, 운영기관과 참여자 만족도 평가	<행정DB자료> - 일모아DB 등 각 일자리사업 주관 기관의 고용 관련 DB <설문조사자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설 문조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설문조사
주요 소득보장정책 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외, 2015)	제도군	연금제도의 적정성과, 부담가능성,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등,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등	<설문조사자료> - 한국복지패널 - 한국노동패널 - 가계동향조사
2016년 저출산·고 령사회정책 성과평 가(이소영 외, 2016)	제도군	사업별 추진실적(output) 등 별도의 평가를 적용	집계자료
사회보장제도 생계 지원분야 기본평가 (강신욱 외, 2017)	제도군	수급자 비율, 빈곤율 변화 등 급여의 충분성	<행정DB자료> - 각 사업 별 수급자 DB <집계 자료> <조사자료> - 한국복지패널

##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연구는 급속하게 증가해왔고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정책분석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의 범위 및 활용한 자료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여보았다.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한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정책평가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평가는 단일제도나 제도군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제도군 평가의 진행이 증가 중에 있지만 아직 사회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제도군 평가를 시도한 최근 연구도 일정 범주로 제도분석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된 제도 전반의 관계를 고려한 분석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설문조사자료로는 이러한 분석이 쉽지 않고 행정자료의 경우에도 각종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 제도나 제도군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분석대상 집단의 소득이나 재산분위별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사회보장 급여의 전반적 수급, 제도적 배제위험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한다.

둘째, 앞에서 한계로 언급한 분석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또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보장이나 서비스보장, 그리고 소득보장에서도 수당·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분석은 국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이해하는데 역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보장의 경우 교육비지원과 교육서비스 지원이 공히 교육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구분하여 분석하게 되면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욕구영역별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에 관련된 행정 빅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함께 분석하지 못한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정책평가에서 일부 흠결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아직 여타 선진복지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현물 급여에서 현물급여의 지출 비율이 현금급여에 대한 지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건강을 위한 지출과 보육을 위한 지출이 현물지원을 위한 지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금·현물지원에 대한 종합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뿐 아니라 한편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며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 뿐 아니라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추진(관계부처 합동 2017)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더 중요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분석틀, 분석의 원리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에 대한 강조가 최근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 이유는 주로 최근 평가연구가 특정 정책이나 정책군의 효과 중심으로 발전하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을 평가연구의 심화를 의미하며 긍정적인 것이다. 정책평가에서는 표적화 수준, 수급률과 같은 제도포괄성, 그리고 급여충분성이나 욕구의 충족성 등이 분석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

다. 다만 기존의 정책평가 연구들이 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여오게 되면서 정책의 포괄성은 분석초점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아직 제도의 포괄성은 주요한 이슈라 판단된다. 향후 기술발전과 고용불안이 가중된다면 이 가치는 정책평가와 정책의 재설계에서 더욱 중요하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고용불안으로 특정 제도의 대상포괄성이 낮아진다면 대안적인 다른 제도가 확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대상 포괄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넷째, 기존의 평가연구 중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사회보장제도 중 분석의 범위 내 포함 제도의 수가 작고 정확성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최근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연구들이 활발하여지고 있으나 아직 정책군으로 포괄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연구들도 일부 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전 인구 중 해당 정책의 효과와 영향을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갖게 되는 차별성과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며 분석에서 활용하는 행정 빅데이터가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여 포괄하는 제도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수당을 포함, 현금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여,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행정 빅데이터를 확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부 서비스 보장과 현금 보장이 누락되었으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포괄하여 행정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으로 얻은 결과는 전체 사회보장에서 각 제도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전 사회보장의 취약 지점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보다 전 사회보장제도의 배제위험집단을 파악하여 소득이나 재산, 연령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규명하고 정책적 보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분석하는 자료의 정확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특히 행정 빅데이터의 특성 상 현금 및 서비스 급여 정보가 상세하고 정확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있어 강점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여러 가치 중 대상포괄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 제도의 구성과 기준의 한계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 변화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제 3 장

## 자료의 구성과 분석틀

제1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의 배경

제2절 자료의 범위와 분석틀

제3절 자료의 추출과 대표성 검증



## 제1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의 배경

### 1. 기존 정책평가 자료의 한계와 행정 빅데이터의 장점

대부분의 정책 분석에서는 두 가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왔다. 하나는 연구 주체가 사회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자료, 다른 하나는 통계청 등 공공 부문의 통계 작성 기관에서 배포하는 설문 혹은 집계 조사 자료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료는 정책분석연구 주체가 자체적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장의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이 자료는 비용의 한계로부터 조사 대상의 규모나 조사 내용이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기존 설문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설문조사 자료가 표본, 조사방법 등의 이유로 정확성, 대표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문조사자료나 또는 특정 연구에서 직접 생산한 1차 자료 또는 2차 자료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과거 대비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평가의 강조와 함께 일선의 정책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료의 생산과정에서 설문조사는 비용이 크고 최근에는 응답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언급한 환경은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과 수집·집계가 과거와 비교하여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의미하여 더불어 자료의 정확성을 과거만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해당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과 함께 정보의 불충분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사회정책 관련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회 정책평가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일부 연구에 한정하여 행정자료의 활용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행정자료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개별정책영역이나 정책군에 한정하여 분석에 활용된 바 있다. 아직 초보적 단계의 활용에 한정되지만 행정자료의 활용은 기존의 설문조사 자료들과 비교하여 앞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각 분야 별 정보시스템에 행정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사회정책 관련 정보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전산정보화되었다. 그 이후로는 짧은 기간 동안 각 정책영역별로 행정자료의 생산과 구축이 크게 발전하여왔다. 정책평가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범위를 넓히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매우 낮고 해당 자료의 순도에 대한 확인 등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행정자료는 대부분 제도별 관리주체가 분화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자료의 결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유는 공공행정에서 식별정보의 운영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영역과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 아래의 표는 사회보장제도 중 행정 자료가 구축된 영역을 예시한 것이다. 행정자료가 구축된 전 사회보장제도를 열거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행정자료를 관리하는 주체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정보의 집중이 갖는 위험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렇게 분화된 정보의 활용에서 고려사항이 적지 않다.

<표 3-1> 행정자료의 종류와 관리기관의 예

소관 부처	대상 사업	정보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정보원
	돌봄지원 등 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	교육급여	사회보장정보원
	교육비 지원사업(자체, NE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학자금 지원 사업	한국장학재단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LH공사/SH공사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국세청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정보원

기존의 정책평가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행정 빅데이터가 갖는 상대적 강점은 크다. 그 강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별제도, 제도군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보험, 수당,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과 배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정책 수급 정보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자료는 규모가 큰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정보나 또는 특정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을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특정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는 물론 특정 제도 수급자로 한정된 행정자료 역시 해당 수급가구나 수급자가 전 가구, 전 인구에서 어느 소득 분위, 재산 분위에 분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을 포괄하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제도분석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 수당 등 전 소득보장의 전체적인 대상 포괄성, 각 제도의 대상포괄성을 참고로 제도들 간의 상보성이나 전반적 취약성을 이해하게 되는 이점을 갖게 된다.

둘째, 행정자료는 정확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행정자료는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표본 대표성의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 통계청의 설문조사자료 중 하나는 최근 큰 폭의 표본교체로 인하여 시계열 비교의 한계가 더 커지고 있으며 이 점은 정책분석에 매우 큰 장애로 작용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행정자료는 우리나라의 전인구, 전가구를 표본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설문조사의



응답과 비교하여 행정자료는 사회보장 수급여부나 급여액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정보에서 행정자료도 완벽하다 할 수 없고 소득 파악의 정확성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서는 좀 더 면밀한 논의와 분석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설문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정보를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직업과 치매의 관계, 또는 가구원의 서비스 수급과 사회보험 가입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설문조사에서 미처 수집하지 않은 정보를 포괄하여 정책이슈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행정자료의 경우 통계청 설문조사 자료에서 취약한 서비스 급여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서비스 관련 분석을 더욱 확대하여 시도할 수 있다.

넷째, 행정자료는 대체로 전 국민, 전 가구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규모 인구 집단(예를 들어 특수한 성격의 직업집단,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행정자료는 횡단면 자료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패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패널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할 때 표본의 소실이 적다는 강점을 지닌다. 심지어 표본의 소실 이유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하다. 패널 자료로서 행정자료가 갖는 이러한 강점은 정책효과 분석 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 밖에 행정자료는 조사의 비용(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반면 행정자료는 자료의 추출과 연결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으로 분석을 준비할 수 있다. 결국 자료 마련을 위한 관계자의 피로도 완화할 수 있다.

## 2. 행정빅데이터 활용의 기반

지난 10여 년 간 정부는 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의 발표를 인용하여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세계 4위라 밝히기도 하였다. 정부투명성 등 효과성에서 우수한 국가로 평가된 것이다. 정부 2.0에 이어 정부 3.0도 그 주요 내용으로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빅데이터 활용은 과학적 정책 집행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수단’임을 밝히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의 결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6). 임시대체키의 활용으로 관련 자료의 결합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

은 2018년 7월, 개인정보 빅데이터 공개와 관련 개인식별 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임을 밝힌 바 있다(2018. 7. 4 한경미래니엄 포럼).

그러나 아직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실질적인 절차적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에서 허용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국한된 목적으로만 제공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 제외’(관계부처합동, 2016, p.65)‘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시대체키 생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16, p.74)이라고 적시하여 자료의 결합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내이지만 행정자료의 활용 경험이 축적 중에 있다. 최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대표 공공기관 4곳의 데이터를 통일해 공익 목적에 한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연말까지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동데이터모델(CDM)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에 있다.

## 제2절 자료의 범위와 분석틀

### 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 빅데이터의 범위를 정보의 목록과 분석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보았다. 우선 분석 정보의 범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보 추출 전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각 영역별 분석 제도의 범위, 필요 정보의 폭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정하였다. 첫째,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 서비스를 망라하여 주요 제도를 포괄하는 것을 지향하여 사회보장 전 범위의 포괄이라는 연구의 의의를 지키도록 하였다. 욕구 영역을 중심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부문 현금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근로활동연령, 노인 대상 현금 급여 및 서비스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장애인에 의미를 고려하여 분석집단으로 별도 추가하여 제도를 정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제도, 성격 상 의미가 큰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수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전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을 분석하는 첫 번째 연구로서 실험적 범위 설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첫 연구로서 가능한 주요 제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이후 연구에서 분석 대상 제도들을 추가하여 간다고 설계한 것이다. 임시의, 또는 작은 규모의 대상을 지원하는 제도는 제외하되 분석의 의의가 존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제도를 우선 포함하였다. 욕구 영역이나 제도군별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3~4개 선별하여 한정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지원으로 한정하되, 대출 지원은 제외하

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범위의 사회보장제도들을 정하였다. 그러나 자료 입수 과정에서 자료의 제공이나 연결이 불가능한 제도가 누락되어 아래와 같은 분석대상이 한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제도가 누락되었으나 분석에 사용된 정보는 현금과 서비스 지원을 아우르고 있으며 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도 다양하다. 정보의 내용을 대상자 선정의 자산기준-자산조사여부와 사회보험-와 급여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2> 분석 대상 사회보장제도

구분	현금급여	서비스
자산조사형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기초), 자활장려금(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초중고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의료급여, 차상위분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자산조사형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훈급여금	보육서비스
사회보험	국민연금, 지역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의 내용은 제도별로 수급여부와 수급수준(급여액)을 우선 수집하였다. 수급수준은 일부 제도에 한정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기타 정보로 욕구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이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되었다. 정보의 시점은 정보 입수 단위 기간과 시점을 병기하여 입수하였다. 가입여부, 급여대상 여부는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수급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6년 한 해 동안 수급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급여액도 2016년 수급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금과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우선으로 구성하였다. 전 사회보장의 대상 포괄성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아직 불충분하다. 기존의 정책분석은 개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더 강조를 두고 있으며 각 제도의 기준을 적용한 대상 중 실제 수급을 받는 집단의 규모로 분석하는 것이 상례이다. 결과적으로 개별 정책의 산출 등 정책의 대상자 규모에 대한 분석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포괄성과 배제의 위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제도의 포괄성은 주요한 분석의 원리가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적 위험 또한 심화,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시적 분석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종의 지형분석이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을 각 개별 제도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두는 것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을 주요 가치로 수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대상 포괄성은 대상 중 수급자의 비율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와 달리 특정 제도의 잠재적 대상 중 수급자 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전 가구 또는 전 인구 중 수급자 비율로 계산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지형을 분석하였다. 즉 대상포괄성은 수급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해당 비율이 높으면 대상포괄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대상 포괄성은 수급여부와 함께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여러 제도를 수급 받을 경우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평균 1개의 소득보장제도를 수급하는 집단보다 여러 개의 제도를 수급하는 집단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도 대상 포괄성을 분석하는데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소득 보장이나 서비스 보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를 좀 더 고려하여 대상포괄성을 분석하였다.

제도의 대상포괄성을 분석하면서 집단별 평균 급여액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집단별 평균 급여액은 앞서 언급한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와 유사하게 해당 집단이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으로 어느 정도나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을지 또는 반대로 어느 정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보조적 정보로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누구인가는 분석의 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대상을 넓게 보아서 특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구성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장 크게 확대한 분석으로 전 사회 구성원, 특정 연령의 사회구성원 등으로 대상으로 전제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대상포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연령, 소득, 재산을 중심으로 집단 구성을 하고 제도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연령, 소득, 재산을 주요 요소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에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연령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근로연령 집단을 포괄하여 각 인구집단에 대한 보장 강화를 시도 중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을 2018년 30만원씩 3개월, 2019년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였으며(관계부처합동, 2017, p.7), 이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지향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18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연금도 인상하여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7, p.7).

이러한 점에서 소득보장은 특히 인구집단별 분석이 필요하다. 즉 연령 구분이 분석틀의 중요한 한 측면이 되어야 하였다. 돌봄의 경우도 그 대상 중 노인의 규모가 커서 연령구분은 여전히 중요한 분석틀구성의 요소가 된다. 한편 분석의 전 범위에서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고 이를 일반적 분석틀로 설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구주 연령을 적용하여 가구 단위 집단을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연령을 고려한 제도 수급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소득과 재산은 일부 보편적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상 선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 따라서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기를 기준으로 제도의 포괄성을 분석하는 것이 현 수급현황을 이해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평가틀은 본 연구의 각 부분에서 분석 목적에 따라 원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그리고 소득보장의 하위 분석내용이나 서비스보장의 하위 분석 내용에서 변형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초 요소만 반영한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급여 충분성도 본 연구의 분석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급여 충분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급여충분성은 욕구대비 급여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급여충분성을 분석하려면 욕구의 수준을 이해하여야 하지만 행정 빅데이터에서는 욕구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급여충분성은 욕구의 수준을 가정할 수 있는 일부 제도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급여의 충분성을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포괄성 분석과 함께 집단별 평균 급여액을 비교하였다. 평균 급여액은 급여의 충분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충분한 정보는 아니지만 급여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급여 충분성이 더 낮을지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기본 분석틀은 결국 연령, 소득, 재산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분석에 따라 가구주 연령과 개인의 연령을 달리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을 중심으로 공통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연령은 5세 이하 아동, 중학교까지의 아동, 19세 이하, 39세 이하, 55세 이하,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나 분석에 따라 연령구분은 다소 상이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연령과 노인을 구분하였다. 아동은 5세 이하 아동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연령은 아동대상 제도의 정보를 충분하게 입수한 상황이 아니어서 기타 아동연령은 정교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소득은 10분위로 구성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재산도 분석에서 필요한 경우 구분되 10분위로 구성하여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에서는 약 80~100개 집단으로 표본을 구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주 내용은 결국 소득과 연령으로 구성된 집단별 수급여부, 재산과 연령으로 구분된 집단별 수급여부, 그리고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된 집단별 수급여부이다. 급여수준을 고려하되 수급여부가 일차적인 분석의 초점이 되었다.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대상 포괄성 분석 이후 빈곤, 불평등에 대한 영향 분석도 시도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특히 현금지원 분석에서 이루어졌다. 급여충분성은 행정자료의 욕구추정과 각종 관련 자료에 근거한 욕구추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분석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소득과 재산의 계산에 대하여 약술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소득은 시장소득에 가깝다.<sup>2)</sup>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소득은 시장소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정 빅데이터에는 사적이전소득 정보가 없어 1차소득을 분석의 기준 소득으로 하였다.

2)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에서만 경상소득과 유사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운영에서는 각종 공적 지원 후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 &lt;참고&gt; 소득의 구분

- 1차소득 =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세금+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지출한 후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가처분소득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이 없고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불완전한 가처분소득을 제도의 효과분석에 사용하였다.<sup>3)</sup>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자료에서 소득 구성을 위해 활용한 변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본 연구의 활용 자료에는 사적이전소득과 세금이 누락되어 있고,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부담금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3-3&gt; 활용된 자료 중 소득 관련 변수

구분	사용 데이터의 해당 변수명	구성 가능 여부	비고
근로소득	근로소득	O	
사업소득	사업소득	O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됨.
부업소득	기타소득	O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임대소득은 상기 사업소득에 포함, 개인(퇴직)연금 등 누락
사적이전소득	-	X	정보 없음.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소득, 직역연금소득, 그 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출한 사회보장 급여액	△	근로장려금, 보훈급여 등의 일부 공적이전 소득은 누락
사회보장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직역)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누락
세금	-	X	정보 없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은 대부분의 제도 운영에서 선정기준으로 포함되고 연구에서도 총재산이나 순재산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행정자료에서는 재산은 과세표준액 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금융재산은 파악이 불가하고, 전·월세보증금은 일부 가구에만 해당 정보가 존재하여 정보가 불안정하였다. 재산 정보는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제도가 누락되어 있

3) 본 연구의 행정자료에는 세금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보장부담금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존재한다. 건강보험 의 사회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각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의 불완전 가처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일부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지 못하였고, 세금을 제하지 못하고, 사회보장부담금 또한 추정된 값을 제한 것이다.

다. 주요 제도 중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주거급여 외 주거지원 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중 수급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제도들이 존재한다. 해당 자료의 누락을 보완할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공적지원 관련 변수의 분석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분류된 공적이전소득이 중요한 정보로 포함되어 있다.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정부보조금이 해당 정보들이다. 근로장려금은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파악하였으며 동 제도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근로연령층 대상 소등보장제도 분석에서 고려하여 종합해석을 시도하였다.

다른 정보의 예로는 비소비지출 부문의 세분류 정보들이 있다. 주로 가구단위 정보로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등이 있다. 이 밖에 욕구와 관련하여 식료품비 지출, 의료비지출, 주거비지출 정보도 있다.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대표성 확인 후 소득과 재산의 파악에서 나타난 한계를 파악하는 분석, 그리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재난적 의료비 파악 등에서 분석 자료의 보완을 위해 통계청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 제3절 자료의 추출과 대표성 검증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하여 활용하는 주 자료는 행정자료 중 일부 자료이다.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특성상 거의 전 가구, 전 인구가 포괄되어 있다.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료 중 일부 가구, 인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자료의 크기가 지나치게 클 경우 분석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분석대상 가구(인구)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일부 표본을 확률 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소득 10분위와 연령기준 집단구분을 고려하여 총 80개 분석 셀을 분석의 기본 구조로 전제하고 안전한 수준의 유효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의 규모는 행정자료 전체 가구의 약 5%로 설정하였다. 2016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는 1,984만 가구, 인구는 5,127만 명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17).<sup>4)</sup> 5%는 99만 2천 가구, 256만 3천여 명이다. 80개의 셀을 가정하면 셀 당 약 12,400가구와 인구 32,000여 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표본 규모를 설정한 것이다. 한편 표본추출 규모의 결정에서 자료의 정리 단계에서 손실될 수 있는 표본 규모도 고려되었음을 밝힌다.

표본의 추출은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 규모, 광역 사도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건강보험공단 DB의 5% 가구를 단순무작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 시점은 2016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4) 가족으로 이루어진 일반가구는 1,937만 가구, 외국인 가구는 46만 가구, 내국인은 4,986만 명, 외국인은 141만 명이다

표본추출 단위는 가구이다. 가구 단위 추출에서 가구 단위의 확인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의 행정 전산망 세대 단위를 준용하였다. 개인의 수급정보를 가구단위로 결합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수급정보에 가구 아이디를 포함하도록 추출하였다. 추출된 5%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모두 추출하여 개인 단위 자료를 구축한 후 가구 아이디를 기준으로 가구 단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때 가구주는 세대주를 의미한다.

추출된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 안정적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6년 인구센서스 집계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2016년 인구센서스 결과 또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로,<sup>5)</sup> 주민등록세대 기준으로 가구가 구분되어 있다. 5% 표본의 대표성 검증을 위하여 특성을 인구센서스(2016년)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본추출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표본 수는 1,129,696 가구, 2,922,235명이다. 이 표본의 대표성을 인구센서스의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대표성 확인은 가구 단위 표본추출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두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가구주의 성·연령별 가구 분포, 가구 규모별 가구 분포, 그리고 지역(광역시·도)별 가구분포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가구주의 성을 기준으로 분포를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가 표본에서 70.6%, 센서스에서는 70%로 유사하였다.

<표 3-4> 가구주 성별 가구 분포 비교

(단위: %)

구분	표본	2016년 인구센서스
남성	70.6	70.0
여성	29.4	30.0
계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통계청(2017)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역시 두 자료가 유사하다. 표본의 경우 17세 이하 미성년 가구주 가구가 일부 존재한다. 총 416가구로 표본가구 중 0.01%로 극소수의 가구이다. 이 가구 중 성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81가구이다. 주민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할 때 미성년 세대주는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모는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 국적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미성년 가구주가 될 수 있다.

5) 통계청(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lt;표 3-5&gt;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비교

(단위: %)

구분	표본	2016년 인구센서스
20세 미만	0.1	0.3
20-29세	6.9	6.8
30-39세	16.6	16.6
40-49세	23.1	23.1
50-59세	24.2	24.1
60-69세	15.7	15.6
70세 이상	13.5	13.4
계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통계청(2017)

가구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의 표본에서 3~4인 가구 비율이 다소 높으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광역시도별 가구분포는 두 자료가 매우 유사하였다. 지역별 가구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경기, 서울 지역의 순으로 가구 비율이 높은 경향, 그리고 절대적인 지역별 가구의 비율도 인구센서스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인구센서스의 분포와 본 표본의 분포가 유사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3-6&gt; 가구 규모별 가구분포 비교

(단위: %)

구분	표본	2016년 인구센서스
1인	25.8	27.9
2인	25.4	26.2
3인	22.3	21.4
4인	19.5	18.3
5인 이상	7.0	6.2
계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통계청(2017)

<표 3-7> 광역시·도별 가구분포 비교

(단위: %)

구분	표본	2016년 인구센서스
서울	19.3	19.7
부산	6.9	6.8
대구	4.8	4.8
인천	5.6	5.5
광주	2.9	2.9
대전	3.0	3.0
울산	2.2	2.2
세종	0.5	0.5
경기	23.2	23.4
강원	3.2	3.1
충북	3.2	3.2
충남	4.2	4.2
전북	3.7	3.7
전남	3.8	3.7
경북	5.5	5.5
경남	6.6	6.5
제주	1.2	1.2
계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통계청(2017)

## 제 4 장

# 분석결과1: 기초분석과 제도형태별 분석

제1절 소득·재산·연령 등 표본의 특성 분석

제2절 사회보험 가입

제3절 공공부조: 생계급여 중심



# 4

## 분석결과1: 기초분석과 제도형태별 분석

본 장에서는 소득·재산·연령 등 본 연구의 기본 분석틀을 구성하는 요소별 표본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득과 서비스 수급 현황 분석에 앞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제도 형태별 기초분석을 병행하였다. 공공부조는 생계급여 중심으로 분석하고 종합 분석을 하였다. 욕구별 지원인 주거와 교육 등의 급여는 본 장의 분석에서는 하지 않고 5장의 소득보장분석에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주거보장이나 교육보장의 각종 제도를 포괄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고 주거보장은 주거급여만, 교육보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만을 포함, 현금성 지원만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 교육급여 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까지는 분석에 포함하였지만 이후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주거와 교육 보장은 욕구별 영역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수당이라는 제도 형태에 대한 기초분석은 소득보장현황 분석의 주된 내용으로 중복의 여지가 있어 본 장의 기초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 제1절 소득·재산·연령 등 표본의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각 분석에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변수로 소득과 자산, 그리고 연령을 중심으로 표본의 특성을 확인하는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득과 재산에서 행정자료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부분을 논의하였다.

#### 1. 소득의 구성과 한계

본 연구는 1차 소득을 제도적 포괄성을 분석하는 분석단위 소득으로 결정한 바 있다. 1차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bigcirc 1\text{차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사업 및 부업소득} + \text{재산소득}$$

일반적으로 제도의 포괄성을 볼 때 시장소득 기준을 사용한다. 시장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식을 보면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bigcirc \text{시장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사업 및 부업소득} + \text{재산소득} + \text{사적이전소득}$$

하지만 사적이전소득이 본 연구의 행정자료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장소득을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통상 가처분소득을 활용한다. 가처분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text{○ 가처분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사업 및 부업소득} + \text{재산소득} + \text{사적이전소득} + \text{공적이전소득} \\ - \text{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행정자료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소득이 부재하므로 공적이전소득을 1차 소득에 더하여 불완전 가처분소득을 정책효과 분석 등에서 활용하였다. 이 밖에도 가처분소득을 구성함에 있어서 세금을 소득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다만 사회보장부담금을 표준 보수월액, 사회보험별 가입여부 등을 전제로 추정하여 차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본 연구의 가처분소득 기준은 불완전 가처분소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소득원천별 가구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 표본 가구 중 63.15%로 가장 많았고 이자소득(0.44%)이나 배당소득(0.43%)과 같이 재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우 소수였다<sup>6)</sup>. 하지만 재산소득에 대한 행정자료의 포착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소득원천별 소득의 구성을 이후 분석결과의 해석에서 참고하는 수준에서 아래의 표를 이해하기 바란다.

<표 4-1>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기초분석 결과

(단위: %, 천원/연)

구분	소득가구비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값
근로소득	63.15	0	8,895,272	30,766	15,600
사업소득	39.42	0	13,934,943	7,328	0
이자소득	0.44	0	3,157,220	128	0
배당소득	0.43	0	12,569,960	525	0
국민연금	14.50	0	35,510	671	0
직역연금	2.19	0	139,300	726	0
기타소득	1.89	0	1,214,340	91	0
1차 소득	79.82	0	16,384,987	38,838	22,540
균등화 1차 소득	79.82	0	14,169,832	23,784	15,024
불완전 가처분소득	91.09	0	16,304,688	40,003	24,409
균등화 불완전 가처분소득	91.09	0	14,085,625	24,636	16,275
불완전 경상소득	91.28	0	16,384,987	41,123	25,025
균등화 불완전 경상소득	91.28	0	14,186,420	25,323	16,690

주: 가구의 소득은 연 단위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6)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파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분위를 구분하는 소득인 1차 소득이 0인 가구는 표본가구 중 20.18%였다. 1차 소득이 0인 가구가 많아서 1차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1분위와 2분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그리고 3분위까지도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차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4-2>와 같다. 1차 소득 1분위와 2분위가 구분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탐색을 하여 보자면 사적 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의 일부 누락을 고려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면 사적 이전소득만 있는 가구의 분포가 0.74%였으므로 약 1%정도의 가구는 이로 인하여 1차 소득이 0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 소득 분위별 가구 1차 소득과 균등화 가구 1차 소득

(단위: 천원/연)

소득 분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값	
	1차 소득	균등화 1차 소득	1차 소득	균등화 1차 소득	1차 소득	균등화 1차 소득	1차 소득	균등화 1차 소득
1-2분위	0	0	0	0	0	0	0	0
3분위	0	0	10,656	3,805	2,584	1,650	2,290	1,549
4분위	3,805	3,805	25,970	9,288	10,539	6,534	10,080	6,534
5분위	9,290	9,288	42,095	15,024	19,413	12,117	19,200	12,072
6분위	15,025	15,024	60,535	21,468	29,286	18,185	29,383	18,145
7분위	21,469	21,468	81,420	28,854	40,991	25,049	41,619	24,988
8분위	28,855	28,854	108,136	38,393	54,885	33,363	56,464	33,245
9분위	38,395	38,394	152,507	54,464	74,960	45,503	76,788	45,071
10분위	54,464	54,464	16,384,987	14,169,832	155,774	95,468	122,267	71,492
계	0	0	16,384,987	14,169,832	38,838	23,784	22,540	15,024

주: 3분위의 최소값이 0인 이유는 천원 미만의 금액 때문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불완전 가처분소득이 0인 가구는 표본의 약 8.91%였다. 1차 소득과 달리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 2분위 구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분위 가구의 소득은 매우 낮아 평균 월 1만원 미만이고 이는 소득이 0인 가구의 규모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2분위의 소득도 낮아서 평균 월 약 24만원 수준이다.

가구주 연령별·소득분위별 가구의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40대, 50대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가구주 가구도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소득하위구간에 노인가구주 가구가 더 많이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40대 가구주 가구는 상위소득분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lt;표 4-3&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00	0.01	0.06	1.00	1.69	3.12	3.73	1.91	3.97	4.68	20.18
3분위	0.00	0.00	0.01	0.45	1.04	2.01	2.34	1.25	1.77	0.93	9.82
4분위	0.00	0.00	0.01	0.56	1.35	2.36	2.43	1.18	1.46	0.65	10.00
5분위	0.00	0.00	0.00	0.66	1.44	2.28	2.47	1.25	1.48	0.42	10.00
6분위	0.00	0.00	0.01	0.93	1.88	2.30	2.44	1.13	1.04	0.27	10.00
7분위	0.00	0.00	0.00	1.03	2.38	2.48	2.30	0.96	0.69	0.17	10.00
8분위	0.00	0.00	0.00	0.96	2.55	2.78	2.32	0.78	0.49	0.13	10.00
9분위	0.00	0.00	0.00	0.84	2.44	2.89	2.72	0.62	0.37	0.12	10.00
10분위	0.00	0.00	0.00	0.43	1.82	2.90	3.43	0.77	0.47	0.17	10.00
계	0.00	0.01	0.09	6.86	16.59	23.13	24.19	9.84	11.73	7.55	100.00

주: 분석된 전체 가구 수는 1,129,696가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2. 가구 재산의 구성과 고려점

재산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 과세표준액으로 구성되었다. 전·월세는 일부 가구(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만 해당 정보가 존재하므로 자료의 왜곡 위험을 고려하여, 재산액에 가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금융자산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구 재산액의 구성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불완전하고 기타 금융자산이 누락되어 재산액 구성이 불완전하고 결과적으로 재산10분위 구성에서 하위 1, 2, 3분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재산이 0인 집단 중 일부 집단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점은 분석결과의 해석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추정컨대 높은 전·월세 보증금 등을 보유한 높은 소득의 가구가 자가가 아니라면 소득은 높으나 재산은 0이거나 0에 가까운 가구로 분류될 수 있다. 가구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제거하면 재산이 0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으며 해당 가구 중 젊은 연령의 가구주 가구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만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약 9.2%였다. 참고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는 전 가구 중 약 13%였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재산을 누락된 상태에서 재산이 0인 가구가 많은 것은 상당 부분 설명이 된다. 그러나 10% 가구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도 재산이 1-3분위까지 구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30대 가구주는 주로 낮은 재산 분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50-60대 가구주 가구는 상대적으로 재산 상위분위에 더 많이 분포



하고 있다.

<표 4-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0.00	0.01	0.09	5.78	8.35	8.22	7.40	2.68	3.22	2.76	38.50
4분위	0.00	0.00	0.00	0.04	0.15	0.25	0.34	0.15	0.24	0.32	1.50
5분위	0.00	0.00	0.00	0.26	1.23	2.16	2.52	1.05	1.47	1.32	10.00
6분위	0.00	0.00	0.00	0.25	1.74	2.66	2.56	0.99	1.16	0.64	10.01
7분위	0.00	0.00	0.00	0.21	1.86	2.89	2.62	0.96	1.01	0.46	9.99
8분위	0.00	0.00	0.00	0.16	1.58	2.86	2.81	1.07	1.08	0.43	10.00
9분위	0.00	0.00	0.00	0.11	1.15	2.52	3.06	1.28	1.34	0.53	10.00
10분위	0.00	0.00	0.00	0.06	0.54	1.57	2.88	1.67	2.21	1.08	10.00
계	0.00	0.01	0.09	6.86	16.59	23.13	24.19	9.84	11.73	7.55	100.00

주: 분석된 전체 가구 수는 1,129,696가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표 4-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98	0.61	2.68	1.37	0.99	0.89	0.87	0.79	20.18
3분위	4.02	0.18	1.21	1.05	0.90	0.85	0.87	0.74	9.82
4분위	3.90	0.15	1.13	1.11	0.96	0.88	0.90	0.96	10.00
5분위	3.75	0.14	1.12	1.19	1.03	0.93	0.92	0.92	10.00
6분위	3.73	0.12	1.07	1.25	1.10	0.97	0.89	0.87	10.00
7분위	3.53	0.11	0.97	1.32	1.27	1.07	0.93	0.81	10.00
8분위	3.18	0.09	0.82	1.24	1.43	1.29	1.08	0.88	10.00
9분위	2.68	0.06	0.63	0.99	1.43	1.61	1.45	1.15	10.00
10분위	1.74	0.04	0.37	0.48	0.88	1.52	2.09	2.88	10.00
계	38.50	1.50	10.00	10.01	9.99	10.00	10.00	10.00	100.00

주: 분석된 전체 가구 수는 1,129,696가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비교를 위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재산분위별 가구분포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와 같이 설문조사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의 소득과 재산 분위별 가구 분포를 보면 1분위에서 10분위 까지 비교적 고르게 가구가 분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등의 포괄범위의 차이가 분위별 가구 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앞의 표본 분석 결과와 비

교하여 보면 소득 분위별·재산 분위별 가구분포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칸의 평균 가구분포 이상으로 가구가 분포된 칸으로 가구가 과밀 분포된 칸이다.

<표 4-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단위: %)

재산 소득	1	2	3	4	5	6	7	8	9	10	계
1	3.72	1.72	1.24	0.80	0.65	0.62	0.49	0.41	0.36	0.30	10.31
2	1.59	1.33	1.28	1.14	0.83	0.74	0.79	0.78	0.67	0.59	9.74
3	1.70	1.80	1.25	1.02	0.98	0.72	0.67	0.73	0.60	0.56	10.03
4	1.29	1.63	1.61	1.35	1.23	0.92	0.85	0.66	0.60	0.60	10.74
5	0.66	1.11	1.29	1.29	1.08	0.98	0.89	0.61	0.80	0.49	9.20
6	0.59	1.00	1.10	1.34	1.44	1.32	1.09	0.89	0.71	0.50	9.98
7	0.21	0.76	0.87	1.29	1.37	1.45	1.34	1.22	0.93	0.75	10.19
8	0.16	0.44	0.86	1.02	1.18	1.49	1.35	1.49	1.10	0.99	10.08
9	0.07	0.21	0.33	0.59	0.92	1.16	1.50	1.65	1.84	1.46	9.74
10	0.00	0.02	0.16	0.16	0.31	0.61	1.02	1.56	2.38	3.76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1	9.99	10.01	10.00	10.00	100.00

주: 총재산 기준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참고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보면 소득 하위 3분위까지 하위 소득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가구주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그 비율이 더 높다.

<표 4-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56.67	55.47	38.45	44.46	52.84	52.52	48.05	39.59	28.32	28.58	39.74
3분위	80.00	87.50	41.09	51.55	49.99	47.20	43.03	33.13	24.99	26.57	38.95
4분위	-	40.00	34.18	38.21	36.78	33.16	32.29	23.40	17.23	20.25	29.40
5분위	-	100.00	26.32	24.67	22.76	22.29	21.86	15.00	10.88	17.39	19.61
6분위	-	100.00	24.56	15.50	12.69	14.02	16.27	11.69	9.11	14.12	13.69
7분위	0.00	-	7.32	10.14	7.37	7.70	11.17	8.85	7.72	12.87	8.87
8분위	-	-	4.35	6.39	4.69	4.57	7.64	7.33	7.12	13.24	5.94
9분위	-	-	8.33	4.04	3.05	2.82	4.43	5.51	5.80	8.53	3.76
10분위	-	-	0.00	2.75	2.14	1.99	2.51	3.57	3.32	5.43	2.47
계	58.33	57.52	34.71	20.57	17.39	20.15	21.35	20.02	18.75	25.00	20.2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3. 기타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본론에서 제시할 각 부분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초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예로는 소득 분위별 가구 규모, 그리고 본 연구의 공통적 분석틀로 사용하는 소득과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 등이라 하겠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후 각 영역의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이 전 가구, 전 인구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하의 기초분석결과표에서의 가구 및 개인 분포와 상이할 수 있다.

표본의 가구 규모를 보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규모가 커졌다. 평균 가구 규모는 약 2.6명이었고, 소득하위 1분위는 1.8명이었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가구 규모가 큰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순이었고, 1-2분위 외에는 60대, 70대의 가구 규모도 2.0명 이상이었다. 재산분위별 가구 규모를 보면 재산 6,7,8,9분위에서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가구 규모를 보면 소득분위별 가구 규모의 격차가 재산분위별 격차보다 더 컸다.

<표 4-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40	1.50	1.31	1.33	2.10	2.21	1.83	1.70	1.72	1.67	1.81
3분위	2.40	2.25	1.48	1.62	2.72	2.99	2.63	2.34	2.40	2.58	2.58
4분위		2.20	1.30	1.60	2.80	3.17	2.82	2.49	2.53	2.74	2.74
5분위		2.00	1.21	1.62	2.81	3.17	2.88	2.45	2.41	2.69	2.72
6분위		2.00	1.21	1.51	2.89	3.22	2.94	2.52	2.44	2.77	2.76
7분위	2.00		1.12	1.40	2.82	3.34	3.07	2.73	2.71	2.82	2.85
8분위			1.00	1.35	2.60	3.38	3.21	2.86	2.86	2.93	2.88
9분위			1.33	1.33	2.42	3.33	3.27	2.97	2.92	2.77	2.88
10분위			1.00	1.34	2.33	3.16	3.09	2.79	2.65	2.50	2.84
계	1.56	1.57	1.30	1.44	2.60	3.09	2.82	2.42	2.26	2.06	2.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4-9&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51	1.51	1.27	1.34	2.19	2.54	2.23	1.86	1.72	1.60	2.04
4분위	3.00	2.00	2.00	1.98	2.83	3.05	2.64	2.21	1.98	1.76	2.37
5분위		2.50	1.86	1.98	3.07	3.36	2.93	2.50	2.30	2.11	2.77
6분위		4.00	2.13	2.11	3.19	3.49	3.13	2.69	2.53	2.41	3.05
7분위			2.67	1.95	3.12	3.50	3.17	2.70	2.54	2.48	3.09
8분위		2.50	3.00	1.74	2.92	3.42	3.17	2.69	2.54	2.50	3.03
9분위		3.00	1.00	1.66	2.82	3.33	3.11	2.67	2.54	2.54	2.95
10분위			2.00	1.82	2.73	3.23	3.00	2.61	2.46	2.43	2.77
계	1.56	1.57	1.30	1.44	2.60	3.09	2.82	2.42	2.26	2.06	2.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4-10&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61	1.77	2.00	2.25	2.27	2.23	2.21	2.06	1.81
3분위	2.33	2.72	2.84	2.92	2.83	2.72	2.64	2.47	2.58
4분위	2.42	2.81	3.06	3.13	3.07	2.96	2.88	2.59	2.74
5분위	2.34	2.78	3.04	3.09	3.06	2.96	2.85	2.65	2.72
6분위	2.26	2.84	3.11	3.23	3.16	3.04	2.96	2.74	2.76
7분위	2.21	2.92	3.22	3.34	3.29	3.21	3.12	2.88	2.85
8분위	2.09	2.89	3.18	3.34	3.34	3.29	3.23	2.99	2.88
9분위	1.98	2.71	3.07	3.24	3.34	3.27	3.22	3.05	2.88
10분위	1.96	2.59	2.76	3.02	3.16	3.15	3.07	2.94	2.84
계	2.04	2.37	2.77	3.05	3.09	3.03	2.95	2.77	2.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 분위별·재산 분위별 평균 가구주 연령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구주 연령 전체 평균보다 평균 값이 높은 칸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위에서 평균 가구주 연령이 높았다. 그러나 재산 1-3분위에서는 소득 3-5분위의 가구주 연령이 평균보다 낮아서 젊은 연령의 가구주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9-10분위에서는 상위 소득 분위에서도 가구주 평균 연령이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주 연령이 낮아지고 높은 소득 분위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40대 중반이었다. 재산분위에서는 4분위와 10분위의 평균가구주 연령이 높았다.

&lt;표 4-11&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주 평균 연령

(단위: 세)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6.54	68.78	66.15	62.80	61.56	61.69	62.43	65.47	59.69
3분위	49.13	57.73	57.90	56.88	57.37	59.05	61.36	64.66	55.07
4분위	46.67	55.58	54.55	53.31	53.57	55.41	58.09	63.94	52.56
5분위	45.92	54.69	53.32	52.36	52.93	54.69	56.94	62.06	51.68
6분위	42.70	51.47	50.72	49.26	49.90	52.17	54.68	60.85	48.84
7분위	40.15	48.76	48.70	47.23	47.10	49.14	52.20	59.01	46.49
8분위	38.62	47.70	47.93	46.75	46.25	47.35	49.89	57.22	45.53
9분위	37.65	45.35	47.48	47.08	46.37	47.07	49.23	55.52	45.74
10분위	38.79	46.46	47.19	47.54	47.31	47.68	49.31	55.13	48.56
계	47.30	59.21	55.69	51.86	50.78	51.67	53.80	59.18	51.3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제2절 사회보험 가입

본 절에서는 사회보험의 보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의 보장현황은 보험가입과 보험급여의 수급 현황을 모두 분석하여야 전체적인 보장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본 자료에서는 수급 현황 정보가 불충분하여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행정자료에는 국민연금 급여, 요양급여의 수급은 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노인 소득보장과 돌봄서비스 분석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기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급여 수급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거의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을 분석하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험 가입현황 분석에서 연령 구분은 근로연령 내 구분으로 한정하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1. 사회보험 가입 현황 총괄

사회보험가입 주 대상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분포를 근로연령층 중 가입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입자의 비율은 근로활동을 하는 취업자 중 가입자의 비율이 아니라 해당 소득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 인구집단 중 가입자 비율로 통상적인 사회보험가입률 분석과 모수처리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본 연구의 표본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

상 64세 이하<sup>7)</sup> 근로연령층 중 47.96%이다. 2016년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연금 가입자는 약 1,765만여 명으로, 이를 동년 인구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로 환산하면 4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공식통계 기준 33.64%로 나타난다(표본은 31.77%). 자료의 한계로 완벽한 비교라 하기는 어렵지만 표본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과 공식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입 비율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2> 사회보험 가입 규모(2016년 기준)

(단위: 명, %)

사회보험	표본	통계자료
국민연금보험(특수직역 제외)	980,758명 (47.96%)	17,659,255명 (46.94%)
고용보험	649,656명 (31.77%)	12,655,202명 (33.64%)
산재보험	535,436명 (26.18%)	27.78%

주: 1) 표본의 경우 18~64세 인구 중 가입 규모임.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통계자료의 절대 수는 18세 이상 인구 가입자 수임. 비율은 인구총조사의 15~64세 인구를 모수로 함.

3) 산재보험의 경우 공식 집계자료는 사업자 규모를, 통계청 사회조사는 근로자 중 가입률만 보고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중 가입 비율을 보고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조사통계자료를 인용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국민연금통계; 고용보험통계; 한국복지패널(기준연도 2016).

본 연구의 행정자료에는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절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를 막론한 연금수급액 정보는 존재하기 때문에 5장의 소득보장 종합 분석에는 직역연금의 수급 정보가 분석에 활용되어 있다.

아래는 2016년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규모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공식 집계자료의 직역연금 가입 규모를 볼 때, 표본 중 8만여 명의 직역연금 가입자는 본 절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13> 직역연금 가입 규모

(단위: %)

연금종류	가입자 수	기준과 출처
공무원연금	1,107,972	2016년 기준/ 공무원연금연보
군인연금	201,000	2016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사학연금	313,156	2016년 기준/ 사학연금연보
별정우체국연금	-	확인불가
직역연금 가입자 총수	1,622,128	각 가입자 수의 합
가입자 총수의 5%	81,106	표본추출 비율 반영

자료: 공무원연금공단(2017); 사학연금공단(2017); 국회예산정책처(2018).

소득 분위별·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비율과 소득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비율을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별·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비율을

7) 경제활동연령 기준은 15세 이상 64세 이하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근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전 연령에서는 매우 최소한 수치가 집계되어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회보험 1개 이상 가입한 자의 비율이 소득3분위이하 저소득층에서 평균 이하로 낮았고 34세 이하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낮은 소득분위, 청년일수록 사회보험 가입에서 대상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에서는 각 칸의 가입율이 평균보다 높은 칸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음영표시가 없는 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에서 대상 포괄성이 낮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14>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2.69	7.02	16.13	18.80	14.48
3분위	6.03	15.03	35.54	37.05	28.77
4분위	12.79	29.62	52.76	51.54	42.83
5분위	16.94	42.93	63.48	60.62	52.43
6분위	21.19	54.99	69.29	66.78	59.71
7분위	21.72	62.35	70.52	70.18	63.51
8분위	19.04	65.93	70.28	70.58	64.19
9분위	15.49	66.14	70.58	65.35	62.28
10분위	10.61	66.40	71.93	62.28	61.24
계	13.99	50.80	58.70	54.31	50.6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가구 단위로 사회보험 가입자 유무 현황을 보면, 사회보험 1개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소득 3분위 이하까지는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가구주 가구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표 4-1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00	3.65	3.80	6.22	15.77	21.89	28.75	12.99	5.64	5.54	13.97
3분위	20.00	12.50	29.46	22.60	43.25	54.26	65.20	35.36	23.88	30.50	44.08
4분위		40.00	54.43	55.91	70.02	81.31	84.97	62.75	54.21	52.03	71.16
5분위		0.00	73.68	78.25	84.20	91.50	93.98	81.32	76.94	67.25	85.74
6분위		100.00	94.74	89.58	91.39	94.71	97.22	87.75	80.67	68.80	91.28
7분위	0.00		92.68	90.31	90.72	93.74	98.07	89.58	80.31	65.53	91.87
8분위			95.65	84.76	90.76	88.99	94.56	89.56	77.45	59.52	89.43
9분위			91.67	85.14	89.51	90.56	88.92	85.58	73.16	53.57	88.00
10분위			66.67	96.25	94.15	89.78	88.41	71.62	56.17	44.85	86.63
계	2.78	5.88	25.64	68.44	78.14	77.75	79.63	61.68	41.55	22.29	67.5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1종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율을 재산분위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보험 가입자의 분포에서 재산은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입자 분포와 상관관계가 낮지만 재산 기준 5분위 이하 하위 재산구간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24-50세의 경우 재산 1-3분위에서도 가입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4-16>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19.04	54.42	52.12	44.28	47.17
4분위	14.47	43.50	50.64	44.00	42.63
5분위	14.60	45.65	55.48	52.83	47.74
6분위	13.85	49.07	60.74	58.78	52.48
7분위	12.01	50.56	62.57	59.88	53.82
8분위	10.37	49.65	62.84	59.66	53.69
9분위	9.44	47.95	63.67	58.58	53.33
10분위	8.54	46.29	65.43	57.13	52.98
계	13.99	50.80	58.70	54.31	50.6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1종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율을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소득 분위에서 가입자 비율이 낮고 재산분위별 가입자 비율의 차이는 매우 작았다. 사회보험이 대부분 소득 활동을 전제로 가입요건이 구성되므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사회보험 가입율이 높은 것은 짐작이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재산이 낮은 분위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지 않아서 이 점은 다소 의외이지만 부동산이 없는 젊은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의 해석도 가능하다.

<표 4-17>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 1종 이상 가입자 분포

(단위: %, 명)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0.95	12.21	15.25	18.51	20.28	21.58	23.61	26.31	14.48
3분위	24.40	24.93	28.86	30.80	32.36	33.32	33.87	34.52	28.77
4분위	42.28	40.46	41.49	42.47	44.25	45.14	44.72	41.63	42.83
5분위	54.39	50.37	51.00	51.65	52.41	52.10	51.91	49.15	52.43
6분위	63.73	58.34	58.28	58.31	58.50	58.74	57.64	53.97	59.71
7분위	69.28	63.40	63.06	62.46	61.28	60.53	60.32	57.26	63.51
8분위	71.53	66.68	65.43	64.65	62.14	60.03	59.68	57.42	64.19
9분위	72.33	66.78	64.03	63.78	60.90	58.41	56.88	57.46	62.28
10분위	75.45	66.70	65.30	62.99	59.81	58.59	58.43	58.29	61.24
계	47.17	42.63	47.74	52.48	53.82	53.69	53.33	52.98	50.6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3. 개별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분석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의 가입자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금보험 가입자 분포를 보면 1차 소득 3분위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낮았고 2분위 이하의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 소득 5분위 이상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층으로 보자면 30~50대까지의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연령계층의 가입자 비율이 낮았다.

<표 4-18>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2.11	6.51	15.70	18.03	13.89
3분위	5.13	14.05	34.85	35.71	27.78
4분위	11.74	28.20	51.93	45.02	40.13
5분위	15.99	41.56	62.69	49.01	48.11
6분위	20.23	53.73	68.53	54.08	55.35
7분위	20.85	61.08	69.71	57.79	59.59
8분위	18.33	64.79	69.48	59.91	60.97
9분위	14.81	65.17	69.77	57.63	59.77
10분위	10.10	65.56	71.37	58.00	59.52
계	13.18	49.70	57.98	47.11	47.96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포를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금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 4분위 이하까지는 연금가입자 비율이 낮고 50대 이상에서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연금보험 전체 가입자 분포와 유사하였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분포를 보면 오히려 소득 3,4분위에서 가입자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비율이 높아서 35세 이상,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9>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1.83	2.16	3.10	1.97	2.42
3분위	4.64	4.74	5.49	3.17	4.46
4분위	11.29	18.14	22.66	13.47	17.51
5분위	15.60	34.86	41.02	24.22	31.24
6분위	19.85	49.23	53.96	31.92	42.61
7분위	20.50	57.71	60.08	38.91	50.14
8분위	17.97	62.34	61.50	43.86	53.29
9분위	14.37	62.93	62.84	44.11	53.12
10분위	9.42	62.95	65.19	47.18	53.30
계	12.75	45.16	43.51	26.56	35.42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4-20&gt;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0.28	4.34	12.62	16.11	11.50
3분위	0.49	9.32	29.41	32.62	23.37
4분위	0.46	10.08	29.32	31.64	22.67
5분위	0.39	6.72	21.73	24.88	16.93
6분위	0.39	4.51	14.61	22.23	12.77
7분위	0.36	3.38	9.65	18.93	9.48
8분위	0.36	2.45	8.00	16.09	7.71
9분위	0.44	2.24	6.94	13.56	6.66
10분위	0.69	2.62	6.20	10.84	6.23
계	0.43	4.54	14.50	20.61	12.5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 분위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위 재산구간에서 가입자 비율이 다소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은 소득 분위, 연령과 더 강한 관계를 보였다. 아래의 소득 분위별·재산 분위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를 보아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lt;표 4-21&gt;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18.03	53.32	51.35	37.69	44.94
4분위	13.56	42.49	49.98	37.13	39.72
5분위	13.71	44.46	54.75	45.08	44.74
6분위	13.10	47.86	60.07	50.51	49.59
7분위	11.25	49.37	61.85	51.76	50.99
8분위	9.75	48.56	62.09	51.54	50.69
9분위	8.80	46.84	62.97	51.30	50.27
10분위	8.00	45.48	64.86	51.51	50.18
계	13.18	49.70	57.98	47.11	47.96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4-22&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국민연금 가입자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0.23	11.52	14.69	18.11	20.00	21.27	23.34	26.12	13.89
3분위	23.23	23.69	27.79	29.93	31.52	32.45	33.22	33.89	27.78
4분위	39.33	37.32	38.63	40.07	41.65	42.43	42.06	39.71	40.13
5분위	50.43	45.28	46.67	47.57	48.09	47.11	46.58	45.10	48.11
6분위	60.15	53.23	53.87	54.10	54.11	53.43	52.14	49.09	55.35
7분위	66.26	58.91	58.60	58.68	57.45	56.07	55.13	52.92	59.59
8분위	69.26	63.06	61.46	61.26	59.06	56.63	55.84	53.55	60.97
9분위	70.57	63.91	61.00	61.09	58.42	55.85	54.24	54.40	59.77
10분위	74.31	65.06	63.11	61.17	58.20	57.01	56.73	56.27	59.52
계	44.94	39.72	44.74	49.59	50.99	50.69	50.27	50.18	47.96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고용보험의 가입자 비율을 소득 분위와 연령 기준으로 보면, 낮은 소득 분위, 특히 소득 3분위 이하, 23세 이하에서 가입자 비율이 낮았다. 24-34세 연령은 전체적으로 가입률이 높았으나 하위 소득 분위와 상위 소득 분위의 가입률 차이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더 컸다.

&lt;표 4-23&gt;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단위: %)

소득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1.58	1.24	1.20	1.25	1.27
3분위	3.87	3.78	3.46	2.93	3.38
4분위	10.37	15.84	16.78	16.60	15.70
5분위	14.48	31.62	31.88	30.86	29.28
6분위	18.85	45.76	43.74	38.67	39.98
7분위	19.38	54.43	50.47	44.36	46.90
8분위	16.81	59.01	52.83	46.31	49.38
9분위	13.45	59.56	54.00	42.27	48.19
10분위	8.16	56.90	50.67	34.55	42.57
계	11.80	41.93	35.43	27.28	31.7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 분위별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의 분포를 보면 재산분위별로 가입률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35세 이상의 연령에서 중간 분위의 재산구간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상위 재산 분위, 10분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재산이 많은 노인인구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 4-24>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단위: %)

재산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16.61	46.43	32.75	25.02	33.01
4분위	12.24	34.98	28.74	23.84	26.17
5분위	12.57	37.12	33.16	28.85	30.03
6분위	11.90	40.66	38.57	33.08	34.39
7분위	10.10	42.06	40.06	32.75	35.05
8분위	8.58	40.78	39.24	31.27	33.70
9분위	7.33	37.86	36.45	27.51	30.39
10분위	5.80	32.88	29.49	18.74	23.10
계	11.80	41.93	35.43	27.28	31.7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표 4-2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단위: %)

재산 \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53	1.24	1.12	0.88	0.70	0.85	0.90	0.68	1.27
3분위	4.34	3.83	3.62	2.83	2.72	2.49	2.05	1.92	3.38
4분위	20.89	17.50	16.13	13.93	12.91	12.09	10.68	7.42	15.70
5분위	36.82	30.77	29.95	28.78	26.61	24.26	21.79	16.16	29.28
6분위	49.43	41.06	41.50	40.36	37.06	34.56	30.55	21.96	39.98
7분위	57.46	50.09	49.14	47.94	44.85	41.22	36.93	27.15	46.90
8분위	61.06	53.71	53.11	53.02	48.75	44.07	39.26	29.18	49.38
9분위	62.56	53.24	52.74	53.14	49.81	45.10	39.40	30.35	48.19
10분위	62.66	49.95	50.30	50.46	47.84	45.28	41.22	29.06	42.57
계	33.01	26.17	30.03	34.39	35.05	33.70	30.39	23.10	31.77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여타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중 가장 낮았다.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를 보면 여타 사회보험과 유사하지만 고용보험과 비교하여 다른 연령대 대비 20대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소득하위 분위에서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이 낮았고 특히 소득 3분위 이하에서는 가입률이 크게 낮았다. 재산 분위별 산재보험 가입의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여전히 중간 재산 분위에서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이 높고 재산 상위 분위, 10분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이 낮았다.

<표 4-26>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

(단위: %)

소득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1.28	1.00	0.90	0.87	0.94
3분위	3.18	3.26	3.07	2.57	2.94
4분위	8.40	14.17	15.48	14.78	14.08
5분위	11.99	27.92	28.73	26.45	25.70
6분위	15.60	39.82	38.84	33.03	34.80
7분위	15.77	46.53	43.92	38.17	40.37
8분위	13.48	49.16	44.42	39.52	41.47
9분위	10.21	46.42	42.66	34.62	38.16
10분위	6.33	39.54	35.23	26.02	30.26
계	9.51	34.17	29.25	22.80	26.18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표 4-27>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

(단위: %)

재산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13.31	37.66	27.86	21.44	27.50
4분위	9.79	29.62	24.54	20.31	22.20
5분위	10.40	30.77	28.34	24.56	25.41
6분위	9.79	33.81	32.76	28.08	29.03
7분위	8.24	34.36	33.06	27.22	28.90
8분위	6.85	32.93	31.15	25.50	27.06
9분위	5.83	30.52	28.25	22.24	24.09
10분위	4.42	26.64	23.10	15.43	18.56
계	9.51	34.17	29.25	22.80	26.18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과 재산 분위별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면 재산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10분위는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입자의 비율이 낮았고, 소득 3분위 이하의 재산과 무관하게 가입자의 비율이 낮았다.

&lt;표 4-28&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산재보험 가입자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2	1.00	0.85	0.76	0.57	0.57	0.65	0.41	0.94
3분위	3.74	3.70	3.14	2.48	2.39	2.18	1.79	1.65	2.94
4분위	18.66	15.60	14.42	12.57	11.57	10.95	9.74	6.72	14.08
5분위	32.45	26.81	26.50	25.29	23.20	20.99	18.97	14.17	25.70
6분위	43.07	35.52	36.22	35.13	32.42	29.79	26.58	18.98	34.80
7분위	49.60	42.59	42.28	41.30	38.62	35.44	31.61	23.16	40.37
8분위	51.51	45.58	44.46	44.83	40.67	36.69	32.78	24.73	41.47
9분위	48.77	43.70	42.77	42.94	39.33	35.54	31.08	24.42	38.16
10분위	41.33	36.77	36.45	37.60	34.95	31.78	28.92	21.84	30.26
계	27.50	22.20	25.41	29.03	28.90	27.06	24.09	18.56	26.18

주: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연금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비교하여 노후소득보장과 실업 시 소득보장의 가능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종사상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 가입자 가구의 분포를 비교, 각 보험의 대상 포괄성을 확인, 비교하여 보는 의미도 지닌다. 산재보험은 직장 단위 보험 가입으로 이러한 비교에서 적절성이 낮아 비교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고용보험가입자 비율보다 높았다. 전자는 35.42%, 후자는 31.77%였다. 가입자의 소득 분위별 연령별 분포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분포와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가 유사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가입자 분포가 상이하였는데 51-64세 연령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보다 낮았다. 그리고 35-50세 연령에서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이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과 비교하여 크게 높았다. 사회보험이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사회보험 중별로 상이한 것은 특정 영역에서 사회보험 기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 제3절 공공부조: 생계급여 중심

공공부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욕구영역별 급여분석에서 분석결과가 제시되므로 본 절에서는 생계급여와 생계, 주거, 교육, 자활을 종합한 수급현황 분석을 하였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외 국가유공자 등 기타 집단이 대상으로 포괄되므로 의료서비스 보장의 분석에서 다루고 이 절의 종합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생계급여 수급자 있는 가구<sup>8)</sup>는 전체 표본가구의 5.45%, 생계급여 수급자는 표본의 3.23%였다. 소득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분포를 보면 1-2분위에서 수급율이 높다. 가구주 연령을 소득분위와 함께 고려하여 보면 낮은 소득 분위, 아동가구주, 노인가구주 가구에 대상 포괄성이 높았다. 재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수급가구의 분포를 보면 재산 4분위까지 생계급여 대상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높은 재산 분위까지 생계급여 대상 포괄성이 높았다. 노인에 대한 재산특례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석 결과에서도 1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체 표본수가 너무 작아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4-2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6.67	22.63	36.87	7.35	7.78	13.29	20.09	23.11	30.39	32.26	22.56
3분위	0.00	12.50	25.58	3.24	2.52	4.42	5.16	3.84	4.42	7.53	4.58
4분위		0.00	8.86	1.24	0.75	1.63	2.09	2.02	2.32	4.51	1.94
5분위		0.00	0.00	0.62	0.49	0.77	1.12	1.47	1.47	4.13	1.14
6분위		0.00	0.00	0.25	0.28	0.49	0.74	0.68	0.85	2.96	0.62
7분위	0.00		2.44	0.09	0.14	0.30	0.43	0.44	0.70	2.67	0.35
8분위			4.35	0.05	0.11	0.26	0.33	0.38	0.40	1.23	0.25
9분위			0.00	0.04	0.06	0.11	0.16	0.20	0.19	0.80	0.12
10분위			0.00	0.00	0.04	0.08	0.11	0.13	0.23	0.51	0.10
계	5.56	20.92	27.12	1.51	1.14	2.56	4.10	5.58	11.58	21.77	5.45

주 1) 수급자가 있는 전체 가구의 수는 61,623가구

2)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8) 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수급가구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개인수급으로 개인수급자가 속한 가구도 수급가구로 처리되었음을 밝힌다. 소득 1-2분위 이상, 재산 1-3분위 이상에서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 수급가구가 분포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득평가액 계산과 재산특례 등도 이러한 수급자 분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분석 자료에서 누락된 금융재산의 영향으로 일부 가구는 실제보다 낮은 재산 분위로 분류되고 낮은 재산 분위의 일부 가구는 실제보다 높은 분위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lt;표 4-30&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5.71	20.55	26.48	1.68	1.92	6.04	10.66	15.67	31.30	42.00	10.79
4분위	0.00	0.00	33.33	2.71	2.14	4.96	10.20	13.87	25.89	31.67	15.83
5분위		100.00	52.38	1.52	1.05	2.18	4.32	6.29	14.09	22.53	7.44
6분위		0.00	50.00	0.21	0.33	0.56	0.96	1.70	3.87	8.42	1.62
7분위			33.33	0.17	0.15	0.30	0.51	0.96	1.54	3.33	0.65
8분위		0.00	40.00	0.06	0.15	0.22	0.33	0.65	0.88	1.93	0.43
9분위		0.00	0.00	0.31	0.08	0.14	0.25	0.35	0.54	0.85	0.29
10분위		-	25.00	0.47	0.05	0.10	0.18	0.31	0.23	0.26	0.20
계	5.56	20.92	27.12	1.51	1.14	2.56	4.10	5.58	11.58	21.77	5.45

주 1) 수급자가 있는 전체 가구의 수는 61,623가구

2)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4-31&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9.96	33.07	22.62	7.44	2.71	1.64	0.82	0.41	22.56
3분위	8.26	8.96	4.92	1.80	1.17	0.77	0.51	0.33	4.58
4분위	3.10	5.33	2.82	1.17	0.85	0.58	0.50	0.29	1.94
5분위	1.60	4.00	1.96	0.80	0.69	0.49	0.32	0.30	1.14
6분위	0.77	1.86	1.06	0.58	0.40	0.31	0.28	0.24	0.62
7분위	0.37	1.16	0.68	0.38	0.18	0.32	0.22	0.24	0.35
8분위	0.19	0.62	0.48	0.37	0.22	0.23	0.23	0.10	0.25
9분위	0.09	0.00	0.25	0.13	0.15	0.11	0.10	0.14	0.12
10분위	0.12	0.20	0.24	0.15	0.10	0.08	0.06	0.09	0.10
계	10.79	15.83	7.44	1.62	0.65	0.43	0.29	0.20	5.45

주 1) 수급자가 있는 전체 가구의 수는 61,623가구

2)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분위별·연령별 개인수급자 단위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소득 1-2분위, 노인, 특히 75세 이상에서 높았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10대에서도 수급율이 높았다. 재산 분위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을 보면 재산 4분위, 1-3분위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재산 4분위의 수급자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수급율이 매우 높다. 노인의 재산특례와 다른 연령 대비 저소득 노인의 경우 재산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보다 재산 분위가 상대적으로 수급자 분포에 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기준이 소득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관대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lt;표 4-32&gt; 소득 분위별 개인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자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9.02	16.00	26.94	12.18	7.38	12.33	17.91	19.36	25.09	26.62	18.47
3분위	2.52	4.65	8.38	4.36	1.59	3.04	3.47	2.22	2.70	5.12	3.64
4분위	0.74	1.57	2.72	1.07	0.52	1.01	1.24	0.89	1.05	3.00	1.25
5분위	0.30	0.45	1.09	0.34	0.26	0.39	0.56	0.50	0.76	2.77	0.57
6분위	0.08	0.23	0.43	0.12	0.10	0.19	0.31	0.26	0.55	2.19	0.28
7분위	0.02	0.12	0.25	0.05	0.04	0.11	0.18	0.13	0.34	1.57	0.14
8분위	0.00	0.08	0.13	0.02	0.03	0.07	0.14	0.16	0.19	0.89	0.09
9분위	0.01	0.03	0.04	0.01	0.02	0.04	0.05	0.08	0.21	0.46	0.05
10분위	0.03	0.01	0.05	0.01	0.00	0.03	0.03	0.06	0.19	0.38	0.04
계	1.08	2.36	4.67	1.55	0.84	1.98	2.99	3.82	8.07	13.52	3.23

주: 전체 수급자 수는 94,309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4-33&gt; 재산 분위별 개인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2.66	6.81	12.61	3.34	1.77	5.35	9.12	12.85	26.29	33.44	8.17
4분위	3.06	5.84	14.43	4.36	2.39	5.62	8.99	10.94	20.30	24.55	10.41
5분위	0.82	2.27	4.73	1.55	1.14	2.43	3.67	4.52	10.02	15.13	4.16
6분위	0.15	0.37	1.06	0.27	0.26	0.54	0.60	0.82	1.83	4.34	0.73
7분위	0.09	0.26	0.54	0.14	0.09	0.18	0.24	0.35	0.62	1.50	0.28
8분위	0.11	0.15	0.27	0.07	0.06	0.12	0.18	0.17	0.30	0.87	0.17
9분위	0.03	0.11	0.17	0.06	0.03	0.06	0.11	0.12	0.19	0.55	0.11
10분위	0.09	0.08	0.13	0.05	0.03	0.06	0.07	0.09	0.07	0.27	0.08
계	1.08	2.36	4.67	1.55	0.84	1.98	2.99	3.82	8.07	13.52	3.23

주: 전체 수급자 수는 94,309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4-34&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단위: %, 가구)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7.47	28.76	17.44	4.63	1.55	0.90	0.44	0.25	18.47
3분위	7.67	6.46	3.20	0.99	0.59	0.39	0.24	0.16	3.64
4분위	2.47	3.09	1.45	0.52	0.45	0.24	0.20	0.14	1.25
5분위	0.99	1.92	0.82	0.32	0.29	0.22	0.12	0.12	0.57
6분위	0.44	1.02	0.42	0.21	0.15	0.11	0.11	0.09	0.28
7분위	0.19	0.45	0.25	0.13	0.07	0.11	0.08	0.10	0.14
8분위	0.10	0.25	0.17	0.12	0.07	0.07	0.07	0.03	0.09
9분위	0.06	0.00	0.08	0.04	0.06	0.04	0.03	0.05	0.05
10분위	0.07	0.08	0.11	0.06	0.03	0.02	0.02	0.03	0.04
계	8.17	10.41	4.16	0.73	0.28	0.17	0.11	0.08	3.23

주: 전체 수급자 수는 94,309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집단별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을 분석하였다. 지급하는 가구가 아니라 해당 구간의 전 가구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지급액은 연간 지급액이다. 소득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생계급여 지급액을 보면 1-2분위의 급여액이 큰 차이로 높고 가구주 연령별로 지급액을 보면 10대 이하 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지급액이 높았고 반면 29-30대 가구주 가구의 지급액은 매우 낮았다. 재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지급액을 보면 재산 4분위까지는 평균 생계급여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1-2분위 대비 4분위의 평균 생계급여 지급액이 더 낮지도 않았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특례의 적용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

&lt;표 4-35&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 평균

(단위: 원/연)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598,931	1,265,402	2,048,426	422,257	546,045	871,037	1,195,443	1,262,945	1,154,369	1,156,422	1,044,119
3분위	0	1,369,380	1,392,606	164,160	155,660	286,326	305,909	196,696	185,155	311,242	245,503
4분위		0	363,290	51,645	32,587	75,216	99,623	84,803	92,850	149,197	82,780
5분위		0	0	23,223	23,841	34,938	51,598	62,817	54,015	132,182	47,089
6분위		0	0	8,553	11,141	19,053	33,373	28,032	30,958	99,047	24,485
7분위	0		135,544	3,442	6,106	11,153	18,311	17,856	25,111	83,300	13,664
8분위			121,664	1,674	3,618	11,417	11,569	15,998	13,467	38,132	9,355
9분위			0	1,936	2,317	4,514	6,849	7,101	5,659	21,670	4,808
10분위			0	0	1,764	2,566	4,025	5,246	7,950	13,134	3,452
계	499,109	1,204,674	1,490,441	81,163	73,299	158,946	236,896	295,635	442,573	782,644	253,399

주: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4-36&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 평균

(단위: 원/연)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513,370	1,192,900	1,461,931	91,614	128,877	382,830	625,719	843,794	1,185,616	1,475,687	510,909
4분위	0	0	3,350,837	89,782	119,206	339,643	613,144	763,959	1,029,672	1,180,737	708,635
5분위		5,075,855	1,912,383	70,122	53,929	128,128	240,108	332,336	548,330	861,090	325,916
6분위		0	3,277,808	8,360	15,646	28,508	46,317	78,830	153,712	308,538	68,126
7분위			1,613,487	4,252	8,904	12,933	28,001	41,627	58,869	130,358	28,767
8분위		0	2,957,026	2,501	5,738	10,815	14,770	28,511	32,394	76,394	18,209
9분위		0	0	12,045	2,429	6,182	10,086	13,389	22,458	31,598	11,464
10분위			1,851,740	19,332	2,039	3,632	7,526	11,944	9,472	10,691	8,261
계	499,109	1,204,674	1,490,441	81,163	73,299	158,946	236,896	295,635	442,573	782,644	253,399

주: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4-37&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연)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408,310	1,475,192	989,065	309,269	114,756	69,095	30,599	17,227	1,044,119
3분위	457,732	453,119	248,016	83,582	47,503	35,347	24,209	13,237	245,502
4분위	130,356	213,944	113,936	54,571	48,281	27,205	19,006	10,800	82,780
5분위	63,218	180,670	80,928	34,396	31,579	23,063	13,319	12,333	47,089
6분위	32,272	73,180	36,816	21,746	16,208	12,533	11,241	10,581	24,485
7분위	14,036	41,442	27,043	13,428	6,886	12,039	9,096	10,743	13,664
8분위	7,906	28,211	17,324	13,412	9,315	7,879	8,131	3,334	9,355
9분위	3,966	0	8,698	4,639	6,902	3,637	3,647	5,537	4,808
10분위	4,128	5,260	6,590	4,934	3,025	2,944	2,345	3,565	3,452
계	510,909	708,635	325,916	68,126	28,767	18,209	11,464	8,261	253,399

주: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공공부조 수급을 종합한 분석으로 생계, 주거, 교육,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의료급여 제외<sup>9)</sup>) 공공부조 수급가구 분포를 분석하였다.

공공부조 제도 하나라도 수급 받는 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분포에서 소득 1-2분위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큰 차이로 높고, 가구주 연령으로는 20-30대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률이 낮았다.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수급률이 높았다. 재산 분위별·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제도 1개 이상 수급가구 비율을 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재산 분위까지 수급율이 높았다.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에서 재산기준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관대하여지는 경향을 짐작하게 한다.

&lt;표 4-38&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6.67	31.39	39.56	8.28	10.80	18.51	22.96	25.39	32.76	33.89	25.27
3분위	40.00	37.50	31.01	4.12	6.36	11.57	8.34	5.01	5.62	9.28	7.80
4분위		20.00	13.92	2.07	3.74	7.09	4.67	3.18	3.40	5.86	4.69
5분위		0.00	2.63	1.01	2.38	4.55	2.56	2.22	2.12	4.86	2.88
6분위		0.00	3.51	0.38	0.60	1.25	1.18	0.96	1.06	3.35	1.03
7분위	100.00		4.88	0.15	0.27	0.54	0.60	0.57	0.93	3.03	0.52
8분위			4.35	0.06	0.15	0.35	0.37	0.43	0.53	1.37	0.30
9분위			0.00	0.04	0.08	0.17	0.19	0.24	0.29	1.02	0.16
10분위			0.00	0.00	0.04	0.11	0.12	0.13	0.25	0.56	0.11
계	13.89	30.72	30.28	1.84	2.16	4.93	5.33	6.46	12.82	23.18	6.84

주 1) 공공부조 급여를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전체 수는 77,223가구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음.  
 3)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9) 빈곤 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구분이 어려워 공공부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39>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1.43	30.82	29.60	2.02	3.63	11.34	13.67	17.86	33.99	44.12	13.46
4분위	100.00	0.00	33.33	3.17	3.93	10.21	13.35	16.19	28.91	33.64	18.77
5분위		100.00	61.90	2.09	2.09	4.84	6.04	7.81	16.10	24.61	9.32
6분위		0.00	50.00	0.50	0.73	1.59	1.43	2.15	4.84	9.69	2.33
7분위			33.33	0.34	0.29	0.62	0.66	1.15	1.98	3.90	0.91
8분위		0.00	40.00	0.11	0.22	0.37	0.43	0.74	1.17	2.34	0.57
9분위		0.00	0.00	0.31	0.12	0.21	0.29	0.39	0.69	1.04	0.36
10분위			25.00	0.47	0.08	0.15	0.20	0.33	0.29	0.34	0.24
계	13.89	30.72	30.28	1.84	2.16	4.93	5.33	6.46	12.82	23.18	6.84

주 1) 공공부조 급여를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전체 수는 77,223가구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음.

3)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4-40>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33.44	36.48	25.43	9.03	3.37	1.97	0.93	0.47	25.27
3분위	14.13	14.14	8.38	3.40	1.90	1.16	0.70	0.38	7.80
4분위	8.38	9.75	5.98	2.57	1.39	0.94	0.72	0.39	4.69
5분위	5.07	7.09	3.97	1.61	1.05	0.69	0.42	0.37	2.88
6분위	1.48	3.57	1.71	0.87	0.47	0.42	0.36	0.27	1.03
7분위	0.58	1.90	1.07	0.53	0.27	0.38	0.23	0.32	0.52
8분위	0.28	0.93	0.55	0.45	0.25	0.27	0.24	0.12	0.30
9분위	0.13	0.00	0.36	0.18	0.19	0.14	0.11	0.16	0.16
10분위	0.14	0.20	0.26	0.17	0.11	0.09	0.07	0.10	0.11
계	13.46	18.77	9.32	2.33	0.91	0.57	0.36	0.24	6.84

주 1) 공공부조 급여를 하나라도 수급하는 가구의 전체 수는 77,223가구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음.

3)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 5 장

## 분석결과2: 소득 보장

- 제1절 소득보장 종합 분석
- 제2절 노인 소득보장
-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제4절 아동 소득보장
- 제5절 장애인 소득보장
- 제6절 주거와 교육 보장



본 장에서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로 소득보장의 제도 포괄성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소득보장에서는 공공부조, 수당, 사회보험급여를 분석의 범위로 하였다. 본 장의 제1절에서는 소득보장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제2절부터는 대상인구집단을 중심으로 노인, 근로연령층, 아동,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분석하였다.

## 제1절 소득 보장 종합 분석

소득보장 수급현황을 분석하는데 포함된 구체적인 분석대상 제도는 아래와 같다. 사회보험급여는 자료의 특성 상 연금급여로 제한되었다. 사회보험도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은 소득의 상실에 대응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의 취업지원과 건강보험·요양보험의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사회보험 중 현금지원은 그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소득보장에서 분석하였다.

<표 5-1>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자료 내 소득보장제도

구분	제도
사회보험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공부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기초), 자활장려금(차상위)
자산조사형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비 자산조사형 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훈급여금*

주: \*는 급여액 정보가 있음.

소득보장의 포괄성은 소득보장제도 무엇이든 1개 이상 수급하는지 여부로 대상 포괄성을 분석하고 분석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를 분석하여 포괄성의 심도를 더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참고로 집단별 급여액을 기준으로 포괄성을 분석하였다. 평균 수급액 기준 분석은 제도마다 급여의 수준이 다르지만 이 급여액이 보장현황을 이해하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을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개수는 적어도 수급액이 적지 않다면 대상 포괄성은 다소 낮아도 보장성에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성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은 욕구의 수준을 가늠하고 급여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조, 수당, 연금 중 하나라도 수급을 하는 가구의 분포를 기준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집단을 중심으로 보면 노인은 수급율이 높아 노인가구주 가구 중 거의 90%가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50대 가구주 가구는 대상 포괄성이 낮았다. 심지어 소득 1-2분위의 수급율도 높지 않았다. 60대 비노인 가구주 가구는 노인보다는 수급율이 낮으나 이하 연령의 가구주 가구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분석결과(<표 5-4> 참조)에서도 유사하였다.

<표 5-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생계급여)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46.67	41.61	44.30	9.72	11.69	19.06	25.53	50.34	93.44	93.30	54.09
3분위	100.00	50.00	37.21	5.37	6.69	11.29	10.66	51.06	92.04	87.03	37.20
4분위		60.00	17.72	2.17	3.83	6.29	6.53	51.74	89.70	79.45	28.12
5분위		0.00	5.26	1.05	2.28	4.12	4.95	57.32	91.07	77.90	26.47
6분위		0.00	1.75	0.44	0.63	1.01	3.32	58.33	89.33	72.32	19.03
7분위	100.00		4.88	0.11	0.42	0.49	2.52	58.11	87.73	67.36	13.52
8분위			4.35	0.14	0.32	0.36	2.06	57.41	87.81	64.10	10.22
9분위			0.00	0.13	0.28	0.34	1.99	50.87	85.92	59.69	7.78
10분위			0.00	0.20	0.18	0.25	1.64	36.33	86.19	51.90	8.41
계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를 기준으로 소득보장의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분위에서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가 많아서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와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수당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 수급 개수는 매우 작았다. 이러한 현상은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였다(<표 5-4> 참조).



&lt;표 5-3&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800	1.766	1.818	0.401	0.964	1.400	1.150	1.256	2.459	2.489	1.717
3분위	3.200	2.750	1.364	0.285	0.756	1.135	0.644	0.880	1.944	1.872	1.122
4분위		1.200	0.570	0.189	0.562	0.764	0.430	0.841	1.732	1.559	0.826
5분위		0.000	0.053	0.131	0.456	0.557	0.300	0.833	1.676	1.461	0.689
6분위		0.000	0.088	0.092	0.372	0.320	0.211	0.784	1.477	1.292	0.481
7분위	4.000		0.122	0.056	0.323	0.266	0.174	0.777	1.411	1.166	0.379
8분위			0.130	0.040	0.264	0.226	0.175	0.750	1.366	1.081	0.313
9분위			0.000	0.031	0.213	0.197	0.181	0.705	1.314	0.975	0.265
10분위			0.000	0.020	0.188	0.149	0.131	0.544	1.252	0.803	0.238
계	1.222	1.765	1.369	0.137	0.412	0.551	0.407	0.875	1.915	2.116	0.77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4&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54.29	41.78	33.75	2.43	4.01	11.41	15.40	43.66	93.86	94.91	24.40
4분위	100.00	100.00	33.33	2.94	3.57	9.02	15.09	46.55	94.96	97.21	46.26
5분위		100.00	66.67	1.55	1.77	3.90	7.36	49.09	95.16	96.77	34.85
6분위		0.00	50.00	0.64	0.72	1.28	3.08	53.72	94.01	96.16	23.71
7분위			33.33	0.51	0.40	0.65	2.79	57.75	93.42	93.04	20.21
8분위		0.00	40.00	0.22	0.33	0.47	2.87	59.17	91.26	86.41	20.98
9분위		0.00	0.00	0.39	0.29	0.43	3.06	58.91	87.10	72.86	24.19
10분위			25.00	0.78	0.31	0.29	2.71	57.37	83.22	51.93	34.40
계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5&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857	1.719	1.303	0.130	0.445	0.950	0.743	0.975	2.428	2.655	0.936
4분위	6.000	1.000	2.667	0.290	0.634	0.979	0.900	1.154	2.545	2.616	1.530
5분위		9.000	3.714	0.218	0.486	0.620	0.491	0.946	2.328	2.505	1.095
6분위		0.000	2.875	0.213	0.391	0.375	0.248	0.817	1.997	2.103	0.685
7분위			1.000	0.165	0.347	0.269	0.221	0.825	1.848	1.879	0.555
8분위		0.000	3.000	0.115	0.333	0.244	0.199	0.823	1.679	1.667	0.523
9분위		0.000	0.000	0.108	0.326	0.224	0.189	0.818	1.432	1.298	0.519
10분위			0.750	0.141	0.373	0.205	0.158	0.781	1.219	0.802	0.574
계	1.222	1.765	1.369	0.137	0.412	0.551	0.407	0.875	1.915	2.116	0.77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소득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1개 이상 제도의 수급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높은 재산분위에서도 포괄성이 높았으며 반면 소득분위에서는 높은 소득분위에서는 재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더 낮아졌다. 소득보장에서 재산의 영향보다 소득의 영향이 대상 포괄성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를 중심으로 제도의 포괄성을 분석하면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석과 비교하여 소득과 재산 상위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성이 더 낮아진다. 선별적 기준의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역시 소득보다 재산의 상위분위에서 포괄성이 더 강하다. 제도의 수급대상 선정에서 재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제도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lt;표 5-6&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1.08	74.65	67.44	56.39	51.02	49.45	48.83	49.35	54.09
3분위	28.06	43.43	42.49	38.91	39.74	43.95	47.28	51.56	37.20
4분위	19.56	35.35	31.16	27.64	27.57	31.52	36.68	48.06	28.12
5분위	17.27	32.50	27.75	25.77	27.39	31.72	36.94	45.51	26.47
6분위	9.67	22.38	19.63	17.59	19.32	24.61	29.60	42.49	19.03
7분위	5.42	15.28	14.15	11.76	12.36	16.60	23.35	37.27	13.52
8분위	3.20	10.92	10.82	9.13	8.43	10.69	15.49	32.34	10.22
9분위	2.05	6.26	7.19	6.71	5.97	6.43	9.88	24.03	7.78
10분위	1.73	6.36	5.02	4.57	4.00	3.80	5.68	19.28	8.41
계	24.40	46.26	34.85	23.71	20.21	20.98	24.19	34.40	25.9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7&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844	2.458	2.097	1.434	1.150	1.030	0.906	0.770	1.717
3분위	1.241	1.520	1.311	1.054	0.960	0.957	0.898	0.813	1.122
4분위	0.840	1.173	1.018	0.818	0.735	0.730	0.755	0.773	0.826
5분위	0.616	1.021	0.845	0.722	0.691	0.682	0.673	0.724	0.689
6분위	0.332	0.668	0.283	0.541	0.517	0.537	0.569	0.681	0.481
7분위	0.218	0.494	0.465	0.412	0.408	0.452	0.511	0.621	0.379
8분위	0.153	0.402	0.364	0.343	0.329	0.371	0.409	0.564	0.313
9분위	0.117	0.272	0.295	0.235	0.273	0.280	0.323	0.497	0.265
10분위	0.099	0.235	0.229	0.215	0.195	0.195	0.217	0.377	0.238
계	0.936	1.530	1.095	0.685	0.555	0.523	0.519	0.574	0.77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사회보험은 현재 급여수급으로 소득보장의 대상 포괄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특성상 위험을 사전 대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였는지를 의미하며 가입자체도 제도의 포괄성을 파악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이하 분석에서는 연금수급 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가입을 분석하여 연금, 공공부조, 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 현금급여수급과 병행 제시하여 위험대비와 현재 수급을 함께 고려한 포괄성을 파악하였다. 사회보험가입과 현금급여 1개 제도 이상 수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20-50대 가구주 가구는 주로 사회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포괄성이 높고 노인은 주로 사회보장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포괄성이 높은 대조적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20-50대 가구주의 저소득가구는 사회보험가입과 사회보장현금급여를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도 포괄성을 보였다.

사회보험가입과 현금급여 1개 제도 이상 수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노인가구주 가구에서 사회보장현금급여 수급 포괄성이 높고 20-50대 가구주 가구에서 사회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한 제도포괄성이 높고 소득하위 분위에서 이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가입 포괄성이 낮은 것과 달리 재산 하위분위에서도 사회보험 가입 포괄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5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재산이 낮은 1-3분위 가구는 사회보험가입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사회보험가입과 현금급여 1개 제도 이상 수급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하위소득구간에서는 사회보장현금급여 포괄성이 높으며 재산분위를 막론하고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다. 소득상위분위에서는 사회보험가입 포괄성이 높고 재산분위를 막론하고 이 경향 역시 유사하다. 다만 소득 4-5분위의 재산 하위분위인 1-3분위의 가구는 사회보험가입과 사회보장현금급여의 포괄성에서 취약하였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장려세제인데, 소득3분위에서 동 제도의 포괄성이 높고 소득 4,5분위에서는 약 3%~4% 정도의 가구

포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정수준 제도 포괄성을 높일 것이지만 해당 집단의 제도포괄성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5-8>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단위: %, 개)

연령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소득	사회보험가입	0.00	0.00	3.64	5.25	13.48	19.23	25.86	7.07	0.88	0.58	10.13
	현금급여수급	46.67	41.61	44.30	9.72	11.69	19.06	25.53	50.34	93.44	93.30	54.09
1-2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0.00	22.48	18.50	35.31	44.93	55.85	14.20	4.82	2.95	30.15
	현금급여수급	100.00	50.00	37.21	5.37	6.69	11.29	10.66	51.06	92.04	87.03	37.20
3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51.90	50.61	61.36	71.51	73.44	37.46	29.65	13.30	55.48
	현금급여수급		60.00	17.72	2.17	3.83	6.29	6.53	51.74	89.70	79.45	28.12
4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68.42	73.75	77.83	84.76	85.43	57.46	55.63	23.51	72.90
	현금급여수급		0.00	5.26	1.05	2.28	4.12	4.95	57.32	91.07	77.90	26.47
5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91.23	86.68	87.58	90.76	91.10	64.31	56.52	21.31	81.45
	현금급여수급		0.00	1.75	0.44	0.63	1.01	3.32	58.33	89.33	72.32	19.03
6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90.24	88.45	87.39	90.51	94.03	65.75	52.61	16.63	84.15
	현금급여수급	100.00		4.88	0.11	0.42	0.49	2.52	58.11	87.73	67.36	13.52
7분위	사회보험가입			95.65	83.22	86.93	83.40	88.82	65.42	47.57	14.20	81.51
	현금급여수급			4.35	0.14	0.32	0.36	2.06	57.41	87.81	64.10	10.22
8분위	사회보험가입			91.67	83.49	85.17	83.05	76.08	58.21	40.56	14.87	77.77
	현금급여수급			0.00	0.13	0.28	0.34	1.99	50.87	85.92	59.69	7.78
9분위	사회보험가입			66.67	94.64	89.98	84.54	77.64	34.45	21.83	12.39	75.56
	현금급여수급			0.00	0.20	0.18	0.25	1.64	36.33	86.19	51.90	8.41
10분위	사회보험가입			23.96	65.98	73.55	71.91	71.73	40.25	23.92	5.09	57.89
	현금급여수급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계		0.00	0.00	23.96	65.98	73.55	71.91	71.73	40.25	23.92	5.09	57.89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9&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사회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단위: %, 개)

연령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재산												
1-3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0.00	23.68	<b>64.80</b>	<b>67.80</b>	<b>59.61</b>	55.61	33.90	19.29	3.37	52.10
	현금급여수급	<b>54.29</b>	<b>41.78</b>	<b>33.75</b>	2.43	4.01	11.41	15.40	<b>43.66</b>	<b>93.86</b>	<b>94.91</b>	24.40
4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0.00	100.00	<b>61.99</b>	<b>69.60</b>	<b>63.93</b>	<b>60.67</b>	35.00	18.76	2.76	40.35
	현금급여수급	<b>100.00</b>	100.00	<b>33.33</b>	2.94	3.57	9.02	15.09	<b>46.55</b>	<b>94.96</b>	<b>97.21</b>	46.26
5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14.29	<b>67.17</b>	<b>73.50</b>	<b>72.23</b>	<b>72.01</b>	43.07	23.73	3.82	52.98
	현금급여수급		<b>100.00</b>	<b>66.67</b>	1.55	1.77	3.90	7.36	<b>49.09</b>	<b>95.16</b>	<b>96.77</b>	34.85
6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37.50	<b>72.99</b>	<b>79.41</b>	<b>78.08</b>	<b>79.44</b>	48.83	31.53	6.23	65.60
	현금급여수급		0.00	<b>50.00</b>	0.64	0.72	1.28	3.08	<b>53.72</b>	<b>94.01</b>	<b>96.16</b>	23.71
7분위	사회보험가입			<b>66.67</b>	<b>75.15</b>	<b>80.86</b>	<b>79.37</b>	<b>79.87</b>	49.23	33.72	8.58	68.95
	현금급여수급			<b>33.33</b>	0.51	0.40	0.65	2.79	<b>57.75</b>	<b>93.42</b>	<b>93.04</b>	20.21
8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40.00	<b>75.11</b>	<b>80.93</b>	<b>79.77</b>	<b>79.22</b>	48.30	31.59	8.40	68.02
	현금급여수급		0.00	<b>40.00</b>	0.22	0.33	0.47	2.87	<b>59.17</b>	<b>91.26</b>	<b>86.41</b>	20.98
9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28.57	<b>74.96</b>	<b>80.99</b>	<b>80.95</b>	<b>79.66</b>	43.15	28.45	8.69	64.77
	현금급여수급		0.00	0.00	0.39	0.29	0.43	3.06	<b>58.91</b>	<b>87.10</b>	<b>72.86</b>	24.19
10분위	사회보험가입			0.00	<b>75.78</b>	<b>82.19</b>	<b>84.21</b>	<b>84.21</b>	31.54	16.36	6.48	51.89
	현금급여수급			25.00	0.78	0.31	0.29	2.71	<b>57.37</b>	<b>83.22</b>	<b>51.93</b>	34.40
계	사회보험가입	0.00	0.00	23.96	65.98	73.55	71.91	71.73	40.25	23.92	5.09	57.89
	현금급여수급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0&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사회보험 가입자 가구비율 및 현금급여 수급가구

(단위: %, 개)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소득										
1-2분위	사회보험가입	8.60	5.92	9.02	13.05	15.24	15.92	16.82	15.19	10.13
	현금급여수급	<b>51.08</b>	<b>74.65</b>	<b>67.44</b>	<b>56.39</b>	<b>51.02</b>	<b>49.45</b>	<b>48.83</b>	<b>49.35</b>	54.09
3분위	사회보험가입	29.18	26.44	30.32	33.62	35.31	31.95	29.77	23.17	30.15
	현금급여수급	<b>28.06</b>	<b>43.43</b>	<b>42.49</b>	<b>38.91</b>	<b>39.74</b>	<b>43.95</b>	<b>47.28</b>	<b>51.56</b>	37.20
4분위	사회보험가입	57.10	53.15	57.41	60.11	61.59	59.33	53.17	34.23	55.48
	현금급여수급	19.56	<b>35.35</b>	<b>31.16</b>	<b>27.64</b>	<b>27.57</b>	<b>31.52</b>	<b>36.68</b>	<b>48.06</b>	28.12
5분위	사회보험가입	75.62	71.31	74.65	76.83	77.04	74.94	71.34	49.78	72.90
	현금급여수급	17.27	<b>32.50</b>	<b>27.75</b>	25.77	<b>27.39</b>	<b>31.72</b>	<b>36.94</b>	<b>45.51</b>	26.47
6분위	사회보험가입	<b>85.69</b>	<b>81.19</b>	<b>83.45</b>	<b>85.58</b>	<b>84.67</b>	<b>81.58</b>	<b>76.32</b>	55.99	81.45
	현금급여수급	9.67	22.38	19.63	17.59	19.32	24.61	<b>29.60</b>	<b>42.49</b>	19.03
7분위	사회보험가입	<b>88.42</b>	<b>83.57</b>	<b>86.21</b>	<b>87.73</b>	<b>86.38</b>	<b>83.70</b>	<b>79.21</b>	<b>60.02</b>	84.15
	현금급여수급	5.42	15.28	14.15	11.76	12.36	16.60	23.35	<b>37.27</b>	13.52
8분위	사회보험가입	<b>85.93</b>	<b>83.11</b>	<b>84.42</b>	<b>84.74</b>	<b>83.51</b>	<b>80.50</b>	<b>77.62</b>	<b>61.03</b>	81.51
	현금급여수급	3.20	10.92	10.82	9.13	8.43	10.69	15.49	<b>32.34</b>	10.22
9분위	사회보험가입	<b>83.39</b>	<b>81.93</b>	<b>78.61</b>	<b>80.21</b>	<b>79.26</b>	<b>78.17</b>	<b>74.69</b>	<b>63.27</b>	77.77
	현금급여수급	2.05	6.26	7.19	6.71	5.97	6.43	9.88	24.03	7.78
10분위	사회보험가입	<b>87.13</b>	<b>79.92</b>	<b>78.37</b>	<b>77.82</b>	<b>77.01</b>	<b>78.27</b>	<b>76.73</b>	<b>65.08</b>	75.56
	현금급여수급	1.73	6.36	5.02	4.57	4.00	3.80	5.68	19.28	8.41
계	사회보험가입	52.10	40.35	52.98	65.60	68.95	68.02	64.77	51.89	57.89
	현금급여수급	24.40	46.26	34.85	23.71	20.21	20.98	24.19	34.40	25.9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제도 중 각 소득보장제도가 제도 포괄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선별적 수당, 사회보험급여, 보편적 수당수급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제도포괄성을 분석하였다. 제도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수급하는 제도의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이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수급 급여 개수에서 공공부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장려금(기초), 자활장려금(차상위)을, 선별수당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초중고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지원을,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보편수당은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을 포함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단, 선별수당과 보편수당은 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공공부조수급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령보다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서 하위소득분위 가구에서 제도 포괄성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20대 가구주 가구 그리고 7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60대 이상에서도 극빈층으로 포괄성이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오히려 아동이 있는 가구, 그리고 30-5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선별적 수당 수급을 추가하여 수급제도의 수를 보면 비슷하게 20대 가구주 가구는 포괄성이 낮으나 노인가구주 가구에서는 다소 높은 소득분위의 가구까지 포괄성이 높아진다. 기초연금의 효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급여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대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여전히 낮으나 노인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매우 높아진다. 추정컨대 높은 소득구간으로 제도 포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연금수급의 영향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보편적 수당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다. 공공부조, 선별적 수당, 사회보험, 보편적 수당을 포괄하여 보아도 여전히 20대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매우 낮았다.

<표 5-1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267	1.139	1.318	0.248	0.473	0.787	0.761	0.692	0.854	0.906	0.763
3분위	1.000	1.375	0.946	0.123	0.239	0.464	0.320	0.147	0.165	0.275	0.280
4분위		0.800	0.329	0.052	0.105	0.221	0.145	0.085	0.086	0.148	0.137
5분위		0.000	0.026	0.023	0.052	0.107	0.064	0.050	0.049	0.112	0.067
6분위		0.000	0.035	0.007	0.013	0.026	0.027	0.021	0.026	0.079	0.023
7분위	2.000		0.098	0.003	0.005	0.012	0.014	0.011	0.019	0.067	0.011
8분위			0.087	0.001	0.003	0.008	0.008	0.009	0.011	0.029	0.006
9분위			0.000	0.001	0.002	0.004	0.005	0.005	0.006	0.020	0.004
10분위			0.000	0.000	0.001	0.002	0.003	0.003	0.057	0.012	0.002
계	0.417	1.118	0.976	0.053	0.079	0.185	0.175	0.176	0.335	0.621	0.20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2&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400	1.759	1.791	0.344	0.805	1.344	1.114	0.952	1.928	2.163	1.476
3분위	3.200	2.750	1.326	0.208	0.567	1.064	0.588	0.312	1.071	0.385	0.794
4분위		1.200	0.557	0.111	0.351	0.693	0.371	0.237	0.842	1.048	0.527
5분위		0.000	0.053	0.061	0.230	0.485	0.234	0.172	0.727	0.926	0.374
6분위		0.000	0.088	0.030	0.092	0.234	0.147	0.110	0.501	0.718	0.193
7분위	4.000		0.122	0.016	0.060	0.168	0.114	0.091	0.383	0.578	0.129
8분위			0.130	0.008	0.042	0.134	0.113	0.078	0.318	0.457	0.103
9분위			0.000	0.006	0.030	0.109	0.118	0.081	0.235	0.337	0.089
10분위			0.000	0.003	0.017	0.067	0.080	0.063	0.097	0.133	0.062
계	0.889	1.758	1.343	0.087	0.198	0.472	0.351	0.312	1.102	1.709	0.52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400	1.759	1.796	0.346	0.816	1.362	1.139	1.236	2.374	2.389	1.652
3분위	3.200	2.750	1.341	0.212	0.588	1.092	0.627	0.846	1.827	1.778	1.053
4분위		1.200	0.557	0.117	0.375	0.722	0.412	0.801	1.618	1.462	0.754
5분위		0.000	0.053	0.067	0.257	0.517	0.280	0.800	1.561	1.372	0.617
6분위		0.000	0.088	0.035	0.126	0.269	0.193	0.758	1.361	1.191	0.395
7분위	4.000		0.122	0.021	0.093	0.207	0.158	0.745	1.296	1.060	0.290
8분위			0.130	0.012	0.072	0.176	0.159	0.722	1.257	0.964	0.235
9분위			0.000	0.010	0.057	0.150	0.165	0.668	1.197	0.870	0.199
10분위			0.000	0.005	0.039	0.098	0.117	0.505	1.129	0.695	0.180
계	0.889	1.758	1.342	0.092	0.224	0.505	0.391	0.843	1.809	2.016	0.704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4&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800	1.766	1.818	0.401	0.964	1.400	1.150	1.256	2.459	2.489	1.717
3분위	3.200	2.750	1.364	0.285	0.756	1.135	0.644	0.880	1.944	1.872	1.122
4분위		1.200	0.570	0.189	0.562	0.764	0.430	0.841	1.732	1.559	0.826
5분위		0.000	0.053	0.131	0.456	0.557	0.300	0.833	1.676	1.461	0.689
6분위		0.000	0.088	0.092	0.372	0.320	0.211	0.784	1.477	1.292	0.481
7분위	4.000		0.122	0.056	0.323	0.266	0.174	0.777	1.411	1.166	0.379
8분위			0.130	0.040	0.264	0.226	0.175	0.750	1.366	1.081	0.313
9분위			0.000	0.031	0.213	0.197	0.181	0.705	1.314	0.975	0.265
10분위			0.000	0.020	0.188	0.149	0.131	0.544	1.252	0.803	0.238
계	1.222	1.765	1.369	0.137	0.412	0.551	0.407	0.875	1.915	2.116	0.77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제도의 단계별 투입으로 제도 포괄성의 변화를 보는 분석에서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분석결과와는 소득분위별 가구주연령별 분석결과와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전 제도를 포함한 제도 포괄성 분석결과에서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20대 가구주 가구 뿐 아니라 30대 가구주 가구도 낮은 재산 구간에서도 제도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15&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0.343	1.082	0.937	0.058	0.138	0.444	0.454	0.480	0.880	1.152	0.412
4분위	3.000	0.000	1.667	0.109	0.141	0.391	0.496	0.515	0.803	0.952	0.582
5분위		6.500	2.429	0.049	0.066	0.149	0.197	0.232	0.458	0.716	0.280
6분위		0.000	2.125	0.010	0.018	0.040	0.037	0.054	0.127	0.255	0.060
7분위			0.667	0.006	0.008	0.014	0.021	0.028	0.048	0.098	0.023
8분위		0.000	2.200	0.002	0.005	0.010	0.009	0.018	0.024	0.055	0.013
9분위		0.000	0.000	0.006	0.002	0.005	0.007	0.009	0.015	0.024	0.008
10분위			0.500	0.017	0.001	0.003	0.004	0.007	0.006	0.007	0.005
계	0.417	1.118	0.976	0.053	0.079	0.185	0.175	0.176	0.335	0.621	0.20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6&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0.743	1.172	1.285	0.092	0.293	0.900	0.715	0.673	1.992	2.436	0.798
4분위	6.000	1.000	2.667	0.183	0.378	0.903	0.852	0.779	2.022	2.326	1.294
5분위		9.000	2.572	0.109	0.235	0.532	0.432	0.434	1.642	2.128	0.824
6분위		0.000	2.875	0.052	0.115	0.288	0.189	0.193	1.144	1.616	0.403
7분위			0.667	0.038	0.072	0.148	0.155	0.143	0.896	1.333	0.273
8분위		0.000	3.000	0.031	0.061	0.150	0.129	0.120	0.666	1.101	0.222
9분위		0.000	0.000	0.024	0.041	0.117	0.111	0.100	0.358	0.672	0.165
10분위			0.500	0.044	0.036	0.077	0.079	0.069	0.085	0.127	0.081
계	0.889	1.758	1.343	0.087	0.198	0.472	0.351	0.312	1.102	1.709	0.52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7&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0.743	1.712	1.286	0.094	0.302	0.913	0.734	0.958	2.343	2.570	0.866
4분위	6.000	1.000	2.667	0.206	0.428	0.935	0.884	1.132	2.459	2.526	1.461
5분위		9.000	3.667	0.127	0.279	0.571	0.473	0.911	2.228	2.400	1.020
6분위		0.000	2.875	0.064	0.149	0.326	0.230	0.893	1.885	1.987	0.598
7분위			1.000	0.053	0.103	0.222	0.203	0.787	1.733	1.769	0.469
8분위		0.000	3.000	0.051	0.103	0.193	0.181	0.790	1.558	1.563	0.445
9분위		0.000	0.000	0.051	0.099	0.168	0.170	0.778	1.311	1.186	0.445
10분위			0.750	0.095	0.130	0.137	0.138	0.741	1.102	0.692	0.510
계	0.889	1.758	1.342	0.092	0.224	0.505	0.391	0.843	1.809	2.016	0.704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8&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 개수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857	1.719	1.303	0.130	0.445	0.950	0.743	0.975	2.428	2.655	0.936
4분위	6.000	1.000	2.667	0.290	0.634	0.979	0.900	1.154	2.545	2.616	1.530
5분위		9.000	3.714	0.218	0.486	0.620	0.491	0.946	2.328	2.505	1.095
6분위		0.000	2.875	0.213	0.391	0.375	0.248	0.817	1.997	2.103	0.685
7분위			1.000	0.165	0.347	0.269	0.221	0.825	1.848	1.879	0.555
8분위		0.000	3.000	0.115	0.333	0.244	0.199	0.823	1.679	1.667	0.523
9분위		0.000	0.000	0.108	0.326	0.224	0.189	0.818	1.432	1.298	0.519
10분위			0.750	0.141	0.373	0.205	0.158	0.781	1.219	0.802	0.574
계	1.222	1.765	1.369	0.137	0.412	0.551	0.407	0.875	1.915	2.116	0.77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수급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면 공공부조 수급액 기준으로는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제도 포괄성에서 소득하위분위에서 가구주 연령 전체에서 높은 포괄성 수준을 보였다. 선별수당을 추가 하여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지만 노인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이 높아졌고 반면 20대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은 낮아졌다. 사회보험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20-50대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이 낮아지고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제도 포괄성이 높아져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한 두 집단, 즉 5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 간의 제도 포괄성에서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 수당을 추가한 분석에서도 유사하다.

&lt;표 5-19&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수급액

(단위: 천원/연)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00	1,517	2,374	511	665	1,065	1,439	1,524	1,483	1,460	1,295
3분위	181	1,731	1,683	207	201	377	392	244	238	398	315
4분위		201	423	66	50	111	133	108	118	199	112
5분위		0	0	30	30	49	66	77	69	175	61
6분위		0	0	11	14	24	41	34	38	127	31
7분위	1,159		151	4	8	14	22	21	33	108	17
8분위			122	2	4	14	14	19	17	53	11
9분위			0	2	3	5	8	8	8	29	6
10분위			0	-	2	3	5	6	10	18	4
계	641	1,456	1,736	99	91	199	289	358	568	991	31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20&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연)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77	1,630	2,476	587	840	1,355	1,818	1,929	3,616	4,018	2,480
3분위	1,241	1,856	1,810	278	344	629	639	501	1,964	2,571	994
4분위		441	505	123	181	353	381	374	1,538	1,955	604
5분위		0	0	76	150	282	292	304	1,340	1,799	475
6분위		0	0	46	107	250	244	212	942	1,410	301
7분위	5,339		151	28	91	238	217	187	717	1,152	220
8분위			122	16	71	234	238	169	607	939	195
9분위			0	11	55	206	253	173	444	664	178
10분위			0	6	33	136	175	144	190	261	130
계	968	1,571	1,822	136	183	423	532	600	2,053	3,187	80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21&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액

(단위: 천원/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77	1,630	2,493	599	903	1,445	2,088	4,462	7,686	5,576	3,952
3분위	1,241	1,856	1,852	309	465	736	1,037	4,199	6,755	5,352	2,724
4분위		441	505	151	329	473	821	4,673	6,806	4,832	2,225
5분위		0	0	115	309	419	830	5,308	6,942	5,165	2,259
6분위		0	0	79	330	414	811	5,317	7,024	5,081	1,831
7분위	5,339		151	77	315	416	768	5,298	7,350	4,989	1,457
8분위			122	58	284	427	765	5,300	8,198	5,657	1,257
9분위			0	52	242	417	808	5,431	8,106	6,314	1,117
10분위			0	42	200	326	699	4,561	9,400	5,576	1,260
계	968	1,571	1,838	170	358	579	1,008	4,876	7,367	5,444	2,20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22&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공공부조, 선별수당,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082	1,638	2,535	691	1,129	1,491	2,096	4,475	7,695	5,580	3,988
3분위	1,241	1,856	1,891	431	739	794	1,053	4,226	6,782	5,366	2,784
4분위		441	513	272	643	532	836	4,707	6,839	4,847	2,302
5분위		0	0	225	636	474	847	5,334	6,965	5,180	2,338
6분위		0	0	174	747	483	826	5,342	7,050	5,100	1,944
7분위	5,339		151	137	702	499	781	5,330	7,386	5,009	1,584
8분위			122	104	601	492	777	5,326	8,231	5,671	1,367
9분위			0	86	492	476	816	5,467	8,137	6,323	1,203
10분위			0	62	428	390	707	4,596	9,445	5,585	1,329
계	1,222	1,578	1,869	246	666	640	1,020	4,902	7,390	5,452	2,285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수급액 기준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 것은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포괄성분석이다.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분석결과를 보면 공공부조와 선별적 수당까지는 낮은 소득구간, 재산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제도 포괄성이 높지만 사회보험급여를 추가하면서 재산 상위분위에서 제도 포괄성이 매우 높아진다. 재산 7분위 이상에서 제도 포괄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보편수당 추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당연 유지된다. 수급액을 기준으로 보자면 소득 3분위 이상, 재산 7분위 이하에서 포괄성이 낮았다.

&lt;표 5-23&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수급액

(단위: 천원/년)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781	1,728	1,118	347	133	81	38	20	1,295
3분위	599	572	296	99	58	42	29	16	315
4분위	187	285	140	67	58	34	23	13	112
5분위	88	221	97	41	39	28	15	15	61
6분위	42	87	45	26	19	15	13	12	31
7분위	18	57	33	16	8	15	11	12	17
8분위	10	36	20	16	11	10	9	4	11
9분위	5	0	11	6	8	4	4	7	6
10분위	5	7	9	6	4	4	3	4	4
계	651	840	373	79	34	22	14	10	31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24&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와 선별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년)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838	3,740	2,974	1,847	1,390	1,127	738	282	2,480
3분위	1,114	1,668	1,360	1,043	917	841	610	241	994
4분위	570	1,164	955	733	648	607	429	210	604
5분위	425	1,035	764	596	534	468	325	182	475
6분위	239	607	480	377	341	314	261	173	301
7분위	137	459	381	280	242	256	238	155	220
8분위	92	408	315	265	233	247	226	155	195
9분위	68	238	283	229	226	217	218	165	178
10분위	52	204	204	193	167	170	154	107	130
계	1,149	2,066	1,295	664	486	418	320	168	80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25&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 수급액

(단위: 천원/연)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3,138	4,305	3,874	3,565	4,173	5,801	8,269	9,854	3,952
3분위	1,450	2,408	2,384	2,498	3,008	3,728	4,752	6,702	2,724
4분위	898	1,999	1,964	1,979	2,327	3,008	4,082	5,675	2,225
5분위	851	2,223	1,832	2,040	2,460	3,248	4,178	5,653	2,259
6분위	583	1,545	1,497	1,514	1,943	2,619	3,559	5,281	1,831
7분위	400	1,280	1,257	1,124	1,369	1,918	3,038	4,593	1,457
8분위	273	1,053	1,055	988	1,020	1,523	2,219	4,220	1,257
9분위	215	897	891	801	840	1,047	1,696	3,351	1,117
10분위	194	607	708	685	676	746	1,051	2,679	1,260
계	1,441	2,787	2,205	1,785	1,875	2,334	3,192	4,699	2,20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26&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공공부조, 선별수당과 사회보험과 보편수당 수급액

(단위: 천원/연)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3,174	4,325	3,903	3,617	4,224	5,842	8,302	9,878	3,988
3분위	1,514	2,460	2,446	2,573	3,070	3,784	4,799	6,733	2,784
4분위	979	2,060	2,043	2,077	2,418	3,078	4,143	5,714	2,302
5분위	933	2,285	1,915	2,140	2,556	3,321	4,236	5,693	2,338
6분위	698	1,624	1,609	1,678	2,086	2,725	3,638	5,323	1,944
7분위	520	1,392	1,372	1,285	1,545	2,061	3,143	4,652	1,584
8분위	378	1,156	1,145	1,107	1,158	1,658	2,327	4,280	1,367
9분위	303	975	961	878	939	1,145	1,782	3,417	1,203
10분위	274	682	780	756	743	812	1,118	2,743	1,329
계	1,516	2,839	2,276	1,891	1,982	2,425	3,265	4,750	2,285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액이 높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2절 노인 소득보장

본 절에서는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노인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기초보장제도,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기초보장제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을 말하고, 장애 관련 급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말한다. 공적 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 단위는 노인 개인과 노인 가구주 가구이다.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가구주 가구는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를 말한다. 본 장의 사회보장 급여 및 재산, 소득 등은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노인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수급현황과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수급 현황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들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회보장 수급현황은 사회보장 수급율과 수급 급여의 개수, 평균 수급액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1. 노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분석에 앞서 본 장의 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들에 대해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 방식, 그리고 현재 수급자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2018년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때, 수급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다<sup>10)</sup>. 수급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선과 차이이다.

<표 5-27> 2018년 기초보장제도의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	선정기준	기준액(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자료: 보건복지부(2018a, p.51),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집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대상 임차가구는 거주지역이 속한 급지에 따라 최대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

10)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차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많은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sup>11)</sup>을 제한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34,559명이었고,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1,351,427명이며, 전체 국민 중 기초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비율은 2.9%, 노인 중 기초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비율<sup>12)</sup>은 5.9%로 약 43만명이다(보건복지부, 2018b).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으로서 기초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일 때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1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월 193.6만원 이하(2018년 기준)일 때 수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은 시설에 있는 기초보장수급자에게는 월 2만원, 그 외의 대상자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로 1인 수급자에게는 월 20만 6천원, 부부 2인 수급자에게는 1인당 월 16만 4천원을, 그리고 모든 수급자에게 부가급여로 월 8만원을 지급한다. 노인도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2017년도 장애수당 수급자는 343,66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0.7%가 수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9,98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0.7%가 수급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18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 가구는 월 131만원, 부부 가구는 209.6만원이다. 급여는 단독가구는 월 20만 6천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월 33만원을 수급한다. 2017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약 487만명으로 노인의 66.3%가 수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공적 연금 중 국민연금은 2018년 현재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은 각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받는다. 2017년 현재 공적 연금 수급자 현황은 <표 5-28>과 같다.

<표 5-28> 2017년 현재 공적 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공적연금 수급자 수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계(A)
4,487,621	480,096	91,071	69,218	1,746	5,129,752

주: 모든 공적 연금 수급자가 노인은 아님.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가리키나, 특수직역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가 안되며,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2세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11)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0.3

12) 여기서 기초보장 급여 수급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노인가구주 가구 대상 사회보장 수급 현황

여기서는 노인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 수급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분석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 가. 가구주의 연령 및 소득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석

먼저 노인 가구주 가구의 연령 및 소득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5-29>와 같다. 여기서 소득 분위는 전체 가구의 1차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표 5-29>를 보면,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층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2분위에 44.9%, 5분위 이하에 무려 78.8%나 속해 있다.

<표 5-29> 노인가구주 가구의 1차 소득 10분위별 분포

(단위: 가구, %)

1차 소득 분위	65-74세		75세 이상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2분위	44,883	33.9	52,895	62.0	97,778	44.9
3분위	20,012	15.1	10,478	12.3	30,490	14.0
4분위	16,498	12.4	7,354	8.6	23,852	11.0
5분위	16,706	12.6	4,773	5.6	21,479	9.9
6분위	11,706	8.8	3,045	3.6	14,751	6.8
7분위	7,744	5.8	1,912	2.2	9,656	4.4
8분위	5,480	4.1	1,465	1.7	6,945	3.2
9분위	4,191	3.2	1,372	1.6	5,563	2.6
10분위	5,295	4.0	1,969	2.3	7,264	3.3
계	132,515	100.0	85,263	100.0	21,778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노인 가구주 가구의 연령을 65-74세 저연령 가구주 가구와 75세 이상 고연령 가구주 가구로 구분하여 보면, 고연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분포가 저소득 분위에 더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연령 가구주 가구는 1-2분위에 속한 비율이 33.9%인데 반해, 고연령 가구주 가구는 같은 분위에 속한 비율이 62.9%로 거의 2배에 달한다. 5분위 이하에 속한 저연령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74.0% 이고, 고연령 가구주 가구는 88.5%가 5분위 이하에 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lt;표 5-30&gt; 노인가구주의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 수급율

(단위: %)

소득	65-74세						75세 이상						노인가구 전체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1-2분위	31.9	13.3	74.3	41.3	93.2	1.61	63.0	13.6	86.0	21.3	91.6	1.54	32.5	13.5	80.7	30.5	92.4	1.57
3분위	4.8	3.6	62.5	66.7	93.3	1.38	8.2	6.0	72.3	35.4	87.0	1.21	6.0	4.5	65.8	56.1	91.1	1.32
4분위	2.6	2.7	53.0	68.2	91.6	1.26	5.0	4.0	59.8	37.3	80.2	1.06	3.3	3.1	55.1	58.7	88.1	1.20
5분위	1.6	1.7	48.4	62.9	92.2	1.25	4.4	3.5	56.1	39.0	78.8	1.03	2.2	2.1	50.1	65.4	89.2	1.20
6분위	0.9	1.4	36.4	75.1	90.9	1.14	3.1	2.7	45.4	41.1	72.9	0.92	1.3	1.7	38.3	68.1	87.2	1.09
7분위	0.7	1.2	27.5	78.4	89.7	1.08	2.7	3.0	36.4	41.7	68.0	0.84	1.1	1.5	29.3	71.1	85.4	1.03
8분위	0.3	0.9	23.2	80.3	89.5	1.05	1.2	1.6	31.0	43.5	61.4	0.77	0.5	1.1	24.8	72.5	84.4	0.99
9분위	0.2	0.8	17.1	81.9	88.2	1.00	0.8	1.9	22.2	46.0	61.0	0.71	0.3	1.1	18.4	73.0	81.4	0.93
10분위	0.2	0.4	7.2	85.2	88.3	0.93	0.5	1.2	8.2	48.1	53.9	0.58	0.3	0.6	7.4	75.2	79.0	0.84
계	12.2	5.9	53.9	62.3	92.0	1.34	22.4	10.0	74.1	28.0	86.3	1.34	16.2	7.5	41.8	48.9	89.8	1.3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30>은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연령 및 1차 소득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를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 노인 가구주들의 사회보장 수급율을 연령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저연령(65-74세) 노인 가구주 가구들은 고연령(7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인 공적 연금의 수급율이 높고, 고연령 노인가구주 가구들은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제도 수급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5-74세 노인가구주 가구 중 1차 소득 2분위이하에 속한 가구들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약 32%, 기초연금 수급율은 약 74%인데 반해, 7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 중 1차 소득 2분위 이하에 속한 가구들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63.0%, 기초연금 수급율은 86%로 7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수급율이 크게 높다.

공적 연금 수급율을 저연령 가구주 가구와 고연령 가구주 가구간 비교해 보면, 저연령 가구주 가구가 65-74세 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크게 낮다. 65-74세 가구주 가구들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평균 62.3%인데 반해,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들은 28%에 불과하다. 이러한 두 집단간 공적 연금 수급율 격차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공적 연금은 75세 이상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매우 약하다.

사회보장 급여를 1개 이상 받는 가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65-74세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사회보장 수급율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거의 90% 내외 수준을 보이지만, 7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7분위 이상 분위의 공적 이전 수급율은 70%가 안 된다. 그 이유는 고연령 가구주 가구들은 공적 연금수급율이 낮아서, 기초보장이나 기초연금만을 주로 수급하기 때문이다.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평균 사회보장 급여 수급 수는 1.34개이며, 저연령 가구주 가구, 고연령 가

구주 가구 둘 다 동일하다.

소득분위별로 사회보장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들인 기초보장, 장애관련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연금은 저소득분위(1-5분위)가 집중적으로 수급받는 경향이 있고, 사회보험인 공적 연금은 고소득 분위(6-10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기초보장 급여는 주로 2분위이하가 집중적으로 수급하며, 기초연금은 1-5분위가 주로 수급하고, 공적 연금은 6-10분위가 주로 수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1>은 노인 가구주 가구의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평균값은 노인 가구주 가구가 속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연령 집단별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사회보장 평균 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75세 이상 집단보다 65-74세 가구주 집단의 공적 이전 총합의 평균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 연금 급여액 평균값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급여 평균값은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들이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적 연금 급여액 평균값은 65-75세 이상 집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의 <표 5-30>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집단의 공적 연금 수급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적 이전 총합의 중위값을 보면, 65-74세 가구주 가구들의 중위값은 416-664만원이며,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들의 중위값은 180-391만원에 불과하다. 65-74세 가구주 가구들은 월 평균 4-50만원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를 일반적으로 받고, 75세 이상 집단은 월 15-30만원 정도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연령 노인 가구주 가구들이 평균 사회보장 급여 총액이 고연령 노인 가구주 가구들보다 대략 2배 정도 많다.

사회보장 급여별 평균 급여액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적 연금 급여가 다른 제도의 급여 평균값보다 상당히 크고, 다음이 기초연금이며, 2분위 이하를 제외하고 기초보장 급여나 장애 관련 급여는 아주 적은 수준이다.

&lt;표 5-31&gt; 노인 연령 및 1차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 평균액

(단위: 만원)

소득 분위	65-74세					75세 이상					노인가구 전체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1-2분위	148 (0)	20 (0)	193 (244)	407 (0)	770 (517)	146 (0)	19 (0)	237 (244)	156 (0)	558 (391)	147 (0)	20 (0)	216 (244)	271 (0)	655 (425)
3분위	24 (0)	6 (0)	167 (233)	479 (232)	678 (439)	40 (0)	8 (0)	209 (244)	278 (0)	537 (268)	29 (0)	7 (0)	181 (244)	410 (162)	630 (391)
4분위	12 (0)	4 (0)	138 (122)	527 (256)	684 (416)	20 (0)	5 (0)	170 (244)	288 (0)	485 (244)	14 (0)	4 (0)	148 (182)	453 (181)	622 (391)
5분위	7 (0)	3 (0)	124 (0)	560 (303)	697 (471)	17 (0)	4 (0)	158 (244)	337 (0)	518 (244)	9 (0)	3 (0)	132 (12)	510 (247)	657 (412)
6분위	4 (0)	2 (0)	88 (0)	608 (330)	705 (452)	13 (0)	3 (0)	125 (0)	367 (0)	510 (244)	6 (0)	2 (0)	98 (0)	558 (280)	665 (399)
7분위	3 (0)	2 (0)	66 (0)	663 (365)	739 (468)	11 (0)	4 (0)	101 (0)	384 (0)	501 (244)	5 (0)	2 (0)	73 (0)	608 (318)	692 (409)
8분위	2 (0)	2 (0)	57 (0)	759 (411)	823 (504)	5 (0)	2 (0)	86 (0)	472 (0)	567 (244)	2 (0)	2 (0)	63 (0)	698 (347)	769 (436)
9분위	1 (0)	1 (0)	42 (0)	766 (447)	813 (515)	3 (0)	3 (0)	61 (0)	565 (0)	633 (243)	1 (0)	2 (0)	47 (0)	717 (363)	769 (435)
10분위	1 (0)	1 (0)	17 (0)	921 (641)	945 (664)	2 (0)	2 (0)	22 (0)	532 (0)	558 (180)	1 (0)	1 (0)	19 (0)	815 (508)	840 (537)
계	57	9	139 (143)	531 (222)	739 (478)	99	14	206 (244)	226 (0)	545 (370)	73	11	165 (244)	412 (0)	663 (405)

주: ()는 중위값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1차 소득의 분위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공공부조성 급여들은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급여액의 평균값이 크고, 공적 연금은 상위 소득 분위일수록 평균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초보장 급여의 평균값은 2분위 이하에서만 140만원대로 크고, 기초연금의 중위값은 65-74세 가구주 가구들의 1-3분위까지 대략 월 20만원 수준, 75세 이상 가구주들은 1-5분위까지 월 20만원 수준이다.

공적 이전 급여들의 평균값을 소득분위별 비교해 보면, 65-74세 가구주 가구들은 3-5분위가 600만원대로 다른 소득분위들의 평균값이 700만원대라는 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들은 4-6분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400만원 후반대에서 500만원 초반대).

#### 나.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석

<표 5-32>는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소득 및 재산의 10분위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소득 10분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차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우선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58%가 소득 1-3분위에 속할 정도로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분포 만큼 재산 분포는 노인 가구주 가구들이 재산 적은 하위 재산 분위에 편포되어 있지 않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31%가 재산 1-3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재산 10분위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비중이 무려 17%나 되며, 재산 9분위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들도 9.7%에 달해, 재산이 많은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5-32> 노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분포

(단위: 가구; %)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빈도	47346	4498	17957	7956	5300	4764	4804	5153	97778
	%	21.7	2.1	8.2	3.7	2.4	2.2	2.2	2.4	44.9
3분위	빈도	6449	628	4533	3653	3195	3419	4152	4461	30490
	%	3.0	0.3	2.1	1.7	1.5	1.6	1.9	2.0	14.0
4분위	빈도	4453	414	3021	2603	2184	2388	3226	5563	23852
	%	2.0	0.2	1.4	1.2	1.0	1.1	1.5	2.6	11.0
5분위	빈도	4188	361	2530	2475	2225	2308	2825	4567	21479
	%	1.9	0.2	1.2	1.1	1.0	1.1	1.3	2.1	9.9
6분위	빈도	2584	204	1604	1582	1446	1605	1972	3754	14751
	%	1.2	0.1	0.7	0.7	0.7	0.7	0.9	1.7	6.8
7분위	빈도	1326	114	898	1003	892	1068	1437	2918	9656
	%	0.6	0.1	0.4	0.5	0.4	0.5	0.7	1.3	4.4
8분위	빈도	629	68	526	650	659	740	1045	2628	6945
	%	0.3	0.0	0.2	0.3	0.3	0.3	0.5	1.2	3.2
9분위	빈도	312	21	301	355	448	520	920	2686	5563
	%	0.1	0.0	0.1	0.2	0.2	0.2	0.4	1.2	2.6
10분위	빈도	230	26	138	149	212	352	770	5387	7264
	%	0.1	0.0	0.1	0.1	0.1	0.2	0.4	2.5	3.3
계	빈도	67517	6334	31508	20426	16561	17164	21151	37117	217778
	%	31.0	2.9	14.5	9.4	7.6	7.9	9.7	17.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표 5-33>은 노인가구주 가구들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지급율을 정리한 것이다. 기초보장 급여의 지급율은 소득 3분위이하이면서 재산 5분위 이하인 가구들에서만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초보장 급여의 지급은 재산보다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2분위 이하며 재산 3분위 이하 가구들의 기초보장 지급율은 약 50%에 이르며, 소득 2분위 이하- 재산 4분위 가구들은 약 39%, 소득 2분위 이하-재산 5분위는 약 29%, 소득 3분위-재산 2분위 이하 가구는 약 18%, 소득 3분위-재산 4분위는 약 15%, 소득 2분위이하-재산 6분위에 속하는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기초보장 지급율은 약 11%를 보인다. 장애 관련 급여는 소득 2분위 이하이면서 재산 5분위 이하에 속하는 노인 가구주 가구들에서만 10% 이상의 지급율을 보인다.

기초연금도 소득 4분위 이하이며, 재산 7분위 이하인 가구들에서 70% 이상의 높은 지급율을 보이고, 소득 6-8분위와 재산 6분위 이하, 그리고 소득 4분위 이하와 재산 8분위일 때, 지급율이 50-60% 수준을 나타낸다. 공적 연금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지급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 6분위 이상이며 재산 7분위 이상인 가구들의 공적 연금 지급율은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lt;표 5-33&gt;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수급율

(단위: %)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기초보장	49.9	38.6	28.8	11.1	4.0	2.3	1.2	0.4	32.5
	장애급여	17.9	17.5	15.0	8.0	4.5	3.7	2.4	1.0	13.5
	기초연금	87.6	92.4	91.6	86.6	78.3	35.2	42.1	11.6	80.7
	공적연금	17.3	22.4	31.7	53.1	50.2	44.8	60.4	64.9	30.5
	공적이전	93.4	86.3	95.5	95.2	93.4	90.3	83.8	71.4	92.4
3분위	기초보장	17.8	15.4	7.6	3.0	1.8	1.1	0.7	0.2	6.0
	장애급여	8.5	7.6	6.7	4.2	2.9	2.5	2.0	0.8	4.5
	기초연금	89.0	82.5	89.8	83.8	76.3	62.5	38.3	10.2	65.8
	공적연금	33.3	36.3	47.4	56.7	65.1	68.2	69.5	71.9	56.1
	공적이전	94.9	96.8	96.6	95.7	95.5	92.1	85.8	76.6	91.1
4분위	기초보장	9.4	9.2	5.5	2.8	1.7	1.0	0.8	0.3	3.3
	장애급여	5.5	5.3	4.7	3.8	3.4	2.3	1.9	0.8	3.1
	기초연금	86.6	85.0	85.8	79.6	70.6	56.5	29.0	7.7	55.1
	공적연금	36.8	41.5	49.7	58.2	62.4	66.8	70.1	71.0	58.7
	공적이전	93.6	93.2	95.2	95.5	93.8	91.5	82.9	75.2	88.1
5분위	기초보장	5.8	8.0	3.9	1.8	1.1	0.7	0.4	0.3	2.2
	장애급여	3.2	5.3	3.3	2.5	1.7	1.6	1.3	0.9	2.1
	기초연금	82.2	82.0	78.3	70.8	59.0	44.6	23.2	6.3	50.1
	공적연금	44.8	48.8	56.9	66.5	72.5	75.3	78.1	73.2	65.4
	공적이전	93.7	95.8	94.5	94.0	94.6	92.2	87.2	76.1	89.2
6분위	기초보장	3.5	7.4	3.3	0.9	0.6	0.2	0.4	0.2	1.3
	장애급여	2.2	4.9	3.9	1.6	1.5	1.6	1.2	0.7	1.7
	기초연금	68.8	66.7	65.6	56.7	46.8	33.1	18.4	5.6	38.3
	공적연금	46.0	47.5	58.3	70.4	76.5	77.3	78.9	74.8	68.1
	공적이전	89.7	89.2	91.4	93.4	94.1	90.8	86.5	77.2	87.2
7분위	기초보장	3.1	5.3	2.7	1.6	0.7	0.6	0.3	0.2	1.1
	장애급여	2.0	2.6	3.5	2.7	1.8	1.0	0.8	0.5	1.5
	기초연금	53.0	67.5	60.8	49.2	37.6	28.9	16.4	4.4	29.3
	공적연금	49.3	56.1	60.1	70.3	77.4	81.1	81.2	74.6	71.1
	공적이전	83.8	91.2	91.6	91.5	91.9	92.0	86.9	76.8	85.4
8분위	기초보장	2.5	2.9	0.8	1.1	0.8	0.3	0.0	0.0	0.5
	장애급여	3.0	2.9	1.9	1.2	1.2	0.5	0.9	0.6	1.1
	기초연금	52.5	47.1	54.0	51.1	38.8	28.6	15.3	4.5	24.8
	공적연금	48.5	55.9	61.2	72.3	75.9	78.5	82.3	74.7	72.5
	공적이전	82.7	86.8	90.3	91.7	81.5	89.3	88.5	76.9	84.4
9분위	기초보장	1.3	0.0	0.7	0.6	1.3	0.2	0.0	0.1	0.3
	장애급여	1.6	0.0	2.0	2.5	3.1	0.6	1.0	0.5	1.1
	기초연금	41.0	38.1	45.5	47.6	37.3	27.3	17.6	4.1	18.4
	공적연금	51.0	57.1	64.5	64.2	73.2	77.7	77.3	75.3	73.0
	공적이전	74.7	81.0	85.0	87.6	90.4	89.0	85.0	76.8	81.4
10분위	기초보장	2.3	3.8	1.4	0.7	0.5	0.6	0.5	0.1	0.3
	장애급여	3.0	0.0	2.2	2.0	0.5	2.3	0.8	0.3	0.6
	기초연금	31.3	38.5	36.2	33.6	23.6	18.7	11.9	2.8	7.4
	공적연금	43.0	50.0	57.2	63.1	71.7	71.9	77.3	77.5	75.2
	공적이전	67.4	80.8	76.1	78.5	84.0	81.0	82.6	78.7	79.0
전체	기초보장	37.9	30.4	18.6	5.6	2.2	1.2	0.6	0.2	16.2
	장애급여	14.1	14.1	10.6	5.0	3.0	2.4	1.7	0.7	7.5
	기초연금	85.2	89.2	86.2	76.9	66.0	51.8	29.4	6.7	41.8
	공적연금	24.1	28.6	40.8	55.2	63.4	67.7	71.6	72.7	48.9
	공적이전	93.0	95.6	95.2	94.5	93.7	91.0	85.2	76.0	89.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모든 사회보장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공적 이전 총합의 수급율을 보면, 재산의 경우 8분위 이하까지는 90% 이상의 수급율을 나타내고, 9분위는 85%, 10분위는 76%의 수급율을 나타낸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3분위 이하에서만 90% 이상의 수급율은 나타내고 4-9분위는 80%대의 수급율을, 10분위는 79%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사회보장 수급율이 재산보다는 소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5-34>는 소득 및 재산의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수급 수의 평균값을 살펴 본 것이다. 노인 가구주 가구는 평균적으로 1.34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고, 대체로 소득 및 재산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5-34>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소득보장 급여 수급 수

(단위: 개)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73	1.71	1.67	1.49	1.37	1.26	1.06	0.78	1.57
3분위	1.49	1.52	1.52	1.48	1.46	1.34	1.10	0.83	1.32
4분위	1.38	1.41	1.46	1.44	1.38	1.27	1.02	0.80	1.20
5분위	1.36	1.44	1.43	1.42	1.34	1.22	1.03	0.81	1.20
6분위	1.20	1.26	1.31	1.30	1.25	1.12	0.99	0.81	1.09
7분위	1.07	1.32	1.27	1.23	1.17	1.12	0.99	0.86	1.03
8분위	1.07	1.09	1.18	1.26	1.17	1.08	0.98	0.80	0.99
9분위	0.95	0.95	1.13	1.14	1.15	1.06	0.96	0.80	0.93
10분위	0.80	0.92	0.97	0.99	0.96	0.93	0.91	0.81	0.84
계	1.61	1.62	1.56	1.43	1.35	1.23	1.03	0.80	1.3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가 가장 많은 소득/ 재산 분위는 소득 2분위 이하-재산 3분위 이하에 속하는 노인가구주 가구들로서 평균적으로 1.73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며,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가 적은 노인 가구주 가구들은 소득 2분위 이하-재산 10분위 가구로서 평균 0.78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는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평균값은 각 소득 및 재산 분위에 속하는 노인 가구주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모든 노인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기초보장 급여의 가구별 연 평균액은 73만원, 장애 관련 급여가 11만원, 기초연금이 165만원, 공적 연금이 412만원으로서 공적 연금이 가장 많다.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들을 모두 포함한 공적 이전 급여 총합은 연 평균 66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보장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재산 분위는 소득 2분위 이하-재산 3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가구주 가구들로서 연간 평균 230만원을 받는다. 소득 2분위 이하이며 재산 4, 5분위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들이 그 다음으로 기초보장 급여를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데, 각각 평균값이 연 168만원, 122만원이다.

장애 관련 급여의 평균값은 모든 소득, 재산 분위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많이 받는 소득/재

산 분위가 소득 2분위이하-재산 3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가구주 가구들로서 연간 평균 25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장애 관련 급여 수급액이 적은 것은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가 있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이어야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이므로, 수급하는 노인 가구주 가구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기초연금 급여의 중위값은 소득 3분위 이하-재산 8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와 소득 4-6분위이며 재산 6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들이 연 244만원으로 월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의 소득, 재산 분위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들의 기초연금 급여 평균값, 중간값은 적다. 이는 적어도 소득 분위가 6분위이하이거나 재산 분위가 6분위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 보다 높은 소득이나 재산분위에 속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표 5-35> 1차 소득 10분위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가구주 가구 대상 기초연금 급여 평균, 중위값

(단위: 만원)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소득	기초보장	230	168	122	17	17	10	6	2	147
	장애급여	25	29	25	6	6	5	3	2	20
1-2분위	기초연금	227(244)	250(244)	255(244)	247(244)	224(244)	183(244)	115(0)	30(0)	216(244)
	공적연금	62(0)	71(0)	116(0)	256(0)	452(101)	777(152)	1,235(192)	1,378(268)	271(0)
	공적이전	544(523)	518(395)	519(391)	563(391)	701(391)	977(391)	1,360(391)	1,413(316)	655(425)
	기초보장	87	73	36	15	9	5	4	1	29
3분위	장애급여	12	13	10	6	5	3	4	2	7
	기초연금	236(244)	255(244)	249(244)	236(244)	218(244)	176(240)	105(0.0)	27(0.0)	181(244)
	공적연금	127(0)	142(0)	183(0)	279(160)	403(208)	499(233)	644(252)	913(284)	410(162)
	공적이전	464(384)	486(391)	481(391)	540(407)	638(472)	685(438)	760(391)	945(320)	630(391)
4분위	기초보장	39	42	23	13	8	5	3	1	14
	장애급여	7	7	6	4	5	3	3	2	4
	기초연금	224(244)	233(244)	234(244)	218(244)	195(244)	157(194)	77(0)	20(0)	148(182)
	공적연금	147	190	239	326(171)	399(201)	509(206)	668(266)	766(294)	453(181)
5분위	공적이전	419(312)	474(391)	506(391)	565(410)	611(417)	677(415)	754(377)	792(315)	622(391)
	기초보장	23	30	16	7	6	4	2	2	9
	장애급여	4	10	4	3	3	2	3	2	3
	기초연금	212(244)	217(244)	211(244)	190(244)	157(190)	118(0)	59(0)	15(0)	132(12)
6분위	공적연금	196	269	276(167)	385(238)	509(302)	601(329)	727(362)	836(338)	510(247)
	공적이전	436(380)	527(391)	510(403)	587(482)	678(519)	728(514)	792(458)	858(362)	657(412)
	기초보장	16	27	12	4	2	1	2	1	6
	장애급여	2	5	6	2	2	2	2	1	2
7분위	기초연금	167(244)	172(244)	163(225)	145(146)	120(0)	86(0)	45(0)	15(0)	98(0)
	공적연금	208	247	323(180)	434(287)	559(327)	631(363)	733(368)	847(362)	558(280)
	공적이전	395(271)	451(346)	506(391)	587(477)	684(501)	723(490)	786(434)	866(389)	665(399)
	기초보장	13	20	10	5	3	3	1	1	5
8분위	장애급여	2	6	4	4	3	2	1	1	2
	기초연금	126(102)	167(235)	156(204)	124(0)	96(0)	73(0)	43(0)	11(0)	73(0)
	공적연금	252(0)	338(191)	352(206)	413(293)	598(376)	656(392)	816(395)	809(362)	608(318)
	공적이전	395(264)	532(392)	525(392)	550(446)	704(524)	737(513)	866(487)	826(382)	692(409)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8분위	기초보장	12	17	3	4	4	1	0	0	2
	장애급여	4	9	2	1	1	1	1	1	2
	기초연금	127(103)	119(0)	141(129)	134(90)	101(0)	75(0)	39(0)	11(0)	63(0)
	공적연금	230	297(155)	342(212)	458(305)	544(351)	785(421)	888(456)	891(399)	698(347)
	공적이전	373(244)	445(344)	492(391)	602(488)	651(488)	866(553)	932(539)	907(416)	769(436)
9분위	기초보장	5	0	3	2	4	0	0	1	1
	장애급여	2	0	3	4	4	1	1	1	2
	기초연금	101	101	118	118	94	71	47	10	47
	공적연금	287(126)	420(195)	403(253)	422(258)	558(335)	648(360)	870(416)	830(414)	717(363)
	공적이전	397(281)	521(369)	529(398)	546(419)	664(478)	726(453)	920(499)	845(438)	769(435)
10분위	기초보장	8	14	6	3	2	3	2	0	1
	장애급여	4	0	1	2	0	3	1	1	1
	기초연금	76	96	99	85	58	47	31	7	19
	공적연금	293(0)	221(72)	346(168)	459(218)	558(391)	678(359)	811(481)	882(571)	815(508)
	공적이전	381(244)	331(244)	455(261)	552(385)	621(458)	734(474)	849(520)	894(584)	840(537)
계	기초보장	175	132	79	24	10	5	3	1	73
	장애급여	19	23	17	8	4	3	3	1	11
	기초연금	220(240)	241(244)	237(244)	213(244)	183(244)	142(102)	78(0)	17(0)	165(244)
	공적연금	95	112	175	317(152)	468(207)	634(255)	841(303)	919(351)	412(0)
	공적이전	510(422)	509(391)	510(391)	564(402)	669(439)	788(439)	928(404)	942(381)	663(40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공적 연금은 재산 분위가 높아질 수록 평균값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위값은 평균 값만큼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적 연금을 받는 노인가구주 가구들간 급여액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재산이 많은 분위에 속한 노인 가구주 가구일수록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가구들이 일정 수준 되며, 그 가구들 소득의 대부분이 연금소득이라는 점을 추론케 한다.

공적 이전 급여를 모두 합한 값의 평균값도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의 영향은 적다. 소득 1-7분위까지 공적 이전 총합의 평균값은 600만원대이고, 소득 8분위, 9분위는 700만원대, 10분위는 800만원 대이다. 이러한 모습도 공적 연금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2. 노인 개인 단위 분석

여기에서는 노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연령 집단, 1차 소득 10분위, 재산 10분위, 거주 지역, 성, 빈곤여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가. 연령 및 소득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석

노인은 65-74세를 저연령 노인집단, 75세 이상을 고연령 노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소득 10분위는 1차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lt;표 5-36&gt; 연령 및 소득 10분위별 노인 분포

(단위: 사례; %)

연령 소득분위	65-74세		75세 이상		노인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2분위	62315	29.3	67881	45.6	130,196	36.0
3분위	31715	14.9	17472	11.7	49,187	13.6
4분위	26897	12.6	14540	9.8	41,437	11.5
5분위	26739	12.6	11078	7.4	37,817	10.5
6분위	19361	9.1	8476	5.7	27,837	7.7
7분위	14468	6.8	6959	4.7	21,427	5.9
8분위	11552	5.4	6892	4.6	18,444	5.1
9분위	9471	4.4	7640	5.1	17,111	4.7
10분위	10436	4.9	7890	5.3	18,326	5.1
계	212954	100.0	148828	100.0	361,782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표 5-36>은 연령집단별 및 소득 10분위별 노인 인구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노인 중 58.9%가 65-74세 연령 집단에 속하고, 41.1%가 75세 이상 고연령 집단에 속한다.

노인의 소득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의 1/3이 넘는 36%가 소득이 가장 낮은 2분위 이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이 71.6%나 될 정도로 노인의 1차 소득 분포는 소득이 낮은 쪽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극빈층 노인의 비율이 아주 높는데, 고연령 노인 집단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다. 65-74세 연령층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노인의 비율은 29.3%인데, 75세 이상 연령 집단은 그 비율이 무려 45.6%로 거의 절반이 가장 낮은 소득 분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연령 노인 집단과 고연령 집단간 고소득 노인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65-74세 노인 중 고소득 집단이라 할 수 있는 8-10분위에 속한 비율은 14.7%이고, 75세 이상 노인에서 그 비율은 15.0%이다.

<표 5-37>은 노인 연령 및 소득 10분위별로 사회보장 급여 수급을 및 수급 급여 수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노인의 9.3%가 기초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장애 관련 급여는 4.3%, 기초연금은 62.3%, 공적 연금은 35.6%가 수급하고 있다. 소득보장 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은 82.7%이며, 전체 노인의 평균 소득보장 급여 수급 수는 1.12개 이다.

&lt;표 5-37&gt; 노인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

(단위: %)

소득 분위	65-74세						75세 이상						노인 전체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1-2분위	22.0	8.8	71.7	34.1	87.9	1.37	24.2	8.5	85.4	16.3	89.9	1.34	23.2	8.7	78.9	24.8	89.0	1.35
3분위	2.4	1.8	59.9	49.8	83.9	1.14	4.8	4.5	74.8	21.1	83.5	1.04	3.3	2.4	65.2	39.6	83.7	1.10
4분위	1.1	1.3	50.7	50.1	79.9	1.03	3.0	2.8	68.3	20.6	78.6	0.95	1.8	1.9	56.9	39.7	79.5	1.00
5분위	0.8	0.9	47.9	54.1	91.2	1.04	2.8	2.9	69.7	20.1	79.8	0.96	1.3	1.5	54.3	44.1	80.8	1.01
6분위	0.5	0.9	39.2	56.0	88.8	0.97	2.2	3.0	67.2	19.4	77.9	0.92	1.0	1.5	47.7	44.9	78.6	0.95
7분위	0.3	1.0	35.7	55.6	77.3	0.93	1.6	2.6	68.7	17.7	78.4	0.91	0.7	1.6	46.4	43.3	77.7	0.92
8분위	0.2	1.2	35.6	55.5	77.0	0.92	0.9	2.7	69.5	18.4	79.1	0.92	0.5	1.8	48.2	41.6	77.8	0.92
9분위	0.2	1.2	33.0	55.7	75.7	0.90	0.5	3.6	68.9	17.9	78.0	0.91	0.3	2.3	49.0	38.8	76.7	0.90
10분위	0.2	0.7	16.5	60.9	71.2	0.78	0.4	2.5	54.5	19.2	68.1	0.77	0.3	1.5	32.9	42.9	69.9	0.78
계	7.1	3.4	52.5	47.8	82.0	1.11	12.4	5.5	76.3	18.1	83.8	1.12	9.3	4.3	62.3	35.6	82.7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연령 집단별로 사회보장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급율이 높고, 공적 연금은 65-74세 노인의 수급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65-74세 노인 중 1분위만 기초연금 수급율이 70%를 넘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율이 크게 낮아져 수급율이 50% 이상인 소득분위는 1-2분위, 3,4분위 뿐이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은 1분위의 경우 수급율이 85.4%에 이르고, 모든 분위에서 수급율이 50%를 넘으며, 1-9분위 까지 각 분위의 수급율이 거의 70%에 달한다.

반면 공적 연금 수급율은 65-74세 노인의 경우, 1-2분위 노인을 제외한 소득분위에 속한 노인의 수급율은 50-60% 수준인데 반해, 7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모든 분위에서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수급율의 측면에서 보면,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공적 이전 급여 총합에서는 노인가구주 가구와 달리 두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75세 이상 노인 집단의 수급율이 약간 높다. 평균 소득보장 급여 수는 65-74세 노인 집단이 1.11개, 75세 이상 노인 집단이 1.12개로 두 집단간 큰 차이는 없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급여들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율이 높고, 공적 연금의 수급율은 65-74세 노인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초보장 및 장애 관련 급여의 경우 소득 1-2분위 노인에서만 비교적 높은 수급율(기초보장 수급율은 22%, 24%, 장애관련 급여는 8%대)을 보이고, 다른 소득분위의 수급율은 낮다.

모든 공적 이전 급여들을 총합할 경우, 수급율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38>은 노인의 연령 및 소득 분위별로 사회보장 급여의 평균값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평

균값은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노인을 포함한 전체 노인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며, 연간 평균 값이다. 노인은 연 평균 40만원의 기초보장 급여를 받았으며, 장애 관련 급여는 연간 4만원, 기초연금은 연간 135만원, 공적 연금은 259만원을 평균적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합한 공적 이전 소득은 연평균 43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5-38> 노인 연령 및 소득 분위별 사회보장급여의 평균액, 중위액

(단위: 만원)

소득 분위	65-74세					75세 이상					노인 전체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1-2분위	99	1	156 (196)	301	566 (280)	103	8	193 (244)	112	416 (244)	101	9	175 (204)	202	488 (244)
3분위	11	2	122 (183)	312	446 (244)	21	3	166 (195)	150	340 (244)	14	2	138 (196)	254	408 (244)
4분위	4	1	103 (57)	333 (86)	442 (244)	11	2	153 (196)	140	307 (244)	6	2	121 (179)	266	394 (244)
5분위	3	1	95 (0)	358 (159)	458 (244)	10	2	158 (202)	145	315 (244)	5	1	113 (122)	297	416 (244)
6분위	2	1	79 (0)	388 (177)	470 (245)	8	2	154 (220)	140	303 (244)	4	1	102 (0)	313	419 (244)
7분위	1	1	73 (0)	392 (175)	466 (244)	5	2	158 (244)	122	287 (244)	2	1	100 (0)	304	408 (244)
8분위	1	1	73 (0)	418 (175)	493 (244)	3	2	159 (244)	142	305 (244)	2	1	105 (0)	315	423 (244)
9분위	1	1	68 (0)	413 (175)	482 (244)	2	2	157 (244)	137	298 (244)	1	2	108	290	400 (244)
10분위	1	0	34 (0)	522 (258)	558 (307)	1	2	126 (196)	167	295 (244)	1	1	74	369	445 (244)
계	32	4	109 (102)	350	495 (244)	52	5	172 (244)	129	359 (244)	40	4	135 (196)	259	439 (244)

주: ()는 중위값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연령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공공부조성격의 사회보장 급여들의 평균값은 75세 이상 노인이 높고, 공적 연금의 급여 평균값은 65-74세 노인이 훨씬 높다. 기초보장 급여는 75세 이상 연령 집단이 연 평균 52만원을, 65-74세 노인 집단은 연평균 32만원을 받았으며, 소득 분위별로 75세 이상 연령 집단의 평균값이 65-74세 노인 집단 보다 연평균 몇 만원 정도 더 높다. 장애 관련 급여도 75세 이상 집단이 65-74세 노인 집단보다 연평균 1만원 더 받으며, 하위 소득분위에서도 두 연령 집단간 그 정도의 차가 존재한다.

기초연금은 65-74세 노인은 연 평균 109만원을, 75세 이상 노인 집단은 17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75세 이상 노인 집단이 65-74세 노인 집단보다 연 평균 63만원을 평균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연령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소득분위별로 비교하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두 연령 집단간 기초연금의 평균값의 격차는 대체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공적 연금의 경우, 65-74세 노인의 평균값이 75세 이상 노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65-74세 노인은 연평균 공적 연금

을 350만원 받으며, 75세 이상 노인은 연평균 129만원을 받는다. 두 연령집단 공적 연금 급여 평균값의 차이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 연금 급여 평균값의 격차로 인해, 공적 이전 급여들의 총합 평균값도 65-74세 노인집단이 75세 이상 노인 집단보다 훨씬 크다. 65-74세 노인 집단의 공적 이전 총합 평균은 연 495만원, 75세 이상 노인 집단은 연평균 359만원을 사회보장 급여로 받았다.

소득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공적 이전 급여들을 합한 공적 이전 총합의 경우 65-74세의 노인은 2분위 이하와 10분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 분위들은 큰 차이가 없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1-2분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 나머지 분위 노인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중위값을 비교해 보면, 모든 분위에서 분위간 큰 차이가 없으며, 절대액도 연 244만원 정도로 크지 않다.

기초보장 급여의 평균값은 1분위에서만 약 100만원으로 높고, 다른 분위는 매우 낮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공적 연금의 급여 평균값이 분위간 차이가 크지 않다. 65-74세 노인의 공적 연금 급여액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 나.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석

<표 5-39>는 1차 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소득 및 재산의 10분위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노인의 소득, 재산 10분위별 분포를 보면, 소득의 경우 3분위 이하가 약 50%로 일반 국민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재산의 경우 3분위 이하가 25.5%로 일반 국민들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며, 가장 재산이 많은 10분위가 18%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소득 분포는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분포보다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재산은 일반 국민들의 분포보다 높은 분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lt;표 5-39&gt; 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수급 분포

(단위: 사례, %)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빈도	56,889	5,711	24,461	11,684	8,137	7,463	7,643	8,208	130,196
	%	15.7	1.6	6.8	3.2	2.2	2.1	2.1	2.3	36.0
3분위	빈도	9,759	987	7,002	6,034	5,319	5,708	6,917	7,461	49,187
	%	2.7	0.3	1.9	1.7	1.5	1.6	1.9	2.1	13.6
4분위	빈도	7,415	701	5,249	4,686	3,978	4,336	5,641	9,431	41,437
	%	2.0	0.2	1.5	1.3	1.1	1.2	1.6	2.6	11.5
5분위	빈도	6,968	662	4,597	4,599	4,187	4,242	4,957	7,605	37,817
	%	1.9	0.2	1.3	1.3	1.2	1.2	1.4	2.1	10.5
6분위	빈도	4,648	392	3,119	3,342	3,057	3,151	3,650	6,478	27,837
	%	1.3	0.1	0.9	0.9	0.8	0.9	1.0	1.8	7.7
7분위	빈도	2,944	269	2,270	2,595	2,472	2,582	3,115	5,180	21,427
	%	0.8	0.1	0.6	0.7	0.7	0.7	0.9	1.4	5.9
8분위	빈도	1,736	206	1,609	2,149	2,335	2,586	2,887	4,936	18,444
	%	0.5	0.1	0.4	0.6	0.6	0.7	0.8	1.4	5.1
9분위	빈도	1,170	99	1,148	1,451	2,168	2,515	3,157	5,403	17,111
	%	0.3	0.0	0.3	0.4	0.6	0.7	0.9	1.5	4.7
10분위	빈도	664	74	542	635	1,086	1,872	3,025	10,428	18,326
	%	0.2	0.0	0.1	0.2	0.3	0.5	0.8	2.9	5.1
계	빈도	92,193	9,101	49,997	37,175	32,739	34,455	40,992	65,130	361,782
	%	25.5	2.5	13.8	10.3	9.0	9.5	11.3	18.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40>은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로 사회보장 수급율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소득 및 재산의 분위 구분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기초보장 급여 수급율은 소득 2분위 이하이며 재산 5분위 이하인 노인과 소득 3분위-재산 2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만 약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 2분위 이하-재산 3분위 이하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약 40%, 소득 2분위 이하-재산 4분위 노인은 약 29%, 소득 2분위 이하-재산 5분위 노인은 약 19%, 재산 3분위 이하-소득 3분위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약 11%이다. 나머지 소득-재산 분위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대부분 5%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 관련 급여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로 소득 2분위 이하이며, 재산 4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만 10%가 넘는 수급율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소득-재산 분위에 속한 노인의 수급율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율은 소득분위 및 재산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소득 8분위 이하이며, 재산 7분위 이하에 속할 때까지는 수급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런데 재산 7분위를 넘어서며 기초연금의 수급율은 빠르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재산 7분위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70.5%, 8분위는 59.1%, 9분위는 38.0%, 10분위는 11.3%이다.

다른 소득-재산 분위에서 속한 노인의 분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거의 대부분 30% 이상을 기록하지만, 재산 10분위에 속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다른 분위와 달리 현격하게 낮아, 10%대를 보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lt;표 5-40&gt; 1차 소득 10분위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율

(단위: %)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기초보장	40.4	28.6	18.8	5.6	1.8	0.8	0.9	0.2	23.2
	장애급여	13.3	11.5	8.7	4.0	2.3	1.7	1.1	0.3	8.7
	기초연금	87.5	92.2	91.1	86.0	77.7	33.9	42.2	12.2	78.9
	공적연금	15.1	18.4	24.6	31.8	35.6	39.1	43.2	46.1	24.8
	공적이전	92.3	95.7	94.8	92.6	88.7	82.8	73.1	55.9	89.0
3분위	기초보장	11.2	8.5	3.7	1.4	0.8	0.4	0.2	0.2	3.3
	장애급여	5.4	4.3	3.4	2.3	1.4	1.5	0.8	0.3	2.4
	기초연금	88.3	91.3	89.6	84.1	76.7	63.4	39.1	10.6	65.2
	공적연금	25.0	25.4	34.8	39.2	44.3	46.2	47.9	49.1	39.6
	공적이전	92.9	94.8	94.6	82.9	90.4	84.5	73.0	57.3	83.7
4분위	기초보장	5.7	4.7	2.7	1.1	0.7	0.4	0.4	0.1	1.8
	장애급여	3.5	2.7	2.8	2.3	2.1	1.6	1.2	0.2	1.9
	기초연금	86.4	85.4	85.3	80.3	73.5	61.0	33.3	9.4	56.9
	공적연금	26.2	28.1	34.1	38.8	41.5	43.6	47.2	47.9	39.7
	공적이전	91.5	91.4	92.1	91.2	89.2	83.9	70.0	55.8	79.5
5분위	기초보장	3.9	4.5	2.1	0.9	0.7	0.4	0.2	0.1	1.3
	장애급여	2.5	2.9	2.3	2.0	1.1	1.4	0.8	0.4	1.5
	기초연금	83.3	80.4	81.3	74.4	64.3	51.1	29.6	9.1	54.3
	공적연금	31.2	32.5	37.9	43.4	46.6	49.2	52.6	51.5	44.1
	공적이전	91.4	90.8	92.1	89.8	86.9	82.3	72.9	59.1	80.8
6분위	기초보장	2.8	4.8	2.0	0.9	0.6	0.3	0.2	0.1	1.0
	장애급여	2.0	3.8	3.0	1.7	1.9	1.4	1.2	0.4	1.5
	기초연금	74.7	76.8	73.2	67.1	58.8	46.7	29.9	9.6	47.7
	공적연금	32.7	40.4	39.2	43.8	47.3	48.7	51.9	50.7	44.9
	공적이전	88.4	90.3	89.1	88.2	85.9	81.0	73.6	59.0	78.6
7분위	기초보장	2.0	2.6	1.4	0.7	0.4	0.6	0.3	0.2	0.7
	장애급여	2.3	2.2	2.5	2.4	2.0	1.4	1.3	0.2	1.6
	기초연금	68.2	77.0	92.2	66.7	59.8	50.5	33.7	10.3	46.4
	공적연금	31.4	40.9	35.0	40.1	41.1	48.5	49.4	50.8	43.3
	공적이전	84.5	88.8	87.6	87.0	85.1	83.8	74.7	59.4	77.7
8분위	기초보장	1.4	1.5	0.7	0.7	.4	0.5	0.2	0.1	0.5
	장애급여	2.8	1.5	2.7	2.9	2.5	2.0	1.4	0.4	1.8
	기초연금	70.6	73.8	72.7	70.9	66.7	58.4	39.8	12.4	48.2
	공적연금	30.1	40.6	34.0	36.3	38.5	40.3	46.2	50.4	41.6
	공적이전	84.7	88.3	88.6	87.9	86.8	83.6	75.7	60.8	77.8
9분위	기초보장	0.7	0	0.6	0.6	0.5	0.3	0.2	0.1	0.3
	장애급여	2.9	5.1	2.6	2.8	4.2	3.3	2.2	0.7	2.3
	기초연금	69.7	69.7	72.7	74.6	71.0	66.7	48.3	15.7	49.0
	공적연금	27.7	33.3	33.1	32.0	32.7	35.7	39.0	48.2	38.8
	공적이전	91.3	84.8	87.4	88.5	86.9	86.2	77.2	61.3	76.7
10분위	기초보장	1.4	1.4	0.9	0.9	0.4	0.1	0.3	0.1	0.3
	장애급여	1.7	5.4	3.7	2.7	2.5	2.7	2.6	0.6	1.5
	기초연금	58.1	59.5	65.7	67.6	63.9	64.9	50.1	13.3	32.9
	공적연금	26.5	28.4	29.3	29.9	30.0	29.6	35.7	51.3	42.9
	공적이전	85.9	78.4	81.0	82.8	82.2	81.9	76.3	62.8	69.9
전체	기초보장	27.1	19.9	10.4	2.4	0.9	0.5	0.3	0.1	9.3
	장애급여	9.5	8.4	5.7	2.8	2.1	1.8	1.3	0.4	4.3
	기초연금	85.2	88.7	86.1	78.9	70.5	59.1	38.0	11.3	62.3
	공적연금	20.2	22.3	30.2	37.2	40.5	43.0	46.3	49.5	35.6
	공적이전	91.7	94.1	93.0	90.7	87.8	83.3	73.5	48.9	8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공적 연금의 수급율은 소득 및 재산의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재산

분위와 깊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재산 3분위 이하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20.2%, 재산 4분위는 22.3%, 5분위는 30.2%, 6분위는 37.2%, 7분위는 40.5%, 8분위는 43.0%, 9분위는 46.3%, 재산 10분위에 속한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49.5%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하나라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적 이전 총합의 수급율은 소득 분위 또는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 5분위 이하-재산 7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의 공적 이전 총합 수급율은 거의 대부분 90%가 넘으며, 그 지점을 넘어서면 점차 공적 이전 총합 수급율이 낮아진다.

재산 10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재산 분위에 속한 노인의 공적 이전 총합 수급율은 70%를 상회하지만, 재산 10분위에 속한 노인의 수급율은 크게 낮은 50%대 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표 5-41>은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 개수를 비교하여 살펴 본 것이다. 전체 노인은 평균 1.12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및 재산 분위별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소득 및 재산 분위가 낮아질수록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숫자가 많은 소득-재산 분위는 소득 2분위 이하-재산 3분위 이하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평균 1.56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숫자가 가장 적은 소득-재산 분위는 소득 4분위-재산 10분위로서 평균 0.58개, 소득 2분위 이하-재산 10분위에 속한 노인도 평균 0.59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1> 1차 소득 10분위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 수

(단위: 개)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56	1.51	1.43	1.27	1.17	1.06	0.87	0.59	1.35
3분위	1.30	1.29	1.32	1.27	1.23	1.12	0.88	0.60	1.10
4분위	1.22	1.21	1.25	1.23	1.18	1.07	0.82	0.58	1.00
5분위	1.21	1.20	1.24	1.21	1.13	1.02	0.83	0.61	1.01
6분위	1.12	1.16	1.17	1.14	1.09	0.97	0.83	0.61	0.95
7분위	1.04	1.13	1.11	1.10	1.03	1.01	0.85	0.61	0.92
8분위	1.05	1.07	1.10	1.11	1.08	1.01	0.88	0.63	0.92
9분위	1.01	1.08	1.10	1.10	1.08	1.06	0.90	0.65	0.90
10분위	0.88	0.95	1.00	1.01	0.97	0.97	0.89	0.65	0.78
계	1.42	1.39	1.32	1.21	1.14	1.04	0.86	0.61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42>는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노인의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평균, 중위값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평균, 중위값은 소득 및 재산 분위에 속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연간 기초보장 평균 급여액이 100만원을 넘는 노인 집단은 소득 2분위이하이며, 재산 3분위 이하, 4분위에 속한 노인 집단뿐이다. 그 이유는 기초보장제도가 공공부조제도로써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의 자격조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소득 및 재산이 낮을지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소득 2분위 이하-재산 3분위 이하 분위에 속한 노인 집단의 연평균 기초보장 평균 급여액은 183만원이며, 소득 2분위 이하-재산 4분위에 속한 노인 집단은 연 평균 119만원을 기초보장 급여로 받는다.

&lt;표 5-42&gt; 소득 및 재산 10분위별 사회보장 급여 평균, 중위값

(단위: 만원)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2분위	기초보장 장애급여	183 15	119 14	74 10	20 4	6 2	3 1	2 1	1 0	101 9
	기초연금	199 (244)	207 (244)	200 (232)	184 (196)	164 (196)	134 (196)	87	26	175 (204)
	공적연금	527	56	86	173	291	496	761	849	202
	공적이전	449 (328)	395 (244)	370 (244)	356 (244)	463 (244)	634 (244)	850 (244)	877 (182)	488 (244)
3분위	기초보장 장애급여	51 5	34 5	15 3	5 2	3 1	1 1	1 0	1 0	14 2
	기초연금	194 (244)	198 (244)	191 (196)	176 (196)	158 (196)	129 (196)	78	23	138 (196)
	공적연금	89	92	120	173	245	301	390	528	254
	공적이전	341 (244)	330 (244)	328 (244)	356 (244)	407 (244)	432 (244)	469 (244)	551 (182)	408 (244)
4분위	기초보장 장애급여	22 3	19 3	9 2	4 2	2 2	1 1	1 1	1 1	6 2
	기초연금	189 (244)	184 (196)	182 (196)	168 (196)	153 (196)	126 (196)	69	21	121 (179)
	공적연금	98	113	146	191	230	287	387	445	266
	공적이전	312 (244)	319 (244)	339 (244)	364 (244)	387 (244)	415 (244)	458 (244)	466 (178)	394 (244)
5분위	기초보장 장애급여	14 2	14 3	7 2	3 1	3 1	2 1	1 1	1 0	5 1
	기초연금	179 (204)	172 (196)	170 (196)	152 (196)	131 (196)	104 (58)	60	21	113 (122)
	공적연금	126	159	161	219	281	344	422 (150)	495 (140)	297
	공적이전	322 (244)	349 (244)	340 (244)	376 (244)	416 (244)	450 (244)	483 (244)	517 (199)	416 (244)
6분위	기초보장 장애급여	11 2	18 2	6 3	3 1	2 1	1 1	1 1	0 0	4 1
	기초연금	161 (196)	165 (196)	156 (196)	140 (196)	123 (174)	99	64	22	102 (0)
	공적연금	137	148	186	232	292	343	427 (139)	482 (129)	313
	공적이전	310 (244)	333 (244)	351 (244)	377 (244)	418 (244)	443 (244)	492 (244)	504 (211)	419 (244)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7분위	기초보장	8	10	4	3	1	2	1	1	2
	장애급여	2	2	2	2	1	1	1	0	1
	기초연금	148 (196)	167 (200)	156 (196)	143 (196)	128 (196)	105 (55)	73	23	100 (0)
	공적연금	138	155	168	201	257	320	417	465 (133)	304
	공적이전	295 (244)	335 (244)	329 (244)	348 (244)	388 (244)	430 (244)	492 (244)	489 (214)	408 (244)
8분위	기초보장	5	6	2	2	1	2	1	0	2
	장애급여	2	2	2	2	2	1	1	0	1
	기초연금	156 (204)	165 (244)	159 (196)	154 (196)	145 (196)	126 (196)	86	28	105 (0)
	공적연금	129	127	166	193	210	301	400	496 (125)	315
	공적이전	293 (244)	301 (244)	329 (244)	351 (244)	358 (244)	430 (244)	488 (244)	525 (228)	423 (244)
9분위	기초보장	3	0	2	2	1	1	1	1	1
	장애급여	2	4	2	2	3	2	1	0	2
	기초연금	154 (196)	160 (244)	161 (196)	164 (196)	154 (196)	146 (196)	106	36	108 (0)
	공적연금	116	181	162	169	178	222	335	439	290
	공적이전	275 (244)	345 (244)	326 (244)	337 (244)	336 (244)	371 (244)	442 (244)	476 (242)	400 (244)
10분위	기초보장	5	5	3	4	1	4	1	0	1
	장애급여	1	3	3	2	2	1	2	0	1
	기초연금	130 (196)	127 (196)	146 (196)	153 (204)	142 (196)	145 (196)	112 (1)	30	74 (0)
	공적연금	158	100	151	189	189	213	287	478 (150)	369
	공적이전	293 (244)	235 (244)	303 (244)	347 (244)	334 (244)	359 (244)	402 (244)	509 (244)	445 (244)
전체	기초보장	122	82	40	9	3	2	1	1	40
	장애급여	10	10	6	2	1	1	1	0	4
	기초연금	191 (244)	197 (244)	186 (196)	167 (196)	148 (196)	124 (196)	80	25	135 (190)
	공적연금	76	82	119	190	256	341	457	525	259
	공적이전	399 (244)	370 (244)	352 (244)	368 (244)	409 (244)	468 (244)	538 (244)	551 (204)	439 (244)

주: ( ) 중위값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등 장애 관련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소득 2분위 이하-재산 3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집단이며, 연간 평균 15만원을 받는다. 장애 관련 급여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장애인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적어서 평균 급여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대부분의 소득-재산 분위 노인 집단에서 연평균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 재산 9, 10분위에 속한 노인만 다른 분위에 속한 노인 집단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적 연금의 평균 급여액을 소득-재산 분위별로 비교해 보면, 재산 분위가 증가할수록 평균 연금액이 높아지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공적 연금 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지만 1차 소득은 적은 집단이며, 특히 재산이 많

은 노인일수록 공적 연금 급여액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적 연금의 소득-재산 분위별 평균값은 소득분위보다는 재산 분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성별, 지역별, 빈곤여부별 사회보장 수급 분석

여기서는 노인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여 성별, 지역별, 빈곤여부별로 사회보장 수급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 가. 성별/지역별 분석

노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노인이 56%, 남성 노인이 44%로 여성이 8%p 정도 더 많다. 거주 지역을 보면, 중소도시 거주 노인이 약 45%, 대도시 거주 노인이 42%,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이 약 13%로, 대다수의 노인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표 5-43> 노인의 성별, 지역별 분포

(단위: 사례; %)

구분		빈도	%
성	남자	159,949	44.2
	여자	201,834	55.8
지역	대도시	153,458	42.4
	중소도시	162,014	44.8
	농어촌	46,311	12.8
	합계	361,783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노인의 성별 사회보장 급여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을 제외한 모든 급여에서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의 수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10.0%, 여성은 약 9%이고, 장애 관련 급여의 남성 수급율은 약 5%, 여성 노인의 수급율은 약 4%이다. 공적 연금도 남성 노인의 수급율은 약 57%, 여성 노인의 수급율은 약 19%로, 남성 노인의 수급율이 약 38%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적 연금이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초연금은 여성 노인의 수급율이 약 69%, 남성 노인의 수급율이 약 53%로 여성 노인의 수급율이 16%p나 더 높다. 공적 연금이 여성 노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기초연금이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균 사회보장 급여 수급 수도 남성 노인은 1.25개인데 반해, 여성 노인은 1.01개로 남성 노인이 평균적으로 보다 많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

&lt;표 5-44&gt; 노인의 성별, 지역별 사회보장 수급율

(단위: %)

구분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성	남자	10.0	4.7	53.4	56.9	89.1	1.25
	여자	8.8	4.0	69.3	18.8	77.3	1.01
거주 지역	대도시	9.5	4.0	57.8	36.7	80.7	1.08
	중소도시	8.8	4.3	62.4	35.3	82.7	1.11
	농어촌	10.3	5.2	77.1	33.3	89.6	1.26
전체		9.3	4.3	62.3	35.6	82.7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전체적인 사회보장 급여의 총합으로서 공적 이전 총합의 성별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 노인의 수급율은 약 89%, 여성 노인의 수급율은 약 77%로 남성 노인의 수급율이 약 12%p 더 높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기제로서의 역할이 미약한데,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해서는 더욱 미흡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5-44>를 통해 노인의 거주 지역별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회보장 급여의 경우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농어촌 노인의 수급율이 다른 지역 거주 노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농어촌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77%, 중소도시 거주 노인은 62%, 대도시 거주 노인은 약 58%이다. 기초연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 총합의 수급율도 농어촌 거주 노인이 약 9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소도시 노인도 약 83%, 대도시 거주 노인이 약 81%이다.

<표 5-45>는 성별 및 거주 지역별로 노인의 평균 사회보장 수급액을 비교한 것이다. 평균값은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노인을 포함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값이다. 성별 사회보장 수급액을 비교해 보면, 여성 노인은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많지만, 다른 사회보장 급여의 평균액은 남성 노인이 많다. 특히 공적 연금의 경우 여성 노인의 평균 수급액이 남성 노인보다 현저하게 적다. 남성 노인의 공적 연금 평균액은 연 486만원인데 반해, 여성 노인은 8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공적 이전 평균에서도 남성 노인은 연평균 약 644만원을 수급하는데 반해, 여성 노인은 약 277만원으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공적 이전 소득을 연 평균 약 367만원 더 받는다.

거주지역별 사회보장 급여액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거주 노인 순으로 많고, 공적 연금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노인 순으로 많다.

전체 공적 이전 총액의 평균값도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거주 노인이 농어촌 거주 노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적 연금의 절대액이 기초연금보다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표 5-45> 노인의 성별, 지역별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성	남자	44	5	110 (122)	486	644 (374)
	여자	38	4	155 (196)	80	277 (244)
거주 지역	대도시	43	4	125 (196)	285	458 (244)
	중소도시	38	4	135 (196)	260	438 (244)
	농어촌	39	6	168 (196)	171	383 (244)
전체		40	4	135 (196)	259	439 (2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나. 빈곤여부별 분석

빈곤선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1차 소득 중위값 50% 기준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57.4%이고, 경상소득 중위값 50% 기준 노인 상대 빈곤율은 51.2%이며, 가처분 소득 중위값 50% 기준 노인 상대빈곤율을 51.6%로 추정된다.

<표 5-46> 빈곤여부별 노인 분포

(단위: %)

구분	1차소득 중위 50%	경상소득 중위 50%	가처분 소득 중위 50%
빈곤	57.4	51.2	51.6
비빈곤	42.6	48.8	48.4
합계	100 (361,78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표 5-47>은 노인의 사회보장 수급을 및 수급 급여 수를 빈곤여부별로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1차 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별할 때, 빈곤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15.5%이고, 기초연금 수급율은 72.6%이며, 공적 연금 수급율은 30.1%이다. 동일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0.9%이고, 기초연금 수급율은 48.4% 이며, 공적 연금 수급율은 42.8%이다. 사회보장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공적 이전 총합의 수급율은 빈곤 노인이 86.4%,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77.8%이며, 수급 사회보장 급여 수는 빈곤 노인이 평균 1.25개이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은 약 0.94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

&lt;표 5-47&gt; 빈곤여부별 사회보장 수급률 및 수급 급여 수

(단위: %, 개)

구분	빈곤여부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1차소득 중위 50%	빈곤	15.5	6.2	72.6	30.1	86.4	1.25
	비빈곤	0.9	1.7	48.4	42.8	77.8	0.94
경상소득 중위 50%	빈곤	16.1	5.7	77.4	25.6	86.3	1.24
	비빈곤	2.8	3.0	47.9	45.1	79.3	0.99
가처분 소득 중위 50%	빈곤	15.9	5.5	77.3	25.6	86.2	1.24
	비빈곤	3.1	3.2	48.3	45.0	79.5	1.00
전체		9.3	4.3	62.3	35.6	82.7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빈곤 여부별 사회보장 급여 평균 수급액을 비교해 보면, 빈곤 노인은 기초보장 수급액이 연평균 65-68만 원 정도이며, 기초연금은 연평균 159만원, 170만원을 평균적으로 받는다. 공적 연금은 1차 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빈곤한 노인은 연평균 222만원을 받지만, 공적 연금 급여 등이 포함된 소득인 경상소득이나 가처분 소득 50%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구분할 경우, 빈곤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액은 연평균 7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경상소득이나 가처분 소득 중위 50%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공적 연금은 연평균 430만 원 대로 훨씬 높다.

1차 소득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구분할 때, 전체 공적이전액의 평균값은 빈곤 노인과 비빈곤 노인 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경상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으로 빈곤 여부를 구분할 경우,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빈곤노인보다 공적 이전 평균값은 훨씬 크다. 이는 공적 연금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t;표 5-48&gt; 빈곤여부별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빈곤여부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1차소득 50%	빈곤	68	7	159 (196)	222	456 (244)
	비빈곤	3	1	103	309	417 (244)
경상소득 50%	빈곤	66	4	170 (196)	70	311 (244)
	비빈곤	15	4	102	439	561 (244)
가처분 소득 50%	빈곤	65	4	170 (196)	70	309 (244)
	비빈곤	17	5	103	436	561 (244)
전체		40	4	135 (196)	259	439 (2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다. 노인의 연령 및 성별 사회보장 수급 현황

노인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표 5-49>와 같다. 65-74세 노인이 약 59%, 75세 이상 노인이 약 41%이며, 여성 노인이 약 56%, 남성 노인이 약 44%이다. 65-74세 노인집단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75세 이상 노인 집단의 경우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약 11%p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9> 노인의 연령 및 성별 분포

(단위: %)

구분		성		전체
		남자	여자	
연령	65-74세	29.2	29.6	58.9
	75세 이상	15.0	26.2	41.1
전체		44.2 (159,949)	55.8 (201,834)	100.0 (361,78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표 5-50>은 노인의 연령 및 성별 사회보장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초보장 급여는 75세 이상 남성 노인이 가장 많이 수급하고, 65-74세 여성 노인이 가장 적게 수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5세 이상 남성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13.9%이고, 65-74세 여성 노인의 기초보장 수급율은 6.7%이다.

기초연금은 고령이며 여성 노인(75세 이상 여성 노인)이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며, 반면 저연령 남성 노인(65-74세 남성노인)이 가장 적게 수급하는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7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82.0%이고, 65-74세 남성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46.8%이다.

공적 연금은 남성이며, 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65-74세 남성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율이 약 69%로 가장 높고, 여성이며 연령이 높은 노인이 가장 적게 수급하는데, 7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율은 9.4%에 불과하다.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총합한 공적 이전 총합의 수급율은 65-74세 남성 노인이 가장 높는데 약 92%이고, 65-74세 여성 노인이 가장 낮으며 약 72%이다. 수급하는 사회보장 급여 수는 65-74세 남성 노인이 가장 높으며, 이 집단의 노인은 약 1.27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 가장 적은 집단은 65-74세 여성 노인으로서 평균 0.95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다.

<표 5-50> 노인의 연령 및 성별 사회보장 수급율 및 수급 급여 수

(단위: %)

구분	65-74세						75세 이상						노인 전체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수급 급여 수
남성	7.9	3.8	46.8	68.9	91.9	1.27	13.9	6.4	66.3	33.4	83.5	1.20	13.9	6.4	66.3	33.4	83.5	1.25
여성	6.7	3.1	58.1	27.1	72.2	0.95	11.5	5.0	82.0	9.4	84.0	1.08	11.5	5.0	82.0	9.4	84.0	1.01
전체	7.1	3.4	52.5	47.8	82.0	1.11	12.4	5.5	76.3	18.1	83.8	1.12	9.3	4.3	62.3	35.6	82.7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51>은 노인의 연령 및 성별로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을 비교한 것이다. 사회보장 급여의 평균 수급액도 수급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기초보장 급여의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75세 이상 남성 노인 집단으로 연평균 61만원이며, 가장 적은 집단은 65-74세 여성 노인으로 연평균 29만원이다.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75세 이상 여성 노인으로 연평균 192만원이며, 가장 적은 집단은 65-74세 남성 노인으로 연평균 96만원이다. 공적 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65-74세 남성 노인으로 연평균 576만원이며, 가장 적은 집단은 75세 이상 여성 노인으로 연평균 29만원에 불과하다.

모든 사회보장 급여를 총합한 공적 이전 총합에서 65-74세 남성 노인이 연평균 711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75세 이상 남성 노인으로 514만원이, 그 다음이 65-74세 여성 노인으로 282만원이, 75세 이상 여성 노인이 가장 적어 연평균 270만원이다.

<표 5-51> 노인의 연령 및 성별 사회보장 평균 수급액

(단위: 만원)

구분	65-74세					75세 이상					노인 전체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기초 보장	장애 관련 급여	기초 연금	공적 연금	공적 이전 총합
남성	35	4	96	576 (272)	711 (437)	61	6	138 (196)	310	514 (244)	44	5	110 (122)	486	644 (374)
여성	29	3	123 (196)	128	282 (196)	47	4	192 (244)	26	270 (244)	38	4	155 (196)	80	277 (244)
전체	32	4	109 (102)	350	495 (244)	52	5	172 (244)	129	359 (244)	40	4	135 (196)	259	439 (2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4. 사회보장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

사회보장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는 빈곤을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분석 단위는 노인 가구주 가구단위, 노인 개인 단위로 진행할 것이다. 빈곤선은 중위소득 40%와 중위소득 50%를 이용한다.

##### 가. 노인 가구주 가구 대상 빈곤 완화 효과

<표 5-52>는 소득별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가구주 가구 대상 빈곤 가구율을 산출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살펴 본 것이다.

1차 소득 중위 40% 기준 전체 노인 가구주 가구 빈곤 가구율은 63.55%이고, 65-74세 노인 가구주 가구 빈곤 가구율은 54.15%, 7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 빈곤 가구율은 78.17%로 노인 가구주의 빈곤 가구율이 아주 높은 편인데, 특히 7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는 거의 4/5가 빈곤 가구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1차 소득 기준 빈곤가구율에 기초보장, 기초연금 등 각각의 사회보장 급여를 합산한 소득의 빈곤 가구율을 비교해 보면, 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를 알 수 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기초보장 급여는 빈곤 가구율을 3.62%p 떨어뜨리고, 장애 관련 급여는 0.2%p, 기초연금은 3.10%를, 공적 연금은 6.85%p 빈곤 가구율을 떨어 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공적 연금의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가 가장 크다.

<표 5-52> 1차 소득 중위 40% 기준 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1차소득 빈곤 가구율	합산 소득(1차소득+ )빈곤가구율					
			+기초보장	+장애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공부조 성 급여	+공적 이전 총합
중위 40% 기준 빈곤율	노인 가구 전체	63.55	59.93 (3.62)	63.35 (0.2)	60.45 (3.10)	56.70 (6.85)	50.45 (13.10)	44.06 (19.49)
	65-74세	54.15	51.11 (3.04)	53.97 (0.18)	51.02 (3.13)	45.22 (8.93)	43.56 (10.56)	34.17 (19.98)
	75세 이상	78.17	73.64 (4.53)	77.95 (0.22)	75.11 (3.06)	74.55 (3.62)	61.15 (17.02)	59.43 (18.74)

주 1) 장애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2) 공공부조성 급여= 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3) 공적 이전 총합=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4) ( )는 1차 소득 빈곤율-합산소득 빈곤율이며, 단위 %p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기초보장, 기초연금, 장애 관련 급여 등 공공부조 성격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전체는 1차 소득 기준 빈곤 가구율을 13.10%p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급여를 모



두 합한 공적 이전 소득은 빈곤 가구율을 19.49%p 떨어뜨려 1차 소득에 공적 이전 소득을 모두 합한 후 전체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구율은 44.06%로 떨어진다. 노인 가구주의 연령 집단별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 완화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65-74세 노인 가구주 가구들에서는 공적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공공 부조 성격 프로그램들의 빈곤 완화 효과는 65-74세 가구주 가구보다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앞의 사회보장 수급 현황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공적 연금 수급율 및 평균 수급액이 65-74세 가구주 가구에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만,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들은 공적 연금을 별로 수급하지 못하며, 대신 공공부조 성격의 프로그램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5-53>은 소득별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가구주 대상 빈곤 가구율을 산출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를 살펴 본 것이다. 빈곤선이 중위소득 50%이므로,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판단할 때보다, 빈곤 가구율이 더 높다. 전체 노인 가구주 가구 대상 빈곤 가구율은 66.41%이고, 65-74세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구율은 57.36%,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구율은 80.49%나 된다.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를 보면, 빈곤선을 40%로 하여 분석한 <표 5-52>보다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 완화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만 있을 뿐 경향성은 비슷하다.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공적 연금이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기초보장 제도보다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크다. 공공부조 성격의 프로그램을 모두 합할 때, 전체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 가구율을 8.06%p 떨어 뜨려, 공적 연금보다 빈곤 가구율을 더 많이 떨어뜨린다.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합한 공적 이전 총합은 빈곤 가구율을 14.47%p 떨어뜨려, 공적 이전소득 모두를 합한 중위 소득 50% 기준 빈곤 가구율은 51.94%이다.

<표 5-53> 1차 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 가구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1차소득 빈곤율	합산 소득(1차소득+ )빈곤 가구율					
			+기초보장	+장애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공부조 성 급여	+공적 이전 총합
중위 50% 기준 빈곤율	노인가구 전체	66.41	64.68 (1.73)	66.34 (0.07)	63.82 (2.59)	60.08 (6.33)	58.35 (8.06)	51.94 (14.47)
	65-74세	57.36	55.89 (10.52)	57.29 (9.12)	54.71 (11.7)	49.19 (17.22)	50.81 (15.60)	42.14 (24.27)
	75세 이상	80.49	78.34 (2.15)	80.40 (0.09)	77.99 (2.50)	76.99 (3.50)	70.06 (10.43)	67.17 (13.32)

주 1) 장애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2) 공공부조성 급여= 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3) 공적 이전 총합=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4) ( )는 1차 소득 빈곤율 -합산소득 빈곤율이며, 단위 %p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나. 노인 개인 기준 빈곤 완화 효과

여기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 완화 효과를 노인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볼 것이다. 빈곤선은 앞과 같이 중위소득 40%와 50%를 기준으로 한다.

<표 5-54>는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를 살펴 본 것이다. 1차 소득 기준 빈곤율을 보면, 앞의 노인 가구주 가구 대상으로 한 빈곤가구율과 비교하여, 빈곤율이 더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 기준 빈곤율이 가구 기준 빈곤율보다 더 낮다.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보면, 기초보장은 빈곤율을 3.16%p, 장애 급여는 0.19%p, 기초연금은 3.65%p, 공적 연금은 6.92%p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적 연금이 빈곤 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이 기초연금이며, 기초보장, 장애 관련 급여 순이다. 공공부조 성격의 프로그램들 모두 합한 후의 노인 전체 빈곤율은 42.83%보다 공공부조 성격 프로그램들은 빈곤율을 11.55%p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더한 공적 이전 총합은 빈곤율을 18.82%p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4> 1차 소득 중위 40% 기준 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1차소득 빈곤율	합산 소득(1차소득+ )빈곤율					
			+기초보장	+장애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공부조 성 급여	+공적 이전 총합
중위 40%기준 빈곤율	노인 전체	54.38	51.22 (3.16)	54.19 (0.19)	50.73 (3.65)	47.46 (6.92)	42.83 (11.55)	35.56 (18.82)
	65-74세	49.39	46.64 (2.75)	49.22 (0.17)	45.86 (3.53)	40.18 (9.21)	39.58 (9.81)	29.13 (20.26)
	75세 이상	61.51	57.77 (3.74)	61.31 (0.20)	57.69 (3.82)	57.89 (3.62)	47.49 (14.02)	44.75 (16.76)

주 1) 장애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2) 공공부조성 급여= 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3) 공적 이전 총합=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4) ( )는 1차 소득 빈곤율-합산소득 빈곤율이며, 단위 %p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노인 연령 집단별로 개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 완화 효과를 보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상이한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합한 공적 이전 총합의 빈곤완화 효과를 노인의 연령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75세 이상 연령 집단보다 65-74세 연령집단에서 빈곤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65-74세 노인은 공적 이전 총합에 의해 빈곤율이 20.26%p 떨어지는데 반해,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16.76%p 빈곤율이

떨어진다. 이는 75세 이상 집단의 빈곤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점을 함의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75세 이상 노인이 극빈층의 비율이 65-74세 노인보다 더 높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적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정도가 75세 이상 연령 집단보다 65-74세 연령 집단에서 훨씬 크다는 점이다. 공적 연금은 65-74세 연령 집단에서 빈곤율을 8.52%p 떨어뜨리는데 반해, 7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는 3.48%p밖에 빈곤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는 앞의 사회보장 수급 현황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75세 이상 노인 중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55>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를 살펴 본 것이다. <표 5-54>와 비교하여 빈곤선이 더 높으므로, <표 5-55>가 <표 5-54>보다 빈곤율이 더 높다.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57.40%, 65-74세 노인은 52.67%,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4.18%이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빈곤 완화 효과는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살펴 본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단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낮다는 점만 상이하다.

<표 5-55> 1차 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 완화 효과

(단위: %, %p)

구분		1차소득 빈곤율	합산 소득(1차소득+ )빈곤율					
			+기초보장	+장애 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공공부조 성 급여	+공적 이전 총합
1차 소득 중위 50%기준 빈곤율	노인 전체	57.40	55.91 (1.49)	57.31 (0.09)	54.27 (3.13)	50.96 (6.44)	49.34 (8.06)	42.54 (14.86)
	65-74 세	52.67	51.34 (1.33)	52.58 (0.09)	49.66 (3.01)	44.15 (8.52)	45.80 (6.87)	36.46 (16.67)
	75세 이상	64.18	62.45 (1.73)	64.07 (0.11)	60.86 (3.32)	60.70 (3.48)	54.40 (9.78)	51.23 (12.95)

주 1) 장애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2) 공공부조성 급여= 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3) 공적 이전 총합=기초보장 + 장애급여+ 기초연금+ 공적 연금

4) ( )는 1차 소득 빈곤율-합산소득 빈곤율이며, 단위 %p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1. 근로연령층 가구의 특성

##### 가.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분포

이 절에서는 근로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현금급여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표본 중 18-64세의 개인은 70%인 2,045,111명이다. 18-64세의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표본 가구의 90%이다.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로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보면, 소득 1-2분위에서 해당가구의 비율은 70%로 낮은 반면 4분위부터는 90%이상이고 소득 10분위에서는 약 98%에 이른다. 근로연령 가구원의 유무가 가구의 소득 분위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5-74세 및 7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 중 소득 10분위에서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이 66.4%와 47%로 낮아졌다.

<표 5-56>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6.67	19.71	68.8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2.81	27.66	69.85
3분위	100.00	100.00	96.1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1.79	63.07	89.61
4분위		100.00	97.4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6.61	65.16	92.85
5분위		100.00	97.3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2.91	62.58	92.93
6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4.78	64.17	95.38
7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41	67.94	97.77
8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0.47	68.33	98.64
9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0.08	65.09	98.84
10분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66.42	47.18	97.51
계	30.56	28.10	79.78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5.31	41.16	90.2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보면 재산 6,7,8,9분위에서 근로연령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재산 10분위의 경우 오히려 근로연령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lt;표 5-57&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72.27	53.01	61.90	71.19	72.42	72.86	71.95	61.88	69.85
3분위	94.16	89.29	90.41	91.25	89.68	86.20	82.88	73.13	89.61
4분위	96.48	92.92	94.53	96.17	95.02	92.77	89.29	74.73	92.85
5분위	95.61	91.10	94.11	94.69	93.85	92.79	90.41	80.27	92.93
6분위	96.84	94.35	96.48	97.42	97.04	95.85	94.23	83.62	95.38
7분위	98.79	97.44	98.51	99.02	99.01	98.55	97.27	88.02	97.77
8분위	99.55	99.18	99.40	99.68	99.48	99.40	98.49	90.83	98.64
9분위	99.76	99.15	99.44	99.70	99.78	99.70	99.07	92.90	98.84
10분위	99.43	98.21	99.05	99.54	99.58	99.51	99.08	92.97	97.51
계	89.48	77.12	86.71	93.43	94.64	94.36	92.95	84.71	90.2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나.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근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이 다수이므로 18세 이상을 근로연령의 시작연령으로 설정하였다.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보장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연령을 다시 재 구분하였다. 근로연령은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로 재 범주화하였다.

18-64세 가구주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약 64%정도이다. 24-50세 가구주 가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이 70%이상으로 높았다. 18-23세의 초기 청년 가구주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31%에 불과하고, 51-64세 장년 가구주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63% 수준이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1,2분위에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이 0%였고 소득 3분위에서도 해당 가구 비율이 54% 정도로 다른 분위의 집단에 비해 낮았다.

&lt;표 5-58&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자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0.00	0.00	0.00	0.00	0.00
3분위	34.49	53.47	60.49	56.39	54.43
4분위	33.91	62.24	69.22	64.99	61.96
5분위	36.16	67.89	75.94	69.56	67.20
6분위	39.98	74.59	80.00	74.91	72.74
7분위	39.71	79.82	81.95	77.90	76.21
8분위	35.07	83.84	84.08	80.47	78.36
9분위	30.50	84.28	85.64	81.72	78.41
10분위	23.76	81.76	87.79	84.29	78.53
계	30.52	70.19	70.04	63.12	63.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사업소득을 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당연 소득액이 높아진다.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이동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증가율이 287% 정도로 다른 분위 이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18-23세인 집단에서 24-34세인 집단으로 변화할 때 증가율이 558%에 이르고, 35-50세에 이를 때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사업소득이 높아지고 51-64세인 경우 다소 감소한다. 특히, 소득 10분위에서 가구주 연령이 35-50세, 그리고 51-64세인 경우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76백만 원과 85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 소득 분위기를 결정하는 근로·사업소득의 역할에 주목할 만하다.

<표 5-59>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단위: 원)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0	0	0	0	0
3분위	646,301	1,230,908	1,541,935	1,235,945	1,265,681
4분위	1,791,168	4,498,667	6,154,014	4,929,418	4,896,184
5분위	2,780,685	8,408,213	11,361,114	8,848,384	8,872,081
6분위	3,922,595	13,247,002	17,389,091	12,694,316	13,516,854
7분위	4,481,694	18,223,276	24,178,208	16,978,540	18,833,201
8분위	4,141,550	23,420,142	32,092,295	23,605,477	25,075,301
9분위	3,601,261	28,950,672	42,353,428	36,375,216	33,382,272
10분위	2,838,894	38,312,858	76,583,331	84,993,773	63,022,560
계	2,668,177	17,562,344	25,362,949	21,131,254	19,884,97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분위별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자 비율을 보면 재산이 낮은 재산 1-3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자 비율이 60%를 넘었다. 재산 1-3분위에 있는 가구 중 금융자산이나 주거보증금 외 다른 재산이 없으나 소득이 높은 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 4,5분위에서는 근로·사업소득자 비율이 1-3분위와 비교하여 더 낮았다. 재산이 많은 상위 6, 7, 8, 9, 10분위에서는 근로·사업소득자 비율이 64~66%대로 일관되게 높아, 재산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자의 쌍봉(bimodal) 분포를 짐작할 수 있다.

<표 5-60>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자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37.16	73.68	63.69	50.65	60.48
4분위	32.28	64.61	60.60	49.90	54.17
5분위	31.41	65.55	65.41	58.03	58.95
6분위	30.72	68.99	72.08	65.62	64.92
7분위	27.59	70.31	74.79	68.08	66.76
8분위	25.99	69.69	75.43	68.84	66.92
9분위	24.51	67.05	75.27	69.13	66.20
10분위	22.82	64.01	74.10	72.58	66.68
계	30.52	70.19	70.04	63.12	63.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사업소득액을 보면, 재산이 낮은 재산 1-3분위가 4-5분위보다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더 높으며 24-34세, 35-50세의 가구주 가구가 이러한 차이를 더 크게 유발하고 있다. 18-23세 가구주 가구에서는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24-34세 가구주 가구에서는 재산 4분위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가장 낮아지고 분위가 높아질수록 회복하고, 이러한 경향은 35-50세 가구주 가구에서도 유사하다. 51-64세 가구주 가구는 재산 1-3분위에 비해 재산 4분위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다소 낮아지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은 다른 연령 집단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5-61>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단위: 원)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3,786,326	18,779,757	17,288,199	9,405,002	14,343,040
4분위	2,633,850	13,412,537	15,714,993	9,389,440	11,512,566
5분위	2,703,056	13,733,477	17,476,516	12,190,296	13,306,665
6분위	2,589,965	15,524,560	21,130,055	15,157,875	16,227,415
7분위	2,169,435	17,396,498	26,464,195	19,002,174	19,949,385
8분위	1,905,316	17,976,787	31,604,280	23,318,845	23,390,080
9분위	1,692,355	17,623,030	35,878,216	27,701,673	26,226,741
10분위	1,669,078	18,445,449	46,552,011	45,390,993	36,825,771
계	2,668,177	17,562,344	25,362,949	21,131,254	19,884,97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2.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 현황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여부 및 수급액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제도는 국민연금, 직역연금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한부모생활보조금, 한부모 양육비, 한부모 추가양육비, 한부모 학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의 각종 수당이다.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로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중 소득보장제도 수급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저소득가구에서 수급율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율이 더 높다. 연령대별로는 24-34세 청년 가구주 가구에서 2% 정도, 35-50세 중년 가구주 가구에서 4%로 수급율이 낮고, 50-64세의 장년 가구주 가구의 수급율은 22%로 높다. 18-23세 초기 청년 가구주 가구의 수급율은 8% 정도이지만 표본의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평균 개수에서도 수급여부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35-50세 중년 가구주 가구와 51-64세 장년 가구주 가구의 수급하는 제도 평균 개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51-64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하는 급여 개수는 이하 연령대 집단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지는 않으나, 1종 이상 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높아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발생이 더 커져 사회보장 대상으로 포괄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급여액의

집단별 차이도 그 경향도 유사하여, 소득 1-2 하위 분위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의 효과 등으로 수급액이 더 많다. 소득 하위 3분위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여액이 낮아지다가 소득 9분위와 10분위에서는 51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수급액이 크게 높아진다. 연금 수급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 5-62>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비율  
(단위: %)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18.64	8.00	18.19	34.75	24.53
3분위	12.42	4.46	10.57	25.67	17.05
4분위	4.30	2.42	5.89	22.51	12.47
5분위	2.04	1.19	3.81	23.93	11.99
6분위	1.16	0.45	0.92	22.28	9.00
7분위	0.48	0.28	0.49	20.28	6.96
8분위	0.84	0.23	0.36	17.31	5.47
9분위	0.00	0.25	0.31	12.05	4.07
10분위	0.00	0.22	0.22	8.64	3.70
계	8.37	1.60	4.42	21.62	10.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6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수급(가입) 개수 평균  
(단위: 개)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0.898	0.651	1.698	1.557	1.485
3분위	0.640	0.486	1.292	0.852	0.991
4분위	0.294	0.350	0.833	0.638	0.683
5분위	0.163	0.270	0.594	0.519	0.511
6분위	0.070	0.230	0.347	0.420	0.349
7분위	0.034	0.183	0.293	0.372	0.293
8분위	0.024	0.145	0.250	0.336	0.252
9분위	0.011	0.113	0.211	0.291	0.217
10분위	0.018	0.092	0.168	0.215	0.177
계	0.428	0.253	0.612	0.640	0.56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64>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평균 급여액  
(단위: 원/년)

연령 소득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4,885,683	4,027,207	4,543,719	7,148,032	5,950,093
3분위	3,627,425	2,538,789	2,492,497	6,127,610	4,411,669
4분위	2,649,676	2,248,039	1,964,652	6,506,766	4,219,719
5분위	2,350,450	2,204,580	2,006,515	7,215,022	4,724,901
6분위	1,788,964	2,388,544	2,563,812	7,561,392	4,971,924
7분위	1,856,918	2,537,041	2,752,904	7,663,880	4,839,391
8분위	2,222,323	2,549,160	3,079,515	7,585,356	4,885,614
9분위	1,677,520	2,578,762	3,257,287	7,685,106	5,135,674
10분위	2,281,297	2,731,094	3,185,663	8,542,447	5,899,279
계	4,035,520	2,661,786	2,958,257	7,214,524	5,038,52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분위를 기준으로 보면 재산 6,7,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가구의 비율이 낮다. 재산 10분위는 1개 이상 수급하는 가구가 15.54%로 수급비율이 높는데 이는 사회보험과 수당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분위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소득보장제도 1개 이상 수급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낮은 재산분위의 51세 이상의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24-50세의 재산 6,7 분위 이상의 가구에서 수급비율이 낮았다. 21-34세의 경우에는 낮은 재산분위에서도 수급가구의 비율이 낮았다. 수급하는 제도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35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 재산 5분위 이하의 가구에서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가 평균을 넘고 있었다.

<표 5-65>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비율  
(단위: %)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8.58	2.00	9.76	23.71	11.51
4분위	11.54	2.06	8.05	25.91	16.23
5분위	9.32	1.40	3.55	20.77	11.22
6분위	4.05	0.58	1.18	18.56	8.04
7분위	1.53	0.47	0.60	18.93	7.65
8분위	2.33	0.37	0.45	19.81	8.64
9분위	3.39	0.30	0.43	20.89	10.62
10분위	6.67	0.45	0.31	23.89	15.54
계	8.37	1.60	4.42	21.62	10.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66>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수급(가입) 개수 평균  
(단위: 개)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0.428	0.224	1.021	1.038	0.787
4분위	0.942	0.442	1.103	1.253	1.109
5분위	0.670	0.385	0.674	0.752	0.681
6분위	0.341	0.344	0.397	0.446	0.411
7분위	0.137	0.309	0.297	0.408	0.341
8분위	0.209	0.274	0.272	0.390	0.322
9분위	0.119	0.257	0.247	0.394	0.321
10분위	0.433	0.273	0.234	0.402	0.344
계	0.428	0.253	0.612	0.640	0.56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67>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평균 급여액  
(단위: 원/년)

연령 재산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4,103,716	2,533,226	2,905,143	5,284,853	3,789,356
4분위	3,085,822	3,168,741	3,029,850	5,416,577	4,336,934
5분위	3,786,265	2,604,873	2,603,166	5,205,081	3,936,484
6분위	2,274,466	2,275,859	2,481,664	5,877,892	4,004,527
7분위	3,262,018	2,404,171	2,706,889	7,215,162	4,810,030
8분위	2,669,511	3,108,638	3,189,748	8,529,820	6,046,604
9분위	5,648,690	3,883,580	3,800,131	9,876,322	7,631,396
10분위	6,322,002	4,443,664	4,112,801	10,408,027	8,980,009
계	4,035,520	2,661,786	2,958,257	7,214,524	5,038,52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수급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재산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평균액을 비교하면 51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 급여액이 크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50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는 오히려 9분위, 10분위 가구에서 평균액이 더 높았다. 재산 1-3분위, 23세 이하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소득 분위와 재산 분위기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낮고 재산 분위는 높은 집단에서 소득보장제도를 1개 이상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역으로 소득분위가 높고 재산분위가 낮은 집단에서 소득보장제도를 수급하는 가구가 적었다. 재산의 영향은 소득과 다소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소득이 높아도 아직 재산은 갖지 못한 가구가 존재할 수 있고 나이가 높은 가구주의 경우 재산은 많아도 소득이 낮아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재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금급여와 재산의 영향이 적은 준보편적 수당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5-68>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 중 1종 이상 수급 가구비율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7.36	33.61	24.40	14.14	12.03	12.61	16.35	20.92	24.53
3분위	16.80	18.78	15.46	13.66	14.57	17.52	21.14	27.69	17.05
4분위	11.15	15.67	11.20	9.84	11.09	13.08	16.70	24.73	12.47
5분위	8.81	13.28	10.96	10.45	11.81	15.14	18.80	24.16	11.99
6분위	4.37	10.08	8.61	8.09	9.58	13.63	16.47	23.20	9.00
7분위	2.72	7.47	7.20	6.12	7.14	9.46	13.71	20.07	6.96
8분위	1.77	5.32	6.09	5.22	4.93	6.54	8.80	17.09	5.47
9분위	1.28	3.81	3.78	4.04	3.61	4.04	5.54	10.95	4.07
10분위	0.94	1.89	2.63	2.49	2.31	2.24	3.16	7.96	3.70
계	11.51	16.23	11.22	8.04	7.65	8.64	10.62	15.54	10.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69>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수급(가입) 개수 평균  
(단위: 개)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754	2.424	1.540	0.729	0.494	0.418	0.404	0.407	1.485
3분위	1.344	1.413	1.024	0.640	0.489	0.473	0.457	0.482	0.991
4분위	0.859	1.032	0.788	0.531	0.454	0.418	0.424	0.467	0.683
5분위	0.556	0.838	0.616	0.465	0.433	0.416	0.414	0.444	0.511
6분위	0.270	0.500	0.428	0.405	0.374	0.381	0.396	0.430	0.349
7분위	0.185	0.392	0.362	0.332	0.336	0.356	0.384	0.410	0.293
8분위	0.135	0.336	0.302	0.283	0.282	0.318	0.329	0.380	0.252
9분위	0.110	0.239	0.246	0.228	0.244	0.248	0.268	0.321	0.217
10분위	0.090	0.178	0.197	0.185	0.173	0.174	0.184	0.233	0.177
계	0.787	1.109	0.681	0.411	0.341	0.322	0.321	0.344	0.56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70>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의 사회보험(연금), 수당, 공공부조의 평균 급여액  
(단위: 원/년)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630,163	5,896,936	5,029,631	4,433,636	5,683,806	<b>7,917,924</b>	<b>11,035,483</b>	<b>12,706,193</b>	5,950,093
3분위	3,205,101	3,518,862	3,465,836	3,824,515	5,061,286	6,255,178	8,000,065	9,567,033	4,411,669
4분위	2,295,452	3,153,691	3,219,994	3,660,677	5,101,220	6,641,119	8,348,820	9,240,290	4,219,719
5분위	2,342,700	3,786,378	3,365,032	4,189,986	5,215,411	7,312,091	9,010,206	9,664,579	4,724,901
6분위	2,727,159	3,762,169	3,783,228	3,954,792	5,205,234	6,632,298	8,491,884	9,422,545	4,971,924
7분위	2,810,626	3,646,227	3,952,006	3,877,084	4,511,240	5,707,548	7,565,672	8,955,201	4,839,391
8분위	2,866,473	3,728,261	4,134,992	4,045,278	4,255,576	5,316,406	6,684,399	8,349,352	4,885,614
9분위	2,924,334	4,430,872	4,107,322	4,120,116	4,185,713	5,098,065	6,394,232	8,289,784	5,135,674
10분위	3,049,719	3,720,615	4,425,392	4,218,408	4,509,719	4,886,584	5,864,802	8,014,476	5,899,279
계	3,789,356	4,336,934	3,936,484	4,004,527	4,810,030	6,046,604	7,631,396	8,980,009	5,038,52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자료의 한계로 최근 확충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수급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소득 3분위에서 수급율이 가장 높다. 다음이 2분위, 4분위, 5분위로, 1분위의 수급율은 오히려 낮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56-65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율이 높고, 40-55세 가구주 가구가 다음으로 수급비율이 높다. 소득 2,3분위의 56-65세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수급율이 높았다.

수급액은 소득 2,3분위의 40-55세 가구주 가구에서 가장 높았고 소득 3,4분위의 56-65세의 가구주 가구에서도 높았다. 가중치를 적용한 사례수가 18,497가구의 2.2%인 405가구 정도이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t;표 5-71&gt;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수급여부

(단위: %)

연령 소득	20-39세	40-55세	56-65세	65-75세	계
1분위		1.77	2.23	0.00	0.76
2분위	0.00	0.00	13.16	2.20	5.35
3분위	0.00	9.02	13.45	5.24	8.68
4분위	0.00	4.52	6.84	2.72	4.80
5분위	0.00	1.90	5.27	1.25	3.22
6분위		1.81	1.67	1.06	1.44
7분위		0.00	0.91	0.37	0.61
8분위		0.88	0.12	0.12	0.18
9분위	0.00	0.00	0.00	0.17	0.08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계	0.00	1.94	3.13	1.28	2.19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lt;표 5-72&gt; 가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평균 수급액

(단위: 원, 연)

연령 소득	20-39세	40-55세	56-65세	65-75세	계
1분위		55	113	.	103
2분위		.	132	79	118
3분위		117	120	118	119
4분위		144	100	103	105
5분위		44	74	76	73
6분위		73	78	42	67
7분위		.	89	76	86
8분위		24	120	172	98
9분위		.	.	60	60
10분위					
계		105	103	99	102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 3.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불완전)가처분소득은 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시사한다. 가처분소득은 1차 소득과 달리 소득 1,2분위에서 0을 초과하는 소득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8-23세 가구주 가구의 불완전 가처분소득은 낮다. 반면 24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 이 중에서도 35-50세 가구주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이 가구들의 소득분위별 평균 가처분소득의 차이도 가장 컸다. 소득1분위에서는 51-64세 가구주 가구의 평균 소득이 높았고 소득 2분위에서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5분위까지 유지되었다. 소득 10분위에서도 해당 연령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소득상위분위로 갈수록 가처분소득의 평균이 높아지는데 10분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아래 소득분위와 비교하여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분위가 높을수록 불완전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과 재산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보면 35-50세 가구주 가구의 재산분위별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매우 컸다. 다음이 51-64세 가구주 가구의 재산분위별 평균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컸다.

18-24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분위별 평균 가처분소득의 변화가 다른 연령의 가구주 가구와 상이하게 재산이 증가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산 7,8분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높았다.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비교하면 가처분소득과 재산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이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이 높았다. 재산10분위, 소득 10분위의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여타 집단과 비교하여 크게 높았다.

<표 5-73>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원/년)

소득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2분위	4,880,906	4,024,108	4,539,947	7,114,118	5,929,740
3분위	5,492,777	5,330,885	5,360,384	8,605,923	7,060,842
4분위	12,743,566	14,039,100	14,273,544	17,126,943	15,644,481
5분위	20,223,429	24,118,321	24,387,651	26,603,109	25,494,335
6분위	29,825,303	35,062,321	36,956,697	36,884,578	36,636,918
7분위	40,098,894	46,592,858	50,140,431	49,375,564	49,259,987
8분위	47,553,715	60,583,179	65,971,768	65,368,104	64,937,659
9분위	75,752,306	81,053,209	88,552,896	88,226,310	87,506,383
10분위	118,200,000	145,900,000	177,900,000	182,500,000	177,900,000
계	9,175,171	40,194,355	41,833,324	40,342,605	40,735,9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74>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원/년)

재산 \ 연령	18-23세	24-34세	35-50세	51-64세	계
1-3분위	8,364,392	31,008,156	22,606,399	16,061,303	21,055,052
4분위	9,082,721	33,503,319	29,138,628	20,441,618	24,671,955
5분위	12,963,831	37,733,880	32,205,540	27,438,265	30,177,630
6분위	17,042,885	41,190,943	40,195,345	35,698,826	38,230,906
7분위	28,054,409	48,793,940	51,244,180	42,963,718	47,040,972
8분위	43,648,388	57,132,929	63,138,233	48,662,736	54,903,570
9분위	10,585,980	65,084,102	77,087,992	55,463,524	62,835,614
10분위	8,858,148	95,302,941	119,300,000	82,834,572	90,507,559
계	9,175,171	40,194,355	41,833,324	40,342,605	40,735,9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75>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근로연령 가구원의 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원/년)

재산 \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624,059	5,889,656	5,013,669	4,399,250	5,631,179	7,845,239	10,930,182	12,541,305	5,929,740
3분위	5,708,609	6,306,841	6,251,690	6,700,712	7,894,467	9,027,927	10,684,362	12,122,851	7,060,842
4분위	13,636,185	14,742,454	15,162,279	15,477,050	16,711,054	17,971,760	19,454,208	19,781,452	15,644,481
5분위	22,710,928	24,714,980	24,959,901	25,826,191	26,456,976	28,047,110	29,344,164	29,306,969	25,494,335
6분위	33,801,822	35,307,968	36,316,368	36,988,015	37,572,676	38,247,793	39,694,559	39,083,555	36,636,918
7분위	45,542,994	47,068,822	49,287,010	49,710,571	49,995,512	50,963,231	52,024,001	51,368,773	49,259,987
8분위	59,835,800	62,759,848	64,710,910	65,469,372	65,853,939	66,943,479	67,555,014	65,942,647	64,937,659
9분위	80,676,716	83,452,808	86,546,689	87,213,982	88,190,517	89,181,475	90,227,496	89,236,243	87,506,383
10분위	143,600,000	163,400,000	142,000,000	141,500,000	140,600,000	147,200,000	163,200,000	231,000,000	177,900,000
계	21,055,052	24,671,955	30,177,630	38,230,906	47,040,972	54,903,570	62,835,614	90,507,559	40,735,9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4절 아동 소득보장

아동가구의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상태의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와 아동이 있는 대다수의 가구 또는 모든 가구에 대한 (준)보편적인 급여로 구분된다. 빈곤아동가구를 위한 자산조사형 지원 제도는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부조,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소득지원제도를 포함하며, 아동가구가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급여는 가정양육수당 등 자산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급여가 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같이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없지만 특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가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처럼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아동가족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가 있다. 본 절에서는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급여의 수급여부와 수급수준을 분석하고 제도포괄성의 수준과 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분석개요

#### 가. 분석대상 제도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의 보편적 지원제도와 함께, 농어촌 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등 특정한 인구 및 가족 특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제도 등 공공부조를 통한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와 같은 근로 연계급여 등으로 구성된다(<표 5-76>참고). 본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근로장려세제, 보육료지원제도 등 핵심적인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관련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양육수당, 농어촌아동양육수당 등 가정아동양육수당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장애아동양육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인 소득보장 부분에서 다루어지므로 아동소득보장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76>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지원 대상 단위	지원 범위	소득지원	지원형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선	아동의 연령구분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상		0-5세	6-11세	12-17세
가구	보편적	아동수당(2019년부터)	현금									
		양육수당	현금									
		보육지원서비스	서비스									
	선별적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현금						중위52%(인정액)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현금						중위60%(인정액)			
		농어촌아동양육수당	현금									
		장애아동양육수당	현금									
		장애아동수당	현금						중위50%(인정액)			
		근로장려세제(EITC)	현금						총소득+가구구분+재산 <sup>1)</sup>			
		자녀장려세제(CTC)	현금						연간총소득+자녀+재산 <sup>2)</su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현금						중위30%(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현금/서비스						중위40%(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현금						중위43%(인정액)			
아동	선별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	현금						중위50%(인정액)			

주\* 1) 홑벌이의 경우 연간 총소득 2100만원

2) 부부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 월 333만원 수준, 중위소득 72% 수준

3) 최현수 등 (2018). 2017 통계로 보는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여유진, 김미곤, 류정희, 강지원, 정은희 등(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 1) 가정양육수당제도

가정양육수당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서비스의 대체재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13년 보육료지원, 유아학비가 보편화되면서 전 소득계층에게 지급하게 된 가정양육수당 제도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4개월(만 7세)미만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대신하여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비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표 5-77>).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장애양육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제공된다. 본 자료의 기준시점인 2016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7세 미만 아동의 39.4%인 93만3천명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0~2세의 영아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은 71.7%에 이르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표 5-77> 연령별 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2~23	15만 원	17만 7천 원	
24~35	10만 원	15만 6천 원	10만 원
36~47		12만 9천 원	
48~84개월 미만		10만 원	

## 2)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서의 ‘한부모가족’은 사별·이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족으로 정의된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1인의 부모 또는 모가 소득 및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구의 평균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 양육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가급여 성격의 현금 또는 서비스 지원은 필수적이다.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및 서비스제도는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제도와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자립지원제도로 구성된다(<표 5-78>, <표 5-79> 참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포함하며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제도는 청소년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을 포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개별지원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60%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표 5-78>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 세 미만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자녀 1인당 월 13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18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만 5 세 이하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 만원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표 5-7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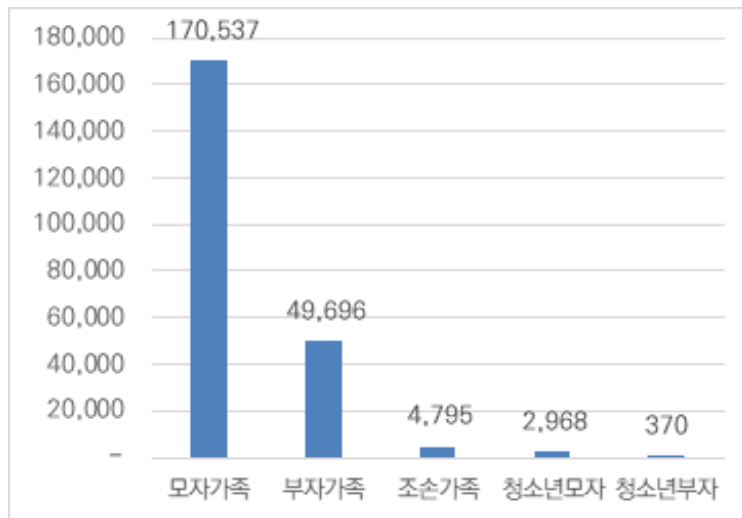
구분	지원조건	지원액	지급시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만2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월 18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 는 차액으로 월 5만원만 지급)	월별 지급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만24세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학원등록비+교재비 등)	수시지급 (신청 시)
청소년 한부모 교과생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분기별 지급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만24세 이하) -최근 1년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월 10만원	월별 지급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의 가족관계 정보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가구형태에 대한 정보가 부재로 모집단이 되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로 선행연구를 통해 활용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구의 규모와 가구유형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없이 19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38만 가구 수준이며, 기타 3세대 가구 중 미혼미성년자녀와 그 부 또는 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19만 가구로, 전체 57만가구가 한

부모가족 급여지원제도의 잠재적 지원대상가구로 추정되었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전체 한부모가구 중 44.2%가 수급 한부모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났다(김은지 등, 2013; 여유진 등, 2016에서 재인용, p.227). 실제로 2016년 10월 기준, 한부모가족 기초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분석결과는 전체 수급가구는 22만 8,366가구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별로는 74.7%가 모자가족, 21.8%가 부자가족, 나머지 3.6%가 청소년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5-1] 한부모가족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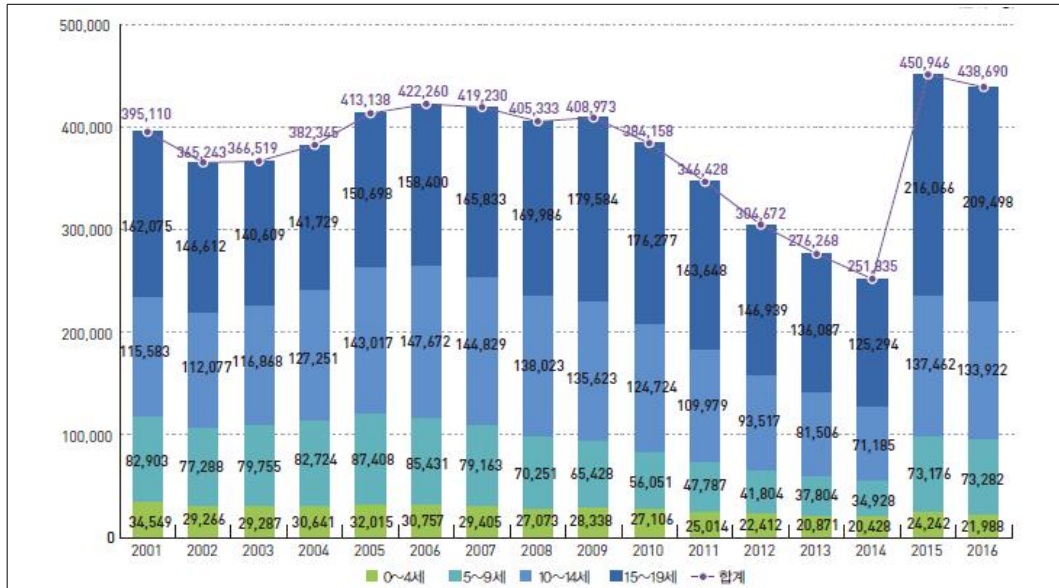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년 10월 자료,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IframePopup.do?pageIndex=1&dataCIcrit=LC&dataCINo=2004&dataNo=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pageUnit=10#>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곤가구 소득보장

빈곤가구 소득보장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동가구의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지는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면서,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적용되던 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화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 총인구수 대비 수급률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경우는 2014년 3.5%에서 6.5%로 증가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1.8%에서 4.0%로 수급자 아동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0%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수(2001-2016)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연도

## 나. 분석대상 아동

아동소득보장제도는 지원대상아동 연령구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소득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구분에 기초하여 아동의 연령은 0-만18세 미만으로 규정된다. 또한, 아동지원제도의 대상연령범위에 따라 아동연령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양육수당의 경우 만 84개월(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소득보장현황 분석은 아동인구 및 아동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경제적 상태, 아동가구 수당 및 급여의 수급현황분석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아동의 특성은 아동의 성별, 지역별, 장애등급별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동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 분석을 위해서 아동가구의 1차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분위별 소득분포, 분위별 재산분포를 분석하였다.

## 2. 아동 및 아동가구의 특성

### 가. 아동특성

표본 282만 2,235명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51만 5,341명으로 17.7%를 차지했으며, 5세 미만의 영유아는 전체 아동의 5.5%, 15만 9,268명으로 나타났다.

<표 5-80> 아동인구의 연령별 분포

연령	명	%
6세 미만	159,268	5.45
18세 미만	515,341	17.65
전체 연령	2,922,235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별 분포는 전체 아동 51만 5,341명 중 남자가 51.7%, 여자가 48.3%를 차지했다.

<표 5-81> 아동의 성별 분포

성별	명	%
남	266,514	51.72
여	248,827	48.28
계	515,341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동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52.0%, 대도시가 42.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농어촌은 5.7%에 그쳤다. 아동의 시도별 분포는 경기도(26.77%)와 서울(16.2%)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체아동의 과반(43%)이 경기도 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82> 아동의 지역규모별 분포

지역규모	아동수	%
대도시	217,681	42.24
중소도시	268,084	52.02
농어촌	29,576	5.74
계	515,341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표 5-83> 아동의 시도별 분포

광역시도	명	%	누적 %
서울특별시	83,437	16.19	16.19
부산광역시	30,814	5.98	22.17
대구광역시	25,890	5.02	27.19
인천광역시	31,239	6.06	33.26
광주광역시	17,244	3.35	36.6
대전광역시	16,250	3.15	39.76
울산광역시	12,807	2.49	42.24
세종특별자치시	3,211	0.62	42.86
경기도	137,980	26.77	69.64
강원도	14,734	2.86	72.5
충청북도	16,201	3.14	75.64
충청남도	21,639	4.2	79.84
전라북도	18,332	3.56	83.4
전라남도	18,082	3.51	86.91
경상북도	25,106	4.87	91.78
경상남도	34,703	6.73	98.51
제주특별자치도	7,672	1.49	100
계	515,341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만 18세 미만 아동의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아동은 3.4%로, 장애등급별로는 6등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4> 만 18세 미만 아동의 장애등급별 분포

장애등급	명	%	누적 %
비장애	497,733	96.58	
1급	784	0.15	96.58
2급	1,557	0.3	96.74
3급	2,308	0.45	97.04
4급	2,210	0.43	97.49
5급	3,873	0.75	97.91
6급	6,876	1.33	98.67
계	515,341	100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나. 아동가구의 일반특성

표본 가구 1,129,696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29%로 327,212가구가 이해 해당한다. 이는 통계청 집계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만 18세 이하)'가 29%와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7). 아동가구의 분포를 주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유아기(0-만 5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11.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는 만 84개월(만 7세) 미만 아동이 12.6%,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초중고 학령기 아동이 242,120명으로 21.4%를 차지했다.

<표 5-85> 아동가구의 아동연령별 분포

아동연령별 가구구분	가구수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125,124	11.08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142,419	12.61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219,435	19.42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327,212	28.96
만 6세-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242,120	21.43
전체가구	1,129,696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32만 7,212가구 중 42.2%가 4인 가구, 32%가 3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1인 또는 2인 가구원수가 50%이상 나타난 전체가구의 가구원수 분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86> 아동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가구수, %)

가구원수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전체가구
1	291,095 (36.27)	255 (0.08)	291,350 (25.79)
2	265,235 (33.05)	22,132 (6.76)	287,367 (25.44)
3	146,816 (18.30)	104,806 (32.03)	251,622 (22.27)
4	82,080 (10.23)	138,139 (42.22)	220,219 (19.49)
5	14,537 (1.81)	45,551 (13.92)	60,088 (5.32)
6	2,289 (0.29)	12,131 (3.71)	14,420 (1.28)
7	353 (0.04)	3,238 (0.99)	3,591 (0.32)
8	79 (0.01)	960 (0.29)	1,039 (0.09)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주: 9인 이상 가구원수는 결측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의 지역적 분포는 아동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아동가구 또는 전체 가구 대비, 아동가구는 중소도시 거주가 51.4%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거주가 5.5%로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lt;표 5-87&gt; 아동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수, %)

지역규모	아동가구 여부		전체가구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대도시	365,122 (45.50)	141,054 (43.11)	506,176 (44.81)
중소도시	367,671 (45.82)	168,083 (51.37)	535,754 (47.42)
농어촌	69,691 (8.68)	18,075 (5.52)	87,766 (7.77)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5-88&gt; 아동가구의 시도별 분포

(단위: 가구수, %)

광역시도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전체가구
서울특별시	163,080 (20.32)	55,094 (16.84)	218,174 (19.31)
부산광역시	57,959 (7.22)	20,206 (6.18)	78,165 (6.92)
대구광역시	37,590 (4.68)	16,721 (5.11)	54,311 (4.81)
인천광역시	43,378 (5.41)	20,000 (6.11)	63,378 (5.61)
광주광역시	22,256 (2.77)	10,662 (3.26)	32,918 (2.91)
대전광역시	24,041 (3.00)	10,173 (3.11)	34,214 (3.03)
울산광역시	16,818 (2.10)	8,198 (2.51)	25,016 (2.21)
세종특별자치시	3,340 (0.42)	1,914 (0.58)	5,254 (0.47)
경기도	175,074 (21.82)	87,294 (26.68)	262,368 (23.22)
강원도	26,857 (3.35)	9,346 (2.86)	36,203 (3.20)
충청북도	26,253 (3.27)	10,055 (3.07)	36,308 (3.21)
충청남도	34,575 (4.31)	13,273 (4.06)	47,848 (4.24)
전라북도	30,840 (3.84)	11,151 (3.41)	41,991 (3.72)
전라남도	32,004 (3.99)	11,010 (3.36)	43,014 (3.81)
경상북도	46,757 (5.83)	15,829 (4.84)	62,586 (5.54)
경상남도	52,491 (6.54)	21,769 (6.65)	74,260 (6.57)
제주특별자치도	9,171 (1.14)	4,517 (1.38)	13,688 (1.21)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3. 아동가구의 경제적 상태

아동가구의 분위별 소득(1차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중위값은 3,961만 158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아동가구의 38%가 7,8,9분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5-89> 18세 미만 아동가구 분위별 소득

(단위: 가구, 원/연)

소득분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값
1-2분위	34,131	0	0	0	0
3분위	29,594	1	10,656,452	3,190,917	2,970,000
4분위	35,363	5,390,000	25,970,000	12,860,487	12,740,000
5분위	33,615	13,140,000	42,094,676	23,436,902	23,200,000
6분위	36,172	21,250,000	60,534,872	35,679,346	35,420,000
7분위	40,823	30,365,576	81,419,920	49,034,815	48,532,140
8분위	42,241	40,808,408	108,136,416	65,056,827	64,461,668
9분위	40,061	54,308,460	152,506,528	88,301,419	87,319,888
10분위	35,212	77,027,200	8,594,882,560	173,206,884	136,661,896
합계	327,212	0	8,594,882,560	51,996,442	39,610,1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표 5-90> 18세 미만 아동가구의 균등화소득 분포

(단위: 가구, 원/연)

소득분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값
1-2분위	34,131	0	0	0	0
3분위	29,594	0	3,804,738	1,654,278	1,559,177
4분위	35,363	3,805,000	9,288,382	6,616,018	6,670,777
5분위	33,615	9,288,465	15,024,039	12,079,222	12,014,659
6분위	36,172	15,024,585	21,468,056	18,280,008	18,287,066
7분위	40,823	21,468,216	28,853,618	25,088,500	25,055,364
8분위	42,241	28,854,628	38,393,264	33,363,961	33,266,276
9분위	40,061	38,393,552	54,463,844	45,388,437	44,892,164
10분위	35,212	54,464,664	4,297,441,280	88,920,507	69,718,944
계	327,212	0	4,297,441,280	26,689,353	20,561,55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의 재산분포는 비아동가구와 비교할 때, 재산 1분위, 10분위에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6,7,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5-91&gt; 18세 미만 아동가구의 재산 분위별 분포

(단위: 가구, %)

재산10분위가구	아동가구여부		전체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1-3분위	333,720 (41.59)	101,269 (30.95)	434,989 (38.50)
4분위	13,339 (1.66)	3,551 (1.09)	16,890 (1.50)
5분위	79,670 (9.93)	33,305 (10.18)	112,975 (10.00)
6분위	69,599 (8.67)	43,460 (13.28)	113,059 (10.01)
7분위	66,824 (8.33)	46,051 (14.07)	112,875 (9.99)
8분위	71,041 (8.85)	41,928 (12.81)	112,969 (10.00)
9분위	77,850 (9.70)	35,120 (10.73)	112,970 (10.00)
10분위	90,441 (11.27)	22,528 (6.88)	112,969 (10.00)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분석하면, 전체 가구 대비 아동가구는 재산과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가구 중 소득 1분위와 재산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9.4%를 차지한 반면, 전체 가구에서 소득 및 재산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31.1%를 차지했다. 즉,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가구의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나 아동가구의 빈곤율이 가구일반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lt;표 5-92&gt; 아동가구 소득과 재산 분포

(단위: 가구, %)

재산 소득	1-3	4	5	6	7	8	9	10	계
1-2	19,628 (19.38)	768 (21.63)	4,302 (12.92)	3,075 (7.08)	2,302 (5.00)	1,758 (4.19)	1,484 (4.23)	814 (3.61)	34,131 (10.43)
3	13,139 (12.97)	541 (15.24)	4,037 (12.12)	3,805 (8.76)	2,923 (6.35)	2,278 (5.43)	1,822 (5.19)	1,049 (4.66)	29,594 (9.04)
4	13,956 (13.78)	454 (12.79)	4,517 (13.56)	4,926 (11.33)	4,132 (8.97)	3,152 (7.52)	2,666 (7.59)	1,560 (6.92)	35,363 (10.81)
5	12,247 (12.09)	383 (10.79)	4,306 (12.93)	5,129 (11.80)	4,215 (9.15)	3,158 (7.53)	2,542 (7.24)	1,635 (7.26)	33,615 (10.27)
6	11,628 (11.48)	377 (10.62)	4,535 (13.62)	6,299 (14.49)	5,196 (11.28)	3,779 (9.01)	2,738 (7.80)	1,620 (7.19)	36,172 (11.05)
7	10,932 (10.80)	393 (11.07)	4,470 (13.42)	7,389 (17.00)	7,128 (15.48)	5,213 (12.43)	3,521 (10.03)	1,777 (7.89)	40,823 (12.48)
8	8,875 (8.76)	296 (8.34)	3,510 (10.54)	6,750 (15.53)	8,411 (18.26)	7,109 (16.96)	4,923 (14.02)	2,367 (10.51)	42,241 (12.91)
9	6,593 (6.51)	208 (5.86)	2,390 (7.18)	4,423 (10.18)	7,812 (16.96)	8,419 (20.08)	6,757 (19.24)	3,459 (15.35)	40,061 (12.24)
10	4,271 (4.22)	131 (3.69)	1,238 (3.72)	1,664 (3.83)	3,932 (8.54)	7,062 (16.84)	8,667 (24.68)	8,247 (36.61)	35,212 (10.76)
합계	101,269 (100.00)	3,551 (100.00)	33,305 (100.00)	43,460 (100.00)	46,051 (100.00)	41,928 (100.00)	35,120 (100.00)	22,528 (100.00)	327,212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5-93&gt; 전체가구 소득과 재산 분포

(단위: 가구, %)

소득\재산	1	4	5	6	7	8	9	10	합계
1-2	135,372 (31.12)	6,946 (41.12)	30,291 (26.81)	15,475 (13.69)	11,137 (9.87)	10,016 (8.87)	9,851 (8.72)	8,916 (7.89)	228,004 (20.18)
3	45,368 (10.43)	2,008 (11.89)	13,662 (12.09)	11,903 (10.53)	10,190 (9.03)	9,551 (8.45)	9,872 (8.74)	8,365 (7.40)	110,919 (9.82)
4	44,079 (10.13)	1,652 (9.78)	12,816 (11.34)	12,548 (11.10)	10,873 (9.63)	9,921 (8.78)	10,198 (9.03)	10,869 (9.62)	112,956 (10.00)
5	42,354 (9.74)	1,551 (9.18)	12,621 (11.17)	13,438 (11.89)	11,657 (10.33)	10,553 (9.34)	10,387 (9.19)	10,408 (9.21)	112,969 (10.00)
6	42,129 (9.69)	1,345 (7.96)	12,103 (10.71)	14,092 (12.46)	12,402 (10.99)	10,979 (9.72)	10,059 (8.90)	9,861 (8.73)	112,970 (10.00)
7	39,872 (9.17)	1,211 (7.17)	10,932 (9.68)	14,968 (13.24)	14,329 (12.69)	12,053 (10.67)	10,480 (9.28)	9,125 (8.08)	112,970 (10.00)
8	35,905 (8.25)	971 (5.75)	9,213 (8.15)	14,057 (12.43)	16,155 (14.31)	14,578 (12.90)	12,188 (10.79)	9,902 (8.77)	112,969 (10.00)
9	30,285 (6.96)	703 (4.16)	7,135 (6.32)	11,199 (9.91)	16,169 (14.32)	18,174 (16.09)	16,363 (14.48)	12,942 (11.46)	112,970 (10.00)
10	19,625 (4.51)	503 (2.98)	4,202 (3.72)	5,379 (4.76)	9,963 (8.83)	17,144 (15.18)	23,572 (20.87)	32,581 (28.84)	112,969 (10.00)
합계	434,989 (100)	16,890 (100)	112,975 (100)	113,059 (100)	112,875 (100)	112,969 (100)	112,970 (100)	112,969 (100)	1,129,696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4. 아동가구 소득보장제도 수급현황

아동가구 소득보장제도 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개 급여를 포함하였다. 실제로 한부모가족 지원급여의 경우 유효표본수의 한계로 소득 및 재산별 분포현황 분석이 유의하지 않아서 수급액의 규모와 수급프로그램 유형별 분포에 대한 기술 분석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관련분석에서는 아동가구와 비아동가구 간의 급여수급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기초생활급여의 연령, 소득, 재산별 분포현황은 제 4장 3절의 공공부조, 제 6장 제 2절 의료서비스보장 제 3절 주거와 교육보장에서 별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가.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구성되며, 관련된 변수 수급기간과 수급액 중 결측치가 없는 수급기간 정보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양육수당의 대체제로 작동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수급률은 데이터 연계미비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2016년 10월말 기준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한 아동가구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142,419가구 중 35.9% (51,144가구)였으며, 이중 양육수당 수급은 50,682가구를 차지했고,

장애아동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은 각각 0.08%, 0.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5-94> 아동가구의 가정양육수당수급

가정양육수당종류	수급가구수	%	수급액 평균	표준편차
양육수당	50,862	(35.71)	1,610,299	569871.2
장애아동양육수당	107	(0.08)	1,472,430	614227.3
농어촌양육수당	195	(0.14)	1,751,190	513699.9
7세 미만 대상아동가구	142,4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 재산,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현황 분석은 장애아동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 1% 미만의 매우 낮은 수급자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분석에서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제외하고 아동양육수당과 (또는) 농어촌양육수당의 수급을 중심으로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와 수급액 분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먼저, 소득·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4.9%로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30-39세 사이의 가구주 16.8%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 고연령대 가구주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은 2.5%로, 조부모가 세대주로 있는 가구의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10분위별로 2.9%-7.1% 사이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6분위 (6.5%), 7분위 (7.1%), 8분위 (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급율을 보이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를 소득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 중 소득 6분위에 속한 가구가 22.2% 소득 7분위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중 양육수당 또는 농어촌아동양육수당 하나라도 수급한 아동가구의 연령별 소득별 분포는 양육수당의 수급가구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lt;표 5-95&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여부

(단위: %)

연령 소득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2.30	4.95	12.34	2.81	0.45	0.75	1.58	0.61	2.88
3분위	2.42	6.58	14.78	3.27	0.92	1.71	2.68	1.26	3.75
4분위	1.30	6.60	16.85	3.45	0.92	2.05	2.92	1.42	4.60
5분위	0.00	5.95	17.63	3.15	1.01	1.58	2.33	1.34	4.67
6분위	0.00	5.33	22.17	4.02	0.85	1.49	2.43	1.84	6.46
7분위	0.00	3.31	20.80	4.71	0.75	1.84	2.91	1.85	7.14
8분위	0.00	2.61	17.32	3.85	0.71	1.53	2.79	1.50	6.23
9분위	0.00	1.92	14.17	3.62	0.47	2.22	2.56	0.90	5.07
10분위	0.00	1.14	13.11	4.18	0.50	2.41	4.09	0.97	4.24
계	1.73	4.16	16.77	3.67	0.70	1.61	2.51	1.06	4.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96&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여부

(단위: %)

연령 소득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2.30	5.00	12.69	3.04	0.49	0.82	1.89	0.74	3.04
3분위	2.42	6.68	14.96	3.39	0.96	1.83	3.06	1.42	3.89
4분위	1.30	6.62	16.94	3.49	0.96	2.16	3.19	1.59	4.69
5분위	0.00	5.95	17.69	3.18	1.03	1.72	2.53	1.41	4.73
6분위	0.00	5.34	22.22	4.06	0.87	1.58	2.64	1.84	6.51
7분위	0.00	3.31	20.84	4.74	0.76	1.88	3.01	1.92	7.17
8분위	0.00	2.61	17.34	3.86	0.73	1.55	2.90	1.70	6.25
9분위	0.00	1.92	14.19	3.65	0.47	2.30	2.74	0.90	5.09
10분위	0.00	1.14	13.14	4.21	0.51	2.52	4.46	0.97	4.28
계	1.73	4.17	16.85	3.74	0.73	1.70	2.76	1.19	4.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액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양육수당은 8만 7,057원, 양육수당 또는 농어촌아동양육수당의 수급액 평균은 8만 7,408원으로 나타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 아동양육수당의 수급율이 매우 낮고 지급금액의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수급액 평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수당 수급액은 16.8%의 수급율을 보이는 30-39세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의 평균수급액이 30만 6,466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 6분위, 7분위에 해당하는 30-39세 가구주의 수급액이 각각 41만 6,117원, 38만 6,165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40대 이후의 가구주 연령대에서는 수급액이 현저히 낮아졌다. 양육수당 또는 농어촌양육수당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아동양육수당 수급하는 가구의 수급액 분포는 양육수당 수급액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lt;표 5-97&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단위: 원/연)

연령 소득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50,575	90,976	223,121	44,723	7,451	11,823	23,255	9,639	49,842
3분위	40,323	120,033	271,970	56,059	15,103	26,782	41,055	19,567	65,591
4분위	7,792	119,885	312,459	58,390	15,351	33,694	46,783	21,421	81,731
5분위	0	109,707	325,802	54,927	17,164	25,405	36,489	22,012	83,869
6분위	0	95,264	416,117	68,592	14,798	24,920	38,112	29,452	117,907
7분위	0	60,382	386,165	82,320	13,148	30,934	47,680	29,407	130,321
8분위	0	46,242	316,541	65,007	12,337	25,904	40,839	19,630	111,397
9분위	0	33,521	249,811	58,866	7,698	35,680	37,947	11,590	87,239
10분위	0	20,407	227,757	63,515	7,930	35,013	62,866	15,339	69,974
계	34,116	75,318	306,466	61,082	11,825	25,850	38,797	16,490	87,0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98&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단위: 원/연)

연령 소득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50,575	91,823	224,821	45,884	7,951	12,233	24,357	12,158	50,884
3분위	40,323	122,402	273,717	56,866	15,262	27,405	42,153	21,681	66,512
4분위	7,792	120,168	313,571	58,541	15,585	33,889	47,707	23,049	82,206
5분위	0	109,707	326,284	55,059	17,164	25,455	36,603	22,012	83,994
6분위	0	95,360	416,589	68,735	14,798	25,154	38,383	29,452	118,091
7분위	0	60,382	386,511	82,320	13,148	31,049	47,680	29,407	130,417
8분위	0	46,242	316,644	65,007	12,337	25,904	40,839	19,630	111,423
9분위	0	33,521	249,862	58,945	7,698	35,680	37,947	11,590	87,275
10분위	0	20,407	227,757	63,515	7,930	35,013	62,866	15,339	69,974
계	34,116	75,635	307,008	61,361	11,942	26,077	39,387	18,161	87,40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재산·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은 소득별 수급율과 유사하게 30-39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는 양육수당 또는 농어촌양육수당 중 적어도 하나를 수급하는 가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재산 10분위별 양육수당 수급자의 분포는 6.7분위에서 각각 6.2%, 6.3%로 가장 높았으며 재산 10분위가 3.6%의 수급율을 보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 연령별 양육수당의 수급액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 가구주가 있는 가구 중 재산 7분위, 6, 8, 10분위에서 20%이상의 가장 높은 수급율을 보였다.

&lt;표 5-99&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여부

(단위: %)

연령 재산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70	3.28	12.92	3.02	0.50	0.77	1.15	0.37	4.62
4분위	0.00	7.24	16.84	3.39	0.68	0.64	1.62	0.73	3.67
5분위	5.88	8.34	18.40	3.70	0.91	1.68	2.34	1.00	4.54
6분위	0.00	13.14	21.86	3.93	0.96	1.72	2.16	1.14	6.21
7분위	0.00	10.41	22.12	3.59	0.71	1.96	2.37	1.57	6.28
8분위	0.00	6.11	20.66	3.96	0.69	1.70	2.88	0.88	5.40
9분위	0.00	5.04	19.68	4.36	0.68	2.07	3.30	1.35	4.55
10분위	0.00	3.13	20.14	5.16	0.84	2.32	3.44	2.00	3.64
계	1.73	4.16	16.77	3.67	0.70	1.61	2.51	1.06	4.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00&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여부

(단위: %)

연령 재산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70	3.29	12.97	3.10	0.51	0.80	1.26	0.39	4.66
4분위	0.00	7.24	16.95	3.50	0.70	0.64	1.70	0.89	3.74
5분위	5.88	8.44	18.55	3.79	0.95	1.78	2.52	1.10	4.64
6분위	0.00	13.18	21.96	3.99	0.98	1.82	2.41	1.19	6.29
7분위	0.00	10.41	22.19	3.63	0.75	2.08	2.68	1.99	6.36
8분위	0.00	6.11	20.74	3.99	0.71	1.83	3.12	1.11	5.47
9분위	0.00	5.12	19.80	4.43	0.72	2.15	3.59	1.53	4.64
10분위	0.00	3.28	20.30	5.24	0.86	2.45	3.85	2.14	3.77
계	1.73	4.17	16.85	3.74	0.73	1.70	2.76	1.19	4.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다음으로, 재산·연령별 가정아동양육수당 수급액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재산 6,7 분위에서 약 11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산 8분위, 1분위의 순으로 높았다. 가장 높은 수급율을 보이고 있는 30-39세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이러한 분포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양육수당 수급액평균은 재산 6,7분위에서 가장 높았고, 8, 10, 9분위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30-39세 가구주의 경우 재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위에서 양육수당의 수급액평균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t;표 5-101&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연령 재산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33,725	59,149	236,698	50,626	8,175	11,949	18,252	6,110	82,838
4분위	0	129,412	325,372	54,649	10,991	10,998	28,577	12,976	67,024
5분위	105,882	148,024	338,194	63,756	15,582	27,695	37,518	14,550	80,736
6분위	0	247,099	402,028	67,404	16,722	28,708	32,957	21,111	111,893
7분위	0	191,581	407,302	60,964	12,038	31,541	37,688	23,946	112,650
8분위	0	102,722	373,565	66,935	11,555	28,219	44,987	12,546	94,908
9분위	0	95,116	353,032	68,981	11,668	33,703	49,084	21,958	77,448
10분위	0	60,000	356,637	79,437	13,911	35,865	52,563	28,863	59,235
계	34,116	75,318	306,466	61,082	11,825	25,850	38,797	16,490	87,0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02&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연령 재산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33,725	59,333	236,892	50,808	8,227	11,949	18,252	6,639	82,982
4분위	0	129,412	326,676	54,649	10,991	10,998	28,577	16,108	67,488
5분위	105,882	150,033	340,204	64,631	15,880	28,166	38,602	16,670	81,696
6분위	0	247,852	403,223	67,775	16,819	28,843	33,516	21,636	112,349
7분위	0	191,581	407,710	61,183	12,207	31,541	38,556	29,897	113,066
8분위	0	102,722	374,180	67,123	11,629	28,769	45,957	14,971	95,287
9분위	0	97,800	353,301	69,346	11,888	34,059	49,766	24,109	77,866
10분위	0	61,563	357,726	79,437	13,948	36,201	53,003	29,418	59,491
계	34,116	75,635	307,008	61,361	11,942	26,077	39,387	18,161	87,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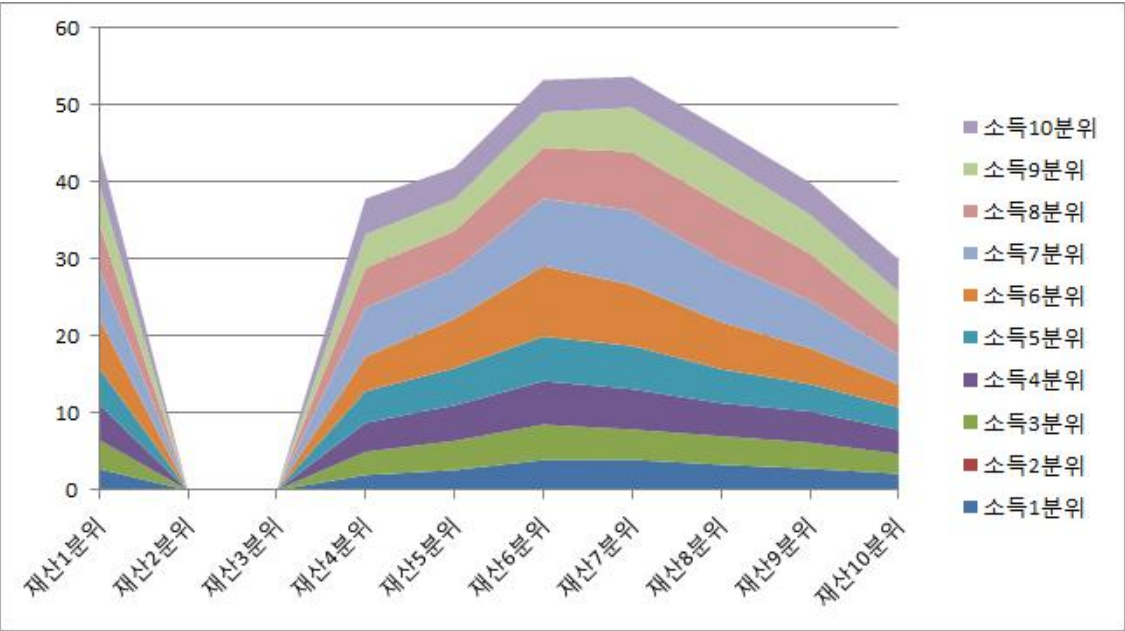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3)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소득과 재산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재산 7분위와 소득 7분위에 속한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율이 9.7%, 재산 6분위와 소득 6분위에 속한 가구의 수급율이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양육수당 수급율은 대체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이들 중 중 재산 4분위, 10분위, 5분위, 1분위의 순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율이 모두 3%를 밑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에서 재산보다는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소득 1분위 가구의 대부분은 가정양육수당의 대체제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한 보육료지원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수당 또는 농어촌 아동양육 수당 중 하나라도 받는 경우는 타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양육수당의 낮은 수급율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3]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재산과 소득분포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10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양육수당 수급여부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77	1.98	2.61	3.93	3.96	3.32	2.82	2.14	2.88
3분위	3.77	3.01	3.80	4.59	3.93	3.70	3.36	2.58	3.75
4분위	4.64	3.78	4.62	5.64	5.25	4.29	4.05	3.13	4.60
5분위	4.72	4.10	4.82	5.81	5.60	4.43	3.55	2.92	4.67
6분위	6.42	4.49	6.41	9.16	7.91	6.10	4.66	2.98	6.46
7분위	6.58	6.36	6.29	8.73	9.68	7.95	6.16	3.81	7.14
8분위	5.86	5.19	5.13	6.64	7.61	7.49	6.13	3.87	6.23
9분위	5.11	4.30	4.10	4.59	5.72	5.62	5.06	4.28	5.07
10분위	4.65	4.66	4.11	4.18	4.02	4.03	4.16	4.26	4.24
계	4.62	3.67	4.54	6.21	6.28	5.40	4.55	3.64	4.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04&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중 하나라도 수급여부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86	2.06	2.79	4.23	4.34	3.52	3.24	2.45	3.04
3분위	3.85	3.12	3.97	4.79	4.07	3.87	3.58	2.84	3.89
4분위	4.68	3.91	4.75	5.69	5.35	4.43	4.18	3.31	4.69
5분위	4.74	4.18	4.91	5.86	5.71	4.53	3.59	3.05	4.73
6분위	6.44	4.57	6.47	9.20	7.94	6.17	4.72	3.18	6.51
7분위	6.60	6.36	6.33	8.74	9.73	7.98	6.21	3.90	7.17
8분위	5.87	5.19	5.13	6.66	7.63	7.52	6.17	3.95	6.25
9분위	5.13	4.30	4.10	4.62	5.74	5.63	5.11	4.35	5.09
10분위	4.66	4.66	4.13	4.18	4.03	4.05	4.20	4.35	4.28
계	4.66	3.74	4.64	6.29	6.36	5.47	4.64	3.77	4.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마지막으로, 소득·재산의 분포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액 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급율(9.7%)을 보였던 소득 7분위와 재산 7분위에 속한 가구가 17만 7,434원으로 수급액평균이 가장 높았다. 소득 6분위와 재산 6분위에 속한 가구가 16만 7,387원, 재산6분위와 소득 7분위에 속한 가구의 수급액평균이 161,638원 순으로 수급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105&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단위: 원/연)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48,838	37,140	44,512	69,095	66,522	53,857	42,734	35,218	49,842
3분위	67,539	57,083	66,236	81,085	67,958	62,990	54,724	40,159	65,591
4분위	83,792	65,505	81,771	103,061	94,091	74,772	67,862	50,302	81,731
5분위	85,221	68,896	87,009	105,477	102,559	78,421	63,018	47,822	83,869
6분위	118,272	84,161	115,989	167,387	147,167	110,045	83,094	48,981	117,907
7분위	120,875	115,593	116,394	161,638	177,434	143,501	107,833	65,525	130,321
8분위	104,723	104,309	89,807	118,434	138,131	136,077	109,055	65,294	111,397
9분위	88,763	79,125	70,155	77,900	99,414	98,008	86,676	70,827	87,239
10분위	79,645	75,405	72,946	71,152	67,508	66,770	67,281	67,728	69,974
계	82,838	67,024	80,736	111,893	112,650	94,908	77,448	59,235	87,0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06&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49,119	38,225	46,914	71,100	69,702	55,550	45,455	37,049	50,884
3분위	67,929	58,233	67,865	82,143	69,005	64,646	56,270	41,044	66,512
4분위	83,991	65,505	83,328	103,305	94,402	75,122	68,556	51,136	82,206
5분위	85,255	68,896	87,343	105,728	102,867	78,421	63,018	47,965	83,994
6분위	118,328	84,161	116,209	167,689	147,250	110,713	83,284	49,103	118,091
7분위	120,875	115,593	116,724	161,638	177,546	143,854	107,951	65,525	130,417
8분위	104,723	104,309	89,807	118,646	138,131	136,077	109,055	65,294	111,423
9분위	88,763	79,125	70,155	78,025	99,414	98,008	86,835	70,827	87,275
10분위	79,645	75,405	72,946	71,152	67,508	66,770	67,281	67,728	69,974
계	82,982	67,488	81,696	112,349	113,066	95,287	77,866	59,491	87,40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나.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수급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급여서비스의 포괄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60% 이하 저소득한부모 및 (또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로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선별적 지원제도이다. 이러한 포괄범위의 제한성은 2016년 한부모가족 급여 총수급가구가 22만8,366가구인데 이중 5% 표본추출을 적용하면 급여수급가구는 11,418가구에 불과, 전체가구의 소득 및 재산별 분포분석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중고등생 학용품비 등을 포함하는 급여·서비스의 일부는 수시지급, 분기지급, 연간 지급 등의 지급시기에 있어서 다양성이 크게 존재한다. 예컨대, 수시지급 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의 경우 신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및 서비스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대한 정보의 누락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와 제약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급여 및 서비스수급자 규모와 수급액에 대한 분석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한부모가족 지원급여의 소득 및 재산분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다.

본 분석에서는 한부모와 청소년한부모를 통합하여 지원영역별 특성에 따라 생활보조금, 양육비, 추가양육비, 학비, 자립촉진수당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지원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한 반면 수급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3만6,234명의 수급아동 중 수급서비스내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7,260명으로 20%에 불과했다. 급여별로 살펴보면, 전체 한부모가족지원제도 수급아동 3만6,234명 중 15.4%가 한부모양육비를 지원받았으며, 한부모학비수급은 4.5%, 나머지 제도는 1%미만의 미미한 수급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표 5-107>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수급

(단위: 명, %)

구분	비수급	수급	아동수
한부모 생활보조금	36,222 (99.97)	12 (0.03)	36,234 (100.00)
한부모양육비	30,640 (84.56)	5,594 (15.44)	36,234 (100.00)
한부모추가양육비	35,935 (99.17)	299 (0.83)	36,234 (100.00)
한부모학비	34,590 (95.46)	1,644 (4.54)	36,234 (100.00)
한부모자립촉진수당	36,217 (99.95)	17 (0.05)	36,234 (100.00)
한부모지원수급총액	28,974 (79.96)	7,260 (20.04)	36,234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아동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율은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급여에서는 일반가구 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 재산수준이 높은 결과로서 될 수 있다. 아동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율은 3%로 전체 가구(5.5%) 또는 비아동가구(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5-108> 아동가구의 생계급여수급

(단위: %)

생계급여수급여부	아동가구여부		전체1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비수급	750,616 (93.54)	317,457 (97.02)	1,068,073 (94.55)
수급	51,868 (6.46)	9,755 (2.98)	61,623 (5.45)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율은 3.5%로 생계급여에 비해 살짝 높았으며, 비아동가구 7% 및 전체 가구 6%보다 낮은 수급율을 보였다.

<표 5-109> 아동가구의 의료급여수급

(단위: 가구, %)

의료급여수급여부	아동가구여부		전체1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비수급	746,379 (93.01)	315,692 (96.48)	1,062,071 (94.01)
수급	56,105 (6.99)	11,520 (3.52)	67,625 (5.99)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율은 3.6%로 의료급여 수급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6%, 비아동가구 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5-110> 아동가구의 주거급여수급

(단위: 가구, %)

주거급여수급여부	아동가구여부		전체1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비수급	747,041 (93.09)	315,469 (96.41)	1,062,510 (94.05)
수급	55,443 (6.91)	11,743 (3.59)	67,186 (5.95)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 달리, 아동가구의 교육급여 수급율은 5.3%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가구 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아동가구의 수급율 0.3%는 아동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만 18세를 넘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어 나타난 수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표 5-111> 아동가구의 교육급여수급

(단위: 가구, %)

교육급여수급여부	아동가구여부		전체1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비수급	800,303 (99.73)	309,930 (94.72)	1,110,233 (98.28)
수급	2,181 (0.27)	17,282 (5.28)	19,463 (1.72)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마지막으로, 아동가구 중 적어도 하나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경험했던 가구는 6.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가구의 6.9%, 비아동가구 7.2%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표 5-112> 아동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기초보장수급가구

(단위: 가구, %)

한 개 이상 기초보장수급여부	아동가구여부		전체1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비수급	744,646 (92.79)	307,200 (93.88)	1,051,846 (93.11)
수급	57,838 (7.21)	20,012 (6.12)	77,850 (6.89)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113> 아동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총수

(단위: 가구, %)

기초생활수급 총수	아동가구여부		전체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비수급	744,646 (92.79)	307,200 (93.88)	1,051,846 (93.11)
1	1,812 (0.23)	8,093 (2.47)	9,905 (0.88)
2	4,204 (0.52)	781 (0.24)	4,985 (0.44)
3	49,996 (6.23)	3,556 (1.09)	53,552 (4.74)
4	1,826 (0.23)	7,582 (2.32)	9,408 (0.83)
계	802,484 (100.00)	327,212 (100.00)	1,129,696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아동가구 중 적어도 한 개의 급여를 수급한 아동가구가 2.5%, 4개의 급여를 수급한 가구가 2.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체 가구의 경우 1개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가 0.9%, 3개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가 4.7%, 비아동가구 중 수급가구가 6.2%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에 비해, 아동가구는 단일급여(주로 교육급여) 또는 모든 급여 수급으로 수급가구 분포 또는 수급자 욕구가 양극화되어 대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장애인 소득보장

본 연구의 표본에서 등록 장애인은 인구 중 약 6.21%를 차지하였다.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분포는 전 가구 중 약 7%였다. 장애인의 소득보장현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과 수당 수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 수급액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분포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소득하위1-2분위에 집중되어 있다.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가구 비율도 증가한다. 40대 이상 가구주 가구 중 소득1-2분위, 노인가구주 가구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장애인가구비율보다 높았다. 재산분위별 장애인가구의 분포를 보면 재산 4분위, 5분위, 그리고 1-3분위 순으로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lt;표 5-114&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인 가구의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3.33	5.11	4.91	3.06	5.11	8.98	15.32	18.41	19.20	20.54	15.11
3분위	0.00	0.00	3.10	1.66	2.36	4.31	7.92	8.80	12.14	16.71	8.00
4분위		0.00	1.27	1.19	2.13	3.65	6.63	9.01	11.92	17.66	6.78
5분위		0.00	2.63	1.12	2.40	3.46	6.06	7.91	11.46	16.38	6.08
6분위		0.00	0.00	0.90	1.89	3.35	5.54	7.79	10.99	16.49	5.03
7분위	0.00		2.44	0.75	1.56	3.15	5.67	7.37	10.45	17.10	4.24
8분위			4.35	0.68	1.34	2.65	5.39	6.65	10.07	17.13	3.62
9분위			0.00	0.63	1.16	2.43	4.29	6.58	10.95	15.96	3.21
10분위			0.00	0.53	0.86	1.87	3.65	4.76	7.89	13.66	2.95
계	2.78	4.58	3.85	1.20	1.96	3.83	7.03	9.70	13.93	19.07	7.0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는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5-115&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인 가구의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2.86	4.79	4.05	1.21	2.26	5.23	10.01	13.87	18.48	21.50	7.77
4분위	0.00	0.00	0.00	1.58	2.74	5.28	11.63	16.60	19.84	21.63	13.37
5분위		0.00	0.00	1.38	2.20	4.43	8.44	11.77	17.42	20.51	9.88
6분위		0.00	0.00	1.18	1.65	3.35	6.32	9.04	13.56	18.65	6.49
7분위			0.00	0.77	1.49	2.79	5.40	8.16	11.44	16.62	5.21
8분위		0.00	0.00	1.06	1.44	2.57	4.97	7.52	10.70	17.52	5.10
9분위		0.00	0.00	1.01	1.47	2.50	4.51	6.65	10.41	15.45	5.26
10분위			0.00	1.56	1.69	2.60	4.41	6.11	9.37	14.05	6.38
계	2.78	4.58	3.85	1.20	1.96	3.83	7.03	9.70	13.93	19.07	7.0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는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5-116&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애인 가구의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5.78	21.55	18.39	13.29	11.07	10.56	9.38	8.34	15.11
3분위	7.18	11.55	10.33	8.52	7.17	7.78	7.91	8.36	8.00
4분위	5.57	9.56	8.15	7.20	6.59	6.61	7.22	9.14	6.78
5분위	4.99	8.90	7.39	6.38	5.54	6.13	6.50	8.27	6.08
6분위	3.85	6.54	6.11	5.27	4.70	5.22	5.91	7.49	5.03
7분위	2.98	5.20	5.67	4.50	4.15	4.21	5.00	6.79	4.24
8분위	2.48	5.46	4.93	3.96	3.51	3.62	3.92	5.75	3.62
9분위	1.97	2.70	3.81	3.31	3.26	3.25	3.47	5.29	3.21
10분위	1.64	2.19	2.90	3.09	2.86	2.71	2.80	3.99	2.95
계	7.77	13.37	9.88	6.49	5.21	5.10	5.26	6.38	7.0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는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장애인가구 중 장애관련 소득지원을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를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하위소득구간에서 급여포괄성이 높고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수급율의 큰 차이가 없다. 소득 하위 1-2분위에서 수급포괄성은 매우 높아 수급율이 50%를 넘는다.

재산분위별 장애관련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분포를 보면 재산하위분위에서 현금급여 수급율이 높았다. 재산 4분위까지 장애인급여의 제도 포괄성이 높았다. 그리고 6분위까지도 수급가구가 10% 이상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장애인소득보장제도 포괄성을 보면 선별적 장애인 급여의 성격상 하위소득분위, 하위재산분위에서 제도 포괄성이 높았으며 고연령층에서 제도 포괄성이 높았다.

<표 5-11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 관련 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의 분포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00	42.86	45.16	62.82	59.65	58.50	64.11	59.56	53.98	47.06	55.00
3분위			75.00	36.47	26.16	23.67	25.49	17.86	17.58	22.73	21.66
4분위			0.00	32.89	11.38	12.67	13.96	10.22	11.54	14.24	12.71
5분위			0.00	26.51	8.97	7.61	8.21	8.00	6.21	13.81	8.44
6분위				15.96	5.74	3.56	5.23	3.50	5.52	12.55	5.60
7분위			0.00	6.90	3.57	1.36	3.68	2.52	4.94	12.84	3.94
8분위			0.00	4.05	1.81	2.28	2.41	2.23	4.35	6.37	2.83
9분위				1.67	1.57	1.26	1.06	1.09	2.83	8.68	1.85
10분위				0.00	0.00	0.82	0.99	0.73	1.44	4.46	1.20
계	0.00	42.86	43.59	34.44	21.14	23.51	27.40	26.70	30.23	36.62	29.17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장애인 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3)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의미하며, 이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를 분석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5-118>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장애 관련 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의 분포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0.00	42.86	43.59	36.92	30.60	39.98	48.55	50.58	55.44	56.14	49.03
4분위				57.14	32.61	36.42	47.87	47.90	52.26	45.19	46.92
5분위				24.39	18.69	19.63	27.61	30.14	34.13	37.75	31.36
6분위				15.15	7.38	6.56	8.71	9.49	14.93	23.42	12.72
7분위				27.78	4.79	2.63	3.88	5.80	9.69	15.74	7.12
8분위				10.53	1.95	3.74	2.85	2.42	7.48	12.43	5.38
9분위				23.08	2.09	2.24	2.25	1.56	4.56	9.22	3.87
10분위				0.00	3.88	1.53	1.67	1.48	1.11	2.22	1.61
계	0.00	42.86	43.59	34.44	21.14	23.51	27.40	26.70	30.23	36.62	29.17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장애인 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3)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의미하며, 이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를 분석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19&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장애 관련 급여를 받는 장애인 가구의 분포

(단위: %)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66.77	59.72	50.21	27.13	17.19	11.72	8.23	2.69	55.00
3분위	36.24	36.64	21.76	13.71	9.30	9.69	6.15	3.00	21.66
4분위	22.09	22.15	15.13	9.85	8.09	5.49	5.57	1.51	12.71
5분위	14.39	20.29	10.72	8.04	3.72	3.40	2.96	1.51	8.44
6분위	9.55	11.36	9.47	3.77	2.74	2.97	1.85	1.49	5.60
7분위	5.71	9.52	5.97	4.31	2.36	2.76	2.29	1.45	3.94
8분위	5.17	3.77	4.85	2.34	1.94	1.71	1.26	1.23	2.83
9분위	1.85	0.00	2.57	1.89	2.09	1.52	1.41	2.05	1.85
10분위	2.48	0.00	3.28	1.20	1.75	1.51	1.21	0.46	1.20
계	49.03	46.92	31.36	12.72	7.12	5.38	3.87	1.61	29.17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장애인 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3)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의미하며, 이 중 하나라도 수급하는 경우를 분석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장애인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장애인대상 각종 현금지원사업의 평균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분위에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소득구간에서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수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받는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수급액을 보면 소득분위별 수급액 차이가 거의 없다. 수급액이 대부분 정액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산분위별 평균수급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하위 재산분위에서 평균수급액이 높았고 재산하위 5분위까지는 평균수급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lt;표 5-120&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	1,057,143	863,015	1,452,159	1,424,364	1,127,519	1,201,793	1,081,408	771,259	573,610	883,686
3분위			1,694,698	862,934	584,477	441,666	468,272	350,899	216,381	228,089	340,482
4분위			0	768,343	293,329	278,989	289,150	199,944	110,728	135,479	206,879
5분위			0	601,083	246,664	165,528	176,508	163,833	69,942	123,939	146,429
6분위				453,868	151,462	79,199	121,396	78,604	50,973	90,597	96,369
7분위			0	162,384	82,900	29,899	76,403	60,974	46,974	148,945	67,369
8분위			0	0	36,681	39,322	46,572	51,343	41,419	60,887	44,169
9분위				0	48,552	18,017	13,850	15,582	32,165	114,010	26,160
10분위				0	0	26,590	11,932	2,330	8,612	48,327	15,239
계	0	1,057,143	859,802	796,484	508,614	457,858	518,867	493,811	415,587	433,543	469,27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평균 수급액임.

3)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의미하며, 이들 급여의 합산액 평균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21&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057,143	859,802	840,657	729,963	762,405	877,752	876,631	741,666	656,667	780,004
4분위				1,927,937	704,239	644,639	980,069	972,187	859,374	661,925	814,287
5분위				645,637	449,530	437,446	608,719	642,709	538,002	461,338	533,506
6분위				453,395	203,073	136,483	216,083	236,011	191,709	274,903	213,377
7분위				623,087	126,680	58,126	74,794	124,885	97,276	161,255	101,810
8분위				282,515	52,606	85,736	57,310	60,413	68,957	99,562	71,371
9분위				450,155	60,795	36,963	49,049	35,442	46,191	70,412	49,206
10분위					109,569	45,968	30,315	33,721	16,929	32,729	29,184
계		1,057,143	859,802	796,484	508,614	457,858	518,867	493,811	415,586	433,543	469,27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평균 수급액임.

3)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의미하며, 이들 급여의 합산액 평균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22&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050,542	1,039,758	869,162	482,280	240,628	158,015	100,797	67,758	883,686
3분위	600,015	643,338	305,267	200,794	143,350	98,442	78,905	59,341	340,482
4분위	364,272	367,166	272,894	149,273	125,802	78,958	61,026	26,605	206,879
5분위	258,470	393,265	189,752	133,079	59,360	41,155	45,814	21,579	146,429
6분위	184,052	76,408	157,447	56,931	39,695	54,297	21,434	22,261	96,369
7분위	115,213	125,203	94,305	64,918	28,753	44,109	37,910	26,299	67,369
8분위	76,279	128,449	71,064	45,060	20,614	31,155	18,926	20,499	44,169
9분위	30,102	0	47,778	22,544	24,067	18,463	19,985	30,196	26,160
10분위	39,912	0	18,689	13,687	15,172	25,801	13,062	6,480	15,239
계	780,004	814,287	533,506	213,377	101,810	71,371	49,206	29,184	469,272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장애인가구의 평균 수급액임.

3) 장애 관련 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의미하며, 이들 급여의 합산액 평균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수급을 받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 급여 수급액을 보면 소득분위별로 볼 때 소득은 급여액과 그리 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재산의 경우에도 재산분위별 평균수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재산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하지도 않았다.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평균급여액이 다소 상이한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수급액이 낮았다. 장애아동수당이 장애수당보다 급여액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되지만 확인을 위해서는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lt;표 5-123&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단위: 원/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541,071	1,748,358	1,770,981	2,313,743	2,187,057	1,888,796	1,713,275	1,589,791	1,174,041	990,626	1,503,222
3분위	1,857,692	1,638,235	1,605,983	2,369,863	2,270,976	1,867,618	1,702,128	1,853,642	971,737	810,596	1,579,670
4분위	1,180,000	1,472,549	1,691,161	2,517,685	2,456,940	2,050,958	1,911,686	1,869,619	821,154	816,894	1,667,717
5분위	1,081,250	1,585,526	1,597,086	2,493,258	2,466,659	2,304,826	1,975,402	2,047,653	789,339	701,308	1,710,952
6분위		1,137,500	1,630,223	2,594,117	2,551,814	2,434,091	2,184,133	2,413,247	757,407	668,767	1,742,021
7분위		1,200,000	1,535,089	2,496,753	2,559,121	2,308,832	2,047,068	2,548,564	651,265	748,928	1,679,745
8분위		2,100,000	1,833,891	2,448,314	2,676,292	2,396,588	2,049,798	2,543,408	725,685	619,067	1,610,302
9분위		1,650,000	2,205,682	2,594,824	2,620,085	2,595,498	2,108,157	1,875,471	701,233	640,606	1,420,111
10분위			2,095,828	2,561,785	2,766,209	2,404,287	2,430,355	1,336,459	659,889	600,287	1,445,771
계	1,487,288	1,668,737	1,720,113	2,431,477	2,303,238	1,943,417	1,754,443	1,682,007	1,085,799	911,871	1,540,5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24&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액 평균(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단위: 원/년)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566,639	1,735,130	1,717,252	1,750,334	1,313,980	1,309,932	1,087,838	2,679,075	1,596,055
3분위	1,636,189	1,770,452	1,376,227	1,371,445	1,408,754	959,374	1,090,539	1,468,636	1,539,753
4분위	1,615,551	1,595,287	1,717,909	1,408,799	1,337,321	1,187,244	859,869	1,227,907	1,552,414
5분위	1,772,358	2,050,406	1,705,228	1,609,120	1,501,841	887,991	1,353,135	1,049,753	1,690,522
6분위	1,890,865	672,389	1,670,264	1,465,145	1,438,514	1,460,223	1,015,973	480,000	1,679,475
7분위	1,954,258	1,314,630	1,377,492	1,298,093	1,221,426	1,655,278	812,645	480,000	1,572,269
8분위	1,308,390	3,403,890	1,450,476	1,989,957	1,228,980	2,282,472	1,581,945	1,559,940	1,557,153
9분위	1,746,076		1,237,580	1,430,973	1,184,320	1,216,988	1,454,630	660,000	1,327,190
10분위	1,366,826		660,000	480,000	1,174,630	1,427,963	480,000		1,131,793
계	1,580,586	1,731,840	1,681,032	1,630,144	1,335,785	1,223,289	1,062,420	1,475,053	1,591,7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6절 주거와 교육보장

주거보장과 교육보장은 본 연구에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거와 교육보장은 보장 내용에 따라 서비스 보장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정보의 내용이 소득보장에 더 근접하고 있으므로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거보장의 경우 임대료 지원과 같이 소득보장방식과 주거수리 등 서비스보장방식이 모두 존재하는 영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보장 중 주거급여제도 수급정보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자료에는 주거개량서비스를 비롯하여 임대주택 관련 수급정보가 누락된 상태이다.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은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장제도만을 분석하고 있어 이점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될 것이다.

교육보장도 교육비 지원과 각종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만 분석에 포함하여 현금지원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이 분석되었다.

주거보장에서 임대료지원은 자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임차인을 위한 주거보장이다. 임차인 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여부를 전제로 수급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가구주 연령별 월세가구의 분포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월세가구의 분포가 소득 4분위 이하, 재산 4분위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분포한다. 해당 구간에 주거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125>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월세 가구 분포: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단위: %)

재산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47.84	22.57	6.69	3.23	1.88	0.00	0.79	2.38	0.00	0.00	22.32
2분위	50.15	24.99	7.07	2.42	0.98	1.29	0.50	1.61	0.00	1.22	13.25
3분위	66.07	40.65	10.90	3.59	1.77	0.23	1.31	1.17	0.00	2.50	20.74
4분위	77.88	47.70	18.25	5.97	2.62	2.95	2.30	3.25	2.54	0.00	21.16
5분위	74.51	46.51	16.90	8.21	4.33	4.11	0.56	0.33	0.57	1.49	15.64
6분위	82.08	56.68	19.04	6.19	4.18	1.69	2.22	0.67	3.26	5.48	15.10
7분위	67.33	54.87	30.02	10.88	4.49	2.75	1.62	1.46	0.89	0.60	10.89
8분위	62.48	55.78	31.58	12.97	7.63	1.98	1.03	1.65	0.24	1.21	9.15
9분위	53.71	61.49	37.05	22.88	3.00	4.03	2.63	1.18	2.30	1.18	6.30
10분위	100.00	49.98	61.12	16.66	18.78	2.66	3.75	4.10	2.62	1.09	4.18
계	59.69	41.03	17.86	7.93	4.15	2.33	1.79	1.86	1.59	1.31	13.9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월세가구의 분포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표 5-126>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월세 가구 분포: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단위: %)

재산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47.84	22.57	6.69	3.23	1.88	0.00	0.79	2.38	0.00	0.00	22.32
2분위	50.15	24.99	7.07	2.42	0.98	1.29	0.50	1.61	0.00	1.22	13.25
3분위	66.07	40.65	10.90	3.59	1.77	0.23	1.31	1.17	0.00	2.50	20.74
4분위	77.88	47.70	18.25	5.97	2.62	2.95	2.30	3.25	2.54	0.00	21.16
5분위	74.51	46.51	16.90	8.21	4.33	4.11	0.56	0.33	0.57	1.49	15.64
6분위	82.08	56.68	19.04	6.19	4.18	1.69	2.22	0.67	3.26	5.48	15.10
7분위	67.33	54.87	30.02	10.88	4.49	2.75	1.62	1.46	0.89	0.60	10.89
8분위	62.48	55.78	31.58	12.97	7.63	1.98	1.03	1.65	0.24	1.21	9.15
9분위	53.71	61.49	37.05	22.88	3.00	4.03	2.63	1.18	2.30	1.18	6.30
10분위	100.00	49.98	61.12	16.66	18.78	2.66	3.75	4.10	2.62	1.09	4.18
계	59.69	41.03	17.86	7.93	4.15	2.33	1.79	1.86	1.59	1.31	13.9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월세가구의 분포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분포는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로 보면 소득1-2분위 4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소득1-2분위 60-64세 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 비율이 매우 높다. 소득 1-2 분위 가구 중 20대, 3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수급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나라 자가 비율이 60% 정도이고 20-30대 가구주 가구의 자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sup>13)</sup>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히 주거 조건보다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석결과에서 아동가구주 가구의 경우 표본수가 매우 작아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월세가구의 분포가 소득 4분위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하여야 제도적 배제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27>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40.00	51.85	31.95	7.73	8.50	14.91	21.63	24.78	22.24	28.82	18.76
3분위	40.00	12.50	25.81	3.73	3.16	6.16	6.52	4.40	5.11	9.69	5.66
4분위		20.00	9.09	1.65	1.33	2.77	2.87	2.41	3.28	6.84	2.72
5분위		0.00	0.00	0.73	0.66	1.33	1.52	1.66	2.18	6.56	1.51
6분위		0.00	0.00	0.31	0.32	0.57	0.82	0.74	1.29	4.66	0.70
7분위	100.00		2.44	0.11	0.17	0.34	0.46	0.47	0.80	4.08	0.39
8분위			4.35	0.05	0.11	0.26	0.34	0.40	0.48	1.80	0.25
9분위			0.00	0.04	0.06	0.12	0.16	0.20	0.21	1.34	0.12
10분위			0.00	0.00	0.03	0.09	0.10	0.13	0.28	0.97	0.10
계	45.45	37.21	22.25	1.65	1.32	3.11	4.60	6.06	6.38	15.85	4.0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분위별 수급가구 분포를 보면 오히려 재산 4분위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재산 5분위까지 주거급여 수급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급여의 특성 상 재산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방식의 선정기준의 방향설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자가비율은 61%,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는 평균 자가 비율을 넘어서고 있고 40대 가구주 가구의 자가 비율도 59%였다. 반면 20대 가구주 가구는 해당 수치가 12%, 30대 가구주 가구는 41%였다.

&lt;표 5-128&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40.00	38.89	21.44	1.82	2.25	7.36	11.97	17.01	21.18	36.19	8.10
4분위	100.00	0.00	33.33	2.94	2.44	6.54	11.52	15.21	21.75	31.14	12.29
5분위		100.00	52.94	1.82	1.18	2.65	4.94	7.00	10.82	20.36	5.66
6분위		0.00	42.86	0.32	0.39	0.70	1.06	1.81	3.48	7.70	1.35
7분위			33.33	0.26	0.14	0.33	0.54	1.03	1.49	3.69	0.60
8분위		0.00	25.00	0.06	0.16	0.24	0.34	0.63	0.87	2.10	0.39
9분위		0.00	0.00	0.31	0.08	0.14	0.25	0.35	0.58	1.03	0.27
10분위			33.33	0.47	0.05	0.11	0.18	0.31	0.28	0.38	0.21
계	45.45	37.21	22.25	1.65	1.32	3.11	4.60	6.06	6.38	15.85	4.08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주거급여수급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3분위, 30대, 45대 가구주 가구의 수급액이 높았다.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이므로 이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 3분위, 30-40대 가구주 가구의 가구 규모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lt;표 5-129&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518,390	1,014,400	923,506	1,151,777	1,400,760	1,302,831	1,127,137	1,052,201	1,022,095	910,904	1,046,634
3분위	453,580	2,893,830	1,069,673	1,156,824	1,447,169	1,471,036	1,313,890	1,074,033	1,059,558	1,027,292	1,246,002
4분위		1,005,850	674,006	889,789	1,332,985	1,277,396	1,166,017	970,969	946,444	975,803	1,116,197
5분위				927,504	978,326	1,031,747	975,696	830,091	885,835	958,815	948,296
6분위				757,032	910,377	921,530	916,394	822,680	811,056	886,264	880,404
7분위	1,158,970		649,560	674,353	824,679	812,425	851,393	656,368	1,042,639	882,637	840,143
8분위			0	969,600	800,682	815,556	682,810	711,884	982,997	1,228,199	798,811
9분위				1,277,570	1,150,948	762,891	817,397	561,609	1,001,003	825,883	839,511
10분위					900,810	732,053	731,665	771,982	1,026,044	941,880	796,886
계	1,020,582	1,066,369	931,641	1,106,541	1,348,755	1,296,094	1,138,156	1,033,177	1,018,659	916,057	1,060,665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0&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101,548	1,129,096	937,273	1,120,224	1,428,100	1,376,303	1,230,089	1,142,497	1,156,746	1,097,077	1,192,524
4분위	696,720		1,840,080	799,416	1,209,856	1,195,992	964,871	760,126	778,595	606,839	768,031
5분위		0	622,242	951,602	889,436	854,634	272,531	651,283	573,028	436,083	578,371
6분위			677,190	630,503	641,640	682,418	632,649	638,482	574,341	504,764	285,317
7분위			1,029,600	691,700	1,173,260	798,933	916,674	729,418	703,374	693,247	778,833
8분위			2,052,000	0	747,121	887,155	910,706	771,714	737,447	770,448	813,633
9분위				1,399,800	655,584	890,381	755,548	623,833	478,527	858,003	771,325
10분위			1,029,600	2,034,533	0	575,246	814,037	678,376	860,147	634,700	751,517
계	1,020,582	1,066,369	931,641	1,106,541	1,348,755	1,296,094	1,138,156	1,033,177	1,018,659	918,057	1,060,665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1&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

(단위: 원)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175,079	725,050	532,255	459,339	615,349	724,500	814,888	775,858	1,046,634
3분위	1,387,644	1,038,424	800,192	741,027	839,248	853,249	931,354	706,476	1,246,002
4분위	1,239,606	1,093,835	749,538	929,713	1,072,498	950,641	703,126	692,724	1,116,197
5분위	1,056,936	821,061	732,957	733,620	940,047	888,028	676,658	992,742	948,296
6분위	1,055,433	597,695	660,639	763,980	786,912	903,235	697,397	689,127	880,404
7분위	919,258	1,082,084	751,070	697,240	895,630	858,647	786,220	749,802	840,143
8분위	1,025,357	1,240,450	631,739	726,034	672,087	823,154	591,479	946,764	798,811
9분위	1,041,656		977,326	954,503	877,328	512,114	712,480	739,906	839,411
10분위	986,020	957,600	815,860	796,050	746,880	810,970	934,720	564,689	796,886
계	1,192,524	768,031	578,371	582,317	778,833	813,633	771,325	751,517	1,060,665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수급가구의 평균 수급액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학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의미를 가질 것이다. 분석 자료에는 학생이 있는 가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초중고 학생의 분포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 40대 가구주 가구에서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0대 가구주 가구였다. 본 분석 자료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참고하였는데 40대 가구주 가구에서 7-18세 가구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해당 연령 가구원의 비율이 높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재산분위별 초중고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재산분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재산1분위에서는 학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lt;표 5-132&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초·중·고 재학생 가구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분위				3.88	17.59	30.29	17.90	0.55	2.22	1.38	4.15
2분위				7.51	25.64	57.69	19.02	5.32	2.24	1.52	8.32
3분위				0.00	38.36	69.98	32.62	4.23	5.07	4.94	25.80
4분위				1.55	27.08	64.77	27.12	5.54	4.68	4.44	27.82
5분위				0.00	18.60	71.39	31.16	2.94	4.37	6.66	32.53
6분위				0.00	19.40	64.94	27.27	5.79	4.70	12.54	32.68
7분위				2.04	15.20	66.01	31.26	2.02	7.66	0.00	32.52
8분위				0.00	17.03	69.42	27.03	3.22	1.69	12.39	33.81
9분위				0.00	10.65	72.18	24.26	1.74	5.33	12.56	33.09
10분위				0.00	11.80	66.84	26.80	0.95	0.78	3.38	31.10
계				1.35	18.77	67.26	27.49	3.36	3.68	2.28	26.12

주: 연령과 무관하게 초·중·고 재학생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lt;표 5-133&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초·중·고 재학생 가구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분위				2.22	24.44	54.48	26.59	4.75	2.44	2.24	17.67
2분위				1.66	26.45	60.90	25.73	0.87	5.60	2.45	24.18
3분위				1.41	17.04	58.72	24.19	5.97	7.01	2.56	23.01
4분위				0.00	15.23	68.67	26.47	4.86	2.89	2.62	25.57
5분위				0.00	16.44	70.53	26.10	8.88	3.69	0.62	29.09
6분위				0.00	16.34	70.70	32.10	3.62	4.55	5.35	31.15
7분위				0.00	20.47	72.12	29.62	1.55	3.47	2.12	31.87
8분위				0.00	16.92	72.35	32.41	2.13	4.04	3.53	32.28
9분위				0.00	19.69	68.02	23.17	2.21	2.95	1.45	24.50
10분위				0.00	17.11	67.09	28.44	2.19	1.82	0.33	21.83
계				1.35	18.77	67.26	27.49	3.36	3.68	2.28	26.12

주: 연령과 무관하게 초·중·고 재학생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lt;표 5-134&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초·중·고 재학생 가구

(단위: 개)

재산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분위	5.95	4.40	3.55	1.44	1.71	4.47	0.82	3.73	1.12	2.55	4.15
2분위	16.69	14.10	9.71	5.29	5.10	4.61	4.98	2.29	3.15	3.00	8.32
3분위	36.88	38.17	31.96	29.06	25.16	17.37	13.81	9.20	3.94	3.92	25.80
4분위	27.55	34.49	32.55	30.04	41.37	24.04	21.55	13.55	14.47	8.54	27.82
5분위	17.56	37.29	36.78	36.87	36.87	36.10	37.69	36.03	17.11	13.71	32.53
6분위	18.13	24.42	27.87	35.43	41.52	37.38	41.92	43.68	18.23	12.35	32.68
7분위	14.39	23.46	19.84	28.95	34.77	41.75	40.65	38.76	28.31	25.98	32.52
8분위	15.94	12.00	21.07	27.18	26.42	45.37	46.62	37.97	32.66	33.23	33.81
9분위	24.69	9.95	17.48	29.55	29.11	33.53	39.42	43.31	33.99	24.60	33.09
10분위	0.00	0.00	9.49	4.52	14.62	30.50	29.93	43.11	33.48	28.58	31.10
계	17.67	24.18	23.01	25.57	29.09	31.15	31.87	32.28	24.50	21.83	26.12

주: 연령과 무관하게 초·중·고 재학생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임.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1-2분위에서 높았다.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가구주 가구에서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학생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았던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해당 비율이 높았다.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 중 일부가 교육비 지원 대상이므로 전 가구 중 교육비 지원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참고로 20세 이하 연령의 가구주 가구가 존재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분포이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수급가구를 종합하여 수급가구의 비율을 보기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분포를 분석하면 이어지는 표와 같다.

&lt;표 5-135&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00	29.20	24.05	0.08	0.05	0.06	0.09	0.06	0.03	0.02	0.13
3분위	0.00	37.50	8.53	0.04	0.01	0.05	0.05	0.02	0.01	0.02	0.04
4분위		20.00	7.59	0.00	0.00	0.02	0.01	0.01	0.01	0.00	0.02
5분위		0.00	2.63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6분위		0.00	1.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분위	0.00		4.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00	28.76	17.06	0.01	0.01	0.01	0.02	0.01	0.01	0.02	0.0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6&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00	29.20	24.05	0.08	0.05	0.06	0.09	0.06	0.03	0.02	0.13
3분위	0.00	37.50	8.53	0.04	0.01	0.05	0.05	0.02	0.01	0.02	0.04
4분위		20.00	7.59	0.00	0.00	0.02	0.01	0.01	0.01	0.00	0.02
5분위		0.00	2.63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6분위		0.00	1.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분위	0.00		4.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00	28.76	17.06	0.01	0.01	0.01	0.02	0.01	0.01	0.02	0.0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7&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수급가구 비율

(단위: 원)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0.20	0.04	0.07	0.02	0.00	0.01	0.00	0.00	0.13
3분위	0.09	0.05	0.05	0.00	0.01	0.00	0.00	0.00	0.04
4분위	0.04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2
5분위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분위	0.00	0.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분위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08	0.03	0.03	0.00	0.00	0.00	0.00	0.00	0.03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전체가구 중 수급가구의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8&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37.96	48.83	0.99	0.18	0.11	0.28	0.36	0.17	0.24	0.83
3분위		50.00	25.00	0.00	0.03	0.05	0.10	0.14	0.00	0.00	0.09
4분위		40.00	37.50	0.00	0.00	0.02	0.05	0.00	0.00	0.00	0.04
5분위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1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37.91	45.12	0.25	0.02	0.02	0.05	0.09	0.04	0.10	0.11

주: 6-17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39&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37.67	44.57	0.32	0.05	0.05	0.15	0.35	0.16	0.25	0.33
4분위		10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5분위		100.00	87.50	0.00	0.02	0.02	0.09	0.00	0.07	0.19	0.08
6분위		0.00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7분위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8분위		0.00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분위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37.91	45.12	0.25	0.02	0.02	0.05	0.09	0.04	0.10	0.11

주: 6-17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5-140&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

(단위: 개)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33	0.30	0.39	0.08	0.00	0.07	0.00	0.00	0.83
3분위	0.15	0.00	0.15	0.00	0.04	0.00	0.00	0.00	0.09
4분위	0.09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4
5분위	0.01	0.00	0.00	0.00	0.00	0.00	0.05	0.00	0.01
6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분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0.33	0.07	0.08	0.01	0.00	0.00	0.00	0.00	0.11

주: 6-17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중 1종 이상 수급가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기준으로 보면 재산하위 5분위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수급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급여의 경우 재산기준보다 소득기준의 엄격성이 상대적으로 더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양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서 소득수준의 엄격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의 한계로 교육비 외 교육 분야 서비스 분석이 누락되었다. 저소득층의 학교 교육, 교과교육 외 교육서비스 지원도 중요한 지원으로 이 지원의 수급현황을 포괄하는 정보를 활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제 6 장

## 분석결과3: 서비스 보장

제1절 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

제2절 돌봄 서비스 보장

제3절 의료서비스 보장



## 제1절 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

본 절에서는 서비스보장을 종합 분석하였다. 각종 서비스 보장의 수급현황을 대상 포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포괄성은 앞서 분석한 것과 유사하게 소득분위, 재산분위, 가구주 연령별로 각 집단 중 수급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비율, 그리고 수급제도의 평균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소득보장과 달리 서비스 보장은 목적이나 대응하는 욕구가 다양하고 대상으로 하는 집단도 욕구도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보장 종합분석을 하는 본 절에서는 서비스를 수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비율을 비교하기 보다는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를 기준으로 대상 포괄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유는 서비스 보장이 대체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들의 수급을 고려하여 대상포괄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여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그리고 가구주 연령별로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보장의 확충을 위한 거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 보장에 대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sup>14)</sup>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급하는 서비스의 평균 개수는 가구 당 0.3개였다. 소득분위별·가구주연령별 수급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의 평균 개수를 분석한 결과, 20대 가구주 가구는 대상 포괄성이 낮았다. 아동가구주 가구,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자가가구주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상 포괄성이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 낮은 소득분위, 소득 1-2분위에 한정하여 대상 포괄성이 높았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예외여서 전 소득 구간에서 서비스 보장 포괄성이 높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각종 서비스가 소득 기준이 관대하거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에 한정하여 서비스의 대상 포괄성이 높았다.

14) 분석하는 행정자료에는 보육서비스 수급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육서비스 수급가구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는데 0-5세 아동이면서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보육서비스 수급가구로 구분하였다.

&lt;표 6-1&gt;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서비스 수급 개수 평균

(단위: 개)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433	0.642	0.631	0.262	0.617	0.500	0.446	0.436	0.604	0.841	0.582
3분위	2.200	0.625	0.519	0.261	0.683	0.408	0.238	0.169	0.194	0.362	0.317
4분위		0.600	0.177	0.198	0.659	0.294	0.143	0.141	0.149	0.260	0.260
5분위		0.000	0.026	0.160	0.635	0.228	0.099	0.101	0.101	0.232	0.215
6분위		0.000	0.000	0.121	0.698	0.210	0.066	0.076	0.088	0.208	0.230
7분위	3.000		0.024	0.074	0.670	0.227	0.055	0.079	0.096	0.193	0.254
8분위			0.043	0.051	0.552	0.197	0.053	0.073	0.091	0.162	0.225
9분위			0.000	0.038	0.461	0.173	0.049	0.080	0.094	0.155	0.189
10분위			0.000	0.023	0.398	0.146	0.036	0.076	0.096	0.107	0.140
계	1.583	0.627	0.476	0.128	0.586	0.264	0.144	0.169	0.289	0.621	0.300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3) 여기서 서비스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보육서비스는 0-5세 아동이면서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분위별·가구주연령별 서비스 보장의 대상포괄성을 보면 30대는 소득과 유사하게 전 재산분위에서 서비스 수급하는 제도의 개수가 컸다. 40대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재산분위에서도 수급하는 제도의 평균 개수가 컸다.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재산5분위에서도 수급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많았고 재산 6분위까지도 수급하는 서비스의 개수가 평균보다 높았다.

&lt;표 6-2&gt;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서비스 수급 개수 평균

(단위: 개)

연령 재산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3분위	1.486	0.616	0.462	0.113	0.473	0.358	0.280	0.313	0.597	0.987	0.393
4분위	5.000	0.000	0.667	0.267	0.638	0.390	0.330	0.351	0.597	0.945	0.547
5분위		2.500	1.095	0.226	0.701	0.287	0.182	0.219	0.389	0.739	0.377
6분위		1.000	0.750	0.301	0.779	0.231	0.082	0.114	0.174	0.383	0.282
7분위			0.333	0.216	0.759	0.200	0.065	0.098	0.113	0.244	0.252
8분위		0.000	0.800	0.135	0.667	0.190	0.055	0.085	0.102	0.202	0.206
9분위		0.000	0.000	0.092	0.608	0.181	0.052	0.084	0.098	0.173	0.166
10분위			0.500	0.088	0.542	0.167	0.050	0.081	0.090	0.138	0.118
계	1.583	0.627	0.476	0.128	0.586	0.264	0.144	0.169	0.289	0.621	0.300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3) 여기서 서비스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보육서비스는 0-5세 아동이면서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분위별·재산분위별 서비스 수급 평균 개수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낮은 가구에서 서비스 수급 개수가 많아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았고 중간 소득분위, 구체적으로 소득 6,7,8분위, 중간 재산 6,7분위에서 수급하는 서비스의 평균 개수가 많아 대상 포괄성이 높았다. 오히려 낮은 소득분위의 중간이상 재산분위나 낮은 재산분위에서 중간 이상 소득분위는 서비스 수급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대상 포괄성이 낮았다. 중간소득분위이면서 중간 재산분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로 아동보육서비스와 같은 준보편, 보편적 아동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서비스보장이 소득과 재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서비스 수급 개수 평균

(단위: 개)

재산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0.700	0.890	0.671	0.343	0.218	0.161	0.127	0.102	0.582
3분위	0.452	0.502	0.362	0.257	0.186	0.164	0.130	0.103	0.317
4분위	0.327	0.346	0.314	0.270	0.223	0.178	0.150	0.112	0.260
5분위	0.241	0.280	0.261	0.251	0.221	0.170	0.141	0.113	0.215
6분위	0.216	0.259	0.264	0.327	0.287	0.214	0.173	0.113	0.230
7분위	0.211	0.251	0.266	0.347	0.349	0.281	0.218	0.125	0.254
8분위	0.178	0.192	0.218	0.274	0.305	0.274	0.219	0.139	0.225
9분위	0.154	0.178	0.178	0.201	0.244	0.225	0.192	0.145	0.189
10분위	0.139	0.167	0.156	0.155	0.174	0.160	0.143	0.114	0.140
계	0.393	0.547	0.377	0.282	0.252	0.206	0.166	0.118	0.300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 개수가 많음.

3) 여기서 서비스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육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보육서비스는 0-5세 아동이면서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2절 돌봄서비스 보장

### 1. 노인요양서비스

#### 가. 서비스 이용 현황 종합

##### 1) 이용자별 이용서비스 개수 평균

분석표본 292.2만 명 가운데 2016년 기준으로 노인요양(돌봄)서비스<sup>15)</sup>를 한 종류 이상 이용한

15) 노인요양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지자체 지방비로 운영되는 예산사업이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출하는 요양서비스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요양등급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수급자 수는 22,553명으로 전체 0.8% 수준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대부분은 노인에 국한된다. 노인돌봄서비스수급자가 이용한 서비스의 수는 모두 50,940개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1.8개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서비스는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수급권자들은 시설 혹은 재가 요양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기타재가급여는 요양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기타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6)</sup>

소득과 재산분위별로 평균 이용서비스 개수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분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서비스 이용 개수는 최저 평균 1.7개에서 최고 2.0개 사이에 분포한다. 이용한 서비스의 개수 차이는 통계적인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산분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된다. 소득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위별 이용서비스 개수의 차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인당 이용한 서비스 수는 평균 1.8개이며 재산분위별 이용 서비스 개수는 1.7개에서 2.1개 사이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분위별 수급현황을 보아도 요양서비스의 대상 포괄성은 큰 차이가 없다. 수급자 수와 수급한 서비스의 개수는 소득·재산 분위 모두에서 3분위 이하에서 수급자 비율과 서비스 개수가 가장 컸다. 소득은 2분위 이하에서는 재산 각 분위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서비스 개수가 상대적으로 고르다. 노인연령층에서는 소득과 재산의 분포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득 2분위 이하의 이용자 가운데 재산분위는 5분위인 이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낮은 재산분위, 높은 소득분위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및 이용서비스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었다.

<표 6-4> 노인요양서비스를 1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소득·연령별 분포

(단위: 명, 개)

구분		소득분위(개인)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이용자 수 (A)	0-64	515	137	85	79	69	69	48	37	29	1,068
	65-74	2,431	490	372	286	218	204	169	175	126	4,471
	75-	10,958	2,138	1,938	1,634	1,274	1,066	1,130	1,215	1,200	22,553
	계	13,904	2,765	2,395	1,999	1,561	1,339	1,347	1,427	1,355	28,092
이용한 서비스수 (연인원B)	0-64	612	267	160	145	124	128	83	74	58	1,928
	65-74	4,246	944	733	537	410	363	316	315	231	8,095
	75-	19,741	4,071	3,580	2,976	2,293	1,928	2,009	2,195	2,124	40,917
	계	24,876	5,282	4,473	3,658	2,827	2,419	2,408	2,584	2,413	50,940
1인당 이용 서비스수 (B/A)	0-64	1.2	1.9	1.9	1.8	1.8	1.9	1.7	2.0	2.0	1.8
	65-74	1.7	1.9	2.0	1.9	1.9	1.8	1.9	1.8	1.8	1.8
	75-	1.8	1.9	1.8	1.8	1.8	1.8	1.8	1.8	1.8	1.8
	계	1.8	1.9	1.9	1.8	1.8	1.8	1.8	1.8	1.8	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16) 재가요양서비스 수급자들은 방문목욕과 주야간단기 보호 등을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표본의 수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lt;표 6-5&gt; 8가지 요양서비스를 1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재산·연령별 분포

(단위: 명, 개)

구분		재산분위(개인)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이용자 수 (A)	0-64	505	29	150	100	72	60	67	85	1,068
	65-74	1,858	168	711	385	295	313	313	428	4,471
	75-	7,796	969	3,675	1,959	1,740	1,836	1,993	2,585	22,553
	계	10,159	1,166	4,536	2,444	2,107	2,209	2,373	3,098	28,092
이용한 서비스 수 (연인원B)	0-64	871	62	271	186	131	124	121	162	1,928
	65-74	3,179	296	1,322	750	556	581	573	838	8,095
	75-	13,563	1,771	6,924	3,635	3,186	3,377	3,637	4,824	40,917
	계	17,613	2,129	8,517	4,571	3,873	4,082	4,331	5,824	50,940
1인당 이용서비스 수 (B/A)	0-64	1.7	2.1	1.8	1.9	1.8	2.1	1.8	1.9	1.8
	65-74	1.7	1.8	1.9	1.9	1.9	1.9	1.8	2.0	1.8
	75-	1.7	1.8	1.9	1.9	1.8	1.8	1.8	1.9	1.8
	계	1.7	1.8	1.9	1.9	1.8	1.8	1.8	1.9	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 10분위와 재산 10분위에 속하는 이용자 수는 547명으로 중산층 이상의 일반 이용자 수 보다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사회보험 가입자라면 욕구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재산분위에서 사회보험가입자 비율이 높고 재산이 많은 노인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lt;표 6-6&gt; 8가지 요양서비스를 1종류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소득·재산별 분포

(단위: 명, 개)

구분			소득분위(개인)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재산분위 (개인)	이용자 수 (A)	1-3분위	<b>7,794</b>	734	537	393	256	181	123	91	50	10,159
		4분위	888	95	58	44	31	22	<b>12</b>	<b>10</b>	<b>6</b>	1,166
		5분위	<b>2,738</b>	461	344	289	217	167	<b>147</b>	<b>122</b>	<b>51</b>	4,536
		6분위	<b>817</b>	348	285	249	189	173	179	140	64	2,444
		7분위	465	242	232	234	179	189	210	209	147	2,107
		8분위	431	281	257	229	182	162	213	260	194	2,209
		9분위	362	321	270	235	213	209	201	266	296	2,373
		10분위	409	283	412	326	294	236	262	329	<b>547</b>	3,098
		계	13,904	2,765	2,395	1,999	1,561	1,339	1,347	1,427	1,355	28,092
	이용한 서비스 수 (연인원B)	1-3분위	<b>13,311</b>	1,380	1,001	705	446	314	198	167	91	17,613
		4분위	1,631	164	108	85	55	36	<b>24</b>	<b>19</b>	<b>7</b>	2,129
		5분위	<b>5,198</b>	889	646	528	388	294	<b>267</b>	<b>220</b>	<b>87</b>	8,517
		6분위	<b>1,565</b>	679	532	467	369	304	297	236	122	4,571
		7분위	893	476	434	421	330	331	375	365	248	3,873
		8분위	819	544	472	415	341	315	370	473	333	4,082
		9분위	687	601	495	411	367	376	375	474	545	4,331
		10분위	<b>772</b>	549	785	626	531	449	502	630	<b>980</b>	5,824
		계	24,876	—	4,473	3,658	2,827	2,419	2,408	2,584	2,413	50,940
	1인당 이용서비스 수 (B/A)	1-3분위	1.7	1.9	1.9	1.8	1.7	1.7	1.6	1.8	1.8	1.7
		4분위	1.8	1.7	1.9	1.9	1.8	1.6	2.0	1.9	<b>1.2</b>	1.8
		5분위	1.9	1.9	1.9	1.8	1.8	1.8	1.8	1.8	1.7	1.9
		6분위	1.9	2.0	1.9	1.9	2.0	1.8	1.7	1.7	1.9	1.9
		7분위	1.9	2.0	1.9	1.8	1.8	1.8	1.8	1.7	1.7	1.8
		8분위	1.9	1.9	1.8	1.8	1.9	1.9	1.7	1.8	1.7	1.8
		9분위	1.9	1.9	1.8	1.7	1.7	1.8	1.9	1.8	1.8	1.8
		10분위	1.9	1.9	1.9	1.9	1.8	1.9	1.9	1.9	1.8	1.9
		계	1.8	—	1.9	1.8	1.8	1.8	1.8	1.8	1.8	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2) 이용자별 이용서비스 수급액 평균

노인요양서비스의 전체 수급액은 4조 80억원이며 전체 이용자인 28,092명의 1인당 연간 평균 수급액은 14,267백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75세 이상의 평균수급액이 65-74세 연령대 보다 109.2만원 많다. 고연령자들의 시설요양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평균수급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수급액 평균이 고소득층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3분위 이하는 전체 평균 대비 94.5%인 반면 소득 10분위는 109.9%로 높았다.

재산수준별로 평균수급액의 분포는 소득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균형적이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유사하다. 즉, 재산분위가 낮은 계층에서 평균수급액이 높은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재산수준이 5분위인 수급자들의 평균수급액이 가장 낮은 13,476백만원으로 전체 평균대비 94.5%이다. 9분위 이용자의 평균수급액은 15,094백만원으로 재산 5분위 평균 수급액과 연간 161.8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lt;표 6-7&gt; 8가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수급액 분포: 소득·연령별

구분		소득분위(개인)									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이용자 (명)	0-64	515	137	85	79	69	69	48	37	29	1,068
	65-74	2,431	490	372	286	218	204	169	175	126	4,471
	75-	10,958	2,138	1,938	1,634	1,274	1,066	1,130	1,215	1,200	22,553
	계	13,904	2,765	2,395	1,999	1,561	1,339	1,347	1,427	1,355	28,092
수급액 (억원)	0-64	75,377	17,217	10,729	11,714	9,796	11,285	7,429	5,358	4,423	153,328
	65-74	301,430	66,888	56,823	40,753	31,882	29,704	25,396	25,078	19,061	597,015
	75-	1,498,391	311,393	288,154	247,756	198,932	162,295	178,214	185,521	187,024	3,257,679
	계	1,875,198	395,498	355,706	300,223	240,610	203,283	211,040	215,957	210,508	4,008,022
1인당 수급액 (백만원)	0-64	14,636	12,567	12,622	14,827	14,198	16,354	15,478	14,480	15,253	14,357
	65-74	12,399	13,651	15,275	14,249	14,625	14,561	15,027	14,330	15,128	13,353
	75-	13,674	14,565	14,869	15,163	15,615	15,225	15,771	15,269	15,585	14,445
	계	13,487	14,304	14,852	15,019	15,414	15,182	15,667	15,134	15,536	14,267
전체 평균액 대비비중 (%)	0-64	102.6	88.1	88.5	103.9	99.5	114.6	108.5	101.5	106.9	100.6
	65-74	<b>86.9</b>	95.7	107.1	99.9	102.5	102.1	105.3	100.4	106.0	93.6
	75-	<b>95.8</b>	102.1	104.2	106.3	109.4	106.7	<b>110.5</b>	<b>107.0</b>	<b>109.2</b>	101.2
	계	94.5	100.3	104.1	105.3	108.0	106.4	109.8	106.1	108.9	<b>100.0</b>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6-8&gt; 8가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수급액 분포 : 재산·연령별

구분		재산분위(개인)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이용자 (명)	0-64	505	29	150	100	72	60	67	85	1,068
	65-74	1,858	168	711	385	295	313	313	428	4,471
	75-	7,796	969	3,675	1,959	1,740	1,836	1,993	2,585	22,553
	계	10,159	1,166	4,536	2,444	2,107	2,209	2,373	3,098	28,092
수급액 (억원)	0-64	75,030	4,897	18,956	14,505	9,851	9,061	9,798	11,232	153,328
	65-74	239,137	21,227	91,287	54,030	41,846	42,482	45,698	61,306	597,015
	75-	1,117,912	135,153	501,038	279,645	256,352	274,276	302,678	390,626	3,257,679
	계	1,432,078	161,278	611,281	348,180	308,049	325,818	358,175	463,163	4,008,022
1인당 수급액 (백만원)	0-64	14,857	16,887	12,637	14,505	13,682	15,101	14,623	13,214	14,357
	65-74	12,871	12,635	12,839	14,034	14,185	13,573	14,600	14,324	13,353
	75-	14,340	13,948	13,634	14,275	14,733	14,939	15,187	15,111	14,445
	계	14,097	13,832	13,476	14,246	14,620	14,750	15,094	14,950	14,267
전체 평균액 대비비중 (%)	0-64	104.1	118.4	88.6	101.7	95.9	105.8	102.5	92.6	100.6
	65-74	90.2	88.6	90.0	98.4	99.4	95.1	102.3	100.4	93.6
	75-	100.5	97.8	95.6	100.1	103.3	104.7	106.4	105.9	101.2
	계	98.8	96.9	94.5	99.9	102.5	103.4	105.8	104.8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과 재산분위별 평균수급액을 비교하면 보다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은 수급자들의 평균수급액은 소득·재산수준이 높은 수급자들보다 전체 평균대비 10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소득2분위이하이면서 재산 4분위의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은 전체 평균대비 93.9%인 반면 소득10분위·재산8분위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은 전체 평균대비 112.5%였다. 특별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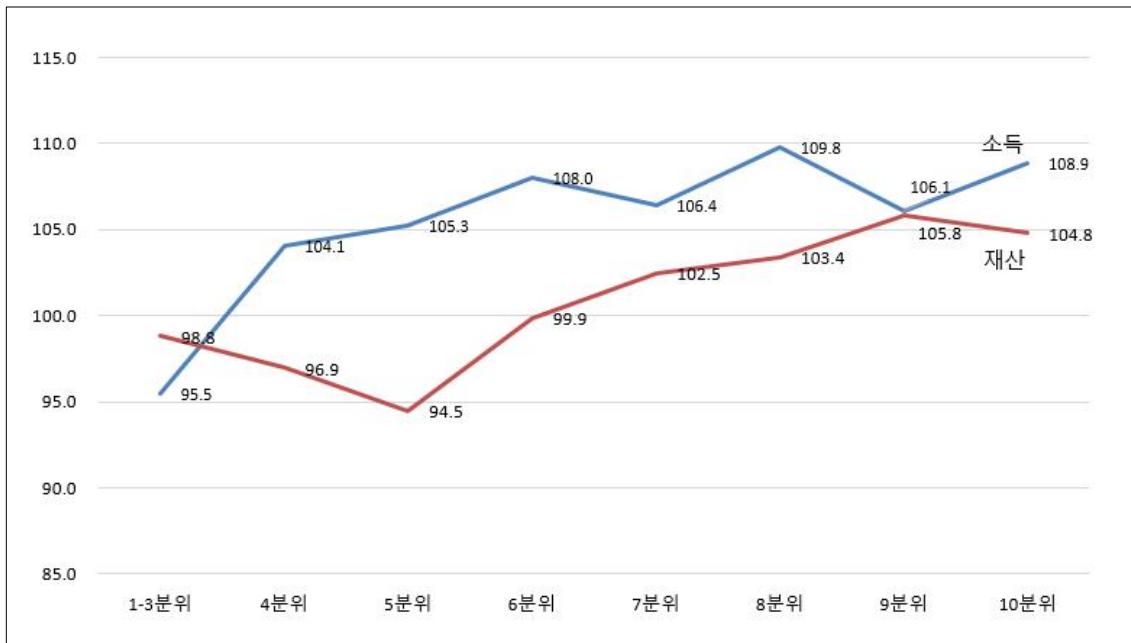
&lt;표 6-9&gt; 8가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평균수급액 분포: 소득·재산분위별

구분			소득분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재 산 분 위	이용자 (명)	1-3분위	7,794	734	537	393	256	181	123	91	50	10,159
		4분위	888	95	58	44	31	22	12	10	6	1,166
		5분위	2,738	461	344	289	217	167	147	122	51	4,536
		6분위	817	348	285	249	189	173	179	140	64	2,444
		7분위	465	242	232	234	179	189	210	209	147	2,107
		8분위	431	281	257	229	182	162	213	260	194	2,209
		9분위	362	321	270	235	213	209	201	266	296	2,373
		10분위	409	283	412	326	294	236	262	329	547	3,098
		계	13,904	2,765	2,395	1,999	1,561	1,339	1,347	1,427	1,355	28,092
	수급액 (억원)	1-3분위	1,077,847	104,980	83,133	58,409	38,987	27,750	18,953	14,418	7,602	1,432,078
		4분위	118,972	13,429	8,503	7,311	5,208	3,212	2,280	1,312	1,050	161,278
		5분위	342,990	64,130	52,696	41,641	35,753	25,841	22,554	17,934	7,742	611,281
		6분위	106,261	50,059	41,633	37,779	29,388	26,866	26,959	19,326	9,909	348,180
		7분위	60,032	33,793	35,474	34,470	27,324	27,672	33,783	33,590	21,911	308,049
		8분위	60,519	40,546	35,888	35,980	27,769	25,260	30,762	37,955	31,139	325,818
		9분위	53,247	46,814	37,592	34,501	32,665	33,813	32,078	40,471	46,994	358,175
		10분위	55,329	41,747	60,786	50,133	43,516	32,868	43,671	50,950	84,162	463,163
		계	1,875,198	—	355,706	300,223	240,610	203,283	211,040	215,957	210,508	4,008,022
	1인당 수급액 (백만원)	1-3분위	13,829	14,302	15,481	14,862	15,229	15,331	15,409	15,844	15,203	14,097
		4분위	13,398	14,135	14,661	16,615	16,802	14,602	19,002	13,122	17,494	13,832
		5분위	12,527	13,911	15,319	14,409	16,476	15,474	15,343	14,700	15,180	13,476
		6분위	13,006	14,385	14,608	15,172	15,549	15,529	15,061	13,804	15,483	14,246
		7분위	12,910	13,964	15,291	14,731	15,265	14,642	16,087	16,072	14,905	14,620
		8분위	14,042	14,429	13,964	15,712	15,258	15,593	14,442	14,598	16,051	14,750
		9분위	14,709	14,584	13,923	14,681	15,336	16,178	15,959	15,215	15,876	15,094
		10분위	13,528	14,752	14,754	15,378	14,801	13,927	16,668	15,486	15,386	14,950
		계	13,487	—	14,852	15,019	15,414	15,182	15,667	15,134	15,536	14,267
	전체 평균액 대비비중 (%)	1-3분위	96.9	100.2	108.5	104.2	106.7	107.5	108.0	111.1	106.6	98.8
		4분위	93.9	99.1	102.8	116.5	117.8	102.3	133.2	92.0	122.6	96.9
		5분위	87.8	97.5	107.4	101.0	115.5	108.5	107.5	103.0	106.4	94.5
		6분위	91.2	100.8	102.4	106.3	109.0	108.8	105.6	96.8	108.5	99.9
		7분위	90.5	97.9	107.2	103.2	107.0	102.6	112.8	112.6	104.5	102.5
		8분위	98.4	101.1	97.9	110.1	106.9	109.3	101.2	102.3	112.5	103.4
		9분위	103.1	102.2	97.6	102.9	107.5	113.4	111.9	106.6	111.3	105.8
		10분위	94.8	103.4	103.4	107.8	103.7	97.6	116.8	108.5	107.8	104.8
		계	94.5	—	104.1	105.3	108.0	106.4	109.8	106.1	108.9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그림 6-1] 소득 및 재산 수준별 1인당 평균 수급액 비중 분포

(단위: 전체평균 대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나. 노인요양서비스 신청자 분포

### 1) 신청자 일반 특성

2016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서비스 신청자 특성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25,995명이다.<sup>17)</sup> 분석표본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9%가 8대 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서비스 신청자의 비중은 군(8.5%), 시(7.6%), 구(6.2%)로서 지역별로 약간의 비중 차이가 있다. 군의 노인은 전 노인 중 8.4%이지만 신청자는 전 신청자 중 17.2%이다. 여성의 비율이 70.9%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79.7%로 높다. 따라서 75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들의 노인 서비스 신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절대적 수준의 규모에서는 (지역분포기준) 자치구 거주 노인서비스 신청자는 12,961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49.9%이다. 시와 군은 각각 32.9%와 17.2%이다. 개별적인 시군구별·성별 분포는 전체 비중 분포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연령별 분포에서 성별·시군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65세에서 75세까지 고령자는 자치구 거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군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83.2%로 상대적으로 높다. 64세 이하 연령에서도 노인요양서비스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 장기

17) '신청자'는 2016년 10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신청자 통계이다. 이는 요양서비스의 '이용자' 수치보다 규모에서 적게 추출된다. 이용자 통계는 전년도 이전에 신청하고 2016년도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규정에서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표 6-10> 노인요양서비스의 신청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규모				비중			
			시	군	구	계	시	군	구	계
신청자	성별	남	2,523	1,286	3,755	7,564	29.5	28.8	29.0	29.1
		여	6,040	3,185	9,206	18,431	70.5	71.2	71.0	70.9
		계	8,563	4,471	12,961	25,995	100.0	100.0	100.0	100.0
							(32.9)	(17.2)	(49.9)	(100.0)
	연령별	0-64	309	107	517	933	3.6	2.4	4.0	3.6
		65-74	1,420	642	2,278	4,340	16.6	14.4	17.6	16.7
		75-	6,834	3,722	10,166	20,722	79.8	83.2	78.4	79.7
		합계(A)	8,563	4,471	12,961	25,995	100.0	100.0	100.0	100.0
분석 표본	연령별	0-64	778,800	190,624	1,591,028	2,560,452	87.7	78.8	88.8	87.6
		65-74	62,743	25,878	124,333	212,954	7.1	10.7	6.9	7.3
		75-	46,565	25,450	76,814	148,829	5.2	10.5	4.3	5.1
		계(B)	888,108	241,952	1,792,175	2,922,235	100.0	100.0	100.0	100.0
	비교 (A/B) (65세이상 신청자비율)		7.6	8.5	6.2	6.9	(30.4)	(8.4)	(61.3)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신청자들의 요양등급은 3급과 4급의 비중이 각각 35.4%와 35.9%로 높으며 다음으로 2급 15.5%, 1급 7.0%, 5급 6.2% 순서이다. 요양등급별 시군구 비중 분포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1급의 경우는 자치구 거주자 비중이 55.2%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5급은 시가 35.3%로 약간 높다. 전체적으로 성별, 연령별, 시군별 등급 간 분포 격차는 크지 않다.

## 2)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분위별 분포

노인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분포<sup>18)</sup>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노인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청자의 절반 정도인 49.6%는 소득1-2분위에 해당한다. 소득3분위까지 누적 비중은 68.3%이다. 64~74세 연령구간의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신청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신청자의 비중은 분석표본 비중 보다 상당히 높다. 동 연령계층의 경우, 저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18) 노인 및 장애인서비스 분포분석에서 사용한 소득 및 재산 분위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분위이다.

&lt;표 6-11&gt; 노인요양서비스의 신청자의 소득·재산별 분포

(단위: %, 명)

구분	소득분위				구분	재산분위			
	분석표본		신청자			분석표본		신청자	
	65-74	75-	65-74	75-		65-74	75-	65-74	75-
1-2분위	29.3	45.6	54.8	48.6	1-3분위	23.3	28.6	40.3	33.3
3분위	14.9	11.7	10.9	9.5					
4분위	12.6	9.8	8.7	8.8	4분위	1.9	3.4	3.8	4.1
5분위	12.6	7.4	6.3	7.2	5분위	12.5	15.8	16.5	16.4
6분위	9.1	5.7	4.9	5.7	6분위	10.5	9.9	8.9	8.8
7분위	6.8	4.7	4.6	4.6	7분위	9.4	8.5	6.5	8.0
8분위	5.4	4.6	3.5	4.9	8분위	10.2	8.5	7.3	8.3
9분위	4.4	5.1	3.8	5.5	9분위	12.4	9.8	7.3	9.1
10분위	4.9	5.3	2.6	5.1	10분위	19.8	15.5	9.5	11.9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규모(명)	4,340	20,722	212,954	148,828	규모(명)	4,340	20,722	212,954	148,8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분위별 분포는 소득분위별 분포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신청자의 35.0%가 재산1-3분위에 속하며 5분위의 비중이 16.4%로 높은 편이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산분위별 신청자 분포의 격차는 소득분위별 신청자 격차보다 적은 편이다.

#### 다. 노인요양서비스별 이용자 분포 종합

2016년 기준으로 여덟 가지 노인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연인원 규모는 50,940명(중복이용 포함)이다. 이 가운데 기타재가급여서비스<sup>19)</sup>의 이용자 규모가 가장 많은 18,154명이다. 다음으로 방문요양서비스 14,287명, 시설요양 9,109명의 순이다. 이상의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규모가 81.6%를 차지한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과 같은 지역시설을 이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상위 세 가지 서비스가 요양급여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요양급여액이 34.3%로서 가장 많고 재가급여 32.3%, 방문요양 24.0% 순이다. 나머지 서비스에 지출된 급여액의 비중은 미미하다. 급여액의 절반 이상은 자치구가 차지하였다. 다만, 방문목욕, 방문간호, 돌봄종합서비스에서

19)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는 군지역의 급여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시설요양서비스의 평균급여액은 1인당 1,524만원이며 방문요양서비스는 680만원으로 시설요양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표 6-12> 노인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이용현황		평균급여액
			규모(연인원)	비중	
수급자 수	시설요양		9,109	17.9	
	재가 요양	방문요양	14,287	28.0	
		기타재가급여	18,154	35.6	
		방문목욕	3,111	6.1	
		방문간호	464	0.9	
		주야간보호	2,809	5.5	
		단기보호	263	0.5	
	돌봄종합		2,743	5.4	
합계		50,940	100.0		
급여액	시설요양		138,836,882	34.3	15,241
	재가 요양	방문요양	97,208,721	24.0	6,804
		기타재가급여	130,666,482	32.3	7,197
		방문목욕	4,443,750	1.1	1,428
		방문간호	4,443,750	1.1	9,577
		주야간보호	20,814,051	5.1	7,409
		단기보호	745,072	0.2	2,832
	돌봄종합		7,529,953	1.9	2,745
	합계		404,688,660	100.0	7,9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시군구별로 서비스 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군지역에서는 방문목욕과 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전문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한 방문간호와 단기보호서비스의 이용자 비중은 8%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다. 군지역에서는 요양관련 전문인력과 지역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문간호의 경우 군지역의 이용자 비중은 8.4%이지만 급여액의 비중은 29.8%로서 1인당 평균급여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남성과 여성의 이용 비중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방문목욕과 돌봄종합서비스에서 남성 이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33% 수준을 차지하였다.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는 여성 이용자 비중이 높아 80.2%를 차지하였다. 이는 급여액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라. 노인요양서비스별 이용 현황

## 1) 시설요양서비스

(소득)시설요양서비스 이용자는 9,109명이었다. 이 가운데 85.9%인 7,825명은 75세 이상 고령자이다. 74세 이하 고령자의 비중은 14.1%에 불과하다.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은 1-2분위가 44.5%로 절대적으로 높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비중은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65-74세 연령대에서는 1-2분위 소득자가 52.3%이지만 10분위는 2.5%에 불과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설요양 이용자가 많았다.

&lt;표 6-13&gt; 시설요양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소득	연령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0-64	1.7	0.2	0.2	0.2	0.2	0.3	0.1	0.1	0.0	3.1
	65-74	5.7	0.9	0.9	0.8	0.7	0.8	0.4	0.5	0.3	11.0
	75-	37.1	6.9	7.6	7.4	5.9	5.1	5.3	5.5	5.3	85.9
	계	44.5	8.0	8.7	8.4	6.8	6.1	5.9	6.1	5.6	100.0
	(규모)	4,057	725	788	761	620	557	533	559	509	9,109
재산	연령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0-64	1.8		0.0	0.4	0.2	0.2	0.1	0.2	0.1	3.1
	65-74	4.8		0.5	1.6	0.9	0.7	0.8	1.0	0.6	11.0
	75-	29.8		3.7	12.6	7.7	7.7	7.4	8.4	8.7	85.9
	계	36.3		4.2	14.6	8.8	8.7	8.3	9.5	9.5	100.0
	규모	3,310		384	1,333	806	788	755	868	865	9,1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에서 시설 보다는 재가서비스의 이용선호가 높은 편이다. 가구 및 개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은 재가요양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요양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급여액의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하다.

재산분위별 분포를 보면 이용자의 소득과 재산분위별 분포가 어느 정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소득은 1-2분위에 속하지만 재산수준은 5분위에 속하는 이용자의 비중이 7.3%이다. 소득3분위 이하 이용자의 비중이 52.5%이지만 재산3분위 이하 이용자 규모의 비중은 36.3%로 낮다. 재산5분위 이용자의 비중은 14.6%이며 이외의 경우는 각 분위별로 9% 내외 비중을 차지한다. 재산수준별 급여액의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하다.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시설이용자가 가장 많은 등급은 3급으로 전체 4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급 26.2%, 4급 22.8% 순서이다. 4급 이하의 비중도 상당한데, 이는 해당 등급에서 치매노인의 비

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요양등급 4급과 5급에서 시설이용자는 각각 22.8%(1,459명)와 1.0%(65명) 수준이다. 요양등급별 급여액 분포는 이용자 분포와 유사하다. 1급의 경우 약간 높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등급별 소득 및 재산 분포는 일반적인 소득·재산분포와 유사하다.

<표 6-14> 요양등급별 시설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규모			비중			비고 (시설이용률)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1급	1,486	619	10,042,525	6.8	9.7	11.1	<b>41.7</b>
2급	3,306	1,675	26,089,169	15.2	26.2	28.8	<b>50.7</b>
3급	7,737	2,570	35,730,311	35.6	40.2	39.4	<b>33.2</b>
4급	7,859	1,459	18,176,061	36.2	22.8	20.0	18.6
5급	1,324	65	705,726	6.1	1.0	0.8	4.9
계	21,712	6,388	90,743,792	100.0	100.0	100.0	2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2) 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는 14,287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1-2분위에 속하는 이용자가 49.1%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비중은 60.5% 수준이다. 재산3분위 이하 이용자의 비중은 34.3%이며 소득수준별 이용자 분포와 차이가 있다.

<표 6-15> 방문요양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연령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소득	0-64	2.0	0.6	0.4	0.3	0.3	0.3	0.2	0.1	0.2	4.3
	65-74	8.8	2.3	1.7	1.2	0.8	0.7	0.7	0.7	0.6	17.4
	75-	38.4	8.5	7.0	5.3	4.2	3.5	3.6	4.0	3.9	78.2
	계	<b>49.1</b>	<b>11.4</b>	9.1	6.8	5.3	4.5	4.4	4.8	4.6	100.0
	(규모)	7,020	1,625	1,298	977	757	640	634	682	654	14,287
재산	연령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0-64	1.9		0.2	0.6	0.4	0.3	0.3	0.3	0.4	4.3
	65-74	6.5		0.6	2.8	1.7	1.3	1.3	1.3	2.1	17.4
	75-	25.9		3.4	13.0	6.9	5.8	6.4	6.8	10.1	78.2
	계	34.3		4.1	<b>16.3</b>	9.0	7.4	7.9	8.4	<b>12.6</b>	100.0
	규모	<b>4,902</b>		588	2,326	1,283	1,052	1,129	1,207	1,800	14,287

자료: 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5분위와 재산10분위 이용자의 비중이 각각 13.0%와 10.1%로 높은 편이다. 소득분위별 이용자 분포와 재산분위별 이용자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2분위 소득자 가운데 재산5분위에 속하는 이용자가 1,443명으로 전체 10.1%(1-2분위 기준 20.6%)를 차지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에서 요양등급이 확인된 표본 수는 10,537명이다. 이 가운데 요양등급 4급인 경우가 가장 많은 4,845명으로 46.0%를 차지하며 급여액 비중은 43.0% 수준이다. 다음으로 3급 이용자 37.3%, 2급 10.3% 순이다. 3급의 경우 시설이용 보다는 방문요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했다. 4급 이용자 가운데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55.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재산분위별 분포에서도 유사했다. 요양4급 이용자 가운데 재산1-3분위에 속하는 비중이 37.4%로서 전체 소득1-2분위 34.4% 보다 약간 높았다. 요양등급이 높아도 재산수준이 높은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 1급 이용자 가운데 재산10분위에 속하는 경우가 23.8%(91명)로 높았다.

<표 6-16> 요양등급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규모			비중			비고 (이용률)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1급	1,486	383	2,938,869	6.8	3.6	4.4	25.8
2급	3,306	1,082	7,630,521	15.2	10.3	11.4	32.7
3급	7,737	3,929	26,454,448	35.6	37.3	39.6	<b>50.8</b>
4급	7,859	4,845	28,719,652	36.2	46.0	43.0	<b>61.6</b>
5급	1,324	298	1,043,056	6.1	2.8	1.6	22.5
계	21,712	10,537	66,786,546	100.0	100.0	100.0	4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3) 기타재가급여서비스

기타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소득 3분위 이하인 경우가 58.0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 및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이다. 재산분위별 이용자 분포는 소득분위별 분포와 차이가 있다. 3분위 이하 이용자의 비중은 32.6%에 불과하며, 5분위와 10분위가 각각 12.8%와 10.6% 수준이다. 급여액 분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타재가급여서비스의 이용률은 다른 요양서비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표본 중 62.6%를 차지했다. 요양등급 3급과 4급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종 장비와 용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필요성 뿐 아니라 이용편리성으로 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 1-2분위와 재산 1-3분위에 속하는 4급 이용자의 비중이 각각 22.5%(소

득)와 15.3%(재산)로 높은 편이다. 요양등급 3급 이하의 경우, 재산10분위에서 이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1급 22.1%, 2급 15.7%, 3급 13.8% 등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6-17> 기타재가급여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연령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소득	0-64	2.0	0.7	0.4	0.4	0.3	0.3	0.2	0.2	0.1	4.5
	65-74	8.2	2.2	1.7	1.2	0.9	0.8	0.7	0.7	0.6	16.9
	75-	36.6	8.3	7.2	5.8	4.4	3.7	3.9	4.3	4.3	78.6
	합계	46.8	11.2	9.3	7.4	5.6	4.7	4.8	5.2	5.0	100.0
	(규모)	8,496	2,038	1,687	1,339	1,013	855	877	946	903	18,154
	연령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재산	0-64	1.9		0.1	0.7	0.5	0.3	0.3	0.3	0.4	4.5
	65-74	6.0		0.6	2.7	1.6	1.3	1.3	1.3	2.1	16.9
	75-	24.7		3.2	12.8	7.2	6.2	6.7	7.3	10.6	78.6
	합계	32.6		3.9	16.2	9.3	7.7	8.3	8.9	13.1	100.0
	규모	5,925		701	2,941	1,680	1,404	1,510	1,612	2,381	18,15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6-18> 요양등급별 기타재가급여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규모			비중			비고 (이용률)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1급	1,486	628	3,711,874	6.8	4.6	4.0	42.3
2급	3,306	1,454	9,533,462	15.2	10.7	10.4	44.0
3급	7,737	4,906	35,304,244	35.6	36.1	38.4	<b>63.4</b>
4급	7,859	5,830	39,203,537	36.2	42.9	42.6	<b>74.2</b>
5급	1,324	773	4,213,045	6.1	5.7	4.6	<b>58.4</b>
계	21,712	13,591	91,966,162	100.0	100.0	100.0	6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되는 정부재정사업이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중위소득 160% 이하에 속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급조건에서 보편성이 상당히 보장되지만 기본적으로 잔여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이 있어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 수준과 추가 지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간 서비스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표 6-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 및 재산수준별 이용자 분포

(단위: 명, %)

	연령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소득	65-74	20.1	1.3	0.5	0.4	0.2	0.3	0.1	0.1		22.9
	75-	62.9	4.7	2.8	2.0	1.2	1.1	0.9	0.8	0.8	77.1
	계	83.0	6.0	3.3	2.3	1.4	1.3	1.0	0.9	0.8	100.0
	(규모)	2,276	164	90	64	39	37	27	24	22	2,743
	연령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재산	65-74	15.6		1.1	3.8	1.0	0.4	0.4	0.2	0.3	22.9
	75-	42.2		4.9	17.6	4.5	2.3	2.6	1.6	1.3	77.1
	계	57.8		6.0	21.5	5.5	2.7	3.0	1.8	1.6	100.0
	규모	1,586		165	589	151	74	83	50	45	2,74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6-20> 요양등급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규모			비중			비고 (이용률)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분석표본	이용자	급여	
1급	1,486	-	-	6.8	-	-	-
2급	3,306	20	25,480	15.2	4.7	3.6	0.6
3급	7,737	74	124,347	35.6	17.4	17.4	1.0
4급	7,859	268	445,214	36.2	63.1	62.4	3.4
5급	1,324	63	118,835	6.1	14.8	16.6	4.8
계	21,712	425	713,876	100.0	100.0	100.0	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의 52.8%는 재산 1-3분위와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 속한다. 이 이용자의 83.0%가 소득1-2분위에 속하며 4분위 이상의 비중은 미미하다. 수급조건에서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위소득분위의 경우 일시적인 급여 수급이었거나 소득기준 초과 시 서비스 수급이 중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조건에 재산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산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산5분위 이상의 이용자가 992명으로 전체 36.2%를 차지했다. 재산1-3분위 이용자의 비중은 57.8%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례가 적지 않았다.<sup>20)</sup> 분석표본의 전체 2,743명 가운데 425명이 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전체 15.5%를 차지한다. 요양4급이 268명으로 가장 많으며, 3급 74명, 5급 63명 순이다. 요양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요양1급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 2. 장애인서비스<sup>21)</sup>

### 가. 장애인서비스 이용 종합

#### 1) 분석대상 표본분포

장애인서비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수는 181,521명이다. 성별로 남성 장애인의 비중은 53.6%이며 여성장애인 비중은 46.4%이다. 시군구별 분포에서 각각 32.6%, 13.2%, 54.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의 비중이 가장 높은 59.7%를 차지하며 시각 11.2%, 청각 10.6% 등의 순이다. 장애등급별 분포에서는 6급 장애가 3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급 22.7%, 3급 14.6%, 4급 14.5%, 2급 10.6%, 1급 6.1%의 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통계와 비교할 때, 표본에서 지체 장애인의 비중이 9.2% 높은 상태이며 뇌병변과 지적 장애의 비중은 낮은 상태이다.

#### 2) 분석대상 장애인 서비스의 특성<sup>22)</sup>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181,521명 가운데 전자바우처로 공급되는 네 가지 장애인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7,913명으로 연인원 기준(중복포함) 이용률은 4.4% 수준이다. 장애인서비스는 복지시설 중심의 공급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이용자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 3급 이하만 이용 가능하고 발달재활서비스는 해당 장애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수 기준으로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전자바우처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방식으로 운영되며 잔여적 복지서비스의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선호와 예산여건에 따라 지역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20)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건강상태에서 변화가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등급을 인정받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서는 요양등급이 인정받아도 예산사업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1) 장애인서비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통계 현황들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전체에 대한 일반 현황과 차이가 있다.

22)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전자바우처 방식의 장애인서비스에 한정된다.

&lt;표 6-21&gt; 장애인서비스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표본 분포

(단위: 명, %)

구분	성별			시군별				비중	비고(복지부통계)	
	남	여	계	시	군	구	계		인원	비중
지체	57,759	50,599	108,358	36,215	14,126	58,017	108,358	59.7	1,267,174	50.5
뇌병변	7,720	6,435	14,155	4,252	1,722	8,181	14,155	7.8	250,456	10.0
시각	10,843	9,428	20,271	6,380	2,572	11,319	20,271	11.2	252,794	10.1
청각	10,116	9,046	19,162	6,227	2,946	9,989	19,162	10.6	271,843	10.8
언어	666	482	1,148	379	171	598	1,148	0.6	19,409	0.8
지적	2,885	2,250	5,135	1,760	952	2,423	5,135	2.8	195,283	7.8
자폐	46	26	72	14	6	52	72	0.0	22,853	0.9
정신	1,950	1,616	3,566	953	512	2,101	3,566	2.0	100,069	4.0
기타	5,257	4,397	9,654	2,951	1,006	5,697	9,654	5.3	131,170	5.1
계	97,242	84,279	181,521	59,131	24,013	98,377	181,521	100.0	2,511,051	100.0
(비중)	53.6	46.4	100.0	32.6	13.2	54.2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통계연보」.

&lt;표 6-22&gt; 장애인서비스의 수급조건 및 내용

구분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소득기준	비고
활동 지원	만6~65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1~3급)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만 65세이상 1급 ~ 3급 장애인 포함
발달 재활	만 18세 미만 (학생은 만20세까지)	성장기 정신·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부모 상담	[장애인복지법]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대상자 1인당 12개월 지원
언어 재활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한쪽 부모 및 조손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장애인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3) 장애인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종합

표본 중 네 가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총 이용자 수는 7,913명이며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각각 53.9%와 45.2%이다. 부모 상담과 언어발달 이용자는 이용자 중 0.4%와 0.5%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급여액은 559.0억 원이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1백만 원이다. 활동지원의 총급여액과 평균급여액이 절대적으로 높다.

&lt;표 6-23&gt; 장애인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단위: 명, 천원, %)

구분		이용현황		평균급여액
		규모	비중	
수급자 수	활동지원	4,266	53.9	
	발달재활	3,573	45.2	
	부모상담	35	0.4	
	언어발달	39	0.5	
	계	7,913	100.0	
급여액	활동지원	49,930,657	89.3	11,704
	발달재활	5,863,048	10.5	1,641
	부모상담	31,880	0.1	911
	언어발달	72,154	0.1	1,850
	계	55,897,739	100.0	7,0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lt;표 6-24&gt; 성별·시군별 장애인서비스의 이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성별			시군구별			
			남	여	합계	시	군	구	계
규모	서비스 유형	활동지원	2,639	1,627	4,266	1,202	389	2,675	4,266
		발달재활	2,412	1,161	3,573	1,261	274	2,038	3,573
		부모상담1)	6	29	35	17	1	17	35
		언어발달	16	23	39	12	1	26	39
		계(A)	5,073	2,840	7,913	2,492	665	4,756	7,913
	분석표본 규모(B)		97,242	84,279	181,521	59,131	24,013	98,377	181,521
비중	서비스 유형	활동지원	61.9	38.1	100.0	28.2	9.1	62.7	100.0
		발달재활	67.5	32.5	100.0	35.3	7.7	57.0	100.0
		부모상담1)	17.1	82.9	100.0	48.6	2.9	48.6	100.0
		언어발달	41.0	59.0	100.0	30.8	2.6	66.7	100.0
		계	64.1	35.9	100.0	31.5	8.4	60.1	100.0
	분석표본 규모(B)		53.6	46.4	100.0	32.6	13.2	54.2	100.0
이용률(A/B)			5.22	3.37	4.36	4.21	2.77	4.83	4.36

주: 부모상담서비스의 이용자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부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전자바우처 장애인서비스의 이용에서 성별 및 시군구별 차이가 존재한다. 성별로는 남성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분석표본 18.1만명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53.6%인데, 4대 서비스 이용자에서 남성의 비중은 64.1%로서 여성보다 9.5% 높다. 시군구별 분포에서는 군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분석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 가운데 군 거주자는 13.2%인데 장애인서비스 이용자의 비중은 8.4%로 낮은 수준이다. 급여액 분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확인된다.

서비스 유형에서도 상대적 차이가 있다.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에서는 남성 이용자가 많은 반면 언어발달서비스는 여성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상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상담서비스는 여성(어머니)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남성(아버지)의 이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시군구별 분포에서 군지역의 부모 상담과 언어발달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군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 4) 장애등급·장애유형별 분포

장애등급별로 서비스 이용자 분포가 다르다. 활동지원서비스<sup>23)</sup>는 전체 1,574명 가운데 1급 장애인의 비중이 1,036명으로 65.8%를 차지한다. 재활서비스는 등급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언어발달서비스는 1급, 2급, 3급이 각각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lt;표 6-25&gt; 장애등급·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의 이용 현황

(단위: 명, %)

장애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규모	활동지원	1,036		220		122		47		77		72		1,574	
		발달재활	33		53		49		16		42		61		254	
		언어발달	12		9		11				2		2		36	
	비중	활동지원	65.8		14.0		7.8		3.0		4.9		4.6		100.0	
		재활급여	13.0		20.9		19.3		6.3		16.5		24.0		100.0	
언어발달		33.3		25.0		30.6		—		5.6		5.6		100.0		

장애 유형 <sup>1)</sup>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기타		계	
	규모	활동지원	627		150		471		37		6		181		5		34		63		1,574	
		발달재활	118		10		28		25				60		2		5		6		254	
		언어발달	2		4		9		13				8								36	
	비중	활동지원	39.8		9.5		29.9		2.4		0.4		11.5		0.3		2.2		4.0		100.0	
		재활급여	46.5		3.9		11.0		9.8		—		23.6		0.8		2.0		2.4		100.0	
언어발달		5.6		11.1		25.0		36.1		—		22.2		—		—		—		100.0		

주 1)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의 경우 등록장애인 전체의 현황과 차이가 있음. 표본통계에서 지체 장애의 비중이 실제보다 과다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자 분포도 상이하다. 표본의 경우,<sup>24)</sup>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체와 시각장애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39.8%와 29.9%를 차지한다. 재활급여는 지체와 지적장애인의 비중이 높아 각각 46.5%와 23.6% 수준이다. 언어발달의 경우는 청각, 시각, 지적 장애인의 비중이 높다.

## 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1) 연령·소득·재산별 분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4,266명의 장애인들의 연령별 분포는 비교적 고르다. 60세미만의 연

23)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 3급 이하 대상자만 해당된다. 그런데 표본통계에서는 4급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등급변경 이전에 이용했던 일시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24)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전체 기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통계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표본의 통계와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리하였다.

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로서 19.7%이며 30대가 가장 낮은 10.8% 수준으로 편차가 크지 않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소득1-2분위의 이용자 비중이 35.8%(3분위 이하 46.4%)로 높아 잔여적 특성이 확인된다. 소득분위별 연령 분포 특성도 있다. 소득1-2분위의 경우 40대와 50대는 각각 21.1%, 22.8%를 차지한다. 소득1-2분위에서 30대 이하의 연령층 비중은 10% 내외로 40-50대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10분위에서는 20대 이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78.9%를 차지한다.

<표 6-26> 연령·소득·재산 등급별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현황

(단위: %, 명, 천원)

소득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규모)
연령	6-13	8.4	15.7	19.4	15.0	20.3	27.2	27.2	<b>29.0</b>	<b>25.2</b>	16.8	718
	14-19	9.8	14.6	17.8	18.1	18.4	18.7	21.2	<b>22.3</b>	<b>25.9</b>	15.8	675
	20-29	11.1	19.5	24.4	24.5	26.9	23.3	25.2	<b>27.3</b>	<b>27.8</b>	19.7	841
	30-39	10.9	12.4	14.0	13.2	12.1	9.9	8.9	6.7	4.4	10.8	459
	40-49	<b>21.1</b>	12.9	9.0	10.3	7.2	7.4	6.0	5.3	5.6	12.9	552
	50-59	<b>22.6</b>	16.0	9.2	11.8	8.5	10.6	6.6	5.3	8.5	14.5	618
	60-64	11.2	5.8	4.0	4.9	3.6	2.1	2.3	2.3	2.2	6.4	271
	64-74	4.9	3.1	2.1	2.2	3.0	0.7	2.6	1.7	0.4	3.1	132
	계 (인원)	100.0 1,525	100.0 451	100.0 422	100.0 408	100.0 305	100.0 283	100.0 302	100.0 300	100.0 270	100.0 4,266	4,266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규모)
소득	수급자	<b>35.8</b>	10.6	9.9	9.6	7.1	6.6	7.1	7.0	6.3	100.0	4,266
	급여액	<b>39.7</b>	10.2	9.0	9.1	6.9	6.0	6.6	6.7	5.8	100.0	49,931
구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재산	수급자	<b>42.8</b>		2.3	12.5	9.2	9.0	8.6	8.6	6.8	100.0	4,266
	급여액	<b>46.0</b>		2.3	11.2	8.9	8.0	8.2	8.5	6.9	100.0	49,931

주: 연령분포는 수급자 가구 소득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재산분위별 이용자 분포에서, 재산3분위 이하 이용자의 비중이 42.8%로 소득분위의 분포와 비슷하다. 소득1-2분위와 재산1-3분위에 속하는 이용자의 수는 1,061명으로 전체 24.9%를 차지한다. 다만, 재산1-3분위에서 이용자의 연령층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60세 미만에서 50대는 18.6%(50대), 30대는 10.7%(30대)이다. 소득분위별 분포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않지만, 재산분위가 높을수록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계층에서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2) 장애등급별 소득·재산 분포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활동보조의 이용자 수가 많은 편이다. 이는 전체 소득 및 재산분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1급 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65.8%인 1,036명이며 2급 14.0%, 3급 7.8% 순

서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3등급 이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4급 이상의 이용자의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다. 전체 1,574명 가운데 4급 이상 이용자 수는 196명으로 12.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소득1-2분위 장애인의 수가 96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4급 이상 장애등급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의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자격을 둘러싼 장애등급 쟁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27> 장애등급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규모)	급여액 (백만원)
소득	1급	65.2	62.0	68.1	73.3	72.6	72.9	58.3	68.2	46.2	65.8	1,036	15,900
	2급	16.5	12.9	12.4	8.6	11.0	1.7	8.3	6.8	15.4	14.0	220	2,173
	3급	8.1	12.9	2.7	5.7	4.1	6.8	14.6	4.5		7.8	122	1,102
	4급이상	10.2	12.3	16.8	12.4	12.3	18.6	18.8	20.5	38.5	12.5	196	2,2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4	21,433
	(규모)	943	163	113	105	73	59	48	44	26	1,574		
구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규모)	급여액 (백만원)
재산	1급	69.0		55.8	57.8	59.8	55.6	60.7	76.1	61.4	65.8	1,036	15,900
	2급	15.4		18.6	15.0	10.3	11.1	11.5	7.0	5.7	14.0	220	2,173
	3급	7.2		9.3	9.1	11.2	9.5	6.6	2.8	10.0	7.8	122	1,102
	4급이상	8.4		16.3	18.1	18.7	23.8	21.2	14.1	22.9	12.4	196	2,2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4	21,433
	(규모)	972		43	187	107	63	61	71	70	1,57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1-2분위 저소득층 장애인의 비중이 59.9%로 높으며 이 가운데 65.2%는 장애등급 1급이다. 이에 따라 장애1급·소득1-2분위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39.1%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급여액 기준에서는 1급 사용자들의 비중이 좀 더 높다. 장애1급에 대한 급여가 전체 74.2%를 차지한다. 소득분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포는 유사하다. 이는 활동지원이 장애등급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산분위별 분포는 이용자와 급여액에서 소득분위별 분포와 유사하다.

### 3) 장애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표본 중 지체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이용비중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소득 및 재산분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용자 비중은 각각 39.8%와 29.9%를 차지한다. 뇌병변장애를 제외하면 나머지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의 이용 분포는 불규칙적이다. 소득과 재산의 3분위 이하 저소

득 장애인의 이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장애유형별로는 소득1-2분위에 속하는 지체장애인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24.0%이며 다음으로 소득1-2분위 시각장애인 13.4%이다.

<표 6-28>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규모)	급여액 (백만원)
소득	지체	40.1	41.1	34.5	37.1	41.1	39.0	37.5	31.8	73.1	39.8	627	9,439
	시각	22.4	30.1	39.8	48.6	45.2	52.5	45.8	56.8	15.4	29.9	471	6,309
	뇌병변	11.7	6.7	8.8	4.8	5.5	3.4	6.3	6.8	7.7	9.5	150	2,722
	지적	14.3	13.5	10.6	7.6	1.4		4.2	2.3		11.5	181	1,606
	기타	11.6	8.6	6.2	1.9	6.8		6.3	2.3	3.8	9.2	145	1,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4	21,433
	(규모)	943	163	113	105	73	59	48	44	26	1,574		
구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규모)	급여액 (백만원)
재산	지체		37.9	46.5	41.2	49.5	44.4	42.6	31.0	47.1	39.8	627	9,439
	시각		27.8	20.9	25.7	32.7	33.3	39.3	53.5	37.1	29.9	471	6,309
	뇌병변		11.2	7.0	6.4	1.9	6.3	13.1	9.9	7.1	9.5	150	2,722
	지적		12.6	11.6	19.8	6.5	9.5		2.8	2.9	11.5	181	1,606
	기타		10.5	14.0	6.9	9.4	6.5	5.0	2.8	5.8	9.3	145	1,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74	21,433
	(규모)		972	43	187	107	63	61	71	70	1,57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lt;참고: 등록장애인 전체의 서비스 이용 현황&gt;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장애통계연보」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본 연구의 표본의 현황 분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득과 장애등급별 이용현황의 주요 특성들은 통계연보와 본 연구의 표본분석결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등록장애인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79,926명이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37.1%이며 다음으로 지체 16.0%, 뇌병변 15.0%, 자폐 13.5% 등의 순서이다.

## &lt;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2016)&gt;

(단위 : %, 명)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기타	합계	(규모)
성별	남	16.0	14.3	12.6	0.5	0.2	34.9	18.2	1.3	2.0	100.0	49,277
	여	16.2	16.1	14.6	0.6	0.2	40.6	5.9	2.5	3.3	100.0	30,649
장애 분위	1급	19.6	17.3	18.4	0.6	0.0	30.1	12.1	0.3	1.5	100.0	55,191
	2급	7.9	8.5	1.6	0.5	0.5	52.2	19.2	4.3	5.3	100.0	20,330
	3급	8.4	16.1	4.5	0.3	2.0	54.2	4.4	8.4	1.6	100.0	4,405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24.2	15.6	15.3	0.6	0.3	32.6	3.5	4.0	3.9	100.0	24,474
	차상위 계층	14.6	18.8	11.1	0.8	0.3	39.9	10.2	1.5	2.9	100.0	8,209
	50%이하	12.2	13.1	14.2	0.5	0.2	40.7	17.0	0.6	1.7	100.0	16,670
	100%이하	12.4	14.5	13.8	0.4	0.3	38.5	17.6	0.6	1.9	100.0	15,598
	150%이하	11.0	14.5	9.9	0.5	0.2	39.0	22.8	0.5	1.5	100.0	8,592
	150%초과	12.4	14.6	10.3	0.5	0.2	35.4	24.6	0.6	1.4	100.0	6,383
	합계	16.0	15.0	13.4	0.5	0.2	37.1	13.5	1.7	2.5	100.0	79,926
(규모)		12,823	11,979	10,685	438	197	29,645	10,769	1,383	2,007	79,926	

주: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전체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통계연보」.

## 다. 발달재활서비스

## 1) 연령별 소득·재산 분포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학생은 만20세까지)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표본 중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는 3,573명이었다. 연령별로 6-13세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1,529명으로 전체 42.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0-5세 34.1%, 14-19세 21.4% 순이다.

연령별 분포는 소득 분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7분위에서 9분위까지 고소득층에서는 0-5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2분위에서는 14-19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소득층은 영유아시기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저소득층은 청소년시기에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 수급자 규모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소득 1-2분위 이용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18.4%이며 소득 3분위에서 8분위까지 모든 분위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득 10분위 이용자의 비중은 1.2%이다. 그런데 재산분위에서는 분위별로 점유비중에서 차이가 있다. 재산 1-3분위 이용자가 40.5%로 높은 수준이며 재산 5분위~7분위의 이용자들의 비중이 10%를 상회한다. 나머지 분위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소득1-2분위와 재산1-3분위에 속하는 이용자의 비중은 15.6%이다. 다만, 다른 장애인서비스와 비교할 때 이용자의 저소득층 집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6-29> 소득·재산 분위별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연령	0-5	17.9	24.9	30.3	34.4	37.5	43.4	41.2	36.5	26.6	31.5	1,219
	6-13	43.8	44.8	44.4	44.6	44.5	40.5	39.0	46.1	42.4	43.4	1,529
	14-19	36.9	28.8	23.7	20.2	17.6	16.0	18.9	16.1	27.2	24.1	765
	20-29	1.4	1.4	1.6	0.8	0.4	0.1	0.9	1.3	3.8	1.0	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73
	(규모)	659	407	449	399	431	486	427	272	43	3,573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소득	수급자	18.4	11.4	12.6	11.2	12.1	13.6	12.0	7.6	1.2	100.0	3,573
	급여액	21.8	11.8	12.8	11.0	11.7	12.7	10.8	6.5	1.0	100.0	5,863,047
구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재산	수급자	40.5		1.5	12.7	14.2	12.0	9.4	6.7	3.2	100.0	3,573
	급여액	43.6		1.6	13.1	13.6	11.1	8.5	6.0	2.7	100.0	5,863,047

주: 연령분포는 수급자 가구 소득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2) 장애등급별 소득·재산 분포

장애등급별로 살펴볼 때,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비중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의미가 있는 수준에서 등급별 이용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장애6급의 이용자가 24.0%로 가장 높고 2급 20.9%, 3급 19.3% 등의 순서이다.

소득계층별 분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등급별로 특정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는다.<sup>25)</sup> 소득6분위, 8분위, 9분위에서 장애6급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 약해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애등급별 소득 및 재산분위별 구분이 가능한 수급자

25) 1-2분위 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등급별 통계분류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전체 이용자는 3,573명이지만 장애등급별로 분류할 때에는 이용자수가 254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는 254명으로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재산분위에서도 분포특성은 소득의 경우와 유사하다.

<표 6-30> 장애등급·장애유형별 발달재활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단위: 명, %, 천원)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급여액 (천원)
소득	1급	18.3	6.7		15.0	11.8	9.1	9.1			13.0	33	60,863
	2급	30.2	13.3	13.6	20.0	11.8	4.5	9.1			20.9	53	99,654
	3급	17.5	20.0	31.8	20.0	17.6	27.3	9.1			19.3	49	88,852
	4급	6.3	16.7			11.8	4.5				6.3	16	29,226
	5급	13.5	16.7	18.2	20.0	17.6	22.7	27.3	25.0		16.5	42	73,037
	6급	14.3	26.7	36.4	25.0	29.4	31.8	45.5	75.0	100.0	24.0	61	106,323
	합계 (규모)	100.0 126	100.0 30	100.0 22	100.0 20	100.0 17	100.0 22	100.0 11	100.0 4	100.0 2	100.0 254	254	457,955
구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급여액 (천원)
재산	1급		16.0		4.7	5.0	25.0	11.1	14.3	12.5	13.0	33	60,863
	2급		25.0	28.6	23.3	20.0	6.3				20.9	53	99,654
	3급		20.1	28.6	18.6	25.0	6.3	11.1	42.9		19.3	49	88,852
	4급		5.6	14.3	9.3	5.0		11.1	14.3		6.3	16	29,226
	5급		14.6	28.6	20.9	15.0	12.5	33.3	14.3	12.5	16.5	42	73,037
	6급		18.8		23.3	30.0	50.0	33.3	14.3	75.0	24.0	61	106,323
	합계 (규모)		100.0 144	100.0 7	100.0 43	100.0 20	100.0 16	100.0 9	100.0 7	100.0 8	100.0 254	254	457,95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표 6-31> 장애등급·장애유형별 발달재활 이용자의 소득분포 현황

(단위: 명, %, 천원)

구분		1-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급여액 (천원)
소득	지체	<b>31.7</b>	46.7	63.6	50.0	<b>70.6</b>	<b>68.2</b>	72.7	100.0	50.0	46.5	118	204,171
	지적	<b>32.5</b>	26.7	22.7	10.0	17.6	4.5				23.6	60	114,362
	시각	11.9	20.0		10.0	5.9	9.1	9.1		50.0	11.0	28	54,540
	청각	9.5	3.3	13.6	20.0	5.9	9.1	18.2			9.8	25	34,934
	뇌병변	6.3			5.0		4.5				3.9	10	22,974
	기타	7.9	3.3		5.0		4.5				5.1	13	26,974
	합계 (규모)	100.0 126	100.0 30	100.0 22	100.0 20	100.0 17	100.0 22	100.0 11	100.0 4	100.0 2	100.0 254	254	457,955
구분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합계	(규모)	급여액 (천원)
재산	지체		36.8	57.1	53.5	45.0	81.3	77.8	42.9	75.0	46.5	118	204,171
	지적		29.9	28.6	27.9	10.0			14.3		23.6	60	114,362
	시각		11.1	14.3	14.0	10.0			14.3	25.0	11.0	28	54,540
	청각		9.0		4.7	25.0	18.8		28.6		9.8	25	34,934
	뇌병변		5.6			5.0		11.1			3.9	10	22,974
	기타		7.7			5.0		11.1			5.2	13	26,974
	합계 (규모)		100.0 144	100.0 7	100.0 43	100.0 20	100.0 16	100.0 9	100.0 7	100.0 8	100.0 254	254	457,95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3) 장애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장애유형별로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에서 비중의 차이가 있다. ‘지체’ 장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46.5%를 차지하며 지적장애 23.8%, 시각장애 11.0%, 청각장애 9.8%의 순이다. 기타 장애의 경우는 비중이 미미하다. 소득 및 재산 분위별로 장애유형별 분포 특성에서 의미가 있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본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 해석가능성은 제한적이다.

## 제3절 의료서비스 보장

### 1. 분석 개요

#### 가. 분석 목적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은 누구나 필요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 또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건강에 이로운 생활습관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더 많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는 보고가 지속되어 왔다(OECD/EU, 2016; OECD, 2018). 따라서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은 단계적 안전망 장치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에 형평하게 접근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높은 질의 서비스가 있더라도 접근하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의료서비스 접근과 이용에서 격차 발생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한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다. 설계된 표본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요 특성에 따른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나. 분석 변수

의료서비스 이용을 측정하는 변수는 이용 경험과 의료 이용으로 구분된다. 이용경험은 표본에서 치료서비스와 예방서비스를 한번 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고 의료이용은 실제 누적된 양적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용 경험은 예방서비스와 치료서비스로 구분되고 의료 이용은 이용량과 진료비로 구분된다. 예방서비스는 2016년 포함 지난 2년간 국가건강검진 수급률로 측정하였다.

의료 이용 빈도와 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중 약국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외래 및



입원 청구 실적과 관련 요양급여비용으로 집계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금액으로 보고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진료비’라고 용어를 사용하였다. 집계된 외래 및 입원 서비스 진료비에는 관련된 처방 약제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특성 비교에 있어서 외래와 입원으로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를 합친 총 진료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수급률은 소득과 연령 또는 소득과 재산의 10분위 구간별 표본인구 대비 연간 1회 이상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은 개인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가구단위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개인단위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확인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이용경험과 의료비용은 이용자의 정보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이용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의료기관 유형은 전체, 상급, 공공 의료기관으로 세분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은 설립구분이 국립, 공립, 시립, 지방의료원, 특수법인인 의료기관을 별도로 구분한 것이다.

<표 6-32> 의료서비스 이용 변수

구분	서비스 유형	의료기관 유형	서비스 영역	변수
이용경험 (수급률)	치료 서비스	전체 의료기관	외래	연간 외래 방문건수가 한건 이상
			입원 응급	연간 입원건수가 한건 이상 연간 방문건수가 한건 이상
		상급 종합병원	외래	연간 외래 방문건수가 한건 이상
			입원 응급	연간 입원건수가 한건 이상 연간 방문건수가 한건 이상
	예방 서비스	전체		지난 2년간 국가건강검진 수급
의료이용	이용량	전체 의료기관	외래	연간 외래방문횟수
			입원	연간 입원건수, 연간 입원재원일수
		상급 종합병원	외래	연간 외래방문횟수
			입원	연간 입원건수, 연간 입원재원일수
		공공 의료기관	외래	연간 외래방문횟수
			입원	연간 입원건수, 연간 입원 재원일수
	진료비	전체 의료기관	외래	외래 총 요양급여비용
			입원	입원 총 요양급여비용
		상급 종합병원	외래	외래 총 요양급여비용
			입원	입원 총 요양급여비용
		공공 의료기관	외래	외래 총 요양급여비용
			입원	입원 총 요양급여비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개인의 특성을 구분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동반상병지수(CCI) 그룹, 고액질환 이 사용되었다.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17개 질환군의 중증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고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총점을 0, 1, 2, 3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 개수는 0에서 최대 10개의 값을 가지며, 이들 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이다. 고액진료비 질환으로 분

류되는 질병사인코드와 질환명은 다음 표와 같다. 소득수준은 1차소득 10구간을 적용했고 필요에 따라 거주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또는 행정구역 단위(시, 군, 구)를 적용하여 의료이용을 비교하였다.

<표 6-33> 건강보험 고액진료비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사인코드와 질환명

질병코드	질환명
c91_c95	백혈병
c88_c90_c96	기타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b20_b24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c25	췌장의 악성신생물
c82_c86	비호지킨 림프종
c71	뇌의 악성신생물
n17_n19	신부전증
g80_g83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c33_c34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22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가구 단위 분석에서는 주요한 특성별로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전체 지출에서 의료비용이 차지하는 크기가 과부담이 되는 경우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과부담 의료비는 기초생계지출로 간주되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액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표본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료품비 정보의 부재로 가구당 균등화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본인부담액의 비율로 과부담 의료비 가구 비율을 추산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총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원수 보정 가구소득(균등화 소득)을 사용하고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를 균등화 가처분소득으로 하고 분자로 적용되는 의료비지출은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입원과 외래 진료비 중 직접본인부담비용만 적용하였다.

## 2. 건강보험 의료 이용자 특성

### 가. 의료기관 이용 현황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①외래방문일수 합, ②입원건수 합, ③입원환자의 재원일수 합을 기준으로 특성에 따른 내부 구성을 확인하였다.

26) 의료비 과부담 = 의료비지출/(소비지출-식료품비)  $\geq$  0.4

&lt;표 6-34&gt; 대상자 특성별 전체 의료기관 의료 이용 분포와 비율

구분			분포(천일 또는 천건)			비율(단위: %)		
			전체 의료기관 합산			전체 의료기관		
특성	세분	표본(명)	외래방문일	입원건	입원재원일	외래방문일	입원건	입원재원일
성별	남자	1,489,851	18,440	423	4,442	44.3	46.6	45.1
	여자	1,432,384	23,228	486	5,402	55.7	53.4	54.9
연령	0-5	159,268	4,326	86	369	10.4	9.5	3.7
	6-13	223,913	2,834	29	123	6.8	3.2	1.2
	14-19	205,473	1,488	21	116	3.6	2.3	1.2
	20-29	395,567	2,632	51	296	6.3	5.6	3.0
	30-39	436,119	3,930	82	536	9.4	9.1	5.4
	40-49	492,296	4,970	103	943	11.9	11.3	9.6
	50-59	467,864	6,953	150	1,564	16.7	16.6	15.9
	60-64	179,952	3,631	72	801	8.7	8.0	8.1
	65-74	212,954	6,143	119	1,477	14.7	13.1	15.0
	75-	148,829	4,763	194	3,618	11.4	21.3	36.8
장애	있음	181,521	3,901	135	2,103	9.4	14.9	21.4
	없음	2,740,714	37,767	774	7,740	90.6	85.1	78.6
CCI*	0	1,660,916	13,082	203	1,508	31.4	22.3	15.3
	1	371,260	6,591	110	522	15.8	12.1	5.3
	2	406,134	7,186	133	1,605	17.2	14.7	16.3
	3<=	483,925	14,809	463	6,209	35.5	51.0	63.1
소득10분위_개인 (1차소득 기준)	1-2분위	413,591	8,098	275	4,197	9.4	6.8	2.9
	3분위	286,294	4,320	97	1,010	10.2	8.3	8.8
	4분위	309,912	4,355	90	892	21.1	28.7	34.2
	5분위	307,595	4,255	83	790	11.5	17.0	23.1
	6분위	311,412	4,217	80	671	6.1	6.0	5.6
	7분위	321,499	4,276	79	628	6.2	5.6	4.9
	8분위	325,004	4,167	72	575	6.1	5.2	4.3
	9분위	325,612	4,044	69	562	6.0	5.0	3.7
	10분위	321,299	3,935	63	518	6.1	4.9	3.5
계		2,922,235	41,668	909	9,844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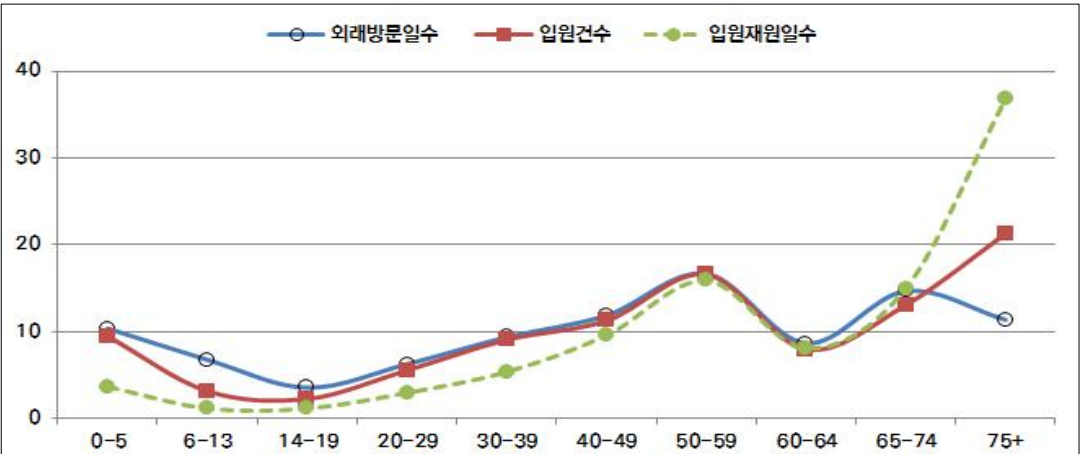
주: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17개 질환군의 중증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고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총점을 0, 1, 2, 3이상으로 범주화함. 동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가 높을수록 의료필요도가 높다고 간주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위의 표에서 제시된 연령구간별, 소득구간별 의료이용 비중의 변화를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세미만 아동기에 외래 방문건수가 높았다가 청소년기에는 감소한다. 이후 50대까지 점증하여 50대 중반에 최고 수준에 이른 후 60대 전반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외래방문일수는 감소하지만 입원건수와 입원재원일수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75세 이후까지 입원 재원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기에는 외래 방문일수가 가장 높으면서 입원재원일수가 낮았는데,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외래 방문일수가 60-64세 보다 감소하고 입원재원일수는 상당한 폭의 차이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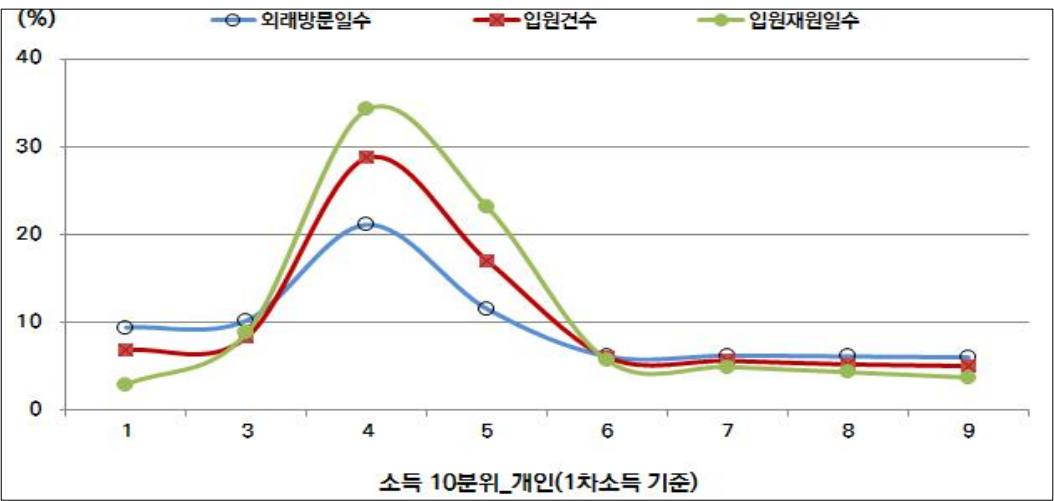
[그림 6-2] 의료이용 변수별 연령 구간별 합계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 구간별로 의료이용 변수의 합계 비중을 보면, 4분위에서 모든 의료이용 변수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 대부분 6분위 미만 그룹에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6-3] 의료이용 변수별 소득 10분위 구간별 합계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은 기타 종별에 비해 난이도 높은 중증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에서 소득계층 간 차이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보다 좁아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로 환자구성의 동질성이 확보된다면 소득계층 간 이용의 격차는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표 6-35> 대상자 특성별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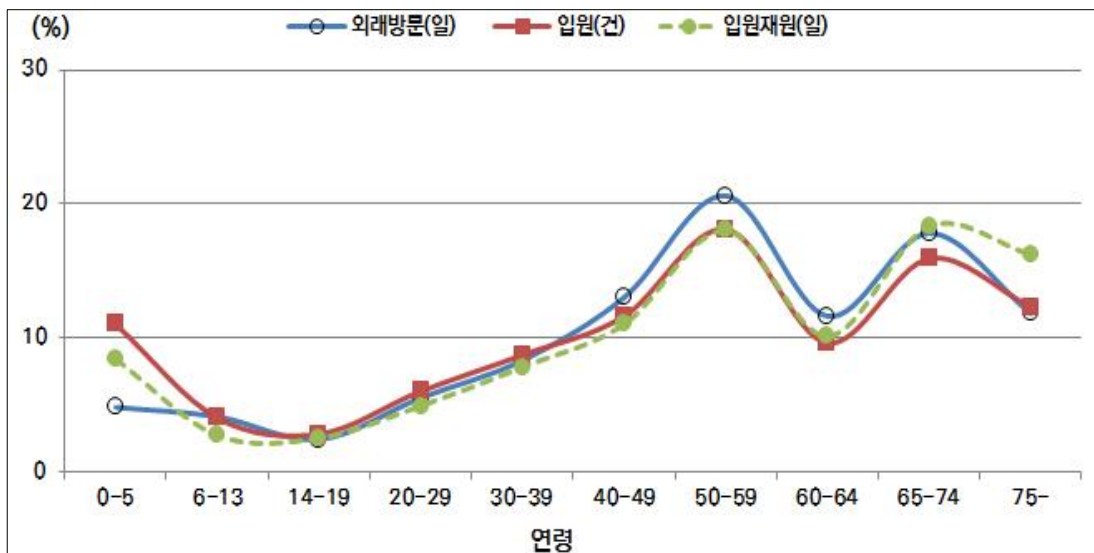
구분			분포(단위: 천일 또는 천건)			비율(단위: %)		
			상급종합병원(합계)			상급종합병원(합계)		
특성	세분	표본수	외래방문일	입원건수	입원재원일	외래방문일	입원건수	입원재원일
성별	남자	1,489,851	1,048	71	407	44.3	46.6	45.1
	여자	1,432,384	1,189	70	395	55.7	53.4	54.9
연령	0-5	159,268	108	15	68	10.4	9.5	3.7
	6-13	223,913	92	6	22	6.8	3.2	1.2
	14-19	205,473	53	4	20	3.6	2.3	1.2
	20-29	395,567	124	8	39	6.3	5.6	3
	30-39	436,119	185	12	63	9.4	9.1	5.4
	40-49	492,296	292	16	88	11.9	11.3	9.6
	50-59	467,864	460	25	145	16.7	16.6	15.9
	60-64	179,952	260	14	81	8.7	8	8.1
	65-74	212,954	399	22	147	14.7	13.1	15
	75-	148,829	264	17	130	11.4	21.3	36.8
장애	있음	181,521	251	15	113	9.4	14.9	21.4
	없음	2,740,714	1,986	125	690	90.6	85.1	78.6
CCI*	0	1,660,916	419	24	101	18.7	17.0	12.5
	1	371,260	193	17	68	8.6	12.2	8.4
	2	406,134	332	15	73	14.8	10.9	9.1
	3<=	483,925	1,293	84	561	57.8	59.9	69.9
소득10분위_개인 (1차소득 기준)	1-2분위	413,591	393	28	201	9.4	6.8	2.9
	3분위	286,294	224	15	94	10.2	8.3	8.8
	4분위	309,912	223	15	84	21.1	28.7	34.2
	5분위	307,595	207	13	74	11.5	17	23.1
	6분위	311,412	203	14	73	6.1	6	5.6
	7분위	321,499	200	13	67	6.2	5.6	4.9
	8분위	325,004	212	13	67	6.1	5.2	4.3
	9분위	325,612	236	14	66	6	5	3.7
	10분위	321,299	338	16	76	6.1	4.9	3.5
계		2,922,235	2,237	140	802	100	100	100

주: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는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17개 질환군의 중증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고 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총점을 0, 1, 2, 3이상으로 범주화함. 동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가 높을수록 의료필요도가 높다고 간주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울러, 의료이용 변수별로 총합의 연령구간 구성비를 보면, 5세 미만, 50대, 70세 전후 시기에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주기를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상 75세 이후에는 이용변수 감소세를 보여 전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와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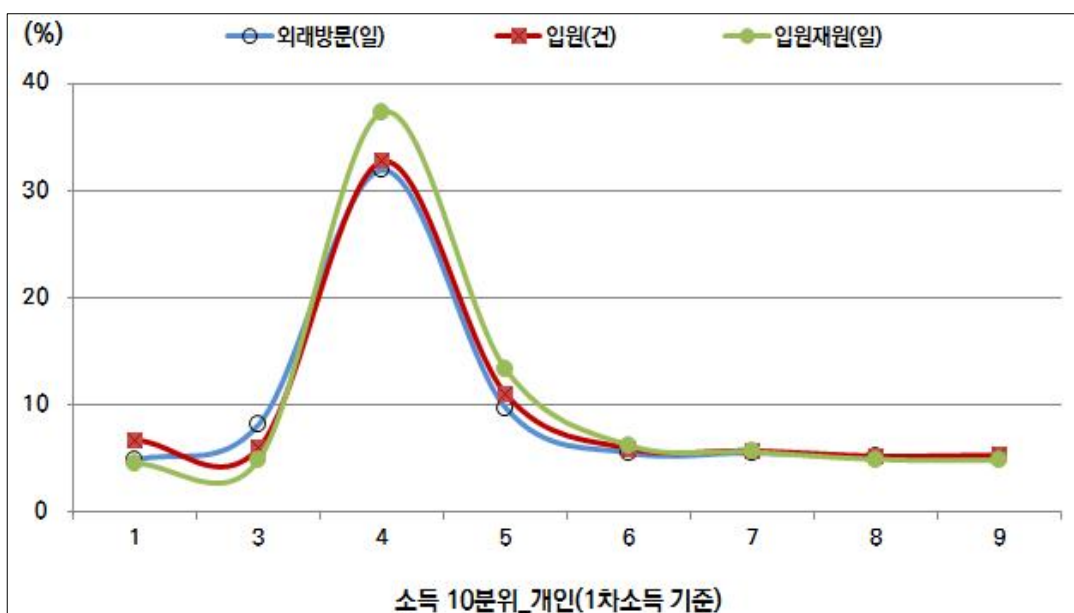
[그림 6-4]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령구간별 의료이용 변수 합계의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아울러, 전체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4분위에 집중된 봉우리의 폭이 좁아진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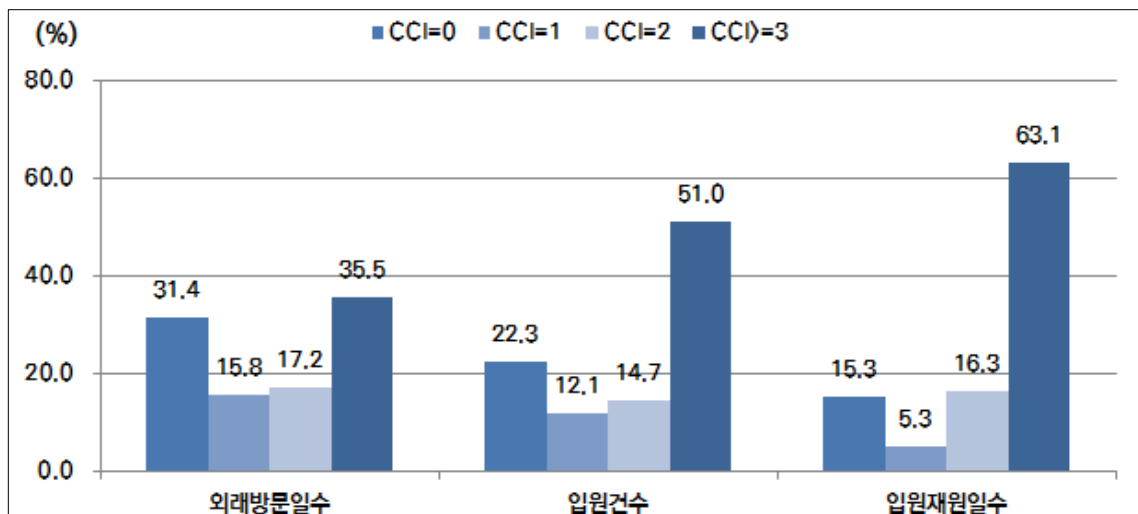
[그림 6-5] 상급종합병원에서 소득 10분위 구간별 의료이용변수 합계의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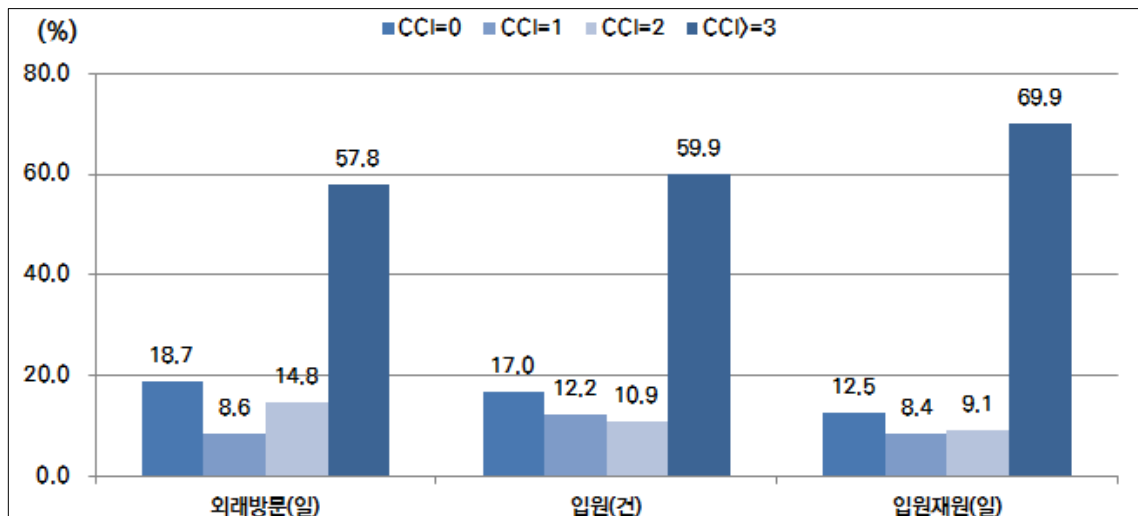
주요 의료이용변수별로 전체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반상병지수별 비중을 비교하면, 지수가 낮은 그룹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 비중이 낮아지고,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가정: 의료필요도가 높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에서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 비중이 높아졌다.

[그림 6-6] 전체의료기관에서 동반상병지수(CCI)에 따른 의료이용변수 합계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7] 상급종합병원에서 동반상병지수(CCI)에 따른 의료이용변수 합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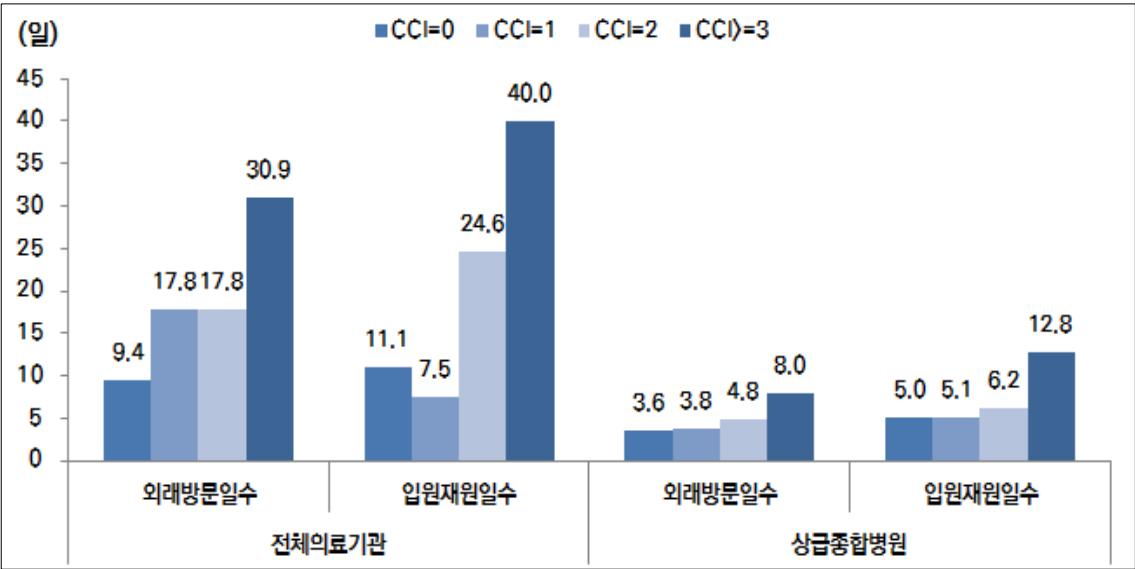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CCI(동반상병지수)가 3이상인 경우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급종합병원에서 CCI 수준과 의료이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CCI가 3이상인 환자들의 의료이용 수준이 높다.

전체의료기관에서 CCI와 의료이용 수준의 선형적 관련성은 약해진다. 이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중증도의 차이 뿐 아니라 비효율적 의료결정이 반영된 결과 일 수 있다.

[그림 6-8]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연간 일인당 외래방문일수와 입원재원일수 비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나. 의료기관 진료비 현황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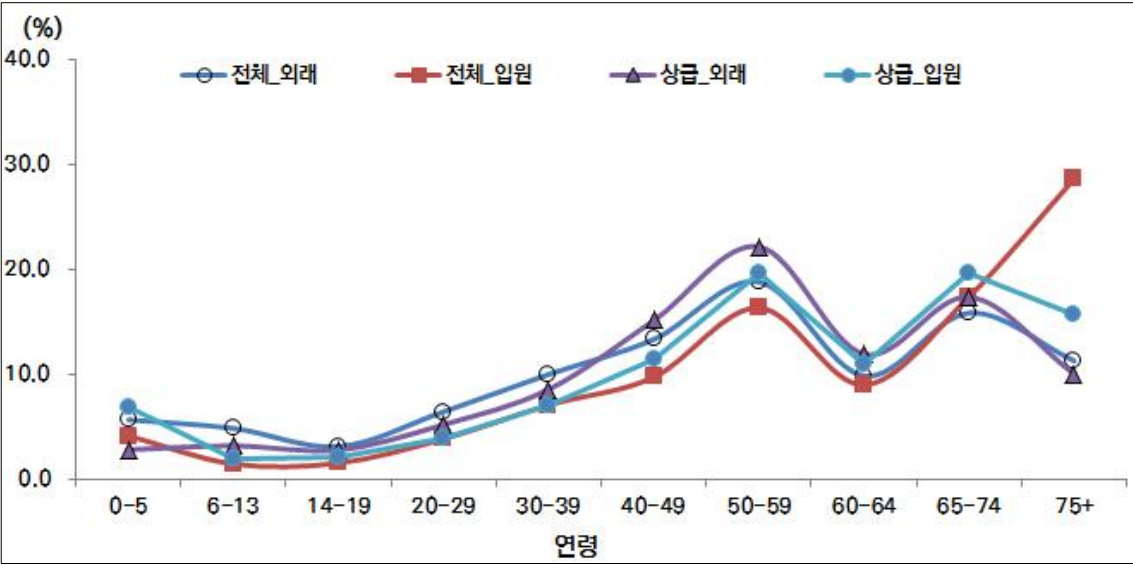
&lt;표 6-36&gt; 이용자 특성별 의료비 현황

구분		금액(단위: 백만원)				비율(단위: %)			
		전체 의료기관(합계)		상급종합병원(합계)		전체 의료기관(합계)		상급종합병원(합계)	
특성	세분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성별	남자	568,579	639,787	107,862	183,827	46.2	46.6	49.9	53.3
	여자	660,939	734,243	108,206	161,040	53.8	53.4	50.1	46.7
연령	0-5	70,825	58,241	6,282	23,741	5.8	4.2	2.9	6.9
	6-13	60,790	21,504	7,102	6,992	4.9	1.6	3.3	2.0
	14-19	39,605	22,535	6,240	7,687	3.2	1.6	2.9	2.2
	20-29	80,217	54,272	11,465	13,963	6.5	3.9	5.3	4.0
	30-39	123,967	98,561	18,705	24,768	10.1	7.2	8.7	7.2
	40-49	164,839	134,877	32,861	39,539	13.4	9.8	15.2	11.5
	50-59	231,972	225,375	48,007	68,041	18.9	16.4	22.2	19.7
	60-64	122,107	124,638	25,920	37,810	9.9	9.1	12.0	11.0
	65-74	195,561	240,151	37,663	67,913	15.9	17.5	17.4	19.7
	75-	139,636	393,875	21,825	54,413	11.4	28.7	10.1	15.8
장애	있음	155,766	243,584	31,095	48,640	12.7	17.7	14.4	14.1
	없음	1,073,753	1,130,446	184,974	296,228	87.3	82.3	85.6	85.9
CCI*	0	326,277	198,032	29,916	36,556	26.5	14.4	13.8	10.6
	1	141,300	83,268	15,234	21,375	11.5	6.1	7.1	6.2
	2	194,462	179,651	25,699	31,212	15.8	13.1	11.9	9.1
	3<=	567,480	913,080	145,219	255,725	46.2	66.5	67.2	74.2
소득10분위_개인 (1차소득 기준)	1-2분위	256,417	463,412	42,294	84,099	6.6	3.3	3.8	3.3
	3분위	131,355	154,494	23,042	41,603	9.1	7.0	6.4	4.8
	4분위	129,432	138,259	22,483	37,193	26.6	35.8	36.1	39.2
	5분위	122,225	123,739	19,465	32,971	12.0	18.2	10.5	12.9
	6분위	118,171	110,366	19,541	31,852	6.2	6.1	5.7	6.4
	7분위	118,929	103,064	18,821	28,676	6.1	5.4	5.6	5.7
	8분위	116,836	96,108	20,091	27,684	5.7	4.9	4.8	5.0
	9분위	116,427	93,245	21,515	27,579	5.5	4.3	4.9	4.9
	10분위	119,722	91,344	28,817	33,209	5.6	4.0	4.7	4.4
계		1,229,514	1,374,030	216,068	344,868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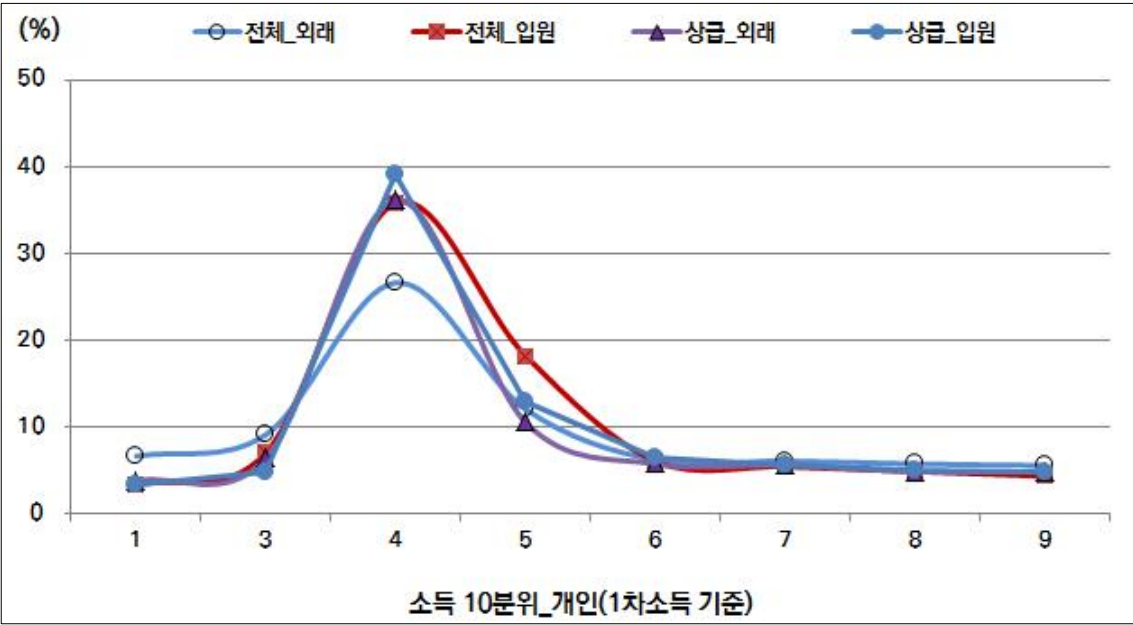
연령구간별로 의료비 지출 비중의 변화를 비교하면, 노인에서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 입원에 대한 지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9] 연령구간별 분야별 의료비 지출의 구성비(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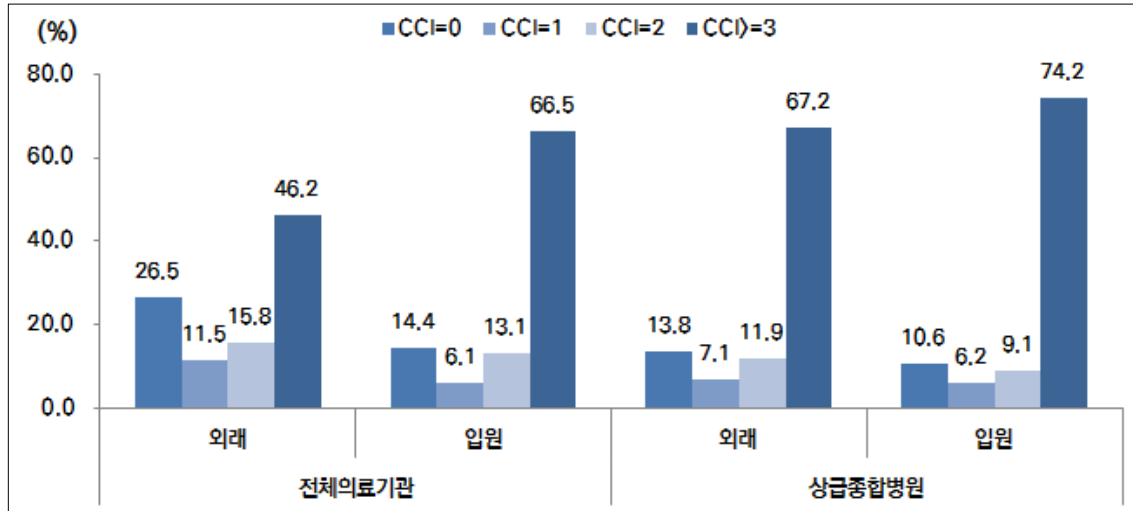
[그림 6-10] 소득 분위별 분야별 의료비 지출 구성비(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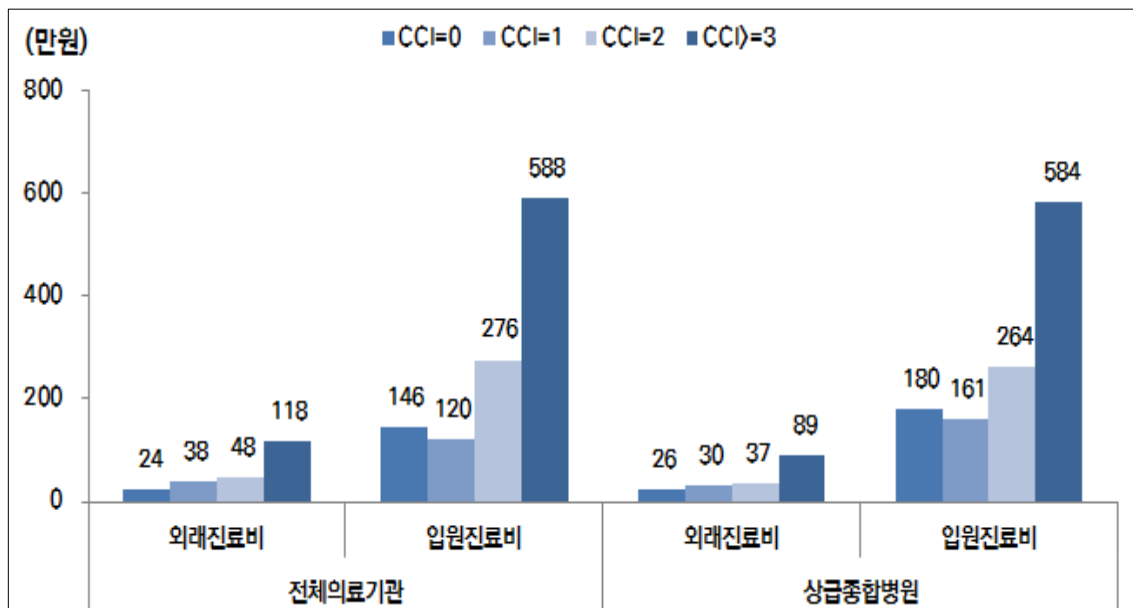
의료비 지출 비중의 연령구간별 비교에서 동반상병지수가 높은 집단의 의료비 지출이 높았던 경향이 의료이용에서 보다 강하게 확인되었다. 동반상병지수가 증가할수록 이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6-11]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연간 진료비 구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2] 동반상병지수에 따른 연간 일인당진료비 비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3. 소득과 주요 특성별 건강보험 서비스 수급 비교

#### 가. 개인의 소득과 주요 특성별 건강검진 수급자 현황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반영하면,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연령군은 40세 이상이고 가입자 유형에 따라 연령군의 포괄범위가 다르다.

□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검진으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
- (2)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 (3)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
- (4)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만 40세 ~ 64세 세대원

□ 5대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암 검진의 대상과 검진주기는 아래와 같음.

-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 (3)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전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 요양급여내역 중 간암 선정 상병코드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자
-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전체 표본 중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41%였다. 검진 수급자 비율을 소득 분위별로 비교하면,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 검진율이 높았다.

&lt;표 6-37&gt; 소득 분위별 건강검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표본(명)	검진자		
		명	행 %	열 %
1-2분위	122,510	122,510	4.2	10.2
3분위	93,776	93,776	3.2	7.8
4분위	103,004	103,004	3.5	8.6
5분위	118,929	118,929	4.1	9.9
6분위	130,643	130,643	4.5	10.9
7분위	145,158	145,158	5.0	12.1
8분위	157,385	157,385	5.4	13.2
9분위	165,412	165,412	5.7	13.8
10분위	159,972	159,972	5.5	13.4
계	1,196,789	1,196,789	41.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건강보험 데이터에는 청소년 건강검진 수급 정보와 민간 부담으로 받는 건강검진 정보가 제외되어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검진대상이 만 19세 이상이고 직장가입자는 전체가 검진대상임을 고려할 때 20세 이상의 연령 군에 있어서 검진율의 비교가 의미가 있다. 소득과 연령 구간별로 건강검진 수급율을 비교해 보면, 14-19세 구간부터 검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lt;표 6-38&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지난 2년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분포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8	3,507	5,019	20,837	25,015	16,145	30,517	21,462	122,510
3분위			70	1,636	3,724	19,849	23,930	15,343	21,533	7,691	93,776
4분위			156	3,413	6,630	25,897	26,666	14,937	18,906	6,399	103,004
5분위			203	6,770	10,781	27,923	30,788	17,499	20,121	4,844	118,929
6분위			294	12,203	19,822	31,241	32,770	16,050	14,648	3,615	130,643
7분위			286	16,552	30,562	36,913	33,287	14,029	10,767	2,762	145,158
8분위			291	18,701	36,915	44,046	35,102	11,232	8,323	2,775	157,385
9분위			187	19,088	38,632	47,545	41,359	9,015	6,609	2,977	165,412
10분위			65	14,738	31,481	46,271	48,869	9,325	6,399	2,824	159,972
계			1,560	96,608	183,566	300,522	297,786	123,575	137,823	55,349	1,196,7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수급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0에서 75세 미만의 연령 구간에서 그 경향성이 뚜렷했다. 40세 이상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검진율이 높아지지만 대체로 이하 연령보다 검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생애주기에서 40세 이상 연령군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주요 대상연령이기 때문이다.

&lt;표 6-39&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지난 2년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비율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0.0	10.8	13.6	<b>34.6</b>	<b>40.2</b>	<b>52.9</b>	<b>49.0</b>	31.6	29.6
3분위			0.3	4.8	11.7	<b>43.3</b>	<b>51.8</b>	<b>65.0</b>	<b>67.9</b>	44.0	32.8
4분위			0.6	8.4	16.6	<b>49.6</b>	<b>55.8</b>	<b>68.0</b>	<b>70.3</b>	44.0	33.2
5분위			0.9	15.3	25.8	<b>57.1</b>	<b>62.7</b>	<b>73.4</b>	<b>75.2</b>	43.7	38.7
6분위			1.5	25.2	38.5	<b>64.5</b>	<b>67.2</b>	<b>75.1</b>	<b>75.7</b>	42.6	42.0
7분위			1.5	34.2	49.0	<b>71.1</b>	<b>71.5</b>	<b>77.1</b>	<b>74.4</b>	39.7	45.2
8분위			1.3	38.8	57.7	<b>75.5</b>	<b>75.3</b>	<b>76.3</b>	<b>72.0</b>	40.3	48.4
9분위			0.8	37.6	64.5	<b>76.4</b>	<b>77.6</b>	<b>75.7</b>	<b>69.8</b>	39.0	50.8
10분위			0.3	30.5	65.7	<b>71.9</b>	<b>72.7</b>	<b>67.3</b>	<b>61.3</b>	35.8	49.8
계			0.8	24.4	42.1	<b>61.0</b>	<b>63.6</b>	<b>68.7</b>	<b>64.7</b>	37.2	4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과 재산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분포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높아질수록 검진율이 높아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10분위 이하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검진율이 높아진다.

&lt;표 6-40&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분포

(단위: 명)

재산 소득	1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50,279	3,478	19,733	12,557	9,569	9,305	9,264	8,325	122,510
3분위	25,306	1,597	12,613	11,865	10,597	10,579	11,395	9,824	93,776
4분위	28,400	1,536	12,678	12,814	11,545	11,072	11,810	13,149	103,004
5분위	33,204	1,657	14,450	15,950	14,065	13,220	13,223	13,160	118,929
6분위	37,223	1,601	15,590	18,625	16,262	14,712	13,551	13,079	130,643
7분위	40,197	1,631	15,808	21,668	20,483	17,262	15,403	12,706	145,158
8분위	39,444	1,387	14,498	22,364	24,658	22,167	18,617	14,250	157,385
9분위	34,851	1,027	11,755	18,839	26,312	28,631	25,231	18,766	165,412
10분위	22,827	679	6,143	8,869	16,302	27,063	35,632	42,457	159,972
계	311,731	14,593	123,268	143,551	149,793	154,011	154,126	145,716	1,196,7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41&gt;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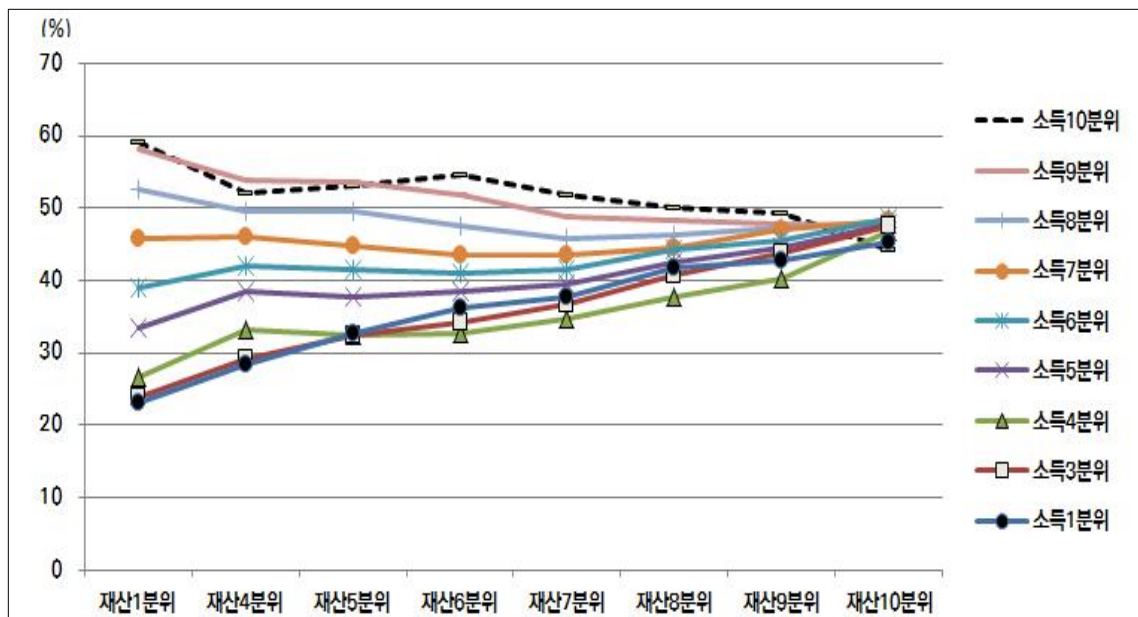
(단위: %)

재산 소득	1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23.0	28.4	32.6	36.1	37.8	41.7	42.6	45.3	29.6
3분위	23.9	29.2	32.5	34.2	36.7	40.8	43.7	47.6	32.8
4분위	26.6	33.1	32.4	32.6	34.6	37.7	40.2	46.8	33.2
5분위	33.5	38.4	37.6	38.4	39.5	42.4	44.6	47.8	38.7
6분위	39.1	41.9	41.5	41.0	41.5	44.1	45.6	48.4	42.0
7분위	45.7	46.1	44.9	43.4	43.4	44.6	47.1	48.4	45.2
8분위	52.5	49.5	49.4	47.6	45.7	46.2	47.4	48.2	48.4
9분위	58.2	53.9	53.7	51.9	48.8	48.2	47.8	47.5	50.8
10분위	59.2	52.1	53.0	54.7	51.7	50.1	49.2	44.4	49.8
계	35.2	36.4	39.4	41.6	42.9	45.0	46.2	46.6	4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재산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는 소득 분위 간 검진 수급율의 차이가 컸다가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 분위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재산이 가장 높은 분위에서는 소득 분위별 검진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그림 6-1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건강보험 검진 수급자 비율(단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나. 개인의 소득과 주요 특성별 치료서비스 수급 현황

서비스 영역별 건강보험 청구가 한건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 경험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과 주요특성이 교차하는 세부 영역별 표본인구 기준 건강보험 치료서비스 수급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외래서비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연령군은 0~5세 구간이며, 가장 낮은 연령군은 20대이다. 소득 10분위는 모든 연령 구간에서 90%전후의 수급률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소득 1분위는 모든 연령군에서 수급률이 더 낮고 특히, 20~50대에서 그 차이가 크다.

&lt;표 6-42&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분포(전체 의료기관)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2,431	20,713	20,950	25,190	28,801	46,388	52,665	27,731	59,359	64,228	358,456
3분위	12,064	19,151	19,765	27,934	26,383	38,283	41,304	22,396	30,844	16,627	254,751
4분위	15,486	24,131	22,070	33,765	33,903	44,556	43,130	20,833	26,095	13,766	277,735
5분위	15,779	21,729	20,645	37,329	35,887	42,491	44,798	22,712	25,961	10,427	277,758
6분위	21,279	22,781	17,967	41,590	45,482	42,540	44,949	20,370	18,726	7,995	283,679
7분위	25,028	26,988	17,623	41,799	55,826	46,172	43,199	17,368	14,023	6,488	294,514
8분위	22,165	29,041	20,717	41,847	57,386	52,497	43,319	14,082	11,213	6,484	298,751
9분위	18,210	26,534	22,663	43,945	53,993	56,492	49,960	11,412	9,192	7,156	299,557
10분위	12,962	23,069	22,088	41,544	43,100	58,419	63,139	13,349	10,155	7,328	295,153
계	155,404	214,137	184,488	334,943	380,761	427,838	426,463	170,253	205,568	140,499	2,640,35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43&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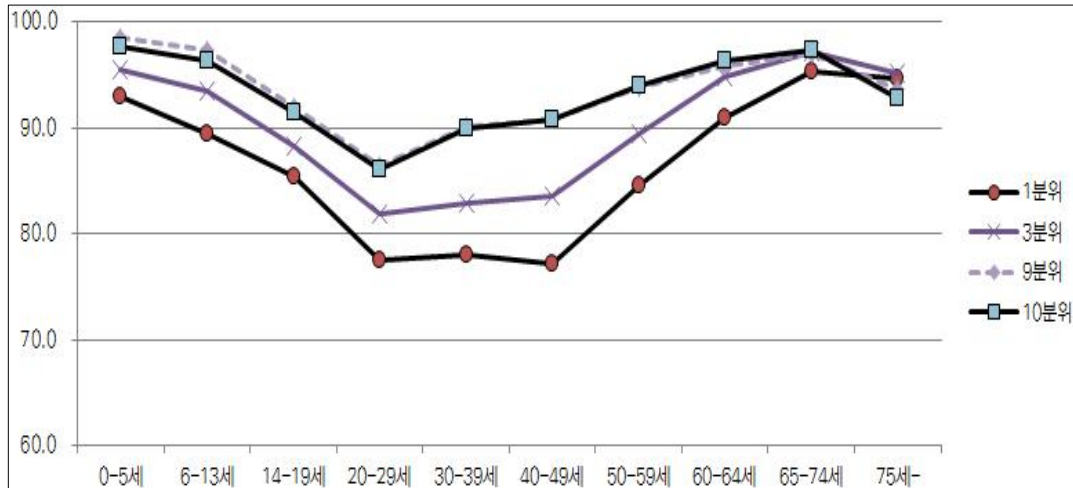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93.0	89.4	85.4	77.5	78.1	77.1	84.5	90.9	95.3	94.6	86.7
3분위	95.4	93.5	88.3	81.8	82.9	83.5	89.4	94.9	97.3	95.2	89.0
4분위	96.8	95.2	89.3	83.3	84.9	85.3	90.3	94.8	97.0	94.7	89.6
5분위	97.7	95.9	90.0	84.1	85.9	86.9	91.2	95.3	97.1	94.1	90.3
6분위	98.4	96.7	90.1	85.9	88.3	87.9	92.2	95.3	96.7	94.3	91.1
7분위	98.9	97.2	90.2	86.5	89.5	88.9	92.7	95.5	96.9	93.2	91.6
8분위	98.8	97.6	91.5	86.9	89.7	90.0	93.0	95.7	97.1	94.1	91.9
9분위	98.6	97.4	91.9	86.5	90.1	90.8	93.7	95.8	97.1	93.7	92.0
10분위	97.7	96.4	91.5	86.1	89.9	90.8	93.9	96.3	97.3	92.9	91.9
계	97.6	95.6	89.8	84.7	87.3	86.9	91.2	94.6	96.5	94.4	90.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4]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전체 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수급율이 가장 높은 연령군은 0~5세 구간과 75세 이상 구간이며, 가장 낮은 연령군은 14~19세이다. 입원서비스에서 소득 분위 간 차이는 외래서비스에서 보다 적으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연령구간은 50대와 60대이다.

&lt;표 6-44&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분포(전체 의료기관)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4,209	2,099	2,115	3,267	4,936	7,768	11,512	6,788	15,985	22,880	81,559
3분위	4,040	1,957	1,817	3,330	4,177	5,422	7,243	4,457	7,110	5,315	44,868
4분위	5,228	2,256	1,909	3,979	5,225	5,732	7,275	3,868	5,675	4,318	45,465
5분위	5,507	1,928	1,673	4,262	5,380	5,236	7,201	3,975	5,137	3,441	43,740
6분위	7,596	2,146	1,385	4,728	6,958	5,001	7,042	3,436	3,671	2,587	44,550
7분위	8,665	2,534	1,351	4,433	8,261	5,449	6,623	2,881	2,783	2,284	45,264
8분위	7,293	2,514	1,429	4,364	7,921	5,898	6,611	2,286	2,349	2,204	42,869
9분위	5,692	2,244	1,496	4,246	7,265	6,105	7,127	1,826	2,002	2,573	40,576
10분위	3,555	1,661	1,411	3,607	5,342	5,850	8,423	2,050	2,097	2,683	36,679
계	51,785	19,339	14,586	36,216	55,465	52,461	69,057	31,567	46,809	48,285	425,5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외래서비스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았으나 입원서비스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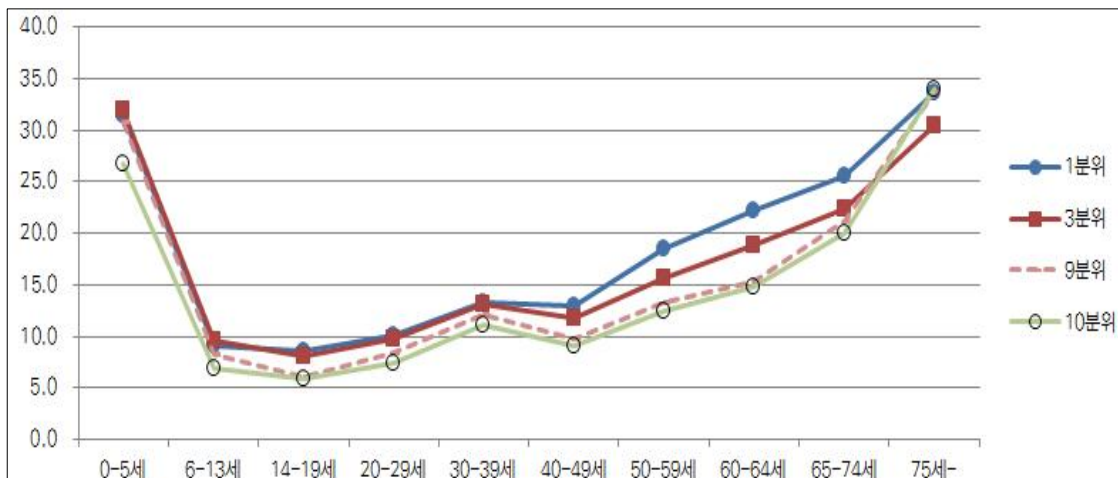
&lt;표 6-45&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31.5	9.1	8.6	10.1	13.4	12.9	18.5	22.2	25.7	33.7	19.7
3분위	32.0	9.6	8.1	9.8	13.1	11.8	15.7	18.9	22.4	30.4	15.7
4분위	32.7	8.9	7.7	9.8	13.1	11.0	15.2	17.6	21.1	29.7	14.7
5분위	34.1	8.5	7.3	9.6	12.9	10.7	14.7	16.7	19.2	31.1	14.2
6분위	35.1	9.1	6.9	9.8	13.5	10.3	14.4	16.1	19.0	30.5	14.3
7분위	34.2	9.1	6.9	9.2	13.2	10.5	14.2	15.8	19.2	32.8	14.1
8분위	32.5	8.4	6.3	9.1	12.4	10.1	14.2	15.5	20.3	32.0	13.2
9분위	30.8	8.2	6.1	8.4	12.1	9.8	13.4	15.3	21.1	33.7	12.5
10분위	26.8	6.9	5.8	7.5	11.1	9.1	12.5	14.8	20.1	34.0	11.4
계	32.5	8.6	7.1	9.2	12.7	10.7	14.8	17.5	22.0	32.4	1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전체 의료기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건강보험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1단계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료를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2단계 진료 장소로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엄격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중증질환자만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단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고가 장비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많아 환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장소이기도 한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서비스에 대한 수급율을 비교하면, 소득 10분위에서 수급율이 모든 연령 분위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폭이 증가하고 있다.

&lt;표 6-46&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분포(상급종합요양기관)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876	1,720	1,445	2,132	2,747	5,445	8,448	5,763	13,887	13,489	56,952
3분위	1,863	1,679	1,303	2,454	2,400	4,132	6,692	4,896	8,192	4,136	37,747
4분위	2,642	2,193	1,427	2,873	2,963	4,699	6,986	4,574	7,039	3,659	39,055
5분위	2,649	1,997	1,286	3,102	3,180	4,424	7,226	4,916	6,487	2,542	37,809
6분위	3,802	2,308	1,196	3,433	3,986	4,601	7,418	4,477	4,915	2,117	38,253
7분위	4,785	2,847	1,183	3,492	5,186	5,106	7,225	3,791	3,858	1,744	39,217
8분위	4,374	3,338	1,578	3,762	5,800	6,514	7,676	3,372	3,480	1,847	41,741
9분위	3,924	3,426	1,865	4,561	6,234	7,967	10,054	3,204	3,211	2,151	46,597
10분위	3,289	3,795	2,378	5,171	6,996	11,381	16,763	5,117	4,727	2,935	62,552
계	29,204	23,303	13,661	30,980	39,492	54,269	78,488	40,110	55,796	34,620	399,9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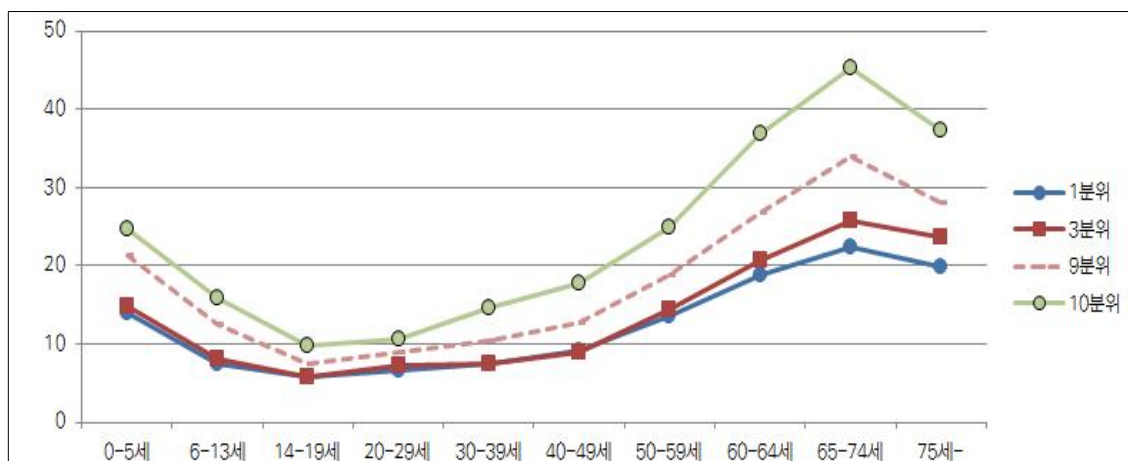
&lt;표 6-47&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4.0	7.4	5.9	6.6	7.4	9.1	13.6	18.9	22.3	19.9	13.8
3분위	14.7	8.2	5.8	7.2	7.5	9.0	14.5	20.7	25.8	23.7	13.2
4분위	16.5	8.7	5.8	7.1	7.4	9.0	14.6	20.8	26.2	25.2	12.6
5분위	16.4	8.8	5.6	7.0	7.6	9.0	14.7	20.6	24.3	22.9	12.3
6분위	17.6	9.8	6.0	7.1	7.7	9.5	15.2	21.0	25.4	25.0	12.3
7분위	18.9	10.3	6.1	7.2	8.3	9.8	15.5	20.8	26.7	25.1	12.2
8분위	19.5	11.2	7.0	7.8	9.1	11.2	16.5	22.9	30.1	26.8	12.8
9분위	21.2	12.6	7.6	9.0	10.4	12.8	18.9	26.9	33.9	28.2	14.3
10분위	24.8	15.9	9.8	10.7	14.6	17.7	24.9	36.9	45.3	37.2	19.5
계	18.3	10.4	6.6	7.8	9.1	11.0	16.8	22.3	26.2	23.3	13.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6]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상급종합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수급율을 비교하면, 입원 서비스 영역은 개인의 선호보다 의료 필요도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 분위 간 차이가 외래서비스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러나 노인에서는 고소득층 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표 6-48>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분포(상급종합요양기관)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790	396	348	509	697	1,425	2,214	1,429	3,635	4,286	15,729
3분위	714	403	310	542	616	1,008	1,455	1,049	1,887	1,196	9,180
4분위	993	403	334	690	684	1,078	1,456	934	1,524	999	9,095
5분위	1,025	366	292	649	747	919	1,468	917	1,360	730	8,473
6분위	1,507	426	231	792	973	923	1,446	863	1,045	583	8,789
7분위	1,848	512	236	698	1,178	993	1,378	690	718	479	8,730
8분위	1,560	598	295	782	1,235	1,170	1,454	597	686	500	8,877
9분위	1,378	609	343	901	1,352	1,323	1,722	542	655	605	9,430
10분위	1,095	539	428	938	1,270	1,624	2,515	793	898	773	10,873
계	10,910	4,252	2,817	6,501	8,752	10,463	15,108	7,814	12,408	10,151	89,1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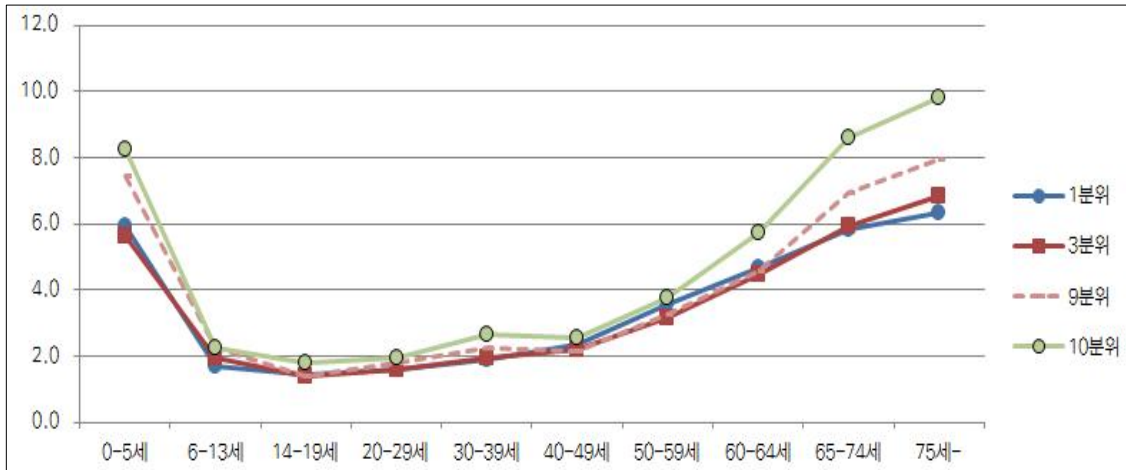
<표 6-49>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5.9	1.7	1.4	1.6	1.9	2.4	3.6	4.7	5.8	6.3	3.8
3분위	5.6	2.0	1.4	1.6	1.9	2.2	3.1	4.4	5.9	6.8	3.2
4분위	6.2	1.6	1.4	1.7	1.7	2.1	3.0	4.3	5.7	6.9	2.9
5분위	6.3	1.6	1.3	1.5	1.8	1.9	3.0	3.8	5.1	6.6	2.8
6분위	7.0	1.8	1.2	1.6	1.9	1.9	3.0	4.0	5.4	6.9	2.8
7분위	7.3	1.8	1.2	1.4	1.9	1.9	3.0	3.8	5.0	6.9	2.7
8분위	7.0	2.0	1.3	1.6	1.9	2.0	3.1	4.1	5.9	7.3	2.7
9분위	7.5	2.2	1.4	1.8	2.3	2.1	3.2	4.5	6.9	7.9	2.9
10분위	8.3	2.3	1.8	1.9	2.7	2.5	3.7	5.7	8.6	9.8	3.4
계	6.9	1.9	1.4	1.6	2.0	2.1	3.2	4.3	5.8	6.8	3.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7] 소득\*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상급종합요양기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공공의료기관 외래 서비스에서 수급율을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와 달리 공공의료기관 외래 이용에서는 고소득자는 낮고 저소득자의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만 공공의료기관 이용 비율을 비교하면, 1분위에서 18.9%, 10분위 3.4%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연령구간 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lt;표 6-50&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분포(공공의료기관)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570	2,010	1,738	2,815	3,376	6,360	10,054	6,742	19,760	23,732	78,157
3분위	1,419	1,619	1,291	2,071	2,183	3,994	6,477	4,615	9,068	5,669	38,406
4분위	1,713	1,862	1,310	2,278	2,481	4,023	6,061	4,134	7,309	4,332	35,503
5분위	1,639	1,584	1,076	2,445	2,501	3,542	5,976	4,302	6,678	3,133	32,876
6분위	2,150	1,764	940	2,605	2,892	3,524	5,644	3,593	4,724	2,252	30,088
7분위	2,688	2,060	918	2,460	3,532	3,505	5,213	3,051	3,496	1,917	28,840
8분위	2,320	2,186	1,068	2,541	3,755	4,442	5,445	2,369	2,826	1,889	28,841
9분위	1,976	1,960	1,191	2,804	3,713	4,913	6,965	2,043	2,440	2,188	30,193
10분위	1,095	539	428	938	1,270	1,624	2,515	793	898	773	10,873
계	16,570	15,584	9,960	20,957	25,703	35,927	54,350	31,642	57,199	45,885	313,77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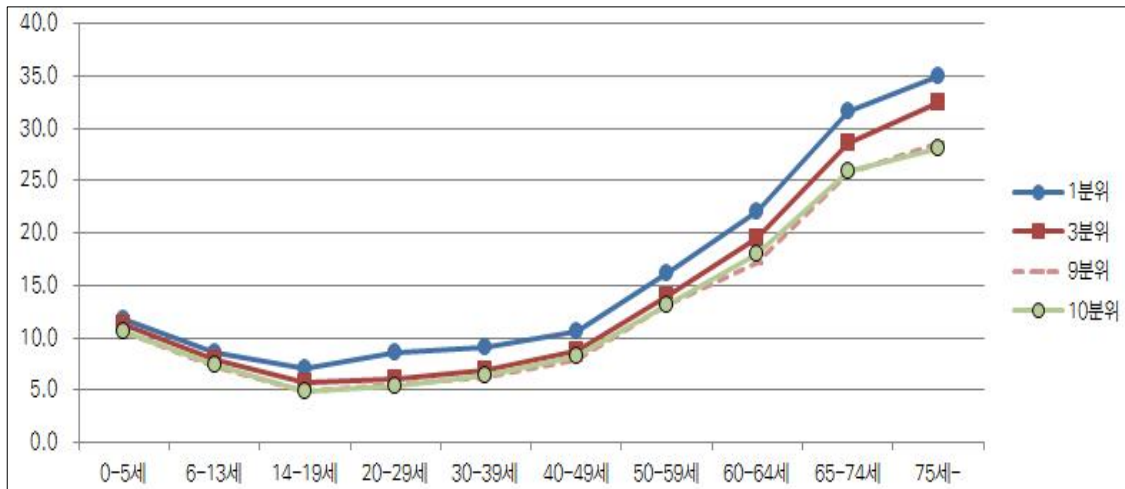
&lt;표 6-51&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1.8	8.7	7.1	8.7	9.1	10.6	16.1	22.1	31.7	35.0	18.9
3분위	11.2	7.9	5.8	6.1	6.9	8.7	14.0	19.6	28.6	32.4	13.4
4분위	10.7	7.3	5.3	5.6	6.2	7.7	12.7	18.8	27.2	29.8	11.5
5분위	10.1	7.0	4.7	5.5	6.0	7.2	12.2	18.1	25.0	28.3	10.7
6분위	9.9	7.5	4.7	5.4	5.6	7.3	11.6	16.8	24.4	26.6	9.7
7분위	10.6	7.4	4.7	5.1	5.7	6.8	11.2	16.8	24.2	27.5	9.0
8분위	10.3	7.3	4.7	5.3	5.9	7.6	11.7	16.1	24.5	27.4	8.9
9분위	10.7	7.2	4.8	5.5	6.2	7.9	13.1	17.1	25.8	28.6	9.3
10분위	8.3	2.3	1.8	1.9	2.7	2.5	3.7	5.7	8.6	9.8	3.4
계	10.4	7.0	4.8	5.3	5.9	7.3	11.6	17.6	26.9	30.8	10.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8] 소득 분위별 연령별 외래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공공의료기관 입원 서비스에서 수급율을 비교하면, 소득 1분위 노인인구의 수급율이 가장 높고 1분위를 제외한 기타 소득 분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다.

&lt;표 6-52&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분포(공공의료기관)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29	82	96	123	187	414	755	455	1,187	2,045	5,473
3분위	125	70	64	89	110	176	283	166	364	363	1,810
4분위	153	64	59	107	139	176	227	130	282	283	1,620
5분위	127	58	53	110	134	123	216	132	224	229	1,406
6분위	150	55	44	123	126	131	198	120	161	143	1,251
7분위	172	55	41	103	163	108	167	85	130	164	1,188
8분위	148	69	36	103	171	134	172	59	107	151	1,150
9분위	125	55	25	101	140	155	224	62	83	190	1,160
10분위	62	32	41	76	89	101	249	70	96	153	969
계	1,191	540	459	935	1,259	1,518	2,491	1,279	2,634	3,721	16,0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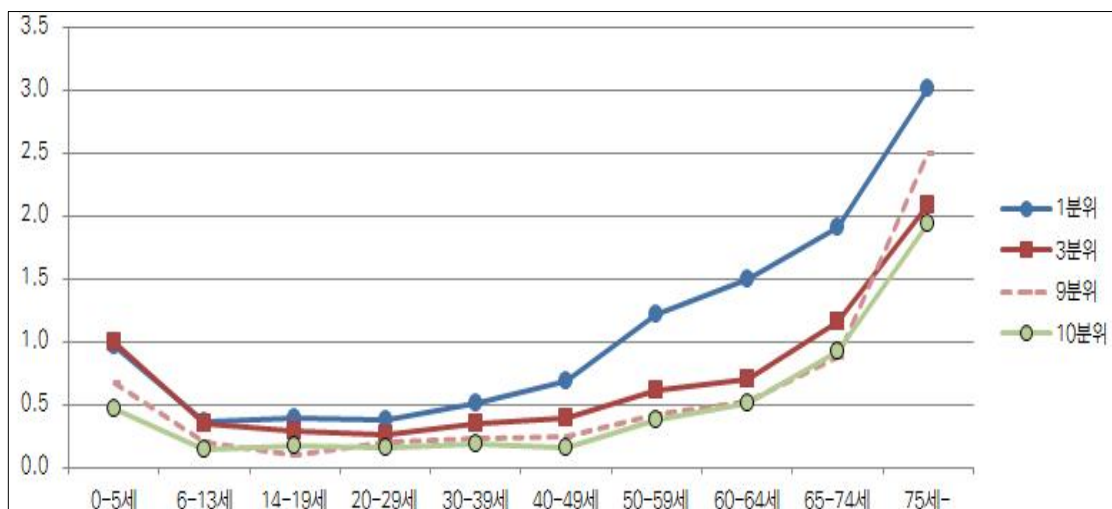
&lt;표 6-53&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0	0.4	0.4	0.4	0.5	0.7	1.2	1.5	1.9	3.0	1.3
3분위	1.0	0.3	0.3	0.3	0.3	0.4	0.6	0.7	1.1	2.1	0.6
4분위	1.0	0.3	0.2	0.3	0.3	0.3	0.5	0.6	1.0	1.9	0.5
5분위	0.8	0.3	0.2	0.2	0.3	0.3	0.4	0.6	0.8	2.1	0.5
6분위	0.7	0.2	0.2	0.3	0.2	0.3	0.4	0.6	0.8	1.7	0.4
7분위	0.7	0.2	0.2	0.2	0.3	0.2	0.4	0.5	0.9	2.4	0.4
8분위	0.7	0.2	0.2	0.2	0.3	0.2	0.4	0.4	0.9	2.2	0.4
9분위	0.7	0.2	0.1	0.2	0.2	0.2	0.4	0.5	0.9	2.5	0.4
10분위	0.5	0.1	0.2	0.2	0.2	0.2	0.4	0.5	0.9	1.9	0.3
계	0.7	0.2	0.2	0.2	0.3	0.3	0.5	0.7	1.2	2.5	0.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19]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응급실 수급율을 비교하면, 생애주기에서 응급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5세 미만이며, 75세 이상에서 이용률이 다음으로 높았다. 응급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소득 분위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응급실 이용률이 더 높았다. 그 차이가 더욱 큰 연령군은 40-60대이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외래 관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lt;표 6-54&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단위: 명)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3,064	2,142	1,915	2,424	2,975	4,658	6,177	3,202	7,247	11,131	44,935
3분위	2,907	2,026	1,706	2,444	2,362	3,142	3,776	1,941	2,982	2,484	25,770
4분위	3,780	2,456	1,825	3,005	2,789	3,380	3,729	1,765	2,476	1,957	27,162
5분위	3,743	2,224	1,584	3,043	2,975	3,076	3,692	1,799	2,251	1,591	25,978
6분위	5,162	2,358	1,361	3,408	3,591	2,969	3,439	1,632	1,581	1,184	26,685
7분위	6,077	2,725	1,330	3,298	4,201	3,035	3,281	1,315	1,215	1,072	27,549
8분위	5,170	2,894	1,500	3,350	4,053	3,432	3,311	1,076	1,015	1,007	26,808
9분위	4,280	2,728	1,700	3,464	3,862	3,497	3,588	888	872	1,146	26,025
10분위	3,041	2,274	1,560	3,097	3,022	3,415	4,449	1,078	1,001	1,333	24,270
계	37,224	21,827	14,481	27,533	29,830	30,604	35,442	14,696	20,640	22,905	255,18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55&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입원서비스 수급자 비율(공공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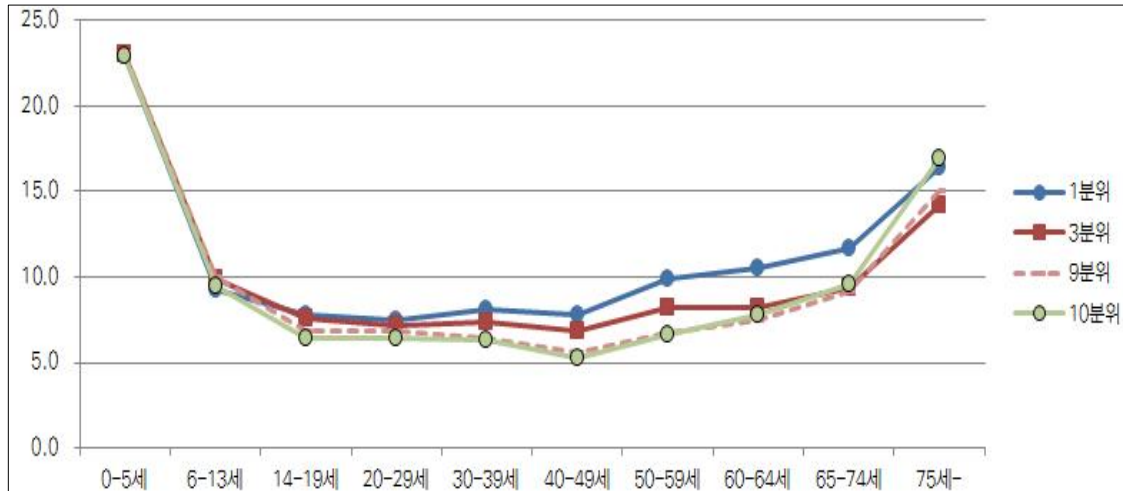
(단위: %)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22.9	9.3	7.8	7.5	8.1	7.7	9.9	10.5	11.6	16.4	10.9
3분위	23.0	9.9	7.6	7.2	7.4	6.9	8.2	8.2	9.4	14.2	9.0
4분위	23.6	9.7	7.4	7.4	7.0	6.5	7.8	8.0	9.2	13.5	8.8
5분위	23.2	9.8	6.9	6.9	7.1	6.3	7.5	7.6	8.4	14.4	8.4
6분위	23.9	10.0	6.8	7.0	7.0	6.1	7.1	7.6	8.2	14.0	8.6
7분위	24.0	9.8	6.8	6.8	6.7	5.8	7.0	7.2	8.4	15.4	8.6
8분위	23.0	9.7	6.6	7.0	6.3	5.9	7.1	7.3	8.8	14.6	8.2
9분위	23.2	10.0	6.9	6.8	6.4	5.6	6.7	7.5	9.2	15.0	8.0
10분위	22.9	9.5	6.5	6.4	6.3	5.3	6.6	7.8	9.6	16.9	7.6
계	23.4	9.7	7.0	7.0	6.8	6.2	7.6	8.2	9.7	15.4	8.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20] 소득 분위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비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4. 소득과 연령구간 의료 이용량과 진료비 비교

##### 가. 평균수준의 비교

13세까지는 수진자당 평균 외래 방문횟수가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낮고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이후 연령 구간에서는 반대의 방향으로 소득 1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입원건당 재원일수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소득 1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와 가장 높은 분위의 차이가 가장 큰 연령군은 40~60대였다.

&lt;표 6-56&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외래 방문횟수

(단위: 회/연간)

연령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소득											
1-2분위	25.7	12.8	9.0	8.4	11.8	14.2	20.1	25.5	33.9	36.4	19.8
3분위	26.2	12.4	8.1	7.8	10.7	12.0	16.9	21.6	29.8	32.9	17.8
4분위	27.1	12.5	7.9	7.8	10.3	11.4	16.3	21.2	29.0	31.7	17.5
5분위	27.5	12.9	7.7	7.7	10.4	11.4	16.0	20.9	27.6	31.5	17.4
6분위	28.7	13.5	7.6	8.0	10.2	11.4	15.8	20.3	27.0	31.3	17.4
7분위	28.9	13.8	7.8	7.9	10.2	11.3	15.9	20.2	27.4	30.9	17.4
8분위	28.9	13.8	7.9	7.8	10.0	11.2	15.7	20.1	27.5	31.4	17.4
9분위	28.1	13.8	8.1	7.7	9.9	11.1	15.3	19.7	28.4	31.8	17.4
10분위	26.9	13.2	8.4	7.8	10.2	11.0	14.7	18.7	27.5	31.9	17.0
계	27.6	13.2	8.1	7.9	10.4	11.7	16.3	20.9	28.7	32.2	17.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57&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입원건당 재원일수

(단위: 일)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4.4	4.9	5.9	6.0	6.9	9.4	10.2	10.1	9.6	11.8	7.9
3분위	4.5	4.8	5.3	5.2	5.7	6.5	7.3	7.3	7.5	10.7	6.5
4분위	4.5	4.3	5.0	4.9	5.3	5.9	6.5	6.6	7.3	11.1	6.1
5분위	4.4	4.2	4.9	4.7	5.0	5.5	6.4	6.4	6.8	11.3	6.0
6분위	4.3	4.2	4.8	4.5	4.8	5.2	6.0	6.1	6.6	11.7	5.8
7분위	4.1	4.0	4.8	4.4	4.5	5.0	5.8	6.0	6.9	12.2	5.8
8분위	4.2	3.9	4.6	4.2	4.4	4.8	5.6	5.8	7.2	12.1	5.7
9분위	4.0	3.8	4.4	4.1	4.1	4.4	5.2	5.5	7.2	12.4	5.5
10분위	3.7	3.5	4.1	4.1	3.9	4.0	4.6	4.8	6.1	11.9	5.1
계	4.2	4.2	4.9	4.7	5.0	5.6	6.4	6.5	7.2	11.7	6.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평균 외래 진료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 입원 진료비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두 경우 모두 노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lt;표 6-58&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외래 진료비(이용자기준)

(단위: 원/년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426,306	294,788	239,612	283,582	415,250	528,860	743,717	927,286	1,084,327	1,045,451	598,918
3분위	432,228	257,596	203,231	244,748	354,123	415,245	578,178	726,850	946,181	949,758	510,814
4분위	441,029	292,045	201,126	238,018	326,617	379,167	544,688	708,190	916,275	943,435	499,059
5분위	445,354	264,627	189,186	232,568	328,537	366,799	520,224	658,985	828,290	933,830	476,840
6분위	471,908	277,142	190,608	234,915	310,949	363,096	503,161	648,240	835,644	949,331	478,499
7분위	479,637	284,378	236,502	231,404	309,554	360,906	511,574	654,570	862,306	914,845	484,568
8분위	468,450	285,018	215,987	237,884	301,391	365,314	503,167	662,104	900,572	940,843	488,073
9분위	456,040	295,936	225,311	236,958	316,349	348,574	494,956	671,596	973,542	934,652	495,391
10분위	441,490	296,329	228,692	234,038	326,101	360,880	490,912	664,888	970,836	1,046,100	506,027
계	451,383	283,095	214,473	241,568	332,097	387,649	543,398	702,523	924,219	962,027	504,24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59&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평균 입원 진료비(이용자기준)

(단위: 원/연간)

연령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1,373,767	1,515,527	1,724,762	2,198,937	3,026,503	5,019,952	5,955,837	6,296,749	6,315,344	7,756,130	4,118,351
3분위	1,354,195	1,257,638	1,598,146	1,608,087	2,055,276	2,885,264	3,605,096	3,827,185	4,470,755	7,361,487	3,002,313
4분위	1,183,574	1,074,697	1,538,739	1,609,430	1,876,358	2,568,680	3,071,834	3,469,351	4,628,043	7,816,424	2,883,713
5분위	1,178,945	1,025,185	1,551,766	1,490,983	1,750,236	2,306,169	2,935,246	3,182,616	4,315,855	8,392,474	2,812,947
6분위	1,130,447	1,143,055	1,427,750	1,388,373	1,667,291	2,107,306	2,695,881	3,266,845	4,246,269	8,832,008	2,790,523
7분위	1,043,191	996,046	1,523,716	1,340,115	1,576,379	1,959,631	2,544,858	3,259,171	4,528,560	9,175,031	2,794,670
8분위	1,042,147	947,750	1,472,670	1,339,443	1,583,213	1,847,568	2,418,842	3,208,335	4,750,667	9,191,497	2,780,213
9분위	952,435	1,098,577	1,432,803	1,314,082	1,458,965	1,804,903	2,295,582	2,912,203	4,988,732	9,468,278	2,772,656
10분위	1,029,465	986,419	1,535,237	1,401,720	1,508,427	1,763,999	2,260,319	2,693,009	4,604,785	9,778,111	2,756,149
계	1,143,129	1,116,099	1,533,955	1,521,241	1,833,627	2,473,719	3,087,055	3,568,385	4,761,001	8,641,271	2,967,94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소득과 지역에 따른 연간 외래 방문횟수, 입원건당 재원일수, 외래와 입원 진료비 수준을 비교하면,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용량과 진료비 수준이 높았다.

&lt;표 6-60&gt;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외래 방문횟수(이용자기준)

(단위: 회)

지역 소득	시	군	구	계
1-2분위	22.5	25.3	21.8	23.2
3분위	17.1	19.1	16.5	17.5
4분위	15.6	17.4	15.4	16.1
5분위	15.3	16.4	15.2	15.6
6분위	15.0	15.6	14.7	15.1
7분위	14.7	15.2	14.4	14.8
8분위	14.0	14.6	13.9	14.1
9분위	13.5	14.3	13.4	13.7
10분위	13.2	14.5	13.3	13.7
계	15.7	16.9	15.4	16.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1&gt;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입원건당 재원일수(이용자기준)

(단위: 일)

소득 \ 지역	시	군	구	계
1-2분위	9.6	10.2	9.2	9.7
3분위	7.0	7.8	6.6	7.1
4분위	6.4	7.2	6.0	6.6
5분위	6.1	6.8	5.8	6.2
6분위	5.6	6.4	5.4	5.8
7분위	5.4	6.1	5.1	5.5
8분위	5.2	6.0	5.1	5.4
9분위	5.1	6.2	4.9	5.4
10분위	5.0	5.9	4.7	5.2
계	6.2	7.0	5.9	6.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2&gt;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외래 진료비(이용자기준)

(단위: 원)

소득 \ 지역	시	군	구	계
1-2분위	708,458	755,024	706,889	723,457
3분위	507,422	557,312	512,098	525,611
4분위	456,438	507,924	464,716	476,359
5분위	429,949	455,959	443,392	443,100
6분위	412,178	428,476	417,633	419,429
7분위	391,160	466,032	403,988	420,393
8분위	383,424	403,034	393,989	393,482
9분위	383,856	408,380	389,485	393,907
10분위	395,290	457,624	406,920	419,944
계	452,019	493,307	459,901	468,4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3&gt; 소득 분위별 지역 수진자당 연간 입원 진료비(이용자기준)

(단위: 원)

소득 \ 지역	시	군	구	계
1-2분위	5,467,232	5,645,487	5,845,867	5,652,862
3분위	3,282,894	3,625,617	3,497,613	3,468,708
4분위	2,864,800	3,283,665	3,094,939	3,081,135
5분위	2,718,264	2,818,943	2,894,046	2,810,418
6분위	2,332,916	2,680,770	2,530,481	2,514,722
7분위	2,139,291	2,427,297	2,335,979	2,300,856
8분위	2,122,480	2,419,400	2,286,592	2,276,157
9분위	2,211,352	2,609,241	2,310,379	2,376,991
10분위	2,387,411	2,790,856	2,507,675	2,561,981
계	2,836,293	3,144,586	3,033,730	3,004,8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나. 소득·연령별 진료비의 비교

소득과 연령별로 진료비의 구성비를 비교함으로써 서비스 영역별로 어떤 대상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환자와 중증질환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중증질환자 사이에서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와 입원 진료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외래와 입원 진료비,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구분했으며,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각 영역의 진료비 수준을 비교하였다.

### 1) 전체 환자

의료기관 전체에서 보면, 전체 진료비 중 외래서비스에 지출된 비중은 75세 이상 연령군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군이 최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낮았고 최고소득 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입원서비스에서는 최고소득 분위의 비중이 가장 낮고 최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서비스에 지출된 비중은 0~13세 연령군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군이 최고소득 분위에서 최저소득 분위보다 높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서비스에 지출된 비중은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10분위에서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진료비 중 공공의료기관에 지출된 비중은 모든 연령군이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았고 최고소득층에서 가장 낮았다.

<표 6-64>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전체	1-2분위	11,082	9,286	8,668	14,324	26,896	63,509	107,718	68,442	165,301	244,604	719,830
	3분위	10,685	7,394	6,921	12,191	17,926	31,535	49,986	33,331	60,960	54,918	285,849
	4분위	13,017	9,472	7,376	14,438	20,875	31,607	45,834	28,166	50,169	46,737	267,691
	5분위	13,519	7,727	6,502	15,035	21,204	27,652	44,433	27,611	43,666	38,615	245,963
	6분위	18,629	8,766	5,402	16,332	25,743	25,977	41,592	24,424	31,234	30,438	228,537
	7분위	21,043	10,199	6,226	15,612	30,296	27,329	38,948	20,756	24,693	26,891	221,993
	8분위	17,984	10,660	6,579	15,795	29,826	30,058	37,778	16,655	21,252	26,358	212,944
	9분위	13,725	10,316	7,250	15,991	27,667	30,687	41,073	12,980	18,934	31,049	209,672
	10분위	9,382	8,474	7,217	14,771	22,094	31,359	49,985	14,380	19,503	33,900	211,066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5,299	6,106	5,020	7,142	11,957	24,520	39,160	25,712	64,357	67,144	256,417
	3분위	5,214	4,933	4,017	6,837	9,341	15,891	23,875	16,277	29,177	15,792	131,355
	4분위	6,829	7,047	4,439	8,036	11,071	16,883	23,486	14,750	23,905	12,985	129,432
	5분위	7,027	5,750	3,906	8,680	11,790	15,576	23,299	14,960	21,500	9,736	122,225
	6분위	10,042	6,313	3,425	9,769	14,142	15,438	22,608	13,199	15,646	7,590	118,171
	7분위	12,004	7,675	4,168	9,671	17,274	16,653	22,093	11,366	12,090	5,936	118,929
	8분위	10,383	8,277	4,475	9,951	17,287	19,163	21,787	9,320	10,093	6,099	116,836
	9분위	8,304	7,852	5,106	10,411	17,069	19,672	24,717	7,662	8,947	6,687	116,427
	10분위	5,722	6,836	5,051	9,719	14,036	21,040	30,946	8,860	9,847	7,666	119,722
입원	1-2분위	5,782	3,180	3,648	7,182	14,939	38,990	68,558	42,730	100,944	177,460	463,412
	3분위	5,471	2,461	2,904	5,355	8,585	15,644	26,112	17,054	31,783	39,126	154,494
	4분위	6,188	2,425	2,937	6,402	9,804	14,724	22,348	13,416	26,264	33,751	138,259
	5분위	6,492	1,977	2,596	6,355	9,415	12,075	21,134	12,651	22,166	28,879	123,739
	6분위	8,587	2,453	1,977	6,563	11,601	10,539	18,984	11,225	15,588	22,848	110,366
	7분위	9,039	2,524	2,059	5,941	13,022	10,676	16,855	9,390	12,603	20,956	103,064
	8분위	7,600	2,383	2,104	5,844	12,539	10,895	15,991	7,334	11,159	20,258	96,108
	9분위	5,421	2,464	2,143	5,580	10,598	11,015	16,356	5,318	9,987	24,362	93,245
	10분위	3,660	1,638	2,166	5,052	8,058	10,319	19,039	5,521	9,656	26,235	91,3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5&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비 분율

(단위: %)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총합 (A)	1-2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래	1-2분위	47.8	65.8	57.9	49.9	44.5	38.6	36.4	37.6	38.9	27.5	35.6
	3분위	48.8	66.7	58.0	56.1	52.1	50.4	47.8	48.8	47.9	28.8	46.0
	4분위	52.5	74.4	60.2	55.7	53.0	53.4	51.2	52.4	47.6	27.8	48.4
	5분위	52.0	74.4	60.1	57.7	55.6	56.3	52.4	54.2	49.2	25.2	49.7
	6분위	53.9	72.0	63.4	59.8	54.9	59.4	54.4	54.0	50.1	24.9	51.7
	7분위	57.0	75.3	66.9	61.9	57.0	60.9	56.7	54.8	49.0	22.1	53.6
	8분위	57.7	77.6	68.0	63.0	58.0	63.8	57.7	56.0	47.5	23.1	54.9
	9분위	60.5	76.1	70.4	65.1	61.7	64.1	60.2	59.0	47.3	21.5	55.5
	10분위	61.0	80.7	70.0	65.8	63.5	67.1	61.9	61.6	50.5	22.6	56.7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입원	1-2분위	<b>52.2</b>	<b>34.2</b>	<b>42.1</b>	<b>50.1</b>	<b>55.5</b>	<b>61.4</b>	<b>63.6</b>	<b>62.4</b>	<b>61.1</b>	<b>72.5</b>	<b>64.4</b>
	3분위	51.2	33.3	42.0	43.9	47.9	49.6	52.2	51.2	52.1	71.2	54.0
	4분위	47.5	25.6	39.8	44.3	47.0	46.6	48.8	47.6	52.4	72.2	51.6
	5분위	48.0	25.6	39.9	42.3	44.4	43.7	47.6	45.8	50.8	74.8	50.3
	6분위	46.1	28.0	36.6	40.2	45.1	40.6	45.6	46.0	49.9	75.1	48.3
	7분위	43.0	24.7	33.1	38.1	43.0	39.1	43.3	45.2	51.0	77.9	46.4
	8분위	42.3	22.4	32.0	37.0	42.0	36.2	42.3	44.0	52.5	76.9	45.1
	9분위	39.5	23.9	29.6	34.9	38.3	35.9	39.8	41.0	52.7	78.5	44.5
	10분위	<b>39.0</b>	<b>19.3</b>	<b>30.0</b>	<b>34.2</b>	<b>36.5</b>	<b>32.9</b>	<b>38.1</b>	<b>38.4</b>	<b>49.5</b>	<b>77.4</b>	<b>43.3</b>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6&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435	986	510	1,196	2,037	5,288	8,221	4,927	10,402	8,292	42,294
	3분위	449	492	477	999	1,366	3,054	4,933	3,402	5,449	2,420	23,042
	4분위	524	755	528	1,117	1,600	3,273	4,522	3,021	4,785	2,357	22,483
	5분위	580	554	348	1,083	1,564	2,621	4,445	2,798	3,936	1,536	19,465
	6분위	1,034	705	425	1,270	1,820	2,743	4,357	2,564	3,152	1,472	19,541
	7분위	979	760	958	1,079	2,301	3,014	4,043	2,338	2,237	1,111	18,821
	8분위	877	915	807	1,604	2,346	3,923	4,040	2,090	2,238	1,251	20,091
	9분위	752	956	1,146	1,357	2,779	3,819	5,185	1,917	2,299	1,304	21,515
	10분위	651	978	1,041	1,760	2,892	5,126	8,263	2,863	3,163	2,081	28,817
입원	1-2분위	2,427	963	922	1,276	2,862	7,298	13,497	8,957	22,473	23,425	84,099
	3분위	2,166	785	947	1,109	2,205	4,432	7,753	5,512	10,097	6,597	41,603
	4분위	2,223	662	1,089	1,951	2,339	4,501	6,950	4,088	8,674	4,717	37,193
	5분위	2,757	527	918	1,500	2,040	3,707	6,685	4,132	6,835	3,873	32,971
	6분위	3,385	831	633	1,576	2,785	3,636	6,626	3,905	5,210	3,265	31,852
	7분위	3,573	811	606	1,508	3,189	3,505	5,523	3,591	3,711	2,659	28,676
	8분위	3,193	833	725	1,536	3,481	3,722	5,693	2,467	3,273	2,761	27,684
	9분위	2,140	973	863	1,720	3,003	4,233	6,303	2,235	3,022	3,088	27,579
	10분위	1,878	608	985	1,788	2,865	4,504	9,011	2,924	4,618	4,028	33,2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7&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

(단위: %)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3.9	10.6	5.9	8.4	7.6	8.3	7.6	7.2	6.3	3.4	5.9
	3분위	4.2	6.7	6.9	8.2	7.6	9.7	9.9	10.2	8.9	4.4	8.1
	4분위	4.0	8.0	7.2	7.7	7.7	10.4	9.9	10.7	9.5	5.0	8.4
	5분위	4.3	7.2	5.4	7.2	7.4	9.5	10.0	10.1	9.0	4.0	7.9
	6분위	5.5	8.0	7.9	7.8	7.1	10.6	10.5	10.5	10.1	4.8	8.6
	7분위	4.7	7.5	15.4	6.9	7.6	11.0	10.4	11.3	9.1	4.1	8.5
	8분위	4.9	8.6	12.3	10.2	7.9	13.1	10.7	12.5	10.5	4.7	9.4
	9분위	5.5	9.3	15.8	8.5	10.0	12.4	12.6	14.8	12.1	4.2	10.3
	10분위	6.9	11.5	14.4	11.9	13.1	16.3	16.5	19.9	16.2	6.1	13.7
입원	1-2분위	21.9	10.4	10.6	8.9	10.6	11.5	12.5	13.1	13.6	9.6	11.7
	3분위	20.3	10.6	13.7	9.1	12.3	14.1	15.5	16.5	16.6	12.0	14.6
	4분위	17.1	7.0	14.8	13.5	11.2	14.2	15.2	14.5	17.3	10.1	13.9
	5분위	20.4	6.8	14.1	10.0	9.6	13.4	15.0	15.0	15.7	10.0	13.4
	6분위	18.2	9.5	11.7	9.6	10.8	14.0	15.9	16.0	16.7	10.7	13.9
	7분위	17.0	8.0	9.7	9.7	10.5	12.8	14.2	17.3	15.0	9.9	12.9
	8분위	17.8	7.8	11.0	9.7	11.7	12.4	15.1	14.8	15.4	10.5	13.0
	9분위	15.6	9.4	11.9	10.8	10.9	13.8	15.3	17.2	16.0	9.9	13.2
	10분위	20.0	7.2	13.6	12.1	13.0	14.4	18.0	20.3	23.7	11.9	1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8&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1,175	2,345	1,760	3,570	5,875	14,019	23,993	16,063	47,310	64,250	180,360
	3분위	1,192	1,098	1,172	2,117	3,014	5,959	9,726	7,321	17,019	12,455	61,073
	4분위	1,189	2,154	1,187	2,133	2,782	5,636	7,949	5,290	14,766	9,131	52,216
	5분위	1,103	1,281	873	2,622	3,130	4,402	7,927	5,833	10,905	6,591	44,668
	6분위	1,444	1,101	764	2,699	3,335	4,404	7,550	4,859	7,465	5,062	38,684
	7분위	1,652	1,384	1,242	2,089	3,171	3,734	5,620	4,569	6,088	4,174	33,723
	8분위	1,499	1,353	743	2,016	3,283	5,743	6,269	2,951	4,981	3,529	32,367
	9분위	1,274	1,318	853	2,669	3,526	5,476	9,169	3,620	3,701	4,668	36,274
	10분위	796	1,074	1,528	1,935	2,641	4,966	9,941	3,042	4,486	4,110	34,521
입원	1-2분위	175	87	223	324	608	2,132	3,990	2,312	5,951	11,783	27,586
	3분위	123	64	134	148	264	550	1,088	550	1,457	1,914	6,291
	4분위	161	53	66	211	284	469	745	336	1,065	1,685	5,075
	5분위	113	48	62	189	343	240	845	416	889	1,281	4,425
	6분위	162	44	54	170	305	261	604	422	569	934	3,523
	7분위	308	49	47	136	231	203	388	221	694	1,002	3,279
	8분위	134	47	54	156	263	188	385	167	480	1,274	3,147
	9분위	145	109	29	167	191	212	340	233	407	1,289	3,122
	10분위	40	33	70	87	103	145	374	190	328	1,367	2,73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69&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비율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10.6	25.3	20.3	24.9	21.8	22.1	22.3	23.5	28.6	26.3	25.1
	3분위	11.2	14.9	16.9	17.4	16.8	18.9	19.5	22.0	27.9	22.7	21.4
	4분위	9.1	22.7	16.1	14.8	13.3	17.8	17.3	18.8	29.4	19.5	19.5
	5분위	8.2	16.6	13.4	17.4	14.8	15.9	17.8	21.1	25.0	17.1	18.2
	6분위	7.8	12.6	14.1	16.5	13.0	17.0	18.2	19.9	23.9	16.6	16.9
	7분위	7.9	13.6	19.9	13.4	10.5	13.7	14.4	22.0	24.7	15.5	15.2
	8분위	8.3	12.7	11.3	12.8	11.0	19.1	16.6	17.7	23.4	13.4	15.2
	9분위	9.3	12.8	11.8	16.7	12.7	17.8	22.3	27.9	19.5	15.0	17.3
	10분위	8.5	12.7	21.2	13.1	12.0	15.8	19.9	21.2	23.0	12.1	16.4
입원	1-2분위	1.6	0.9	2.6	2.3	2.3	3.4	3.7	3.4	3.6	4.8	3.8
	3분위	1.2	0.9	1.9	1.2	1.5	1.7	2.2	1.7	2.4	3.5	2.2
	4분위	1.2	0.6	0.9	1.5	1.4	1.5	1.6	1.2	2.1	3.6	1.9
	5분위	0.8	0.6	0.9	1.3	1.6	0.9	1.9	1.5	2.0	3.3	1.8
	6분위	0.9	0.5	1.0	1.0	1.2	1.0	1.5	1.7	1.8	3.1	1.5
	7분위	1.5	0.5	0.8	0.9	0.8	0.7	1.0	1.1	2.8	3.7	1.5
	8분위	0.7	0.4	0.8	1.0	0.9	0.6	1.0	1.0	2.3	4.8	1.5
	9분위	1.1	1.1	0.4	1.0	0.7	0.7	0.8	1.8	2.2	4.2	1.5
	10분위	0.4	0.4	1.0	0.6	0.5	0.5	0.7	1.3	1.7	4.0	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2) 중증질환자(CCI≥2)

전체 환자에서 보였던 차이가 중증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하였다. 중증질환의 전체 진료비 중 외래 서비스에 지출된 비중은 소득 10분위가 가장 높고, 입원 진료비 비중은 소득 1분위가 가장 높은 경향은 동일하지만 최저와 최고 소득 분위 간 차이가 절반 가까이 좁아졌다.

&lt;표 6-70&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중증질환자, CCI≥2)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전체	1-2분위	1,394	1,481	2,028	3,834	11,780	48,043	91,080	62,038	155,732	236,375	613,787
	3분위	1,552	687	1,584	2,654	6,406	23,597	42,495	29,752	56,489	52,679	217,895
	4분위	1,118	992	1,405	3,538	6,917	22,900	38,141	24,944	46,334	44,775	191,064
	5분위	1,073	659	1,100	3,099	6,428	19,850	36,668	24,006	40,151	37,154	170,190
	6분위	1,576	919	1,036	3,227	7,181	18,415	33,863	21,257	28,599	29,376	145,449
	7분위	2,010	865	1,267	3,071	8,358	18,881	31,415	18,049	22,609	26,028	132,554
	8분위	1,346	756	1,073	2,621	8,085	20,629	30,031	14,434	19,675	25,479	124,129
	9분위	954	918	1,561	2,920	6,648	20,891	32,358	11,145	17,535	30,081	125,012
	10분위	1,007	725	1,148	2,719	5,535	20,992	39,004	12,331	18,006	33,122	134,590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267	472	728	1,625	4,653	18,340	32,398	22,888	59,000	62,413	202,784
	3분위	228	275	547	1,290	2,938	11,225	19,213	14,037	26,397	14,562	90,711
	4분위	303	538	521	1,532	3,136	11,564	18,654	12,595	21,439	11,973	82,256
	5분위	288	309	405	1,585	3,439	10,487	18,224	12,585	18,994	8,923	75,240
	6분위	328	382	380	1,664	3,745	10,373	17,510	11,047	13,779	7,011	66,217
	7분위	787	447	551	1,540	4,425	11,068	17,044	9,503	10,647	5,473	61,486
	8분위	398	440	409	1,365	4,215	12,513	16,511	7,806	9,042	5,648	58,347
	9분위	330	424	1,050	1,657	3,939	12,610	18,720	6,370	8,005	6,194	59,297
	10분위	238	390	529	1,407	3,233	13,528	22,952	7,323	8,808	7,191	65,601
입원	1-2분위	1,127	1,009	1,300	2,209	7,127	29,703	58,682	39,150	96,732	173,962	411,002
	3분위	1,324	412	1,037	1,365	3,468	12,372	23,282	15,715	30,092	38,117	127,183
	4분위	815	454	885	2,005	3,781	11,336	19,487	12,349	24,895	32,802	108,809
	5분위	785	350	695	1,514	2,989	9,363	18,444	11,421	21,157	28,231	94,950
	6분위	1,248	537	656	1,563	3,436	8,043	16,353	10,211	14,820	22,365	79,232
	7분위	1,223	418	716	1,531	3,934	7,813	14,371	8,546	11,962	20,555	71,069
	8분위	948	315	665	1,256	3,870	8,116	13,520	6,629	10,633	19,831	65,782
	9분위	625	494	511	1,263	2,710	8,281	13,638	4,775	9,530	23,887	65,715
	10분위	768	334	619	1,312	2,302	7,463	16,052	5,008	9,198	25,931	68,9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71&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중증질환자, CCI≥2)

(단위: %)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전체 (A)	1-2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분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래	1-2분위	19.1	31.9	35.9	42.4	39.5	38.2	35.6	36.9	37.9	26.4	33.0
	3분위	14.7	40.0	34.5	48.6	45.9	47.6	45.2	47.2	46.7	27.6	41.6
	4분위	27.1	54.2	37.1	43.3	45.3	50.5	48.9	50.5	46.3	26.7	43.1
	5분위	26.8	46.9	36.8	51.1	53.5	52.8	49.7	52.4	47.3	24.0	44.2
	6분위	20.8	41.5	36.6	51.6	52.2	56.3	51.7	52.0	48.2	23.9	45.5
	7분위	39.1	51.7	43.5	50.1	52.9	58.6	54.3	52.7	47.1	21.0	46.4
	8분위	29.6	58.3	38.1	52.1	52.1	60.7	55.0	54.1	46.0	22.2	47.0
	9분위	34.5	46.2	67.2	56.7	59.2	60.4	57.9	57.2	45.6	20.6	47.4
	10분위	23.7	53.9	46.1	51.7	58.4	64.4	58.8	59.4	48.9	21.7	48.7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입원	1-2분위	80.9	68.1	64.1	57.6	60.5	61.8	64.4	63.1	62.1	73.6	67.0
	3분위	85.3	60.0	65.5	51.4	54.1	52.4	54.8	52.8	53.3	72.4	58.4
	4분위	72.9	45.8	62.9	56.7	54.7	49.5	51.1	49.5	53.7	73.3	56.9
	5분위	73.2	53.1	63.2	48.9	46.5	47.2	50.3	47.6	52.7	76.0	55.8
	6분위	79.2	58.5	63.4	48.4	47.8	43.7	48.3	48.0	51.8	76.1	54.5
	7분위	60.9	48.3	56.5	49.9	47.1	41.4	45.7	47.3	52.9	79.0	53.6
	8분위	70.4	41.7	61.9	47.9	47.9	39.3	45.0	45.9	54.0	77.8	53.0
	9분위	65.5	53.8	32.8	43.3	40.8	39.6	42.1	42.8	54.4	79.4	52.6
	10분위	76.3	46.1	53.9	48.3	41.6	35.6	41.2	40.6	51.1	78.3	5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보다 최저/최고 소득 분위 간 차이가 약간 감소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 5세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군에서 2배에서 3배 이상의 비율 차이를 보이며 최고 소득 분위에서 외래서비스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서비스 진료비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이용에서보다 최저/최고 소득 분위 간 차이가 더욱 커지면서 최고 소득 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비중은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 모두에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표 6-72> 소득 분위별 연령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중증질환자, CCI≥2)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소득	영역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외래	117	147	174	641	1,289	4,774	7,359	4,736	10,060	8,059	37,356
3분위	외래	59	88	156	407	845	2,703	4,564	3,215	5,234	2,340	19,612
4분위	외래	106	183	120	521	919	2,841	4,192	2,833	4,585	2,295	18,595
5분위	외래	104	83	85	297	984	2,238	4,081	2,605	3,756	1,476	15,708
6분위	외래	87	168	128	530	1,031	2,352	3,916	2,399	2,996	1,402	15,008
7분위	외래	156	125	132	381	1,275	2,565	3,691	2,182	2,121	1,075	13,702
8분위	외래	140	145	126	413	1,238	3,387	3,602	1,954	2,158	1,208	14,372
9분위	외래	100	139	730	355	1,090	3,172	4,639	1,777	2,183	1,256	15,441
10분위	외래	95	154	158	491	1,270	4,224	7,196	2,578	2,951	2,007	21,125
1-2분위	입원	902	535	427	645	2,110	6,767	12,874	8,760	22,061	23,164	78,245
3분위	입원	822	241	503	424	1,447	3,992	7,373	5,259	9,804	6,461	36,325
4분위	입원	585	237	522	1,118	1,495	3,960	6,556	3,854	8,469	4,636	31,431
5분위	입원	590	118	401	635	1,112	3,310	6,335	3,964	6,669	3,789	26,922
6분위	입원	716	326	377	697	1,615	3,276	6,229	3,701	5,091	3,222	25,250
7분위	입원	567	270	322	707	1,716	3,021	5,173	3,446	3,600	2,612	21,433
8분위	입원	769	199	314	621	2,019	3,204	5,268	2,366	3,192	2,708	20,660
9분위	입원	390	324	325	630	1,303	3,678	5,800	2,117	2,936	3,011	20,514
10분위	입원	632	125	388	632	1,328	3,673	8,174	2,763	4,465	3,977	26,1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73&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중증질환자, CCI≥2)

(단위:%)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8.4	9.9	8.6	16.7	10.9	9.9	8.1	7.6	6.5	3.4	6.1
	3분위	3.8	12.8	9.9	15.3	13.2	11.5	10.7	10.8	9.3	4.4	9.0
	4분위	9.5	18.5	8.5	14.7	13.3	12.4	11.0	11.4	9.9	5.1	9.7
	5분위	9.7	12.6	7.7	9.6	15.3	11.3	11.1	10.9	9.4	4.0	9.2
	6분위	5.5	18.3	12.4	16.4	14.4	12.8	11.6	11.3	10.5	4.8	10.3
	7분위	7.7	14.4	10.4	12.4	15.3	13.6	11.7	12.1	9.4	4.1	10.3
	8분위	10.4	19.2	11.8	15.8	15.3	16.4	12.0	13.5	11.0	4.7	11.6
	9분위	10.5	15.1	46.8	12.1	16.4	15.2	14.3	15.9	12.5	4.2	12.4
	10분위	9.4	21.3	13.7	18.0	23.0	20.1	18.5	20.9	16.4	6.1	15.7
입원	1-2분위	64.7	36.1	21.0	16.8	17.9	14.1	14.1	14.1	14.2	9.8	12.7
	3분위	52.9	35.1	31.8	16.0	22.6	16.9	17.3	17.7	17.4	12.3	16.7
	4분위	52.3	23.9	37.1	31.6	21.6	17.3	17.2	15.5	18.3	10.4	16.5
	5분위	55.0	18.0	36.4	20.5	17.3	16.7	17.3	16.5	16.6	10.2	15.8
	6분위	45.4	35.5	36.4	21.6	22.5	17.8	18.4	17.4	17.8	11.0	17.4
	7분위	28.2	31.3	25.4	23.0	20.5	16.0	16.5	19.1	15.9	10.0	16.2
	8분위	57.2	26.3	29.2	23.7	25.0	15.5	17.5	16.4	16.2	10.6	16.6
	9분위	40.9	35.3	20.8	21.6	19.6	17.6	17.9	19.0	16.7	10.0	16.4
	10분위	62.8	17.2	33.8	23.2	24.0	17.5	21.0	22.4	24.8	12.0	1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lt;표 6-74&gt; 소득 분위별 연령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중증질환자, CCI≥2)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소득	영역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2분위	외래	77	243	334	906	2,400	10,448	19,623	14,202	41,837	55,649	145,719
3분위	외래	160	103	260	572	1,234	4,370	7,885	6,279	14,848	10,587	46,298
4분위	외래	125	136	188	610	984	4,018	6,310	4,440	13,266	7,956	38,032
5분위	외래	149	228	170	739	1,146	3,254	6,459	4,910	9,435	5,705	32,196
6분위	외래	147	122	164	771	1,295	3,262	6,165	4,147	6,446	4,418	26,936
7분위	외래	123	166	123	506	994	2,731	4,402	3,885	5,318	3,629	21,876
8분위	외래	215	171	139	522	1,069	4,183	4,849	2,466	4,364	3,031	21,009
9분위	외래	96	189	187	990	1,192	4,078	7,348	3,191	3,291	4,122	24,684
10분위	외래	75	183	151	556	1,033	3,690	8,064	2,682	4,196	3,748	24,377
1-2분위	입원	17	22	95	92	321	1,515	3,446	2,119	5,776	11,536	24,938
3분위	입원	16	5	20	54	109	421	978	484	1,396	1,887	5,369
4분위	입원	8	9	5	48	128	344	627	316	994	1,658	4,136
5분위	입원	5	7	10	42	107	201	784	368	840	1,259	3,623
6분위	입원	8	1	15	40	122	174	497	409	555	895	2,716
7분위	입원	126	8	11	54	53	142	308	203	691	964	2,560
8분위	입원	11	4	17	21	108	119	344	153	474	1,239	2,491
9분위	입원	24	36	8	20	56	158	281	200	397	1,263	2,442
10분위	입원	2	8	6	14	52	78	285	172	323	1,355	2,2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표 6-75> 소득 분위별 연령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A) 대비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중증질환자, CCI≥2)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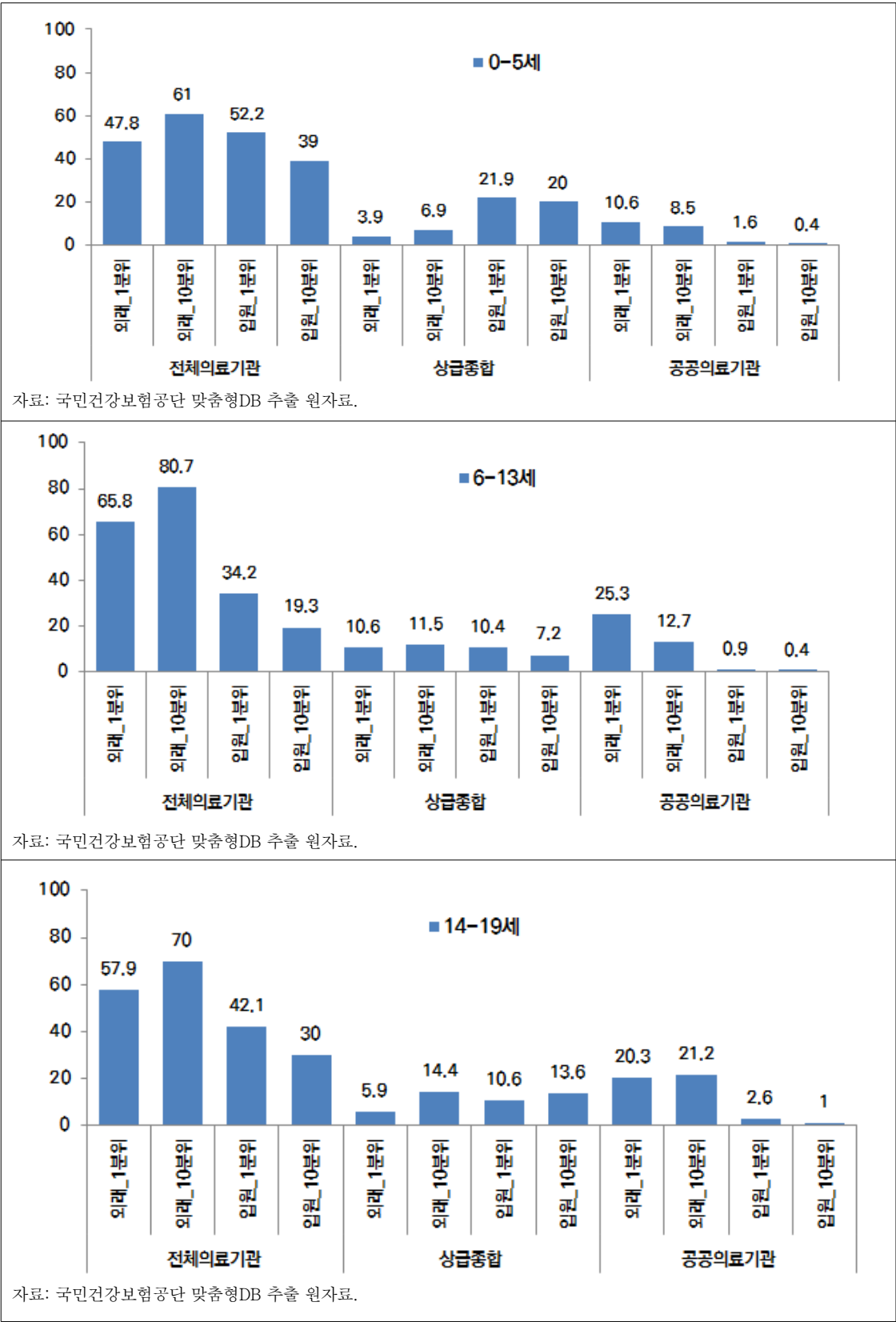
구분		연령										
영역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외래	1-2분위	5.5	16.4	16.5	23.6	20.4	21.7	21.5	22.9	26.9	23.5	23.7
	3분위	10.3	15.0	16.4	21.6	19.3	18.5	18.6	21.1	26.3	20.1	21.2
	4분위	11.2	13.7	13.4	17.3	14.2	17.5	16.5	17.8	28.6	17.8	19.9
	5분위	13.9	34.6	15.5	23.9	17.8	16.4	17.6	20.5	23.5	15.4	18.9
	6분위	9.3	13.2	15.8	23.9	18.0	17.7	18.2	19.5	22.5	15.0	18.5
	7분위	6.1	19.1	9.7	16.5	11.9	14.5	14.0	21.5	23.5	13.9	16.5
	8분위	16.0	22.6	12.9	19.9	13.2	20.3	16.1	17.1	22.2	11.9	16.9
	9분위	10.0	20.6	12.0	33.9	17.9	19.5	22.7	28.6	18.8	13.7	19.7
	10분위	7.4	25.3	13.1	20.4	18.7	17.6	20.7	21.8	23.3	11.3	18.1
입원	1-2분위	1.2	1.5	4.7	2.4	2.7	3.2	3.8	3.4	3.7	4.9	4.1
	3분위	1.0	0.7	1.3	2.0	1.7	1.8	2.3	1.6	2.5	3.6	2.5
	4분위	0.7	0.9	0.3	1.4	1.9	1.5	1.6	1.3	2.1	3.7	2.2
	5분위	0.5	1.0	1.0	1.4	1.7	1.0	2.1	1.5	2.1	3.4	2.1
	6분위	0.5	0.1	1.4	1.2	1.7	0.9	1.5	1.9	1.9	3.0	1.9
	7분위	6.3	0.9	0.9	1.8	0.6	0.8	1.0	1.1	3.1	3.7	1.9
	8분위	0.8	0.5	1.6	0.8	1.3	0.6	1.1	1.1	2.4	4.9	2.0
	9분위	2.5	4.0	0.5	0.7	0.8	0.8	0.9	1.8	2.3	4.2	2.0
	10분위	0.2	1.1	0.5	0.5	0.9	0.4	0.7	1.4	1.8	4.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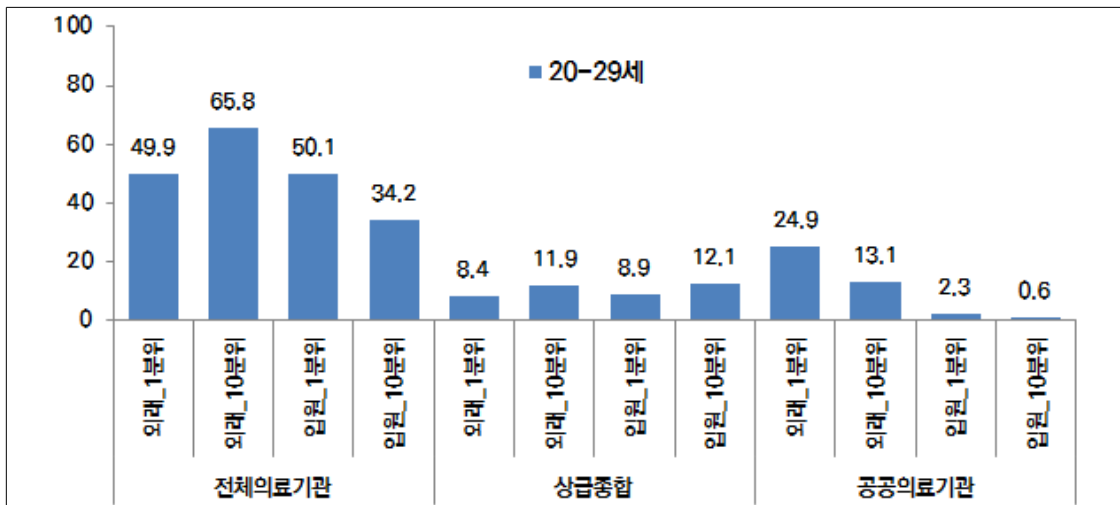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연령구간별로 구분해서 소득\*연령 분위별 진료비 점유율을 비교하면 소득 분위 간 차이의 방향과 크기가 연령 구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연령구간별로 분리하여 전체 의료비 대비 전체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의 외래와 입원서비스 이용에서 최저소득 분위와 최고소득 분위의 진료비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연령군이 외래서비스에서 최고소득 분위가, 입원서비스는 최저소득 분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대로 75세 이상 연령군은 외래에서 최저소득 분위가, 입원 서비스에서 최고소득 분위가 더 높은 반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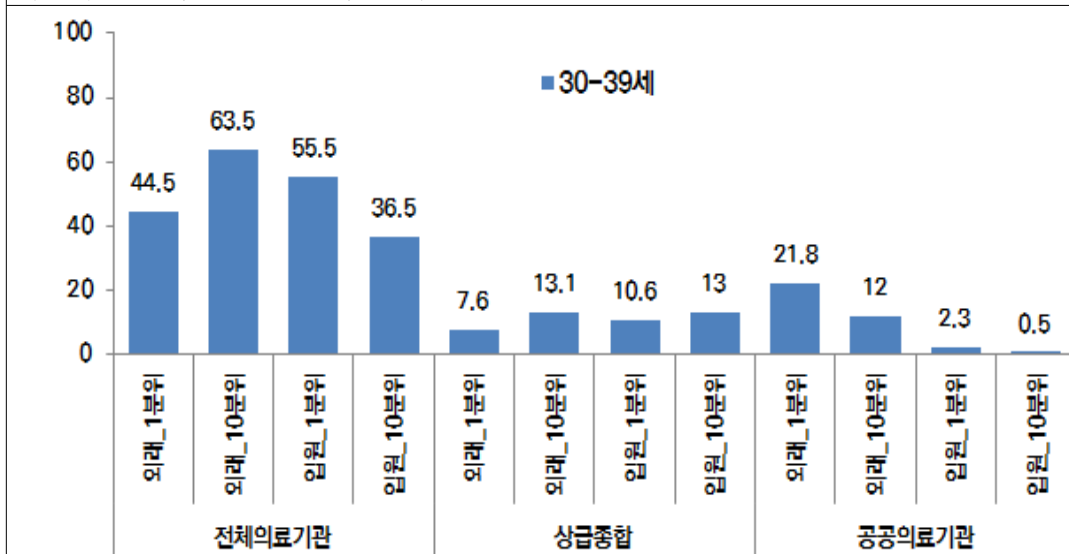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비교하면, 연령군이 증가하면서 외래와 입원서비스에서 최고소득 분위의 진료비 점유율이 더 높아졌다.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최저소득층인 최저소득 분위의 점유율이 더 높았다.

[그림 6-21] 소득과 연령 구간별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 대비 진료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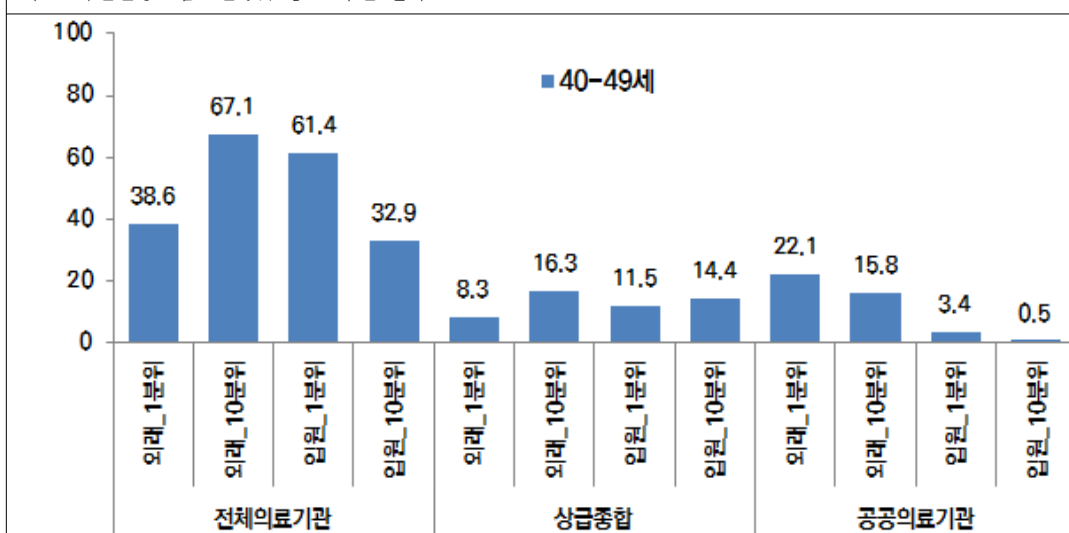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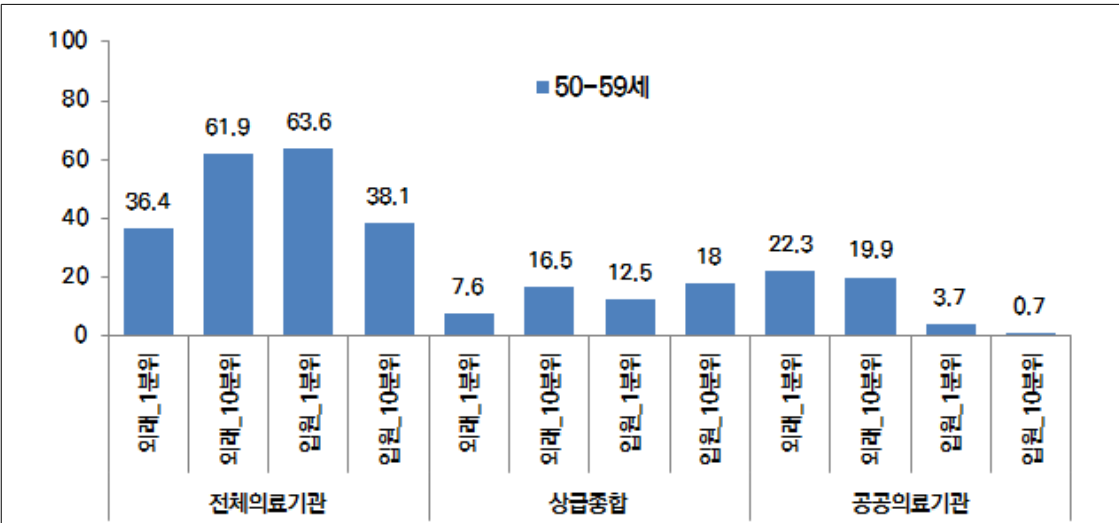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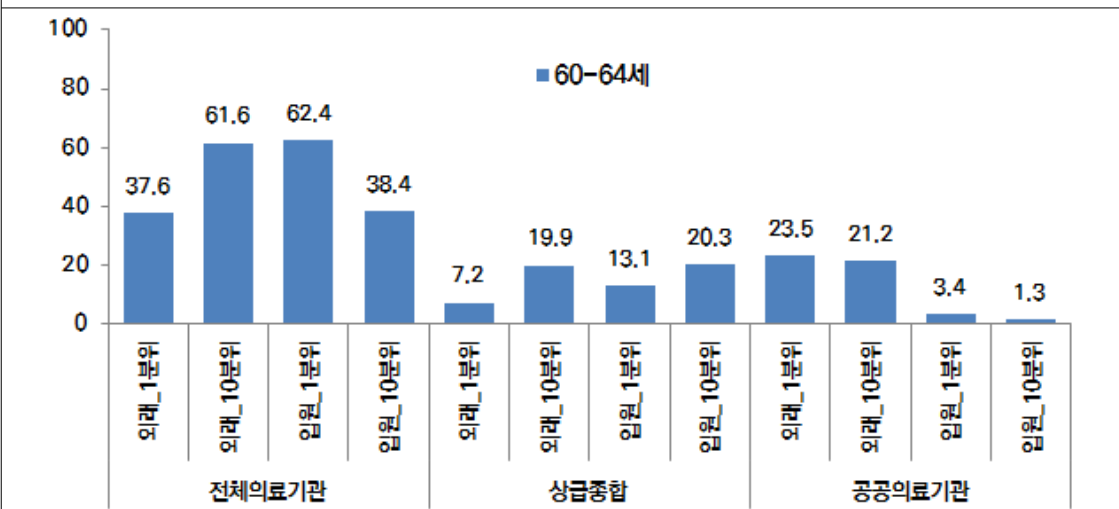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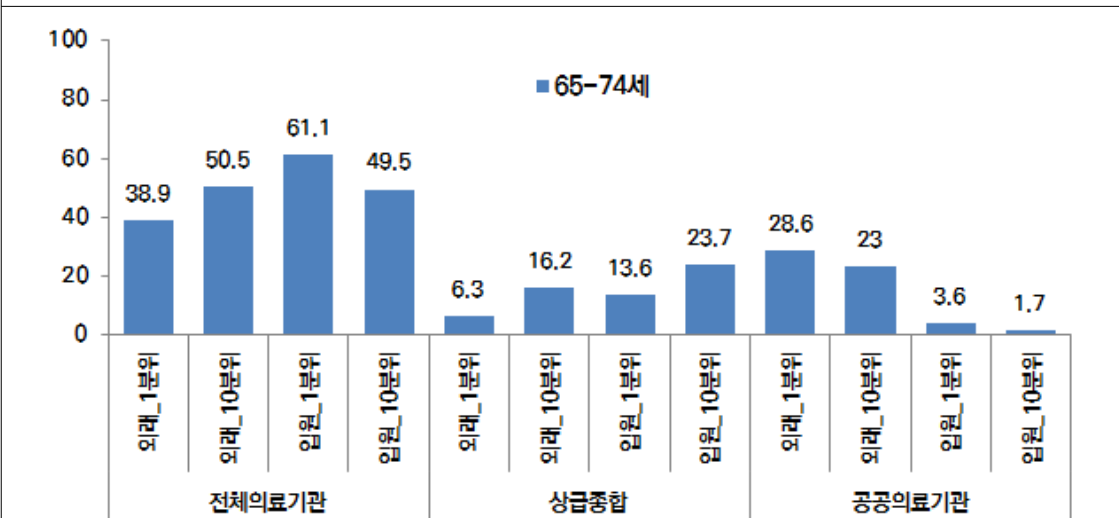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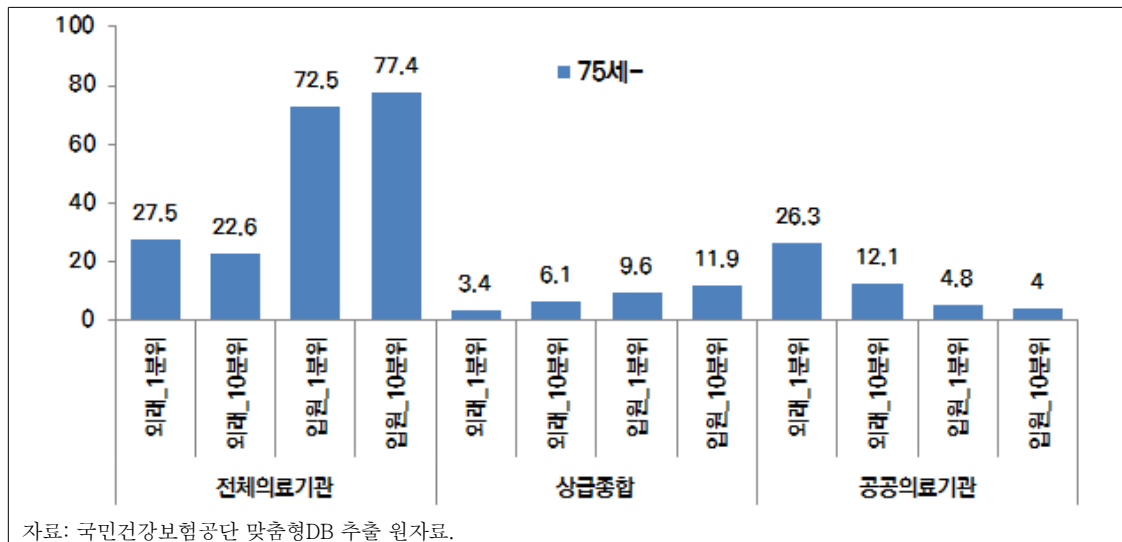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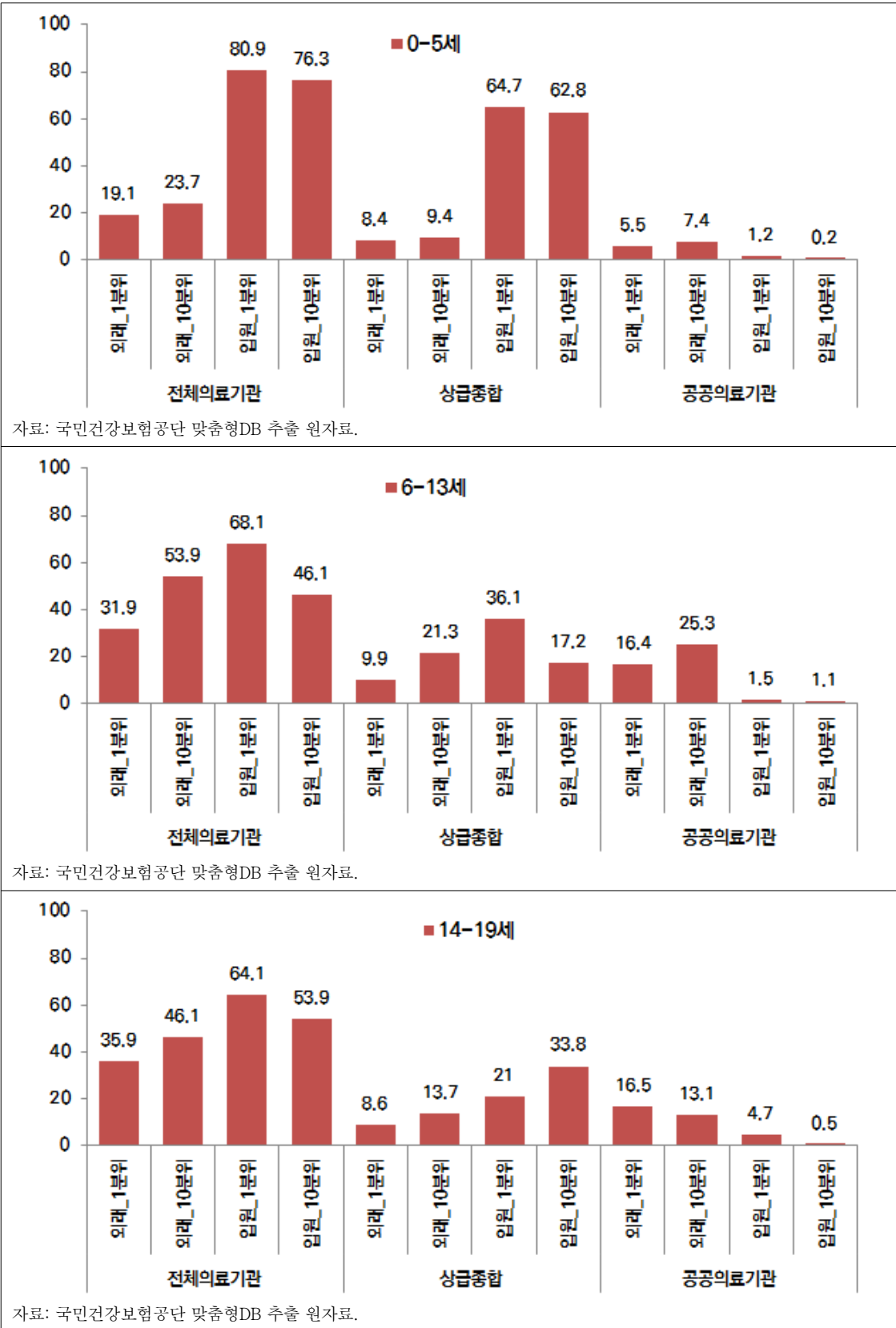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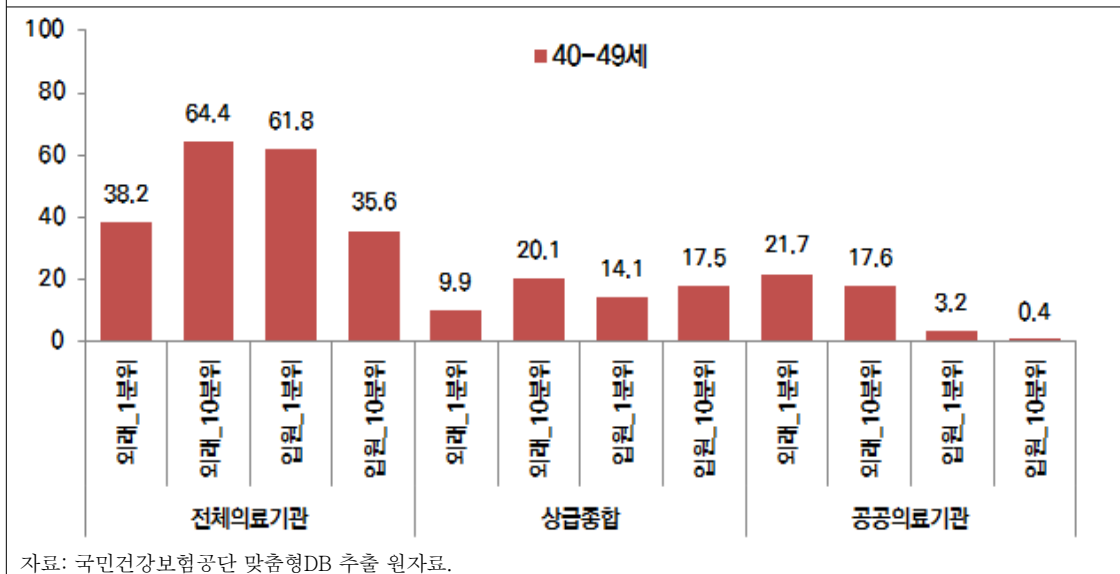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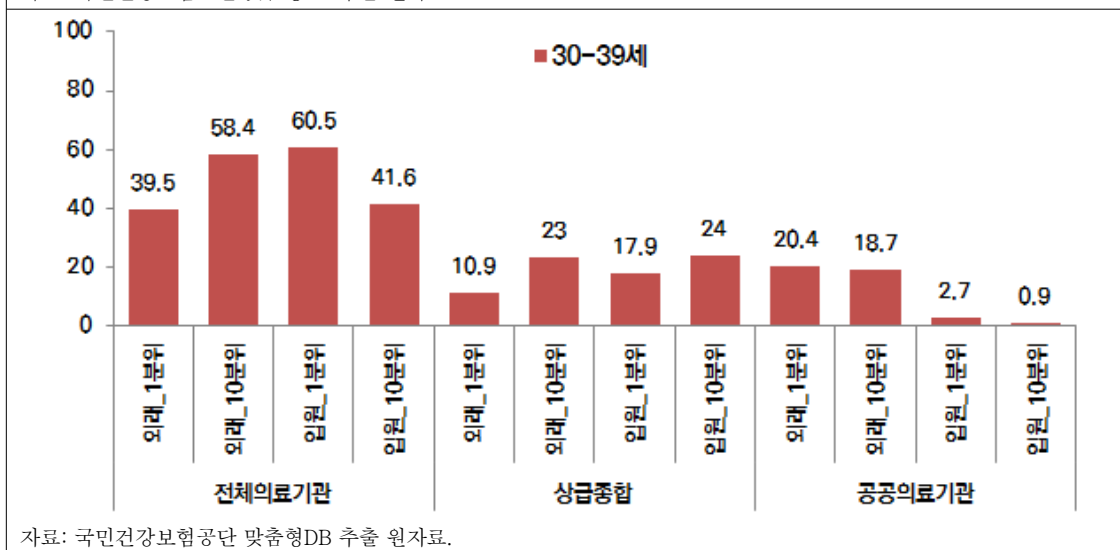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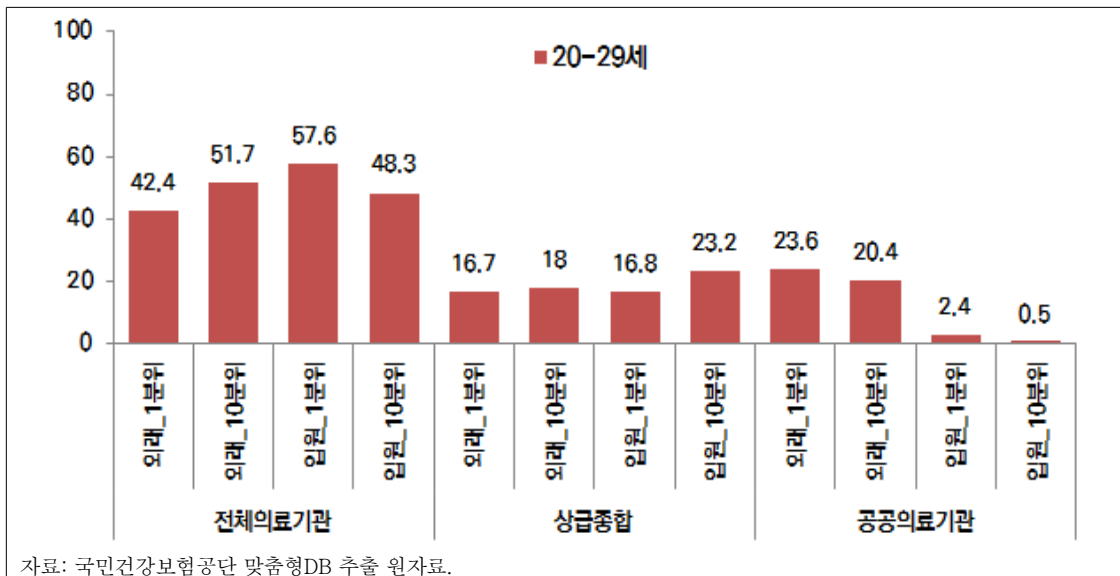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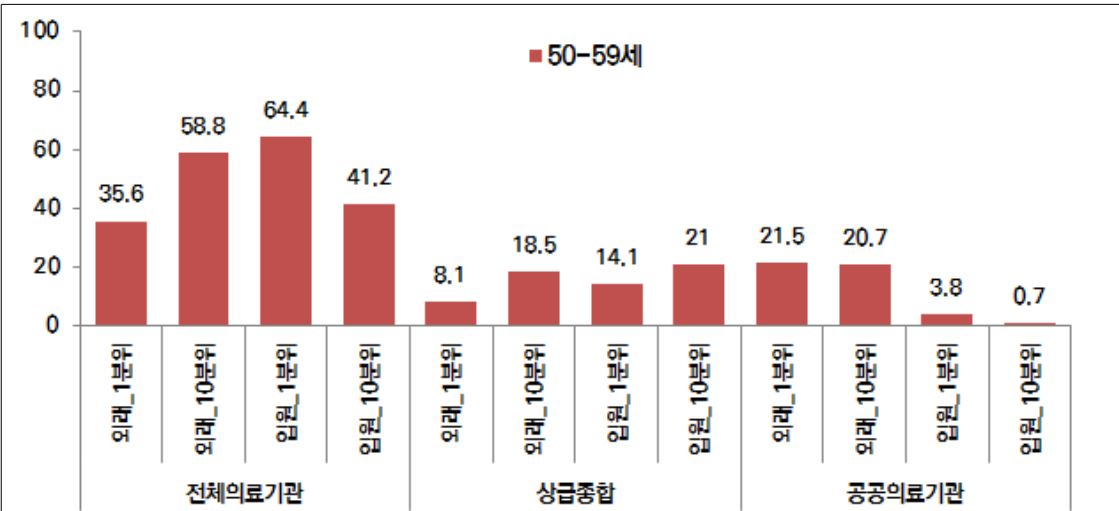
최저소득과 최고소득 분위의 진료비 점유율 비교를 CCI가 2이상인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좁혀서 비교하면, 전체 환자에서 보다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환자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환자 역시 외래서비스는 최고소득분위가, 입원서비스는 최저소득분위의 진료비 점유율이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비율이 5세미만 아동기와 청년기(20대)에는 최저/최고 소득 분위 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갈수록 외래와 입원 진료비 비율 모두 최고 소득 분위가 최저 소득 분위보다 높았다. 외래서비스는 최저소득 분위에 비해 최고소득 분위의 점유율이 모든 연령군에서 높았는데 연령군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졌다. 입원서비스에서는 0~13세 연령군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군에서 최고 소득분위가 더 높은 진료비 점유율을 보였으며 14~19세 연령군과 60대 연령군에서 그 차이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컸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에서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은 절대적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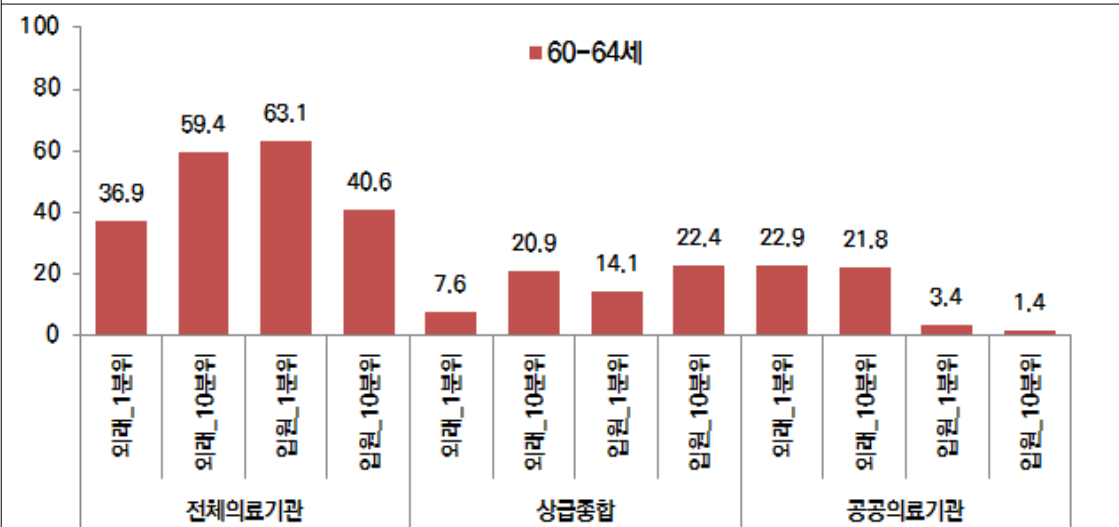
[그림 6-22] 소득과 연령 구간별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 대비 진료비 점유율(% , CC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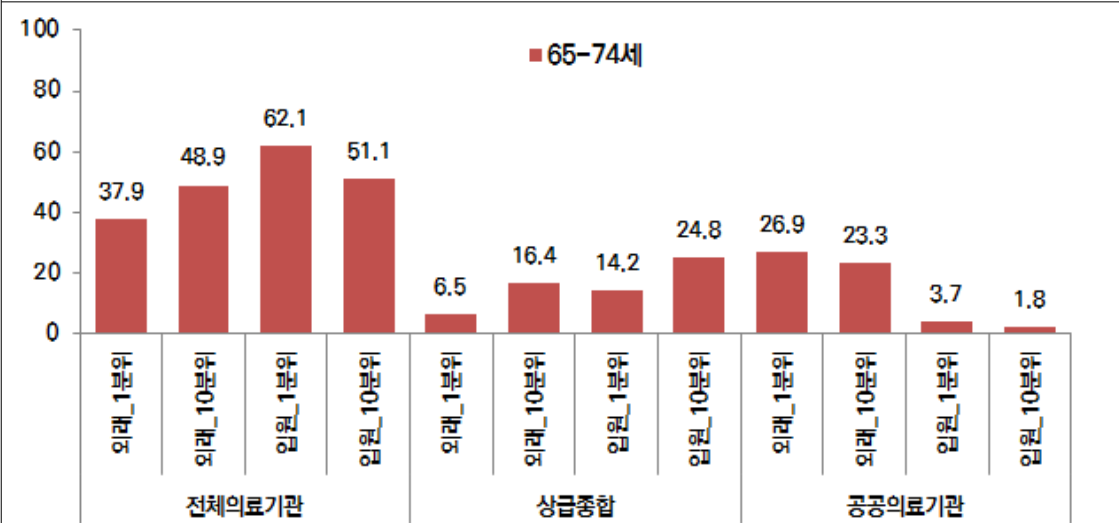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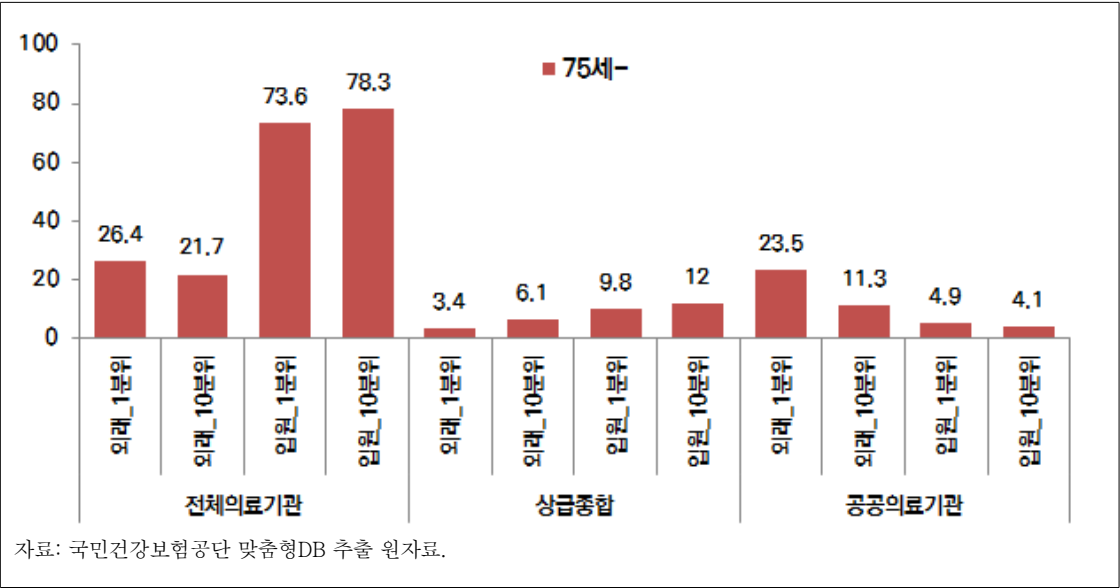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5. 가구 단위 과부담 의료비 발생 위험 비교

가구의 소득\*재산 분위별 연간 의료기관 총 진료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재산 수준에서는 소득이 같을 경우 소득 1분위(최저)가 소득 10분위(최고)보다 지출한 진료비 수준이 낮지만, 재산이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출한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았다.

<표 6-76> 가구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당 연간 의료기관 총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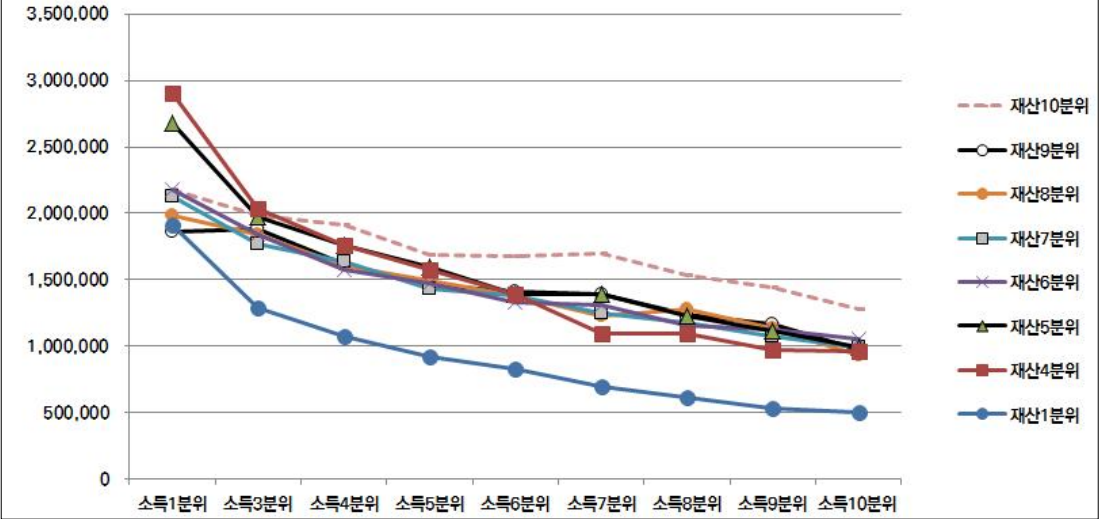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재산 \ 소득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191	291	268	218	213	198	186	218	223
3분위	129	203	197	185	177	184	188	198	183
4분위	108	176	176	158	164	161	162	191	162
5분위	93	157	160	147	144	149	146	169	146
6분위	83	140	139	133	138	138	141	168	135
7분위	70	109	139	131	125	123	139	170	126
8분위	61	110	123	116	118	128	124	153	117
9분위	54	98	112	113	108	114	116	145	107
10분위	50	96	100	106	99	93	98	128	96
계	93	153	157	145	143	143	145	171	1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그림 6-2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가구당 연간 의료기관 총진료비

(단위: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한으로 가구당 균등화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기관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비율로 과부담 의료비 가구 비율을 추산 해 보았다. 역치 수준을 10%에서 40%까지 달리하여 과부담 의료비 가구를 정의하고 소득과 연령 구간별 표본 인구 기준 과부담 의료비 가구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정보의 제한으로 정확한 과부담의료비 산출이 어려우나 분위별 발생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각 역치 수준에 따라 전체 평균 가구 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소득과 연령 구간에 음영을 표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과부담 의료비에 취약한 집단을 파악할 수 있다. 1분위, 3분위, 4분위의 일부 장년 및 75세 이상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 위험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t;표 6-77&gt; 역치 수준에 따른 소득 분위별 연령별 과부담의료비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연령										
역치	소득	0-5세	6-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	계
10%이상	1-2분위	3.3	2.2	1.1	3.6	8.0	4.1	3.7	7.7	15.0	18.6	10.2
	3분위		12.5	8.5	14.6	24.3	20.7	22.2	23.2	23.8	30.0	22.9
	4분위				4.9	9.2	9.5	12.5	12.7	13.5	20.7	11.6
	5분위				1.2	3.4	3.8	5.2	5.1	6.1	12.1	4.8
	6분위			1.8	0.5	1.2	1.8	2.4	2.6	3.5	7.0	2.1
	7분위				0.2	0.6	1.1	1.3	1.4	2.1	5.3	1.1
	8분위				0.1	0.3	0.6	0.9	0.9	1.1	3.8	0.6
	9분위				0.0	0.1	0.4	0.7	0.6	0.9	2.1	0.4
	10분위				0.0	0.0	0.1	0.2	0.2	0.2	0.6	0.2
	계	2.8	2.6	1.9	2.1	3.7	4.1	5.1	7.2	11.6	18.2	6.4
20%이상	1-2분위	3.3	0.7	0.8	2.8	6.3	3.2	2.9	5.7	11.2	14.4	7.8
	3분위		12.5	6.2	10.2	17.1	15.2	17.5	16.7	15.2	21.5	16.5
	4분위				1.4	2.7	3.5	5.3	5.2	5.2	10.4	4.6
	5분위				0.4	0.8	1.2	1.6	1.6	1.9	4.5	1.5
	6분위				0.1	0.3	0.6	0.7	0.8	0.8	2.7	0.6
	7분위				0.1	0.2	0.4	0.3	0.3	0.5	1.5	0.3
	8분위				0.0	0.1	0.2	0.3	0.2	0.2	1.1	0.2
	9분위					0.0	0.1	0.1	0.1	0.3	0.7	0.1
	10분위					0.0	0.0	0.0	0.0	0.0	0.1	0.0
	계	2.8	1.3	1.3	1.3	2.1	2.4	3.0	4.2	7.1	12.9	3.9
30%이상	1-2분위		0.7	0.3	2.1	5.2	2.6	2.3	4.4	8.4	11.2	6.1
	3분위			5.4	7.5	13.0	12.1	14.2	12.7	10.5	16.2	12.6
	4분위				0.6	1.3	1.8	2.8	2.8	2.7	5.9	2.4
	5분위				0.1	0.4	0.6	0.7	0.8	0.8	2.5	0.7
	6분위				0.1	0.2	0.3	0.3	0.3	0.3	1.2	0.3
	7분위				0.0	0.1	0.1	0.1	0.1	0.2	0.8	0.1
	8분위					0.0	0.0	0.1	0.0	0.0	0.3	0.0
	9분위					0.0	0.0	0.0	0.0		0.2	0.0
	10분위					0.0				0.0		0.0
	계		0.7	0.9	0.9	1.5	1.7	2.1	3.0	4.9	9.7	2.8
40%이상	1-2분위		0.7		1.7	4.2	2.2	2.0	3.5	6.5	8.9	4.8
	3분위			4.7	5.8	10.2	9.7	11.8	9.8	7.5	12.4	10.0
	4분위				0.3	0.7	1.1	1.6	1.6	1.6	3.8	1.4
	5분위				0.1	0.2	0.3	0.4	0.4	0.5	1.5	0.4
	6분위				0.0	0.1	0.1	0.1	0.1	0.1	0.8	0.1
	7분위					0.0	0.0	0.0	0.0	0.0	0.4	0.0
	8분위					0.0	0.0	0.0	0.0	0.0	0.1	0.0
	9분위							0.0			0.1	0.0
	10분위											
	계		0.7	0.6	0.7	1.2	1.3	1.7	2.2	3.6	7.5	2.2

주 1) 여기서 제시한 과부담 의료비는 표본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수준과 다를 수 있음. 가구 균등화 가처분 소득 대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래 및 입원 서비스의 본인부담액(처방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포함)을 적용한 비율이 10%에서 40%를 넘는 가구가 각 대상 집단별 표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함.

2) 공란은 발생한 가구가 없는 것이고 0.0%는 소숫점 2자리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 6. 소결 및 시사점

의료욕구 때문에 곤궁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단위에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제도 포괄하여 의료안전망이라 하며,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은 1차 건강보험, 2차 의료급여제도, 3차 긴급의료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신현웅 등, 2012).

보편적 보장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면서 의료안전망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질병발생에 따른 갑작스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는 것을 재정위험 보호를 하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의료보장성은 과부담 의료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부담 의료비는 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한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을 뜻하며,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신현웅 등, 2012).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 재정의 공평성(fairness in financial contribution) 지표 중 하나로 가처분 소득의 40%이상을 본인부담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강희정 외 2014:299). 저소득층의 재정위험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과부담 의료비 발생 위험에 있는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부담의료비를 가처분 소득의 40%이상으로 정의했을 때, 전반적으로 소득 3분위까지 발생이 확인되며, 75세 이상에서는 소득 4분위까지 발생이 확인된다. 그러나 표본 데이터의 정보의 한계로 분모인 가처분 소득에 본인부담 상한제, 실손 보험 등의 상환금, 공적 및 사적 이전 소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분자인 본인부담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반영되고 비급여 등 기타 기관에서의 본인부담이 제외되어 있어 과대와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위험 보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은 확인된다.

고소득층은 더 많은 외래서비스와 더 적은 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저소득층은 더 적은 외래서비스와 더 많은 입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이 적절한 외래관리를 통해 질병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갑작스런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더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응급실 이용자 현황에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아울러, 고가의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소득 격차가 우려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용자 현황, 의료 이용 실적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체 질환자에서 보다 중증 질환자 대상(CCI $\geq$ 2)에서 그 차이가 뚜렷해졌다. 반면, 공공 의료기관의 이용과 진료비 점유율은 노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서 확인된 소득계층 간 차이들이 5세미만 아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거의 없어져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제도 등 필수적 보장의 기능이 확인되는 결과라고 보인다.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노령 인구 집단에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노령인구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고소득층의 노인은 상급종합병원을 더 이용하는 소득분위별 의료 격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의료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작동과 적절한 시설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적절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제 7 장

## 종합 분석과 정책과제

제1절 소득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과 시사점

제2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 후속 연구의 과제



## 제1절 소득·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과 시사점

본 절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장에서 구체적인 제도 또는 제도군별 대상 포괄성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전반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을 통합,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 7-1>은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포괄성을 하나의 분석결과표로 정리한 것이다.<sup>27)</sup> 대상포괄성은 1개 이상의 제도를 수급하는지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에서 진하게 또는 음영으로 처리된 값은 평균 대상포괄성보다 높은 값들이다. 현금급여제도의 대상포괄성이 높은 집단은 해당 수급율을 진하게 표시하였고 서비스급여제도의 대상포괄성이 높은 집단은 해당 수급율을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진하게 또는 음영으로 처리된 집단 외 집단은 상대적으로 대상포괄성이 낮은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집단은 제도적 배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주연령별, 소득분위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포괄성이 상이하다. 소득보장은 아동가구주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대상포괄성이 높으며 대체로 전 소득분위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급율을 보인다. 서비스 보장은 30대 가구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빈곤층으로 한정하여 대상포괄성이 높다.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소득보장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다만 서비스보장이 대부분 기초육구에 대응하는 것이고 현금보다 자산기준의 엄밀성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원리를 지닌다고 할 때 서비스보장의 대상자 선정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제도 일부가 누락되어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서비스 지원의 자산조사 엄격성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20대 가구주 가구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대상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가구주 가구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제도 포괄성이 낮았다. 단지 소득 1-2

27) 분석에서 수급 여부를 파악한 제도는 아래와 같다.

현금급여	서비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자활장려금(기초), 자활장려금(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초중고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보훈급여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위에서 서비스보장의 포괄성이 조금 높았다. 40대 가구주 가구도 유사하였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서비스 보장에서 제도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득분위 상위분위에서도 제도 포괄성이 높았다. 보육서비스수급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아동가구주 가구는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에서 대체로 제도포괄성이 높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의 제도 포괄성이 전 소득분위에 걸쳐서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은 전 소득구간을 포괄, 가구의 약 90% 수급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서비스 보장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도 포괄성이 높지 않았다. 서비스 보장은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낮은 소득분위에 한정하여 높았고, 75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에서만 소득 4분위까지 서비스 보장의 포괄성이 높았다.

<표 7-1> 소득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연령		0-5	6-13	14-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74	75-	계
소득	현금급여수급	46.67	41.61	44.30	9.72	11.69	19.06	25.53	50.34	93.44	93.30	54.09
	서비스수급	100.00	39.42	43.67	16.34	34.77	25.05	26.26	30.23	40.97	54.50	36.18
1-2분위	현금급여수급	100.00	50.00	37.21	5.37	6.69	11.29	10.66	51.06	92.04	87.03	37.20
	서비스수급	100.00	25.00	31.01	17.48	43.31	21.48	12.57	11.19	13.32	24.77	19.03
3분위	현금급여수급		60.00	17.72	2.17	3.83	6.29	6.53	51.74	89.70	79.45	28.12
	서비스수급		20.00	13.92	14.27	44.68	18.59	8.98	10.46	11.34	20.02	17.61
4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5.26	1.05	2.28	4.12	4.95	57.32	91.07	77.90	26.47
	서비스수급		0.00	2.63	12.03	44.50	16.21	7.21	7.96	8.02	18.29	15.62
5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1.75	0.44	0.63	1.01	3.32	58.33	89.33	72.32	19.03
	서비스수급		0.00	0.00	9.60	49.75	16.69	5.35	6.34	7.24	16.95	17.33
6분위	현금급여수급	100.00		4.88	0.11	0.42	0.49	2.52	58.11	87.73	67.36	13.52
	서비스수급	100.00		2.44	6.10	49.49	18.46	4.67	6.40	7.81	15.85	19.49
7분위	현금급여수급			4.35	0.14	0.32	0.36	2.06	57.41	87.81	64.10	10.22
	서비스수급			4.35	4.43	41.89	16.50	4.66	6.05	7.43	14.68	17.80
8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0.13	0.28	0.34	1.99	50.87	85.92	59.69	7.78
	서비스수급			0.00	3.35	36.13	14.62	4.36	6.55	7.90	13.99	15.36
9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0.20	0.18	0.25	1.64	36.33	86.19	51.90	8.41
	서비스수급			0.00	2.04	31.50	12.63	3.35	6.43	7.84	9.60	11.66
10분위	현금급여수급											
	서비스수급											
계	현금급여수급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서비스수급	100.00	37.25	32.54	9.23	41.71	17.78	9.30	12.30	20.28	41.26	20.6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전체적으로 서비스보장의 소득기준 엄격성이 낮은 수준의 제도 포괄성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보장 포괄성은 전체적으로 낮아서 근로연령가구주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의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1-2분위에서도 소득보장의 대상포괄성이 매우 낮았다.

재산 분위별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제도의 포괄성을 분석한 결과도 소득분위별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소득 분위별 서비스 보장 포괄성과 비교하여 재산 6분위 정도까지 서비스보장 포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산의 서비스보장에 대한 영향은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히려 40-50대 가구주 가구에서는 재산하위 분위에서도 소득, 서비스 보장의

대상 포괄성이 더 낮았다.

<표 7-2> 재산 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재산		연령	0-5	6-13	14-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74	75-	계
1-3분위	현금급여수급		<b>54.29</b>	<b>41.78</b>	<b>33.75</b>	2.43	4.01	11.41	15.40	<b>43.66</b>	<b>93.86</b>	<b>94.91</b>	24.40
	서비스수급		100.00	36.99	31.78	7.92	32.35	19.83	16.23	21.87	40.69	63.41	25.11
4분위	현금급여수급		<b>100.00</b>	100.00	<b>33.33</b>	2.94	3.57	9.02	15.09	<b>46.55</b>	<b>94.96</b>	<b>97.21</b>	46.26
	서비스수급		100.00	0.00	33.33	17.19	41.58	21.95	18.03	21.18	38.08	59.02	33.39
5분위	현금급여수급			<b>100.00</b>	<b>66.67</b>	1.55	1.77	3.90	7.36	<b>49.09</b>	<b>95.16</b>	<b>96.77</b>	34.85
	서비스수급			100.00	66.67	16.75	48.57	19.49	11.29	14.62	25.38	46.56	24.85
6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b>50.00</b>	0.64	0.72	1.28	3.08	<b>53.72</b>	<b>94.01</b>	<b>96.16</b>	23.71
	서비스수급			100.00	50.00	23.21	56.22	17.89	6.40	8.71	12.79	27.68	20.89
7분위	현금급여수급				<b>33.33</b>	0.51	0.40	0.65	2.79	<b>57.75</b>	<b>93.42</b>	<b>93.04</b>	20.21
	서비스수급				33.33	17.69	56.11	16.49	5.33	7.95	9.02	19.91	19.54
8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b>40.00</b>	0.22	0.33	0.47	2.87	<b>59.17</b>	<b>91.26</b>	<b>86.41</b>	20.98
	서비스수급			0.00	40.00	11.22	50.25	15.84	4.77	7.07	8.56	17.52	16.43
9분위	현금급여수급			0.00	0.00	0.39	0.29	0.43	3.06	<b>58.91</b>	<b>87.10</b>	<b>72.86</b>	24.19
	서비스수급			0.00	0.00	8.22	45.70	15.15	4.61	6.99	8.03	15.28	13.37
10분위	현금급여수급				25.00	0.78	0.31	0.29	2.71	<b>57.37</b>	<b>83.22</b>	<b>51.93</b>	34.40
	서비스수급				50.00	6.88	40.92	13.96	4.34	6.72	7.47	12.39	9.79
계	현금급여수급		55.56	41.83	34.32	2.18	2.36	4.87	7.36	52.66	91.01	87.14	25.92
	서비스수급		100.00	37.25	32.54	9.23	41.71	17.78	9.30	12.30	20.28	41.26	20.6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포괄성을 소득 분위, 재산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선 소득보장의 경우 하위 소득구간에서 대상 포괄성이 높으나 소득과 재산 분위기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는 재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좀 더 높은 소득 분위까지 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높아진다. 반면 서비스보장의 포괄성은 상이하여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위에서, 그리고 소득과 재산 중간 분위에서 서비스 포괄성이 높았다. 소득이 높은 분위는 소득과 서비스 보장에서 모두 포괄성이 낮았지만 재산이 높은 분위에서는 소득보장 포괄성은 낮지 않아서 소득 8분위까지도 현금급여제도의 대상 포괄성이 평균보다 높았다. 종합하여 볼 때 재산보다 소득에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수급률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금급여수급은 재산 분위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듯 하고 단지 재산 7, 8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았다. 서비스보장은 재산 분위, 8분위 이하까지 비교적 높은 포괄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분위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분위까지만 소득보장, 서비스보장의 포괄성이 높게 유지된다. 소득 4,5분위, 재산 1-3분위의 경우 젊은 근로활동가구주 가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 1-3분위, 재산 6,7분위의 경우 서비스보장에서 수급률이 낮는데 근로활동이 어렵고 그래서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기준으로 서비스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위험집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제도별 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중 시장에서 구입이 쉽지 않거나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비용부담이 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일부부담을 전제하더라도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3> 소득 분위별 재산 분위별 현금급여 수급가구 비율 및 서비스 수급가구 비율

(단위: %)

소득 \ 재산		1-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1-2분위	현금급여수급	51.08	74.65	67.44	56.39	51.02	49.45	48.83	49.35	54.09
	서비스수급	42.66	52.89	40.72	24.03	16.74	13.18	10.69	8.77	36.18
3분위	현금급여수급	28.06	43.43	42.49	38.91	39.74	43.95	47.28	51.56	37.20
	서비스수급	24.27	26.94	21.88	17.93	14.09	13.05	10.58	8.49	19.03
4분위	현금급여수급	19.56	35.35	31.16	27.64	27.57	31.52	36.68	48.06	28.12
	서비스수급	20.17	21.97	20.94	19.77	16.90	14.05	12.08	9.26	17.61
5분위	현금급여수급	17.27	32.50	27.75	25.77	27.39	31.72	36.94	45.51	26.47
	서비스수급	16.56	17.67	18.68	18.39	17.04	13.47	11.14	9.27	15.62
6분위	현금급여수급	9.67	22.38	19.63	17.59	19.32	24.61	29.60	42.49	19.03
	서비스수급	16.15	18.44	19.71	24.03	21.50	16.46	13.32	9.50	17.33
7분위	현금급여수급	5.42	15.28	14.15	11.76	12.36	16.60	23.35	37.27	13.52
	서비스수급	16.43	19.16	19.96	26.11	26.61	21.73	16.95	10.24	19.49
8분위	현금급여수급	3.20	10.92	10.82	9.13	8.43	10.69	15.49	32.34	10.22
	서비스수급	14.27	14.32	17.24	21.56	23.75	21.59	17.39	11.40	17.80
9분위	현금급여수급	2.05	6.26	7.19	6.71	5.97	6.43	9.88	24.03	7.78
	서비스수급	12.62	14.37	14.39	16.28	19.59	18.29	15.66	11.82	15.36
10분위	현금급여수급	1.73	6.36	5.02	4.57	4.00	3.80	5.68	19.28	8.41
	서비스수급	11.59	13.52	12.61	12.47	14.58	13.32	11.97	9.43	11.66
계	현금급여수급	24.40	46.26	34.85	23.71	20.21	20.98	24.19	34.40	25.92
	서비스수급	25.11	33.39	24.85	20.89	19.54	16.43	13.37	9.79	20.66

주 1) 공란은 유효값이 없는 경우이고, 0.00은 유효값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임.

2) 음영 혹은 진하게 표시된 칸은 전체 평균보다 수급률이 높거나 수급 개수가 많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 제2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 후속 연구의 과제

### 1.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 방향

본 연구는 행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보장제도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회보장제도를 주로 대상포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제도적 배제의 위험을 초점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함께 행정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분석자료 등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행정 빅데이터는 설문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정책 분석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행정 빅데이터의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자료가 조사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몇 개의 주요 제도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



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 등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 빅데이터는 매우 유용하다. 둘째, 행정빅데이터는 정확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행정 빅데이터는 특히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과 관련되어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정확성도 높다. 다만 아직 행정빅데이터에는 소득과 재산 중 일부 항목의 재산과 소득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적이전 소득이나 금융재산은 행정 빅데이터에서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행정 빅데이터는 표본의 규모가 커서 소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가능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우위를 점한다. 넷째, 행정 빅데이터는 횡단면자료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종단분석을 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행정 빅데이터는 조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예외이지만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는 사례가 많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가 설문조사로 마련된 자료라면 물론이고 집계자료의 마련이라 하여도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적지 않게 지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소진도 발생할 수 있다.

행정 빅데이터가 정책분석에서 갖는 가장 주요한 강점은 행정자료의 결합으로 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능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개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유지, 강화하되 개별정책의 역할을 조정, 정책혼합을 합리화하는 기초정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만 정책설계의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 자체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특정 제도의 변화에 따른 연관제도의 역할 변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전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 변화, 특정 욕구 영역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하여 시계열별로 파악하는 것도 정책 설계에서 중요하다. 행정 빅데이터는 기존 설문조사자료보다 이러한 분석에서 분석의 가능성과 분석의 범위 확장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점을 지닌다.

최근 사회적 변화가 빠르고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그리고 합리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정책의 기획에서는 개별 정책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보다 사회정책의 전체적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여지고 있다. 정책의 수가 증가하고 제도가 분화, 전문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종합적 이해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크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평가 및 개선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으로 규정(제20조 3호)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개선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일정 주기로 수행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기계획 수립과 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갖추는 것은 이후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긍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게 된다면 보다 합리적 설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

### 가. 법적 기반에 대한 검토

현재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과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하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관련 법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담은 기본법이다. 동 법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할 여지를 찾아볼 수 있다.

#### <참고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참고 2> 통계법

##### 제24조 4항 관련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3> 사회보장기본법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7.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참고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관련 법적 조항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해석은 항상 과제가 되고 있다.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제거한 상태의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상태로 행정빅데이터를 분석자료로 구성하는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개인식별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 빅데이터의 장점인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확매칭(exact matching)이므로 개인식별변수가 없이 이러한 자료 연결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기관에 따라 준비의 속도가 상이하다. 전문기관은 비식별조치 평가단 구성, 비식별조치 이행권고, 비식별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기업 간 정보 집합물 결합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비식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

양한 비식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한 바 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는가,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의 준비 등이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연구의 활용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자료의 정확성

행정 빅데이터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누락되어 있고 재산 중 금융재산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에는 세금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 규모가 크고 결과적으로 하위 소득 분위, 하위 재산 분위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자료의 분석에서 소득분위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한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과 행정자료의 소득이 상이하여 자료에서는 상위 소득 분위 가구로 구분된 가구가 행정상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는 이보다 하위 소득 분위일 가능성이 있고, 상위 소득 분위 중 일부 가구는 수급자로 구분될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재산 분위의 모호성도 이와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위험은 더 컸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재산 중 금융재산이 누락하여 재산분위별 분석과 결과 해석에서 큰 한계를 초래하였다.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분위와 재산 하위 분위기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를 연결하여 각종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 시 파악한 소득·재산 정보를 연결, 보완하여 하위 소득·재산 분위 구분의 정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누락된 사적이전소득과 금융재산,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에게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가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의 적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사회보장제도로 정보 수집의 범위를 넓힌다고 하여도 결국 이렇게 보완되는 소득·재산정보는 수급가구에 한정된 정보보완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보완이 소득과 재산분포에 어떠한 왜곡을 초래하는지는 본격적인 분석 전에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 빅데이터의 소득과 재산분위 구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대안은 소득이나 재산이 0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 정보가 누락된 가구 비율이 낮은 자료에서 소득과 재산의 추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활용하는 행정 빅데이터의 소득·재산을 추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정 가구에 한정된 왜곡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이지만 추정오차가 존재할 위험이 있어 역시 추정된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과 해석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의 정확성은 자료의 시차 문제와도 연관된다. 통상 정책평가 연구에서 자료의 기준 시점이 최

근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현재기준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시차를 가진다. 행정 빅데이터도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약 2년의 시차가 존재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시차를 줄일 수 있는지, 줄인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 3.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이슈

기타 중장기 행정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과정 공식화, 분석 편의성과 이와 관련된 분석환경, 그리고 결과 인출방식이 자주 거론되는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있다. 일부 연구, 특히 정부 수탁연구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직 충분하게 마련되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행정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고 비식별화 전문기관을 지정, 구체적 준비를 마련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그 목적을 감안하여 우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통계청, 그리고 대학 차원의 협의 조직(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등을 매개로 행정 빅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과 승인과정을 공식화하고 접근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미국 통계청 산하 연구자료 센터는 특정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방문 분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석에서의 불편함은 있으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은 공식화되어 보다 많은 연구자가 자료를 활용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행정 빅데이터의 분석 환경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행정 빅데이터의 경우 일부 자료는 일정 공간에서 분석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분석공간이 가깝지 않고 분석실 내 배정된 컴퓨터의 수도 제한되어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그 만큼 늘어난다. 한편 분석결과의 반출에서 행정 빅데이터의 경우 분석결과를 조직 내 담당자가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일정 시점 이후 분석결과를 전송받는 자료보호(Data Enclave)방식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분석 과정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작지만 분석결과의 유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받아 해석할 기회를 가졌다. 이 방식을 준수하는 자료반출방식으로는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바로 이후 분석 또는 재분석으로 이어가기 어려웠고, 분석 기간이 통상의 기간보다 2~3배 이상 길게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비식별화 이후에도 Data Enclave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를 하면서도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안을 마련해볼 일이다.

기타 이슈로 통계청의 설문조사에서 기준이 되는 가구와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의 가구는 다소 상

이한 기준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구주와 세대주의 차이이다. 통상 설문조사에서 가구주는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대주는 행정상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 세대주도 존재한다. 세대주와 가구주의 상이성으로 자료의 분석결과도 일부 달라지고 있으며 이 점은 해석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포괄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행정 빅데이터는 대체로 중앙정부의 정책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비중이 높아지면 중앙정부로 한정된 정책평가 연구가 갖는 한계도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분석이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되려면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보도 포괄하는 행정 빅데이터 구축을 미리 준비하여 둘 일이다.

- 강신욱, 임완섭, 정해식, 강병구, 박찬업, 이진범, 박형준, 이병재(2017). 사회보장제도 생계지원분야 기본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노대명, 이현주, 임완섭, 김현경, 권문일, 이병희, 우선희, 박형준(2015).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창현, 문순영(2012).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강혜규, 박수지, 양난주, 엄태영, 이정은(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무원연금공단(2017). 2016년 공무원연금통계연보.
-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국회예산정책처(2018).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 김동진, 김지은, 박은자, 신호성(2011).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은정, 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지, 장혜경, 최인희, 김소영, 선보영(2013).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태완, 김미곤, 김문길, 강성호, 김대철, 이서현(201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량 안태현 안종범 전영준(2009). 근로빈곤 대책연구 I.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이은혜, 원일(2007).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하남 외(2007).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직업능력개발원.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2018a).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b).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 사학연금공단(2017). 2016년 사학연금통계연보.
-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유진, 김미곤, 정은희, 권지성, 김광혁, 김은지, 조준용, 황정미, 이주미, 정희선 등(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류정희, 정은희, 강지원, 정희선, 김명중, 우명숙, 이원익, 조준용(2017).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욱, 백혜연, 김태은, 최요한(201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강은나, 이재량, 박성희, 김정근, 김태현, 이수옥, 최재성(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강혜규, 박능후, 원종욱, 이현주, 이승경, 김선미, 김계연, 양시현(2003).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이윤경, 최현수, 김태완, 이현주, 이소정, 손창균, 강성호, 권혁진, 이은진, 윤지은(2009).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무현 외(201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효과성 성과 평가. 고용노동부.

최성은, 우석진(2009). 보육 지원 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7.5). 2016 소득분배지표 보도자료.

통계청(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OECD/EU (2016), “The labour market impacts of ill-health”, in Health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430238>.

OECD (2018), Opportunities for All: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301665-en>.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년 10월 자료,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quastat/retrieveSociGuaStatIframePopup.do?pageIndex=1&dataClCrit=LC&dataClNo=2004&dataNo=2&searchCondition=1&searchKeyword=&pageUnit=10#>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DB 추출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원자료.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격접근 원자료.